

국립국어원 2012-01-17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390-01

지역 언어문화 축제 개최 보고서

연구 책임자: 이호승

제출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지역 언어문화 축제 개최”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연구 책임자: 이호승(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 책임자: 이호승

공동 연구원: 조항범

연구 보조원: 김경열

연구 보조원: 김미순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공동 연구원: 김희숙

공동 연구원: 황경수

연구 보조원: 윤정아

연구 보조원: 송대헌

차례

■ 충청북도 지역 언어문화 축제

I. 사업 개요	1
1. 사업 목표 및 필요성	1
2. 사업의 범위	2
3. 연구 방법	3
4. 추진 일정	4
5. 사업 결과	5
II. 사업 추진 방법 및 절차	6
1. 협력 체제 구축 및 자문회의 개최	6
2. 방언 자료 조사 및 자료집 제작	9
3. 행사 개발 및 홍보 전략 구축	10
4. 방언의 활용 방안 모색	14
5. 지역 언어문화 축제 모델 개발	15
III. 사업 추진 결과	16
1. 지자체와의 공고한 협력 체제 구축	16
2. 지역 방언에 대한 지역민들의 편견 해소	16
3. 지역 언어문화 축제 모델 제시	17
IV. 사업의 의의 및 기대 효과	18
1. 협력 체제 구축	18

2. 지역 언어문화 축제의 모범적 모형 제시	18
3. 방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개선	19
4. 방언의 확대 활성화 방안 모색	19
V. 애로 사항	20
1. 예산 관련	20
2. 협력 체제 구축 관련	20

■ 강릉 언어문화 축제

I. 사업 명	22
II. 사업 목적 및 필요성	22
1. 사업 목적	22
2. 사업의 필요성	22
III. 사업 개요	22
1. 사업 기간	23
2. 참여 기관	23
3. 주요 내용	23
IV. 평가	23

붙임: 언론 보도 자료	24
--------------------	----

■ 제주 서귀포 언어문화 축제

I. 사업 목적	29
II. 사업 개요	29
III. 추진 방법 및 절차	29
IV. 사업 추진 결과	30
V. 사업의 의의 및 기대 효과	30

■ 부록

1. 낭송 시	32
2. ‘울고 넘는 박달재’ 대본	36
3. ‘황소를 잃은 욕심쟁이’ 대본	63
4. 민요	72
5. 자료집	77
6. 전시 자료	119
7. 팸플릿 및 포스터	200

8. 제주어 연극 ‘가문장아기’ 대본	202
9. ‘명주가’ 대본	212

■ 충청북도 지역 언어문화 축제

I. 사업 개요

1. 사업 목표 및 필요성

- ◎ 충북방언은 옛 언어의 흔적을 잘 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이 사용하는 독특한 어휘나 표현에는 지역의 생활과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다.
또한 독특한 색깔을 가진 방언적 요소들은 국어사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 ◎ 이에 ‘2012년 충북 민속 문화의 해’ 행사의 취지에 맞는 충청 방언의 전승 및 보전을 위해 ‘지역 언어문화 축제’를 개최하였다.
동시에 주요 권역 두 곳(강릉과 서귀포)과 연계하여 소규모 지역 언어 문화 축제를 개최하였다.
- ◎ 그 결과 방언 관련 축제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언어문화 축제 모델을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

2. 사업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2012. 4. ~ 2012. 11. (8개월)

2) 공간적 범위

◎ 충청북도 청주(도청 소재지)

◎ 주요 권역 중 두 곳(제주도 서귀포, 강원도 강릉)

3) 내용적 범위

◎ 언어와 가장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는 문학작품을 접목하여 전시 자료를 만들고 공연을 기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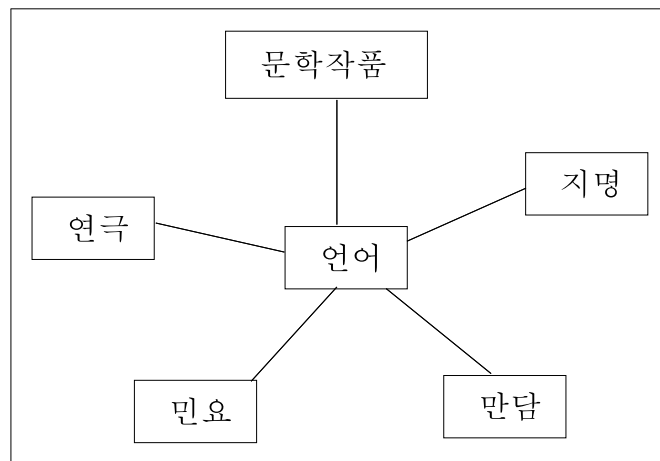
◎ 과거 충청 지역의 언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민요를 선정하여 공연하였다.

◎ 충청 지역의 언어로 대본을 각색하여 연극과 구연동화를 선보였다.

◎ 충북 지역의 언어가 그대로 살아 있는 모습을 선보이기 위해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만담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 과거 충청 지역의 언어가 그대로 살아 있는 지명을 조사하여 전시물로 만들고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사업의 범위를 정리하면 중복의 언어와 다양한 형식을 접목하여 기존의 형식에서 탈피하였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의 내용 및 형식적 범위>

3. 연구 방법

- ◎ 방언 자체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보다는 방언과 관련된 다른 분야에 확대하여 사업을 실시하였다.
- ◎ 방언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 마련으로 방언 사용에 대한 심리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흥겨운 축제를 통해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 ◎ ‘방언의 활성화 방안 및 지역 언어문화 축제의 모델 개발’이라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측면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진행하였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협력 체제 구축	⇒ 방언 활성화를 위한 자료집 제작	⇒ 행사 개발과 홍보	⇒ 타 사업(문화 콘텐츠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지역 언어문화 축제 모델 제시

4. 추진 일정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연구 일정

추진 시기	세부 사업 내용	비고
연중	- 언론 홍보(지역 신문, TV 등) - 국립국어원,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충청북도청, 주요 권역(강릉, 제주)의 행사 주관단체 등과 협력 체제 구축	
2012. 5.	- 방언 자료집 작성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자문회의 개최	
2012. 5. ~ 8.	- 홍보 포스터 제작 - 홍보 현수막 제작 및 설치 - 홍보 팸플릿 작성 및 배포 - 행사 기념품 제작 - 본 행사 개발과 공연팀 섭외 및 간담회 개최 - 전시 자료 선정 및 제작 - 체험 행사 선정 및 섭외 - 방언 홍보 표어를 위한 방언 나무 제작 - OX퀴즈 문제 출제 및 검토	
2012. 8.	- 행사 진행 상황 중간 점검	
2012. 9. 15.	- 지역 언어문화 축제 개최	

2012. 9. ~ 2012. 11.	- '지역 언어문화 축제'의 결과물 활용 방안 모색 - 사업 평가회의 및 결과 보고서 작성	
-------------------------	---	--

◎ 수행 전략

- 국립국어원, 지자체 및 지역 문화원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
- 방언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방언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충북 방언 관련 자료집을 제작·배포.
-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 개발과 홍보 전략을 구축.
- 타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방언을 문화 콘텐츠화할 수 있는 길 모색.
- 지역 언어문화 축제 모델 제시.

5. 사업 결과

- ◎ 국어문화원과 지자체 간의 공고한 협력 체제 구축
- ◎ 지역 방언에 대한 지역민들의 편견 해소
- ◎ 지역 언어문화 축제 모델 제시

Ⅱ. 사업 추진 방법 및 절차

1. 협력 체제 구축 및 자문회의 개최

1) 협력 체제의 구축

이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다. 이에 본 국어문화원에서는 국립국어원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자치단체 및 지역 문화원과 협력하여 전 도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지역의 국어문화원의 협조를 얻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사업은 국어문화원 혼자만의 힘으로는 버거운 것이 사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자치단체 및 각 지역 문화원과의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또한 도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였다.

본 과업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 언어문화 축제의 모범적인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했다. 이에 협력 체제 구축의 현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① 국어 전문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은 본 과업의 발주기관으로 과업 수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에 국립국어원과의 협력 체제 구축으로 법규 준수 및 지시서 해석 등을 정확하게 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 내용과 유기적인 연계 검토와 분석을 통해 일관성 있는 과업이 수행되도록 하였다. 더불어 발주 기관 요구하는 내용이 있을 때나, 의견이 상충될 때에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본 과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과 유기적

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②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

본 과업은 지역 언어문화 축제의 모범적 모델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 체제 구축이 중요하였다. 이에 충청북도청 및 각 산하기관, 자치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는 과업의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었다.

③ 지역 문화원과의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

본 과업이 지역민들의 축제로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 소수의 전문가 혹은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만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각 지역에 있는 문화원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다.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업무를 분담하여 실시하였다.

구분	업무(협조) 내용	비고(담당자)
국립국어원	○ 본 사업의 총 관리 및 감독	정희원(팀장)
	○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과 협조	박민규(담당자)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예산의 집행 및 정산	연운영
충북대학교	○ 본 사업의 진행	이호승(책임연구원)

국어문화원	○ 국립국어원,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자치단체, 지역 문화원과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조항범(공동연구원) 김경열(연구보조원) 김미순(연구보조원) 김희숙(공동연구원)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사업 주체인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과 긴밀한 협조	황경수(공동연구원) 윤정아(연구보조원) 송대헌(연구보조원)
자치단체	○ 지역민에게 홍보 및 사업 협조	담당 공무원
지역문화원	○ 지역민에게 홍보 및 사업 협조	담당자

2) 자문회의 개최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자문회의 결과는 크게 다섯 가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홍보 방안에 관한 내용이다. 방송 광고가 가장 큰 파급력을 가지나 사업비 측면에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학교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청주시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도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더불어 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만들기 위해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은 인사 및 지역 출신 연예인 등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둘째, 방언 자료집 제작에 관한 내용이다. 기존의 방언 관련 자료집은 단순하게 어휘를 나열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본 행사에서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예문을 많이 첨부하여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언어뿐만 아니라 지명 및 유래, 사진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첨부하였고 충청 지역의 방언과 다른 지역의 방언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행사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안건은 본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설정된 것으로 행사 후에도 지속적인 사업 연계

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참여하는 도민들이 지루하지 않게 관람할 수 있는 행사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자칫 방언이 희화화될 수 있는 문체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였다.

넷째, 행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본 국어문화원만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인식 하에 충청북도청 및 산하 자치단체, 교육청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최대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섯째, 기타 안건으로 행사의 명칭, 행사 운영 등 행사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2. 방언 자료 조사 및 자료집 제작

본 사업이 ‘지역 언어문화 축제’이므로 충북 지역의 방언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기본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자료집을 보면 학술 자료집이나 단순하게 어휘의 나열로 이루어진 자료집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사업에서는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거부감 없이 쉽게 볼 수 있는 자료집 제작을 위해 방언 자료를 조사하였다.

자료는 충북의 방언형이 가장 잘 살아 있다고 볼 수 있는 지명에서부터 문학 작품 속 충청 방언, 충청 지역 방언 조사 보고서, 충청 지역 토박이분들의 언어, 충청 지역에 전래되고 있는 민요 등 방언뿐만 아니라 언어와 관련이 있는 모든 분야에 걸쳐 조사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방언 자료집을 제작·배포하여 본 사업을 시행함에 앞서 방언에 대한 지역민들의 선입견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는 방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선입견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3. 행사 개발 및 홍보 전략 구축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먼저 기존에 개최되었던 방언 관련 축제 (전북방언대회(2008), 경북방언대회(2009), 제주방언대회(2007), 서울말 으뜸 사용자 선발대회(2009), 충청방언 경연대회(2010) 등)의 현황을 살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위에 제시한 방언 관련 축제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내용 면에서는 각 지역의 언어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에서 다를 뿐, 형식 면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대동소이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과업의 목표에 맞게 모범적인 지역 언어 문화 축제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행사는 ‘경연’이 아닌 지역민들을 위한 ‘공연’이 목적이다. 이에 크게 사전 공연, 본 행사, 야외 행사로 나누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① 사전 공연

사전 공연으로는 충북 지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씨알누리>의 공연을 선보였다. 본 연구가 ‘지역 언어문화 축제’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씨알누리의 공연은 우리 충북 지역의 문화를 잘 전승하고 있다. 이는 어찌 보면 방언 축제라고 하면 반드시 방언과 관련이 있는 것만을 고집하는 그동안의 행사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의식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② 본 행사

본 행사는 위에서 잠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가 ‘경연’이 아닌 ‘공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이에 본 행사는 ‘시 낭송, 민요, 만담, 단막극, 구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시 낭송>

충북을 대표하는 시인들의 작품 중 충북 방언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 충북 지역의 문인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기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작품 활동에서도 아름다운 충북 방언을 살려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지역민들의 자긍심 또한 높일 수 있는 기회였다.

<가사 낭송 및 민요>

충북의 낭성면에 위치한 ‘백석정’을 소재로 쓰여진 작품을 선정하여 가사를 낭송하고,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아리랑인 ‘청주아리랑’, 진천 지역의 ‘초평아리랑’, ‘방골 큰애기 소리’ 등을 불렀다.

<만담>

충북지역에서 말씀을 재미있게 잘하시는 어르신을 섭외하여 그들의 생활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였다. 이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충북방언에 친근하게 접근할 기회가 되었다. 또한 기존의 방언 경연 대회가 갖고 있었던 딱딱한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사람들이 방언에 대한 친근감을 가질 수 있었다.

<단막극>

충청북도와 관련이 있는 극(‘울고 넘는 박달재’)을 선보임으로써 방언에 친

근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는 방언에 좀 더 친근감 있게 다가설 수 있는 장점이 컸다고 할 수 있다.

<구연>

어린이들에게 동화나 충북지역의 전설 등을 충북방언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충북방언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방언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에게도 추억에 잠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위의 네 가지 본 행사 프로그램을 통해 추구하고자 한 것은 방언에 대한 선입견 해소와 방언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방언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었다.

③ 야외 행사

야외 행사는 크게 전시, 체험으로 나뉜다.

<전시 행사>

충북방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방언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는 전시물을 제작하여 게시하였다. 전시물은 충북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나 문장 등도 포함되고, 어휘는 분야별로 항목을 구분하여 제작하였다. 그리고 위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뿐만 아니라 충북의 지명, 문학 작품 속의 충청 언어 등 다양한 전시물을 전시하였다. 더불어 ‘2012 충북 민속 문화의 해’와 연계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축제 현황 등도 현수막을 이용해 전시하였다.

<체험 행사>

이는 현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다. 보통 방언 관련 행사라고 하면 조금은 딱딱하고, 전문가들만의 행사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없지 않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연스럽게 방언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체험 행사로는 ‘방언을 활용하여 예쁜 글씨 써 주기’, 충북 지역을 대표하는 ‘직지 서각 찍기’ 등 지역 언어문화와 관련된 행사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로 현장을 찾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현장을 찾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언 나무’를 제작하여 전시하였다. 이는 아름다운 충북 방언을 살리고 활성화할 수 있는 표어를 즉석에서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으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었다. 더불어 행사 마지막에 훌륭한 표어를 선정하여 시상도 하였다.

더불어 충북방언을 OX퀴즈로 진행하여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였다.

결국 체험 프로그램은 현장을 찾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듦으로써 방언에 대한 선입견 제거와 자긍심 부여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위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구분	공연 팀	내용
식전 행사	씨알누리	우리 충북 지역의 문화를 잘 전승하고 있는 씨알누리를 초청하여 공연을 하였다.
본 행사	시 낭송	충북을 대표하는 시인들의 작품 원본을 먼저 들려준 다음, 이를 충북 방언으로 개작하여 다시 들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가사 낭송 및 청주아리랑	충북 청원의 백석정을 소재로 한 가사를 낭송하고 충청북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청주아리랑’을 불러 보았다.

	단막극	충청북도와 관련이 있는 극(‘울고 넘는 박달재’)을 선보임으로써 방언에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는 방언에 좀 더 친근감 있게 다가설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	
	만담	충북 지역에서 말씀을 재미있게 잘하시는 어르신을 섭외하여 그들의 생활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가졌다.	
	구연	동화나 충북 지역의 전설 등의 이야기를 충북 방언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야 외 행 사	전 시	방언 자료 전시	충북 지역의 방언뿐만 아니라 그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다른 지역의 대표 방언을 함께 전시물을 제작하여 게시하였다.
	체 험	방언 나무	아름다운 충북 방언을 살리고 활성화할 수 있는 표어를 즉석에서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으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방언 활용 예쁜 글씨 써주기 등	‘방언을 활용하여 예쁜 글씨 써 주기’, 충북 지역을 대표하는 ‘직지 서각 찍기’ 등 지역 언어문화와 관련된 행사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로 현장을 찾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방언 OX 퀴즈	충북 방언을 OX퀴즈로 맞춰 보는 기회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4. 방언의 활용 방안 모색

이는 자칫 방언 관련 축제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한 방편으로 본 과업의 목표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본 행사의 결과물을 응용하여 다른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였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명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

등의 이름이 거의 외래어나 외국어로 되어 있어 지역민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역 언어라는 방언을 우리의 일상에서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인 동시에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 방언을 확대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5. 지역 언어문화 축제 모델 개발

이는 본 과업의 최종 목표이기도 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언 관련 축제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형식에 있어서 대동소이하고, 내용 면에서도 다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사업을 통해 충북 지역의 언어문화 축제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언어문화 축제에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과업의 최종 목표인 모범적인 방언 관련 축제의 형식을 개발하기 위해 위에서 개최한 행사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최종 자료집을 작성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Ⅲ. 사업 추진 결과

이번 사업의 목적은 방언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 전환과 ‘지역 언어문화 축제’의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있었다. 이에 이번 사업에서는 기존의 언어문화 축제 형식에서 탈피하고자 언어와 문화를 접목하여 행사를 진행하였고, 충북 지역 방언에 대한 도민들의 편견을 없애고자 노력하였다. 이번 사업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자체와의 공고한 협력 체제 구축

이번 지역 언어문화 축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공공 기관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왜냐하면 공공 기관에서 국어문화원의 존재를 모를 뿐만 아니라 현재 국어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별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지역 언어문화 축제 개최를 통해 공공 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앞으로 공공 언어 개선 사업 등 관과 학이 함께할 수 있는 협력 체제를 다질 수 있었다.

2. 지역 방언에 대한 지역민들의 편견 해소

외래어나 국적 불명의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표준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방언의 위상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표준어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민족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방언을 연구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살펴볼 때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에게 방언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충북 지역의 방언은 지리적인 특성상 인근 지역의 방언과 혼합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충북 지역의 방언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민들의 특성 때문인지 타 지역의 방언처럼 독특한 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충북 지역의 방언 역시 타 지역의 방언과 마찬가지로 독특한 특징이 있다.

이에 본 사업을 통해 방언이라 하면 표준어에 비해 다소 열등하다는 기존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3. 지역 언어문화 축제 모델 제시

기존의 지역 언어 관련 사업은 전문가들만의 축제로 딱딱하고 어렵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즉, 기존의 언어 관련 행사가 학문적이고 전문가들만이 참여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행사를 계기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언어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

IV. 사업의 의의 및 기대 효과

본 사업의 목적은 충북 지역의 언어문화 축제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언어문화 축제의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지역 방언이 표준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하다는 편견을 해소함과 동시에 기존 방언 관련 행사와 달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언어문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사업을 통해 방언 관련 축제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는 방언 관련 축제가 축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응용한 확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본 사업을 통해 다양한 행사를 개발하고 지역 언어문화 축제의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사업은 ‘2012년 충북 민속 문화의 해’ 행사의 취지에 맞는 충청 방언의 전승 및 보전을 위해 ‘지역 언어문화 축제’를 개최함과 동시에 주요 권역 두 곳(강릉과 서귀포)과 연계하여 소규모 지역 언어문화 축제를 개최하였다.

본 사업의 기대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협력 체제 구축

본 사업을 통해 방언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요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공 언어 개선 사업 등에서도 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본 사업이 지속성 사업으로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2. 지역 언어문화 축제의 모범적 모형 제시

지역 언어문화 축제의 모델을 개발하여 타 지역에 모범을 보일 뿐 아니라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축제의 단점을 보완하여 이후에 개최되는 축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언어라는 형식에 한정된 행사가 아닌 다양한 부문과의 연계로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축제의 모델을 개발하여 충청 방언 보급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방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개선

일반인들에게 방언의 가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주체적인 자세로 방언의 활성화를 위해 앞장설 수 있다. 또한 충청 방언의 보존 및 전승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충청 방언 사용자로서 지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여 충청 방언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4. 방언의 확대 활성화 방안 모색

충청 방언을 문화 콘텐츠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자칫 딱딱하게만 느낄 수 있는 점을 보완하고, 다른 분야에 방언을 접목시킴으로써 좀 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V. 애로 사항

1. 예산 관련

① 지역 언어축제는 각 지자체의 협조가 절실한 행사이다. 그런데 지자체의 예산은 매년 초에 결정이 되는데, 지역 언어축제의 대상 지역과 주관 단체가 이 지자체의 예산 결정 시기보다 늦어서 지자체에서 예산적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지역 언어축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한다.

② 이번 사업비에서 강원도와 제주도로 예산이 분산되는 바람에 충청북도 전체를 아우르는 행사를 진행하는 데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사업비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협력 체제 구축 관련

① 지역 언어축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런데 국어문화원이 각종 단체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아무래도 지자체는 소규모인 국어문화원보다는 큰 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에서 국립국어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② 지역 언어축제가 한국어를 매개로 한 축제이기에 형식적으로는 방언대회, 방언 연극, 방언 대담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식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섭외하는 것은 그리 쉬

운 일이 아니다. 애초에 이런 단체들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단체를 공동 개최자 혹은 보조 개최자로 선정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강릉 언어문화 축제

I. 사업명: 강릉사투리 보존을 위한 문화공연

II. 사업 목적 및 필요성

1. 사업 목적

이 사업은 강릉 지역 고유의 삶과 문화가 담긴 사투리의 보존 가치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문화 콘텐츠의 생산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의 필요성

- 고향 말을 부끄러워하고 잘 쓰지 않는 현실
- 강릉말의 이해가 부족함에 따른 세대 간 소통 장애
- 고유한 강릉말의 색이 옅어지고 표준화되고 있는 위기감
- 매체를 통해 강릉말의 인기는 높아진 반면, 제대로 된 인식 부족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 공연 부족

III. 사업개요

1. 사업 기간

- 2012년 5월 1일부터 2012년 11월 27일까지(7개월)

2. 참여 기관

- (사)강릉사투리보존회

3. 주요 내용

1) 강릉사투리 개그콘서트 ‘웃긴감자’

- 방송을 비롯해 공연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개그 콘서트의 강릉 사투리 버전.
- 거꾸로 보는 심청전, 종교지도자들의 무인도 탈출기, 신병 군대 시리즈 등
- 우리가 익히 아는 개그 소재를 바탕으로 강릉 사투리를 접목해 강릉 말을 알린다.

2) 강릉사투리인형극 ‘명주가’

신라시대 강릉의 옛 지명인 ‘명주’에는 무월랑과 연화의 애절한 사랑과 관련한 설화가 전해져 온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강릉사투리와 인형극을 접목시켜 지역문화 콘텐츠를 제작한다.

IV. 평가

최초로 시도한 사투리를 이용한 개그콘서트인 ‘웃긴 감자’와 사투리 인형극 ‘명주가’를 통해 강릉 말이 사라져 가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인식을 주었으며 강릉 말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어휘와 의성, 의태어 등을 활용해 강릉 말의 특징과 매력을 새롭게 볼 수 있었다.

또한,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해 강릉말로 풀어내는 작업은 지역성이 짙은 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붙임 : 관련 언론 보도 자료

강원일보 / 2012-10-31

[강릉] 사투리로 재탄생한 강릉 설화 “배꼽 잡네”

- 인형극 ‘명주가’ 성황 -

“달은 야단시롭게(매우) 밝은데 우리 님은 온다한기 운제적이나(온다고 한 것이 언제인가) 밤은 알똥시롭게(알뭇게도) 지들리지도 앓고(기다리지 앓고) 새는데 님 소식은 당채업네(도대체 없네).” 강릉사투리 인형극 ‘명주가’ 공연이 30일 오후 3시 강릉문화원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사)강릉단오제보존회(회장: 조규돈)와 (사)강릉사투리보존회(회장: 조남환)가 강릉의 설화 ‘명주가’를 바탕으로 강릉사투리로 만든 인형극은 연화아씨와 삼월이 등 등장인물 대부분이 구수한 강릉사투리로 이야기를 엮으며 큰 웃음을 선사했다.

신라시대 설화 무월랑과 연화 부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별이, 동이 등 잉어와 연화아씨, 삼월이, 무월랑이 나와 각자의 이야기를 강릉말로 엮자 여기저기 객석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우리 아씨는요. 다 좋은데요, 당채 제말을 안들어요”라는 삼월이 대사는 물론 “아이 우터하나야”라는 연화아씨의 대사도 강릉사투리의 묘미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강릉단오제보존회 인형극단 단원들과 강릉사투리보존회 회원들은 2~3차례 만나 대본을 수정하고 사투리를 가르치는 등 첫 강릉사투리 인형극 제작을 위해 협력해왔다.

이날 사투리인형극 공연을 본 주민들은 “인형극을 보며 많이 웃었다”며 “강릉사투리를 활용해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재미있게 보는 인형극을 만든 것 자체가 흥미 있고 인형도 사실적으로 잘 만들어 재미있게 봤다”고 했다.

조상원기자 jsw0724@kwnews.co.kr

강원일보 / 2012-10-30

[강릉]강릉말 인형극 '명주가' 공연

- 강릉사투리 인형극 '명주가'공연이 30일 오후 3시 강릉문화원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사)강릉단오제보존회(회장: 조규돈)와 (사)강릉사투리보존회(회장: 조남환)가 협약을 체결해 제작하는 명주는 강릉지역에서 내려오는 신라시대 설화 무월랑과 연화부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인형극이다. 지역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설화를 바탕으로 강릉사투리 버전의 전통 인형극을 제작해 이날 첫 공연을 펼친다.

그동안 강릉단오제보존회와 강릉사투리보존회는 2~3차례 만나 대본을 수정

하고 사투리를 가르치는 등 첫 강릉사투리 인형극 제작을 위해 협력해왔다. 조규돈 (사)강릉단오제보존회장은 “소중한 강릉의 설화를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단체들이 협약을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에 나선 것을 주목해 달라”고 했다.

조상원기자 jsw0724@kwnews.co.kr

강원일보 / 2012-9-14

[강릉]강릉사투리 인형극 '명주가' 제작

지역의 문화단체들이 협약을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에 나서 주목된다.

(사)강릉단오제보존회(회장: 조규돈)와 (사)강릉사투리보존회(회장: 조남환)는 13일 단오문화관 2층 세미나실에서 강릉사투리 인형극 명주가 제작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명주는 강릉에서 내려오는 신라시대 설화인 무월랑과 연화부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다.

양 단체는 지역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설화를 바탕으로 강릉사투리 버전의 전통인형극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함께 투입하기로 했다. 강릉단오제보존회는 명주가 인형극의 제작과 기획, 연출을 맡고 사투리보존회는 강릉사투리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을 담당한다. 이들이 만든 강릉사투리 설화 인형극 '명주가'는 10월 말 경에 시민들에게 첫선을 보이고 다양한 교육문화

콘텐츠로 공연을 펼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조규돈 (사)강릉단오제보존회장은 “소중한 강릉의 설화를 바탕으로 전통인형극을 제작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조상원기자

강원일보 / 2012-7-3

강릉사투리로 만들어진 사투리개그콘서트가 강릉시민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

강릉시와 (사)강릉사투리보존회(회장: 조남환)가 마련한 사투리 개그콘서트 심원철(44)의 ‘웃긴 감자’가 2일 강릉문화예술관에서 공연이 펼쳐졌다.

사투리 개그콘서트는 강릉 출신 개그맨 심원철이 기획 연출한 연극으로 1시간 30분 동안 7명의 동료 배우들과 함께 12개의 코너를 선보였다.

무대에서 종횡무진 펼쳐진 강릉사투리의 향연은 거꾸로 보는 심청전, 종교지도자 3명의 무인도 탈출기, 신병 군대 시리즈 등 우리가 익히 아는 개그 소재를 바탕으로 강릉사투리를 접목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이번 개그콘서트에서는 심원철 씨의 활약이 두드러져 눈길을 모았다. 심원철 씨는 2000년 특유의 강릉사투리를 소재로 ‘서세원쇼’ ‘개그콘서트’에서 주목을 받은 이후 영화 ‘조폭마누라’ ‘웰컴 투 동막골’ 등에서 진가를 발휘하며 영화배우로도 자리매김했다.

최근에는 서울 대학로에서 코믹과 감동을 엮은 연극 ‘아빠는 월남스키부대’

로 연출력과 기획력을 인정받고 있다.

조남환 (사)강릉사투리보존회장은 “강릉사투리를 대중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개그콘서트를 초청하게 됐다”며 “강릉사투리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사투리 개그콘서트 심원철의 ‘웃긴 감자’는 3일 오후 7시 30분 강릉문화예술관에서 두 번째 공연을 한다.

조상원 기자 jsw0724@kwnews.co.kr

■ 제주 서귀포 언어문화 축제

I. 사업 목적

제주어 연극 공연을 통하여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잊혀져가는 제주의 고유 문화인 제주어를 되살림과 동시에 확대·보급 및 전승·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한다. 또한 제주어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사업 개요

1) 사업 명

- 제주어 연극 가문장아기 공연 사업

2) 사업 기간

- 2012. 5. 12~2012. 11.

3) 사업비

- 일천오백만 원 (₩ 15,000,000 원)

III. 추진 방법 및 절차

(사)제주어보전회 서귀포시지회에서는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과 협약을 맺고 제주의 수많은 신화 가운데 하나인 ‘전상차지 가문장아기’에 관한 이야기를 극화하였다. 회원들은 2012년 6월부터 매주 4회 대사 연습(제주어의 정

확한 발음과 제주어의 뜻 이해 등), 대본 분석, 인물 분석, 제주 신화의 이해, 무대 연기 등을 익혀서 2012년 9월 15일 15시 성읍민속마을축제에서 공연을 하였다. 더불어 회원 및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12년 10월 27일 19시 서귀포 시니어클럽회관 공연장에서 추가 공연을 하였다.

IV. 사업 추진 결과

◎ 1차와 2차 공연을 통해서 연기자들과 관람객들이 제주어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안타까워하면서 제주어가 잘 보존되고 전승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연극이라는 매체를 통해 제주어의 장점을 널리 알릴 수 있었고 모두가 하나되는 한마음 축제가 되었다.

V. 사업의 의의 및 기대효과

◎ 연극이라는 매체를 통해 제주의 혼과 열이며 문화인 제주어를 되살림과 동시에 확대·보급 및 전승·발전을 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제주어가 세계 유네스코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 제주어가 연극 혹은 노래, 설화, 전설 등을 통하여 확대·생산되고 보급됨으로써 관광 자원적 가치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에게 제주어에 대한 자긍심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장기적으로는 제주어가 사라져가는 언어가 아니라 이 땅의 후손들과 더

불어 생생이 살아 숨 쉬는 언어가 되어 문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 부록

1. 낭송 시

1) 할아버지 수염(권태웅)

할아버지 길단 솜
아모나 못 만져요.
할아버지 하얀 솜
아기하구 할아버지나 만져요.

아기가 덩석 할아버지에게 안기어서
솜을 쥐고 끄들라치면
할아버지는 “아야 아야” 하시며
우스시지요.

2) 들판 바람(권태웅)

들판 바람은
승거운 바람.

고분고분 벼이삭들
복종하니까,
절 받으러 몇번이고
찾아오구요.

들판 바람은

승거운 바람.

굽신굽신 허재비들

복종하니까,

춤 추라고 몇번이고

찾아오지요.

3) 白石亭別曲(신교)

男兒生世(남아생세)호야 속절업시 늙어가니 호을일이 전혀 업서 名勝地(명승지)를 차자보니 白石灘(백석탄)을 도라드러 風景(풍경)이 그지업다 俗離山(속리산) 文藏臺(문장대)는 眼前(안전)의 버러잇고 十里洲(십리주) 萬頃波(만경파)는 左右(좌우)의 둘러시니 地勢(지세)도 도커이와 物色(물색)이 奇絶(기절)호다 白玉(백옥)갓흔 바회 우회 碧苔(벽태)을 뿌리치고 數間彩閣(수간채각)을 臨水(임수)호여 디어내니 洞庭湖(동정호) 岳陽樓(약양루) 이 나들 이여서 더홀손가 朱欄(주칸)의 비겨안자 遠近(원근)을 바라보니 玉溪山(옥계산)이 되어잇고 石峰(석봉)의 가는구름 翠帳(취장)이 되어세라 沙灘(사탄)의 노래소리 고기낙는 늙은이오 華坪(화평)의 젓소리는 소먹이는 아호로다 芷潭(지담)의 셋는비난 一葉(일엽)이 가뵈얹고 柳浪(유랑)의 빗친드러 半空(반공)의 므지깁다 白巖(백암)의 셋는丹楓(단풍) 錦屏(금병)을 둘러잇고 翠壁(취벽)의 늙은술은 四時(사시)에 프허러다 夕陽(석양)이 橫嶺(횡령)호야 萬壑(만학)이 혼빗힌지 青藜杖(청려장) 손의들고 石經(석경)으로 도라가니 躑躅(적축)과 山杏花(산행화)는 바람의 훗날이고 龍樹(룡수)와 楊柳枝(양유지)는 냇그의 프허러다 逸興(일흥)을 못이긔여 낙대을 빗기들고 苔磯(태기)에 올라안자 碧潭(벽담)을 구버보니 銀鱗玉尺(은린옥척)은 鏡面(경면)의 썬노는고 釣絲(조사)의 오른고기 欄干(난간)우회 지거고야 비늘을 거스리쳐 더(나)븐들의 膾(회)쳐노고 蓮

(연)넙희 비즌술을 아히호야 짓거다가 瓢盃(표배)의 半醉(반취)호야 누어시니 功名(공명)을 다이즈니 富貴(부귀)을 브롤손가 紅塵(홍진)의 벗님니야 이生涯(생애) 웃지마오 一身(일신)이 閑假(한가)호야 靜裡(정리)에 逍遙(소요)호니 陶陶風味(도도풍미)을 뉘안이 브롤손니 三尺梧桐(삼척오동) 거문고를 무웁우희 을러노코 流水高山(유수고산)을 줄줄이 희롱호며 淸歌(청가)을 비혀내어 妙譜(묘보)을 和答(화답)호니 空中(공중)의 썰는소리 神仙(신선)니 노니듯 三神山(삼신산) 어디피오 武陵桃源(무릉도원)이 여기로다 紅杏(홍행)와(과) 碧桃(벽도)은(눈) 兩岸(양안)의 피여잇고 落霞(낙하)와 孤鶩(고아)는(은) 朝暮(조모)의 齊飛(제비)호(로)다 瀟灑(소쇄)호 亭子(정자)속의 梅鶴(매학)으로 벗을 삼아 煙霞(연하)의 病(병)이들어 百年(백년)을 비겨시니 이시나 업스나 世事(세사)도 나몰내라 더근뎛 줌드러 썩씨(씨)야 이리 안자 松風(송풍)의 露頂(로정)호고 放浪(방랑)의 徘徊(배회)호니 園翁(원옹)과 溪友(계우)는 舊約(구약)을 닛져니코 蹇驢(거려)의 술을싣고 날츠자 오논고야 호잔 먹은후의 쏘호잔 부어내야 곳것거 算(산)노코 盡醉(진취)토록 노니오니 이맛과 世上榮辱(세상영욕)은 썩구름만 너시(기)노라.

4) 해바라기 씨(정지용)

해바라기 씨를 심자.

담모퉁이 참새 눈 숨기고

해바라기 씨를 심자.

누나가 손으로 다지고 나면

바둑이가 앞밭로 다지고

팽이가 꼬리로 다진다.

우리가 눈 감고 한 밤 자고 나면

이슬이 내려와 같이 자고 가고,

우리가 이웃에 간 동안에
햇빛이 입 맞추고 가고,

해바라기는 첫 시악시인데
사흘이 지나도 부끄러워
고개를 아니 든다.

가만히 엿보러 왔다가
소리를 꺾! 지르고 간 놈이-
오오, 사철나무 앞에 숨은
청개구리 고놈이다.

5) 무심천을 지나며(이은상)

그 옛날 어느 분이 애타는 무슨 일로
가슴에 부여안고 이 냇가에 호소할 제
말없이 흘러만 가매 무심천이라 부르던가.

눈물이 실렸구나 보태어 흐르누나
월망이 잠겼구나 흐르는 듯 맺혔구나
이 물에 와 호소하던 이 몇 분이나 되던고.

님 잃고 외로워서 새벽달을 거니신 이
나라이 망하오매 울며 고국 떠나신 이
쏟린 듯 끼친 발자국 나도 분명 보았노라.

눈물이 실렸구나 보태어 흐르누나

원망이 잠겼구나 흐르는 듯 맺혀 있어
지금도 여흠 여흠이 목이 매어 우느냐

2. 울고 넘는 박달재 대본

-서막-

음향소리와 함께 무대 밝아지면, 석규와 천 서방 무대 중간에서 엇갈리다
천서방의 고의적인 어깨 충돌에 석규 가방을 떨어뜨린다.

석규 (가방을 줍는다.)

천 서방 어어. 대명천지 대로럴 두 눈깔얼 뒤통수에 달구 땀기는 놈이
있네뷰.

석규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셔야지. 실례하겠소.

천 서방 아주 명판결이셨슈. 승헌 살인행위? 과렴치한 살인범?(웃음)
그라구 사형이라!

석규 누구시죠?

천 서방 피고릴 몰아세우는 예리헌 심문. 그라구 논리 정연헌 공소장
낭독!

(박달재 연주 흐르고)

천 서방 어이, 장석규 검사! 당신언 오늘 법정에서 범의 진실얼 부르짖
었구 준엄헌 심판얼 내린 것이유. 허지만 그 준엄헌 선고보담
더 원한에 사무치구 피맺힌 사람덜의 절규릴 듣지 못했던 것
이유. 당신은 인제 그걸 들어야 할기유.

석규 왜 그걸 제가 들어야 합니까?

천 서방 암, 들어야 하구 말구. 당신만언 꼭 그 피맺힌 절규럴 들어야 할꺼.

(주제곡 연주 점차 커지면서 천서방의 말 점차 해설자의 언어로 바뀐다.)

천 서방 지금으로부터 삼십 년 전. 순박하고 아름다운 충청도 땅. 충주 제천 간의 아흔아홉 구비의 험준한 고갯길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박달재라~
고갯길을 넘는 나그네들 고달파서 울고, 짐 실은 청노새 숨 가빠 울고, 올라가며 울고, 뒤돌아보고 넘어가며 우는 고개. 이별의 눈물 고개, 상봉의 눈물 고개. 그리하여 이 고개를 울고 넘는 박달재라 하였으니. 이 이 이야기는 원박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1장- 박 진사 댁

준호 안채 쪽으로 사라지면 행랑채 쪽에서 천 서방이 금봉이를 데리고 나온다.

천 서방 마님, 집때 곡석 두 섬 주구 텔구오라던 아가 바로 이 아입니다유.

최 씨 (눈여겨 본다.)

천 서방 주인 마님이시다. 인사 디리라.

금봉 문안 인사 디려유.

최 씨 이럼이 뭐냐?

금봉 금봉입니다유. 성은 서가구유.

최 씨 쌍것이 양반 성을 달았구먼. 나이넌?

금봉 열아홉이구만유.
최 씨 손모가지가 쪼만해서 일이나 오지게 하겠는지? 정재나 대청에
 올르긴 아직 일르다. 삼, 장팡, 오양간 일부터 배우게 해.
천 서방 알겠습니다유. 마님.

최 씨 안채 쪽으로 사라진다.

천 서방 봤냐? 니 살든 데하구는 생전 판판이여. 만약 눈에 거슬리믄
 단칼에 가는 거여. 알아듣겠냐?

금봉 야.

천 서방 행랑채 쪽으로 사라진다. 금봉 함지박 속의 하인들의 신발을 닦는
다. ‘세 동무’ 전주가 들려오고 먼 곳에서 개가 짖고 사랑채 지붕 위로 달이
떠오른다. 간주 연주될 때 안채 쪽에서 준호가 나타나 금봉을 바라본다.

준호 아니, 저기 웬 여인이?

금봉 어머니.

준호 그래, 내 예감이 맞았어. 늦은 밤 우물가에서 한숨짓는 여인네
 는 누구시오? (가로 막으며) 그래! 박달재 고갯마루의 서낭당
 에서.

금봉 (놀람) 서낭당!

준호 모녀간의 애절한 석별의 아픔을 나누는 걸 숨어서 보았소. 난
 그곳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순박하고 아름다운 고향의 여
 인네를 만난 것이요.

금봉 시방 왜 그런 말씀얼…….

준호 아니요. 난 달빛에 취한 것도 아니요, 젊은이의 객기도 아니려
 니와 그대를 희롱하는 것도 더더욱 아닌 것이요. 분명 난 우물

가에 푸른 달빛을 받으며 밤이슬에 젖어, 청순하고 아름답게 핀 한 떨기 달맞이꽃을 보고 있는 것이요. 그대 이름을 알소 싶소.

금봉 아닙니다유. 지는 아무것도 아니구먼유, 그저 비천한 종년일 뿐입니다유.

준호 난 그대의 신분을 묻는 게 아니요. 내 일찍이 신교육을 받아 그대가 누구이든 간에 우린 사람과 사람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는 이 몸이요.

금봉 지는 그런 말씀 알지 못합니다유.

준호 난 한 떨기 꽃잎과도 같은 그대의 이름을 알고 싶소. 왜 그대의 이름을 들을 수 없는 것이요?

금봉 지는 금봉이라구 하는구먼유.

준호 금봉! 왜 그 말이 그토록 어려웠소?

금봉 지는 배운 것 읊구, 가진 것 읊는, 그저 잡초 같은 신쌌니다유.

준호 내 분명히 말했거니와 머지않아 봉건인습과 귀천의 계급은 무너지고 만인이 평등하게 사는 시대가 올 것을 나는 확신하오.

금봉 으뚱게 그룽게 무신 말씀얼…….

준호 이제 우린 상전과 하인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일 뿐이요.

금봉 아니 되는구먼유. 지는 종년이에유.

준호 금봉이! 그대는 오늘밤 분명히 우물가에 핀 한 떨기 달맞이꽃이요.

노래(5) 달맞이 꽃

암전.

-4장-

(박달재 고갯마루): 서낭당에서 노모를 그리워하는 금봉을 보고 준호는 금봉과의 사랑의 약속을 한다.

‘지평선은 말이 없다’ 전주와 함께 멀리 성황님께 염원하는 금봉이 보인다.

금봉 비나이다, 비나이다. 고향에 기시는 우리 어머니의 만수무강을 간절히 비읍니다.

준호 금봉! 금봉이. 내가 바라는 건 그대의 마음, 그대의 순결한 사랑이요.

금봉 어떻게 그런 무선 말씀얼……. 아니 됩시다유.

준호 금봉, 우리 사이를 아무도 가로막지 못해. 금봉이의 첫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린 운명적으로 하나됨이 이미 약속된 것이요.

금봉 데련님, 지는 두려울 뿐이에유. 가슴이 벅차구 무서울 뿐이에유. 데련님!

준호 (힘껏 금봉을 껴안는다) 금봉이!

금봉 데련님!

준호 금봉이! 이젠 우린 헤어질 수 없는 하나야.

준호. 금봉의 손을 이끌고 서낭당 뒤로 숨어 들어간다. 돌탑 뒤에서 천 서방이 나온다.

천 서방 이거, 시상에 이 일얼 어쩐디야? 박진사택에 날벼락이 떨어졌구먼.

천 서방이 가만히 서낭당 뒤편으로 가서 엿보다가 기겁을 하고 뛰쳐나온다.

천서방 아이구, 일 벌어지구 말았네. 이걸 어쩐디야. 큰일이 나구 말았

어! (객석을 쳐다보다가) 췌!

-제5장-

(박 진사 맥): 준호의 거부로 혼사가 파탄나자 노발대발하는 최 씨와 박 진사. 자신의 아이를 갖고 있는 금봉과 혼인을 하겠다는 준호의 말에 충격을 받는 어머니 최 씨에게 금봉을 부탁한다며 경성에서 마저 학업을 마치고 돌아오겠다고 이별을 하게 된다.

최 씨 아니, 다된 혼사럴 인제 와서 퇴하겠다니?

준호 어머님!

최 씨 닥쳐라! 그게 워편 혼천데! 그게 워편 혼천데 인제 와서 타박을 하는 게야?

준호 타박이 아니에요, 어머니!

박 진사 니 숙부하며 고모님들 무척 애럴 쓰셨다. 그걸 알아야 돼.

준호 어머니 제겐 남은 학업이 더 중요합니다.

최 씨 그랴. 니 맘에 찍어둔 색시가 경성에 있다믄 에미 에비 속 썩이지 말고 당장 올라가!

준호 (나간다.)

천 서방 (행랑채 쪽 오래전부터 엿듣고 있다가) 마님.

최 씨 뭔가?

천 서방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유.

최 씨 사람 복창 터지는데 어째 서론이 긴가?

천 서방 이번 혼사가 파탄이 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유.

최 씨 그럴만한 이유라니?

천 서방 (주위를 살피고 최씨에게 귓속말)

최 씨 (듣고 나서) 뭐라구? 준호가 금봉이하구?
천 서방 지 눈으로 똑똑이 봤습시다유.
최 씨 아니 세상에 이런 망칙스런 일이 있나. 종년의 뒤를 쫓아댕기
다니? 이보게 어서 그년을 당장 일루 끌고 오게.

천 서방 행랑채 쪽으로 나간다.

최 씨 배은망덕한 년. 앙큼한 화냥년. 아이구 이게 무슨 망신이람.

준호가 학생복 차림에 트렁크를 들고 나온다.

준호 어머니, 불효자식 떠나옵니다.
최 씨 분명히 말하거니와 눈곱만치라두 거짓말을 하몬 이 에미는 혀
를 깨물구라도 니 앞에서 죽는다. 너 어린 종년 좋아했다는 게
사실이나?
준호 어머니 그건.
최 씨 기다 아니다만 애길 하거라!
준호 어머니 말씀대로 전 금봉일 사랑합니다.
최 씨 니놈 입에서 으뚱게 그런 소리가 나와? 종년을 사랑한다는 애
길 으뚱게 감히 에미 면전에서 해.
준호 이미 금봉이완 장래를 약속한 사입니다, 어머니!
최 씨 (준호의 따귀를 때린다.) 쓸개도 창사구도 읊는 놈!
준호 어머니, 학업을 끝내고 돌아와서 금봉일 제 아내로 맞이할 겁
니다.
최 씨 내 눈에 흠이 들어가두 절대 그것만은 안 된다.

천서방과 함께 금봉이가 행랑채 쪽에서 나온다.

최 서방 마님!
최 씨 이런 양큼한 년. 배워먹지 못한 종년의 주제에 어느 안전이라
 구 니년이 꼬랑지를 쳐서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 게냐?
금봉 마님!
최 씨 입 닥치고 듣거라. 니년이 이 집안 재산이 탐나서 그랬느냐?
준호 어머니!
최 씨 바른대로 대답을 해봐. 니년두 내 아들놈한테 마음을 주었느냐?
금봉 그, 그, 그렇습니다유. 마님.
최 씨 (금봉의 따귀를 때린다.) 천하에 화냥년 같으니!

금봉 쓰러진다.

준호 어머니, 모든 게 지 잘못이니 지를 벌해 주십시오!
금봉 데런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유. 모든 기 지 잘못입니다유.
 마님
최 씨 천 서방, 저년을 당장 매질을 하여 내쫓게나. 어서!
준호 어머니. 이 불초자식 떠나기 전에 어머니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봉이와 저는 서로의 마음만을 준 것이 아니라. 금봉이의
 몸속에 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최 씨 아니, 뭐라구?
준호 이젠 우린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부의 관계. 그리고 금봉이는
 박씨 문중의 며느리가 될 것입니다. 어머니!
최 씨 아이구, 우리 집안은 망했다. 박씨 문중에 사단이 나고 말았어.

최 씨 비척거리며 퇴장한다.

준호 (쓰러진 금봉을 부축하며) 금봉이!
 금봉 데런님!
 준호 더두 말고 일 년만 기다리면 다시 고향에 돌아와 금봉이 그대를 아내로 맞이할 것이오!
 금봉 데런님끼서 지럴 잊지 않으신다든 지두 십년이구 백년이구 지달릴 거예유.
 준호 내 금봉일 잊는다니.
 금봉 잊지 않겠다든 그 한마디, 사랑한다든 그 한마디든 족해유.
 준호 비록 이 몸 그대 곁을 떠난다 해도 오직 금봉이 그대만을 진정으로 사랑하오.
 준호 금봉이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하오!
 금봉 데런님!

두 사람 깊은 포옹을 한다. 번개와 천둥. 그리고 사나운 빗줄기.

노래(6) 울고 넘는 박달재

금봉이가 “울고 넘는 박달재”의 1절을 부른다. 이어서 준호가 3절을 부른다. 노래 끝나면 두 사람 애절하게 멀어지며 주제곡 연주 속에 압전.

-6장-

(박 진사 맥): 준호를 떠나 보낸 채 아기를 낳은 금봉이는 최씨로부터 계속 천대를 받으며, 자신의 아기를 만져 보지도 못하고, 노비로서의 삶을 산다. 최 씨는 천한 씨앗이라며 아기를 금봉이 몰래 다른 곳으로 보내려 하고, 금봉은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안채 쪽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면 무대 밝아진다. 일을 하던 금봉은 자신의 젖이 부른 것을 느끼고 안채로 움직이려 하다 최씨와 마주친다.

최 씨 어딜 들어가려는 게야!

금봉 애기가 젖 달라구 자꾸 보채서…….

최 씨 배워먹지 못한 쌍것이 컷구멍은 옹게 뚫렸다더냐. 내버려 두라!

금봉 젖이 붙었어유. 어무니.

최 씨 오늘부터 애 걱정일랑 말거라. 참한 유모를 하나 데려 왔다.

금봉 어무니.

최 씨 니 뱃속에서 나왔다구 니 새끼려니 생각지 말거라. 명문대가의 씨앗이 그저 바람에 잘못 날려 시궁창에 떨어졌다구 생각혀.

금봉 어무니.

최 씨 너한테 어머니 소리 듣는 것두 달갑지 않다. 네 거처는 행랑채 니 자꾸 안채 쪽에서 기웃거리지 말거라. 알아듣겠냐?

금봉 그람 어무니. 잠자리만언 지가 데리구 자게 해 주시믄…….

최 씨 그게 무슨 소리냐. 어린네한테 종년 땀내 베게 하는 것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버젓한 박씨 핏줄인데 어떻게 행랑채 아랫것들 방에서 재워?

금봉 그람 애기 목간만이라두 어무니.

최 씨 쌍것들 손에서 자라면 애덜두 쌍스러워지는 게다.

금봉 어무니!

최 씨 자식 덕에 쫓겨나지 않은 것만도 다행으루 알거라 .뭘 보고 서 있는 게야. 하던 일이나 하지 않구서.

금봉 어무니. 그람 자기 전에 울 애기 한 번만이라두 안아 보구 돌려 드리겠습니다유.

최 씨 어찌 자꾸 성화야. 유모, 참모, 찬모 전부 들었으니 걱정 말거

라!

금봉 어무니. 아무리 그래두 지 자식인데.
최 씨 (비아냥) 그래. 귀한 집 자식 꼬득여 만든 자식이라고 큰 벼슬
했다구 생각하느냐? 왜, 아들 낳아줬으니 인젠 안방 차지하구
며느리 행세하며 큰소리치며 해보겠다는 게야 뭐여?

중년의 유모가 포대기에 쌓인 애기를 안고 나온다.

유모 마님, 글씨 데련님 좀 보세유. 짓꼭지럴 물자마자 금시 잼이
들었구먼유.

최 씨 배부르면 코 고는 버릇은 꼭 지 애비를 닮았구먼.

금봉 접때까지 강기 기운이 있었구먼유.(유모에게 다가간다.)

유모 걱정하지 말어. 약 맥이구 땀 흘리게 했구먼.

금봉 아가, 아가! 흑흑.

암전.

늦은 밤. 등불을 밝히고 은밀히 나가는 최씨, 천 서방, 유모.

최 씨 (은밀히) 일체 소리 소문 없이 해야 되네.

천 서방 그야, 누구 분부시라구유.

최씨 주인영감 눈치 채지 못하게 입들을 맞춰야 해!

유모 야

천서방 새벽이믄 제천꺼정은 도착할 겁니다유.

최씨 자, 어서 서두르게.

그때, 금봉이 뛰쳐나와 이들을 가로 막는다.

금봉 안 돼유. 울 애기 못 데리구 가유!
최 씨 아니 이년이, 시방 누구 앞을 가로 막는겨? 절루 비켜!
금봉 울 애기, 지 품에서 한발 자국도 못 떠나유.
천 서방 애, 금봉아!
금봉 안됩니다유. 울 애기럴 어딜루 데리가는 거유? 그 앤 지 애기
 유!

금봉이 달려들자, 최 씨 밀친다.

최 씨 못된 년 저리 비키지 못해!
금봉 안 돼유. 울 애기, 울 애기 데리가면 안 돼유!
최 씨 어서들 떠나게!
금봉 아가, 아가! 에미 여기 있다. 가든 안 된다, 아가. 니 에미넌
 여기 있다.

최씨 금봉이 다가오지 못하게 떨치고, 천 서방과 유모 급히 사라진다.

최 씨 이젠 니 새끼가 아니다. 두 번 다신 니 새끼라 부르지 못할 게
 다!

아기 울음소리 점차 멀리 사라진다. 최씨 안채로 사라진다.

금봉 아가, 진 울 애기 꼭 찾을 거구먼유. 아가, 아가!

노래(7) 여자의 일생

(선술집 그리고 카페): 해설자 역 천 서방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검사 장석규. 15년 후 금봉의 기구한 운명을 듣는다. 술집 여자로 전락한 금봉은 폐인이 되어 금봉을 찾아온 준호로부터 자신의 자식 석규가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장석규 그래서 금봉이란 분은 어찌 되셨습니까?

천 서방 경성으로 갔던 데련님언 돌아오지 았구, 금봉이닌 자식 찾겠다
 년 일념으루 박달 고개를 넘어서 어디론가 사라졌던 거지유.

장석규 그래. 당신의 자식을 찾았던가요?

천 서방 배운 것 없구, 가진 것두 읍는, 미친한 종년 출신이 낫선 땅에
 서 할 수 있는 게 머 있겠슈? 반반한 얼굴……, 그러니 밤거리
 의 화류계 여인이 되는 건 명약관화한 일…….

장석규 돌아오마 굳게 약속했던 그 도련님은 어찌 되셨나요?

천 서방 학업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박준호. 기다리마 굳게 언약했던
 금봉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부친마저 상심하여 세상을 하직
 하였으니, 가련한 박준호. 술에 취하고, 계집을 탐닉하더니, 끝
 내는 아편의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구나. 그리하여 그로부터 십
 오년 후 그들이 이렇게 기구한 상봉을 하는구나.

암전. 카페로 막 전환.

노래(8)

애리 언니, 손님이 찾아…….

금봉 날?

똥보 미란인 오늘 나하구 데이트여.
금봉 잠깐이면 돼요. 그저 눈인사만 하구 올게요.
애리 그 대신 제가…….
똥보 뭐여, 똥 대신 닭인겨?

준호. 중절모를 깊게 눌러 써서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다.

금봉 절 찾으셨나요?
준호 …….
금봉 왜 절 부르셨나요?
준호 술 한잔 따라주겠소?
금봉 (준호의 잔에 술을 따른다.) 우린 서로 초면이죠?
준호 무정한 세월은 흘렀어도…… 그 목소리만은 안 변했구려.
금봉 절 아시나요?
준호 아니요. 난 알지 못하오. 카페 파리의 미란이란 여자는 전혀
 낮선 타인이지만. 그 옛날 박달재 고갯마루에서 천년만년 변치
 말자 굳게 사랑을 맹세했던 금봉이란 여자만은 생생히 기억하
 고 있소이다.
금봉 (비로소) 아니, 그럼.
준호 금봉이, 어찌다가 우리가 이런 기구한 상봉을 하게 됐단 말이
 오.
금봉 (냉정히)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전 금봉이가 아니
 고 웃음 파는 화류계 계집 미란이란 여자예요. 그 옛날 금봉이
 는 눈보라가 휘날리던 그날 밤 빼앗긴 자식의 울부짖는 소리
 를 쫓아 그 험준한 박달고개를 넘어 사라진 뒤론 영영 이 세
 상에선 사라지고 만 이름이랍니다.
준호 당신이 고향 원박골을 떠난 뒤로 나 역시 금봉이 당신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다 이렇게 아편중독자 폐인이 되고 말았소.

금봉 그토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헤어진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의 씨앗이 있었을 텐데요.

준호 그렇소. 그 아이의 이름은 석규라 하오. 장석규.

금봉 석규…….

준호 그 아이가 바로 내 자식. 아니 당신의 아들이라고.

금봉 그럼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나요?

준호 우리의 운명이 기구했듯이 그 애의 운명 또한 기구했소.

금봉 네?

준호 그 애는 이미 남의 자식이 되어 있소.

금봉 뭐라구요?

‘안녕’의 전주가 흐른다.

준호 금봉이 당신이 박달재를 넘어 원박골을 떠난 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천 서방이 그 엘 제천 숙북집에서 찾아 당신 뒤를 따라 경성에 올라왔지만 결국 의지할 데 없는 천 서방은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끝내는 자식 없는 팔판동 장안 갑북집에 맡기게 된 것이라오.

금봉 그럼 그 애가 살아 있다는 애긴가요?

준호 그렇소. 비로소 금봉이 그대에게 내 할 도리를 했으니 그만 실례하겠소.

금봉 어디로 가실건가요?

준호 의지할 데 없는 몸.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그냥 떠돈다고나 할까. 그러니 그저 안녕이란 말밖에…….

준호 ‘안녕’을 부른다.

준호 그럼 안녕!

준호. 카페를 비척거리며 뛰쳐나간다.

금봉 여보! (준호를 뒤쫓아 나간다.)

노래(9)

-8장-

(경성 뒷골목): 금봉이는 어느 날, 외출을 하던 중 우연히 군밤장수 천 서방을 만나 금봉의 아들 석규가 부잣집 양아들로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마침 군밤을 사러 나온 어린 석규에게 금봉이가 말을 붙여 보며 자신의 아들임을 확신하지만, 차마 친모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먼발치에서 바라보기로 한다.

천 서방 군밤이유. 군밤! 아이구 날씨가 추우니께 사람덜두 뜸하네.

금봉 저 잠깐 말씀 좀 여쭙어도 될까요? 혹시 그 옛날 박달고개 아랫마을에 살던…….

천 서방 아니 이게 누구여?

금봉 그렇군요. 천 서방 아저씨가 맞군요!

천 서방 아니 이게 꿈이여 생시여? 타향 땅 하구두 경성바닥 뒷골목이서 금봉이럴 만나게 되다니.

금봉 고향 떠나셨단 소식 듣구 천지사방을 수소문하여 찾았답니다. 아저씨!

천 서방 금봉이. 내가 죄인이여. 원젠가년 만나서 꼭 사죄할라구 댜 먹
 었지.

금봉 아저씨, 제 아들의 소식을 알고 싶어요.

천 서방 엄동설한에 애린 것을 업구 금봉이 찾아 서울 장안얼 헤매구
 댕겼지만 끝내 금봉이 자취랄 찾을 질이 읍었어. 그래 애린 것
 꿍어 죽일 수가 읍어서……. 금봉이, 인제라두 만났으니 여한
 이 없구먼. 날 용서해줘.

천 서방이 금봉이 앞에 무릎을 꿇자 금봉이 일으켜 세운다.

금봉 아네요. 아저씨 되려 제 아들을 살려주신 분이예요. 제 아이는
 어디 살고 있나요?

천 서방 바루 저 길목 돌아서 큰 기와집이 그 아가 살고 있는 집이여.

금봉 바로 저 집인가요 아저씨? 키는 큰가요? 말씨는 어떻든가요?
 눈매가 곱던가요? 아픈 데는 없던가요?

천 서방 쉬-! 그 아가 오는구먼. 잘못하믄 피차 낭패를 봐.

중학생 교복을 입은 어린 석규가 등장한다. 금봉 한쪽으로 비켜선다.

천 서방 어, 어서 오세유, 꼬마 단골손님.

석규 눈이 오는데요. 아저씨.

천 서방 올 결 첫눈이니, 이결 서설이라 하는 거여.

금봉 아이구 군밤 아주 큼직하구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군밤을 좋아
 하나 보지?

석규 사실은요. 공부하다가 졸릴 때 핑계 삼아 나오는 거예요.

금봉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

석규 석규예요. 장석규!

금봉 장석규? 어머, 너 손 시리겠다 그치?
 석규 괜찮아요. 그런데 아줌마 왜 울어요?
 금봉 아냐, 눈에 눈이 들어가서 그럴거야.
 천서방 옛다. 뜨근뜨근하게 잘 구워졌다(군밤 봉지를 준다.).
 금봉 군밤값은 내가 낼게(돈을 꺼내 준다.).
 석규 안 돼요. 부모님한테 야단맞아요.
 금봉 왜?
 석규 어떤 일이 있어두 남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금봉 아주 훌륭한 부모님이시구나.
 석규 그런데 아줌만 누구세요.
 금봉 그냥.
 석규 응,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금봉 잘 가거라.
 금봉 밤 기온이 차니까 이불 잘 여미고 자야 한다.
 석규 (뒷걸음치며) 안녕히 계세요. 이상한 아줌마네?
 금봉 첫눈에 알아봤어요. 틀림없는 제 아들이에요. 살아 있었어요.
 저렇게 살아 있었어요.

-9장-

(카페 빠리): 자식에 대한 그리움으로 매일같이 술로 지새는 금봉. 함께 일하는 애리가 금봉을 달래던 중 느닷없이 준호의 첩 미옥이 금봉에게 찾아와 자신이 준호를 지금까지 보살폈다며 돈을 요구한다. 그때, 뒤따라온 준호가 미옥으로 인해 자신이 아편 중독자가 된 것이라며 말리지만, 결국, 금봉은 준호에게 연민을 느껴 돈을 준다.

폐업 시간이 임박한 듯 텅 빈 카페 내부. 금봉이 테이블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 그때, 애리가 다가와 금봉이 쥐고 있던 술병을 낚아챈다.

금봉 …… 그 애, 보고 싶어……. 내 아이, 후후.

(그때, 출입문이 열리고 유난스런 옷차림을 한 미옥이가 거들먹거리며 들어온다.)

미옥 여기가 맞나……. 제대로 찾아왔는지 모르겠네.

금봉 영업시간 끝났는데요.

미옥 여기서 서금봉이란 여자가 일한다지 아마.

금봉 제가 금봉입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죠?

미옥 아.(훑어보며) 그래요. 듣던 대로 인물값은 하겠구만.

미옥 박준호란 사람 잘 알죠? 얼마 전에 만났다고 하던데.

금봉 그런데요?

미옥 박준호란 사람 떠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금봉 네?

미옥 그 화상 술값 대구 아편 값 대다가 내 신세가 이 꼴이 됐다고요.

금봉 얼마나 필요합니까?

미옥 조석으로 밥해서 먹인 것하고 아편 값은 받아야겠지.

(금봉,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 한다. 문이 벌컥 열리고 준호가 들어온다.)

준호 안 돼. 주면 안 돼.

금봉 여보.

미옥 이놈의 송장 어떻게 예까지 찾아왔어?

준호 저년한테 돈 주면 안 돼. 날 핑계루 우리 재산 거덜내구 날 이
 지경이루 만든 년이야!

미옥 이놈의 인간. 입닥치라구! 요정에 있던 계집년 빼들려 하루아
 침에 거적 쓰게 한 게 누군데 그래!

준호 거짓말이야. 이년 얘기 듣지 마, 금봉이. 돈에 눈이 뒤집힌 계
 집이니까. 이년 말 듣지 마. 내 재산 다 말아 먹구 내게 아편
 주사바늘을 찌른 년이야.

미옥 이거 왜 이래! 아직두 입아구 놀릴 기력은 남아 있는 모양이
 지. 나 그렇게 쉽게 물러나는 년 아니예요! 두고 보라지! (나
 간다)

준호 금봉이 미안하구만. 이런 추한 꼴을 보여줘서.

‘타향살이’ 전주 시작

금봉 아네요. 돈이 없으면 추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이 돈
 가지고 가세요.

준호 돈?

금봉 아편을 끊지 않으면 이런 꼴은 영원히 반복될 거예요. 받으세
 요.

준호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는다) 돈, 돈, (웃음) 그래. 돈이 필요했
 어.(웃음) 금봉이, 난 죽지 않아. 언젠가는 우리들의 고향으로
 금봉이와 함께 꼭 돌아갈 거야. 지금은 비록 떠돌이 신세지만.

-10장- 장 회장 댁

장 회장이 신문을 보고 있는데, 이기사의 소리 들린다.

이 기사 회장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장 회장 내 집에 온 손님인데 거절할 수야 없지. 들어오시라구 해요.
이 기사 네, 들어오시라는데요.
장 회장 누구...신지?

금봉 들어온다.

금봉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 회장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금봉 전 죄인입니다. 제겐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박달고개 원
박골이란 곳에서 저는 주인댁 도련님의 자식을 낳았으나 비천
한 종년이란 신분 때문에 그 애기를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십여 년 동안 오로지 자식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다가 눈 오는 어느 날 밤 군밤장수의 수레 앞
에서 꿈에 그리던 그 자식을 만났습니다.
장 회장 (불길한 예감)
금봉 석규는 분명 제 자식입니다.
장 회장 말도 안 되는 소리! 돈이, 돈이 필요한 게요?
금봉 아닙니다. 그저, 가까이에서, 그 애 자라는 거, 그저 숨 쉬고
말 하고 잠자는 거, 밥 먹고 노래하고 걸어 다니는 거, 이집
식모로라도 써 주셔서.....
장 회장 당신이, 진정 당신의 자식을 사랑한다면 조용히 물러가 자식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이 좋을 듯싶소.
금봉 회장님, 그럼, 이틀에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아니면 일
주일에 한 번, 그것도 안 되신다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제
발 부탁드립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린다.

이 기사 석규 도련님 오셨습니다.

장 회장 제발 부탁이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 석규, 불행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금봉 숨으면, 석규 들어온다.

석규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장 회장 그래, 어서 네 방 올라가 쉬거라.

석규 참 보여 드릴게 있는데.(책가방 속에서 작문 종이를 꺼내어)
 저희 학교 백일장에서 장원으로 뽑힌 제 자작시예요.

금봉 여전히 몸을 숨긴 채 지켜본다.

석규 제목은 모정!

어머니의 사랑은 달빛 그림자

어머니의 사랑은 흐르는 강물

달그림자처럼 내 곁에 머물고

강물처럼 영원히 흐른다.

어머니의 사랑은 아침이슬

어머니의 사랑은 라일락 향기

이슬처럼 영롱하고

라일락 향기처럼 스며든다.

어머니의 사랑은 눈 오는 밤의 눈물

어머니의 사랑은 따스한 군밤

눈처럼 순결하고 군밤처럼 따스하다.

(뒤돌아보며) 어때요? (금봉을 발견하고는) 앗, 손님이 계셨군요?

장회장 아버지 회삿일루 오셨단다. 올라가 봐라.

석규 괜히 손님 앞에서 망신만 당했네.

석규 올라가자, 금봉 석규의 뒤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온다.

금봉 제가 잘못 찾아온 것 같네요. 저 애한테 필요한 건 제가 아니라 바로 두 분이란 걸 알았어요. 저 애 절대 제 자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디,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래(11)

-11장-

(비 오는 거리): 천 서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검사 석규는 그로부터 10년 후인 현재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카페) : 기뻐하며 금봉을 찾아온 준호와 애리. 그리고 미옥은 자신의 자식 석규가 검사 시험에 합격하였다며, 자식을 되찾든지 돈을 요구하든지 해야 한다고 친어머니인 금봉에게 함께하자고 설득한다. 하지만 금봉이는 반대를 하고, 미옥은 그런 금봉에게 빠지라고 한다. 그리고 미옥은 비천한 자신들 때문에 자식의 앞길을 막을 순 없다는 금봉을 칼로 위협하고, 이를 준호가 가로막다 죽게 된다. 급기야 분노에 찬 미옥과 실갱이하는 금봉은 결국 미옥을 칼로 찌르게 된다.

빛줄기가 쏟아지는 거리. 우산을 쓴 장석규가 멍하니 서 있고 역시 우산을 든 천 서방이 술에 취한 모습으로 석규의 등 뒤에 서 있다.

천 서방 그라구... 또 한 번의 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 자석얼 눈앞에 두구 자석이라 불리지두 못하구, 지 자석임을 알민서두 이름 한번 불려보지 못한 기구한 운명의 금봉이!

석규 그래서 그분은 어찌 되셨나요?

천 서방 아, 이게 무슨 짓국은 운명의 장난인가. 또다시 금봉의 앞길에 검디검은 비운의 먹구름이 드리우는구나. 짧은 검사나리! 어찌 이것을 운명의 장난이라고만 말할 수가 있더란 말이요. 이로써 처절한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악극 ‘울고 넘는 박달재’의 클라이맥스가 되는 것이었던 것이었다!

천지를 진동하는 천둥소리에 나타나는 카페 파리. 비에 흠뻑 젖은 준호가 살기를 뺀 얼굴로 나타난다. 그의 손엔 구겨진 신문 한 장이 쥐어져 있다.

금봉 아니, 밤 늦게 웬일이세요?

준호 (신문을 쥐고 흔들며) 노다지야. 노다지!

금봉 노다지라니요?

준호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금봉 아편을 하셨나요?

준호 보라구, 우리의 자식이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을 했어.

금봉 석규가!

준호 이제 우리 자식을 되돌려 달라고 하는 거야.

금봉 그건 안돼요!

준호 기쁜 정 때문에 자식을 못 내놓겠다면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금봉 당신 미쳤군요. 이제 자식을 팔아 아편을 맞을 셈인가요?
준호 그놈은 엄연히 우리 자식이야.
미옥 (온통 비를 맞고 들어서며) 아무렴요, 우리들의 복덩어리죠.
준호 금봉이 당신이 앞장서. 그리고 장가놈 집에 쳐들어가 자식 대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금봉 돈에 눈이 어두워 자식을 팔아요?
준호 에미의 동의가 필요하니 어서 앞장서! 아니면 나 혼자 가겠어!
금봉 안돼요. 절대 갈 수 없어요! (가로 막는다.)
준호 비켜, 내겐 지금 돈이 필요해.

달려드는 준호를 금봉이 밀친다. 준호 넘어진다. 미옥이 칼을 빼든다.

미옥 비켜! 비키라구!
금봉 안 돼!
미옥 비키라니까! (달려든다.)
준호 안 돼. (가로막다가 미옥의 칼에 찔려 준호가 넘어진다.)
금봉 여보!
미옥 네년이 우리의 운명을 가로막아.

미옥 칼을 들고 금봉에게 달려든다. 금봉이 한 손으로 칼을 든 미옥의 손목을 잡고 두 사람 맞붙어 돌아가다가 두 사람 함께 넘어진다. 미옥이 칼에 찔려 쓰러진다. 금봉의 비명소리 들리며 강렬한 연주와 함께 암전.

-12장-

(법원=재판장)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석규는 서금봉이라는 여인이 바로 자신을 낳아

준 친어머니라는 것을 밝히고, 사형 판결을 받은 어머니 금봉을 구하기 위해 검사 옷을 벗고, 변호를 맡겠다고 한다. 그러나 금봉은 어머니 소리를 들은 것으로 만족한다며 석규와 처음이자 마지막 포옹을 하며 모정을 나눈다.

법정. 재판장이 방망이를 두드린다.

재판장 그럼 피고 서금봉에게 형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 서금봉은…….

장석규 재판장님, 피고에게 형을 선고하기 전에 본 사건의 담당검사인 본인은 잠시 소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재판장 변호인 측 이의 없습니까?

변호인 없습니다.

재판장 검찰 측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석규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전 이제 본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의 신분을 떠나 보잘것없는 한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충청도 땅 충주 제천 간의 박달재를 넘는 나이 어린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병든 어머니를 위해 쌀 두 섬에 팔려 박달고갯마루 원박 마을 박진사택에 종살이를 가게 됩니다. 그 소녀는 경성에서 내려온 주인댁 도련님과 순결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에 빠지게 되고 두 사람 사이에서 어린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댁 도련님은 경성으로 떠나 영영 돌아오지 않고, 종년이란 신분으로 인하여 주인 마님에게 갖은 학대를 받다가 끝내는 자신의 피붙이 어린 생명까지 빼앗기게 되니 결국 그 소녀는 눈보라가 휘날리는 어느 날 밤 박달고개를 넘어 어디론가 영영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기구한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 그 소녀는 십수 년 타향살이 끝에 밤거리에 웃음을 파는 화류계의 여자

가 되어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지금 이 법정에서 있으니, 그 여자는 서금봉이요. 그 어린 생명은 바로 본인 장석규입니다. 이게 무슨 기구한 모자간의 상봉이란 말입니까? 그 자식이 제 어머니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니 이 검사의 옷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판장님, 보잘것없는 이 불효자식이 제 어머니를 부르는 걸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석규. 검사석에서 나온다.

석규 어머니! 아직도 절 자식이 아니라고 부정하시겠습니까?

금봉 아닙니다. 전 모릅니다. 모릅니다. 검사님!

석규 어머니께서 정녕 절 모르신다면 어머니께서 피맺혀 부르던 이 노래는 아시겠죠? 이 노래만은 모른다고 말씀 못하실 겁니다. 어머니!

노래(12)

석규 어머니!

금봉 내 아들 석규야!

금봉과 석규 깊은 포옹을 한다. 재판장, 방망이를 두드린다. 석규 다시 검사석으로 돌아온다.

재판장 본 법정은 피고인이 살아온 인생의 정상은 참작되지만 법 집행의 공정성과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선고합니다. 피고 서금봉에게 형법 제250조에 의거 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합니다!

재판장 방망이를 두드린다. 재판장과 변호사 퇴장한다. 석규가 금봉에게 다가간다.

석규 어머니, 이제 제가 검사 옷을 벗고 어머니의 변호를 맡겠습니다.

금봉 아니다, 네게서 어머니란 소릴 들었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석규야, 다시 한번 어머니라구 불러다오.

석규 (목이 메인다.) 어머니!

금봉 그래 내 아들 석규야!

-결막-

결국 금봉이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아들 석규가 유골함을 들고 고향 박달재 사이에 뺏가루를 뿌리며 막은 내린다.

석규가 유골함을 들고 그 뒤로 애리, 장 회장, 김 여사, 천 서방 등이 뒤따라 가며 “사의 찬미” 다 같이 부르며 압전된다.

3. 황소를 잃은 욕심쟁이 대본

때: 옛날 옛날에

곳: 속리산 자락의 보은

등장인물 : 임금님, 신하, 할머니, 농부, 욕심쟁이, 동네아줌마1, 2, 황소

여는 막: 음악(청주아리랑)

(아낙네 둘이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등장한다.)

아낙1 : (춤을 추며 들어오다 신발 한 짝이 벗겨진다.) 아유 마빠 죽겼는데 이눔의 신발이 말썽이여.

아낙2 : 아유~ 뭐하구 있어유. 축제 시간 다 되가는데. 얼렁 가서 좋은 자리 잡으야 태진아 오빠두 가차이서 볼 거 아녀.

아낙1 : 근데 오늘 뱃들공원서 하는 축제가 뭘 축제라?

아낙2 : 아유~ 것두 모르는겨, 보은 황토 대추 축제잖여.

아낙1 : 아~ 그 맛있는 보은대추 축제 말여.

아낙2 : 매년 10월에 뱃들공원서 공연두 허구, 전시체험행사두 허구, 속리산 단풍가요제축제두 햐. 다양한 행사를 즐기면서 존 황토 대추럴 현지 가격으루다가 구입할 수두 있어.

아낙1 : 근데 보은 대추가 왜 이롭게 유명해지게 되겨?

아낙2 : 조선 어느 임금 땀가 웬 농부가 착한 일을 하구서 받은 대추씨럴 심켰더니 이만한 대추가 열렸다. 아, 그래서 임금님께 커단 대추럴 갖다 바치구 부자가 되어서 너두나두 심켰지. 존 땅에서 햇빛 잘 받구 큰 대추가 얼마나 맛있던지 사방에서 대추럴 살라구 사람덜이 몰려들었어.

아낙1 : 그롭게 된거구먼! 그나저나 축제 끝나졌어, 얼렁 태진아 보루 가보자구.

2막

(꼬부랑 할머니 음악과 함께 할머니 무거운 짐을 들고 등장.)

할머니 : (짐을 내려놓고 허리를 두드리며) 아이구 허리야. 챙긴 것도 읍는데 왜 이롭게 무거운겨. 우리 아덜 줄라구 보은 황토배랑 사과랑.... 약

초배끼 없는데. 아이구 허리야~

(욕심쟁이가 소를 끌고 거드름을 피우며 등장한다.)

할머니 : 아~ 이보게 내가 허리가 아파 그러는데 내 짐 좀 그 황소 등어리에
실어주믄 안 되겠나?

욕심쟁이 : (통명스럽게)짐을 실어달라구유. 아니, 지가 왜 할무니 짐을 실
어드리야 하는데유. 내 황소가 무건 짐을 싣구 가느라 심들면 먹
이를 더 주어야 하는데 그건 누가 준단 말이유?

할머니 : 아니 저런 저런(욕심쟁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쫓쫓쫓)고약한
놈 같으니... (다시 짐을 들려고 한다.)

(농부가 지계를 지고 등장한다.)

농부 :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올개 농사두 풍년이네 그려 얼렁 황토배
나 따루 가야겠다.

할머니 : 이봐유. 대추곶까정 갈라믄 얼마나 더 가야돼유?

농부 : 안직두 한참을 가야되는데유. 그 짐을 다 들고 거까지 어똥게 가실라
구유? 지가 근처까지 가니께 들어다 드릴게유.

할머니 : 아이구 고마워라! 이렇게 고마울 데가 있나~

농부 : 아니유 할무니. 어여 가세유.

할머니 : 그려 그려.

3막

음악 - 코끼리 행진곡(할머니와 농부 들어갔다가 음악에 맞춰 나온다)

농부 : 할무니 바루 여가 대추곶이유. (짐을 내려 놓고) 그림 지는 이만 가볼

계유.

할머니: 젊은이 쫓만 지달려 봐.(할머니 보따리에서 무언가 열심히 찾는다.)

어디 있드라. 그러 여 있구먼. 내 젊은이가 하두 고마와서 선물을 항
개 줄라구.

농부 : 아 아니유 할무니. 뭘 큰일 했다구유. 괜찮아유

할머니 : (작은 나무를 들고) 아녀, 아녀. 고마우이 젊은이. 아~어여 받아!

농부 : 이게 뭐유?

할머니: 응 이건 시상에서 질 맛있는 대추가 열리는 겁나게 귀한 낭구라네.

울 아덜집 마당에 심글까 했는데 자네가 가져가 심게나.

농부 : 이 귀한 걸 질 주시는 거유? 고마와유. 고마와유. 잘 키울게유. 할무
니.

(농부는 나무 심으러 퇴장하고 할머니도 아들을 부르며 나간다)

4막

(농부가 대추나무를 들고 심을 곳을 찾고 있다)

농부 : 가만 있자. 이 낭구렐 었다 심구먼 좋으까? 그러. 여가 좋겠구먼. 햇
빛두 잘 들구 낭중에 크문 보기두 좋을 거 같으네.(농부가 나무를 심
는다)

(욕심쟁이가 소를 데리고 등장한다.)

욕심쟁이 : 아, 자네 뭐하고 있는겨?

농 부 : 지나가던 할무니 짐을 들어 드렸드니 고맙다구 대추낭구렐 줘서 심
고 있는 중이여.

욕심쟁이 : 에이~ 보아하니 쪼만하구 불품읍는 게 곧 말라죽을 거 같구먼.

심들게 심구지 말구 그 낭구 우리 황소 여물로나 쥐.

농 부 : 할무니께서 선물로 주신 거라 그룽게는 안 되어.

욕심쟁이 : (화를 내며)뉘 싫다구? 내비뉘 그람! 난 자네 생각해서 한 말인데.

농부: 아, 지금은 이룽게 쪼만하지만, 열심히 키우믄 시상에서 질 맛있는 대추가 열린다구 했어.

욕심쟁이 : 고작 쪼맨한 낭구 한 그루 가지구 유세하기는 적어두 우리 황소 정도는 돼야지. 이러 이러. 우린 저기 순이네 밭에 가서 풀이나 뜯자.

황소 : 우리 주인님 너무하구만. 일만 심들게 시키구 왜 맨날 맛있는 풀만 뜯어 먹으라는 거.

5막

(음악 나오면 아낙네들 등장)

아낙2 : (호들갑스럽게)어머머머.... 그 소문 들었어 들었어.

아낙1 : 뉘 소문?

아낙2 : 아 왜 있잖여. 우리 옆집 농부네 대추낭구 말여.

아낙1 : 그람 그람. 그 대추나무 몰르문 이 동네 사람 아니게. 아, 나 대추나무 보구 있다가 퍽 빠질 뻔 했잖여.

아낙1 : 우리 대추나무 또 귀경 가자. 은제 또 그룽게 큰 대추나무럴 볼 수 있겠어.

아낙2 : 그러 그럴지두 몰르지. 맛은 워떨까 크기만침이나 맛있을 거. 우리 얼렁 가보자구.

6막(음악과 함께 대추나무가 등장한다.)

대추나무 : 나는 신기한 대추나무라네. 세상에서 제일 큰 대추가 주렁주렁 열리는 대추나무라네. 처음에는 비록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마음 착한 사람이 정성껏 키우면 쑥쑥 잘 자란다네.

농 부 : (대추나무를 바라보며) 오늘엔 대추 수확을 한번 해보까? 아니~ 시상에 이렇게 큰 대추가 열리다니. 할무니 고맙습니다유. 가만있자 이렇게 큰 대추를 어떻게 하까? 장에다 내다 파까? 잘 보관해 두까? 동네사람들하구 노나 먹으까? 어떻게 하지? 음~ 그려! 우리 임금님께서두 이렇게 큰 대추는 못 보셨을 거. 이 대추를 임금님께 열렁 갖다 디리야겠다.

(농부 퇴장한다.)

7막

(음악과 함께 임금과 신하 등장한다.)

임금님: 요즘은 별일 없느냐?

신하 : 아, 예~ 그렇잖아도 저 보은현에 사는 농부가 임금님을 뵈길 청하여 기다리고 있나이다.

임금님: 고래? 어서 들라 이르거라!

신하 : 예이~ 어서 들어오너라.

농부: 아~ 예

신하: 그래 무슨 일로 왔느냐?

농 부 : 예. 즈이 집 대추나무에 시상에서 질 맛있고 커단 대추가 달리가지구 임금님께 바칠라구 왔습니다유.

신하 : 무어라 대추라고? 대추가 커봤자 얼마나 크고 맛있다고 그래? 찌쭈.

어디 보자. 아~아니 이럴 수가! 이 이 임금니~임(놀라서 더듬거리며 말한다.)

임금님 :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신하 : (아직도 놀란 목소리로)이 농부가.... 대추를..... (도저히 자신이 말을 할 수 없다는 듯 농부를 보며) 내 평생 이렇게 큰 대추는 처음 본다. 어서 임금님께 드리거라.

농부 : 아 예 (허리를 숙이며 임금님 앞으로 가서) 여기 있습니다유.

임금님 : 아니 이렇게 큰 대추는 내 평생 처음이구나.

임금님: 고맙구나.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내 너에게 선물을 주겠노라. 여봐라, 저 대추 만 한 금덩어리를 가져오너라.

신하 : 예~이. 여기 있습니다.

임금님 : 빨리도 가져오는구나. 자 여기 있다. 받거라.

농 부 : 예? 아이구 임금님 고맙습니다유. 고맙습니다유.

8막

(풍년가 음악이 나오고 농부 금덩어리를 들고, 아낙들과 춤을 춘다.)

아낙1 : 아니 시상에나 시상에나. 그렇게 커단 금을 상으로 받다니.

아낙2 : 임금님께 신기하게 큰 대추를 바쳤더니 대추만한 금덩어리를 주신거여. 그렇게 착하게 살더니 복 받았지 복 받았어.

아낙1 : 그려 그려. 그런데 나두 큰 무수가 두 개나 있는데 갖다 바치른 금덩어리 주실라나?

아낙2 : 아니, 무수는 은제 심었다?

아낙1 : (다리를 보여주며) 여기 있잖여. 커단 조선무수 두 개!

(황소를 끌고 욕심쟁이가 등장하다가 아낙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다.)

아낙1 : 아이구. 저 욕심쟁이 또 왔네 또 왔어.

아낙2 : 어휴 가유, 가.

욕심쟁이 : 뭐? 요만한 대추를 갖다 바치구 금덩어리를 받아. 아이구 배야. 아이구 배야. 어떻게 해야 나두 황금을 받을 수 있으까? 난 그 농부보다 큰 금덩어리를 받아야 할턴디. (무릎을 치며) 그려! 그려! 그려! 그려! 난 이 황소를 갖다 바치구 황소만한 금을 선물루 받는겨. 이리 이리 황소야 얼렁 가자. 임금님께 가자. 금덩어리 받으루 가자. 황소만한 금덩어리 받으루 가자. 이제 난 부자다 부자여.

9막

(여민락 음악 나오면서 임금, 신하 나온다)

신하 : 아니! 너는 또 누구냐?

욕심쟁이 : 아 예 지는 임금님께 이 시상에 항 개배끼 읍는 아주 귀헌 황소럴 바칠라구 왔습시다유.

신하 : 그래! 그렇다면 이리 오너라. 임금니~임

임금님 : 무슨 일이냐?

신하 : 예~ 보은현에 사는 사람이 임금님께 귀한 황소를 바치겠다고 왔습시다.

황소 : 지는 풀만 먹어서 몸도 뼈쩍 말르구, 고기도 안 좋구, 다리두 튼튼하지 못해 일두 못 합니다유. 그저 그런 보잘 것 읍는 황소에 지나지 않습니다유.

욕심쟁이 : 아 아닙니다유 임금님. 이 두루몽실한 궁덩이럴 보십시오유. 여기 이 빨언 또 얼마나 튼튼한데유. 글구 이 황소는 풀만 멕여 키웠습시다유. 국산 풀만 먹구 자랐지유. 꼬리곰탕은 더 끝내줍니다유. 아주 귀헌 황소입니다유.

임금님 : 그래. 네 마음이 참 가늠하구나. 내 너에게 이렇게 귀한 황소를 받았으니 선물을 주겠노라.

욕심쟁이 : 선물이유? 아니 뭘 선물까정... 호호호 난 이제 부자다 부자여. 황소만한 금덩이럴 어뭇게 가지구 간담.

임금님 : 여봐라 가서 며칠 전에 들어온 대추를 가져오너라.

신하 : 예~이 여기 있사옵나이다.

임금님 : 자 여기 있다. 이거 받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거라.

욕심쟁이 : (깜작 놀라며) 예? 금이 아니라 대추라구유. 아이구 아이구! 이럴 어찌나~ 나는 망했다. 망했어. 내 황소, 내 황소 돌려줘~. (으호호호)

(임금님이 먼저 퇴장하고 욕심쟁이도 울며불며 대추를 들고 퇴장한다.)

10막

(음악- 태진아의 노래 보은 대추 축제장)

아낙1 : 아이구 사람덜이 여기 다 모였네.

아낙2 : 우리두 귀경이나 가자구.

(대추 전시장으로 간다.)

판매자 : 허균이 지은 도문 대작에 보면 ‘보은에서 생산된 대추가 제일 좋고 크다. 색깔은 붉고 맛은 달다’고 되어 있으며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승람에서도 보은 대추가 으뜸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말에 “대추를 보고 먹지 않으면 늙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싶으신 분들은 어서 어서 오세요.

아낙1.2 :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앞 다투어 판매자에게 간다.)

(음악에 맞추어 다함께 춤을 추고 인사.)

4. 민요

1) 청주 아리랑

후렴

아리랑 쓰리랑 아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시어머니 죽었다고 좋았더니

보리방아 물 뵈 노니 또 생각나네

시아버지 죽었다고 좋았더니

왕골자리 떨어지니 또 생각나네

시아버지 골내걸랑 술 받아주고

시어머니 골내걸랑 이 잡아주지

밥 먹기 싫은 것은 개나 주지

임 보기 싫은 것은 백년 웬수

우리집이 시어머니 염채도 좋지

저 잘난 걸 나 놓고 날 데려왔나

임 품에 들 적에 우는 닭은

야산에 쪽제비나 꼭 물어가게

2) 진천 방골 큰아기소리

진천에 방골큰아기는 납채를 받고서 죽었다네.
납채를 받아서 염습하고 잔칫술 가지고 군정주네,

진천에 방골큰아기는 대사를 지내다 죽었다네.
대사를 보려고 오신 손님 장사를 보구서 눈물짓네

진천에 방골큰아기는 연지에 곧지에 분바르고
꽃가마 타고서 시집가지 상여를 타고서 떠나가네.

진천에 방골큰아기는 초례청 고훈이 웬말이나.
아이고 어머니 나 죽거든 인산말 뒷산에 묻어주요.

3) 초평 아리랑

후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요.

울타리 밑에서 꼴을 비는 저 총각
눈치나 있거든 떡 받아 먹지

떡을랑 받더니 팽개를 치고
손목을 잡더니 발발 떴다

아달맹이 갈라리야 우거진 골에
뒷집에 김도령아 꿀베러 가세

꿀을랑은 비더라도 날 안아주게
이내한몸 죽어지면 영별종천

죽으라는 본남편은 왜 안 죽고
죽지 말라는 김 서방은 왜 죽었어

흰 댕기를 드리자니 남이 먼저 알고
남모르게 삼베 속옷 입어나 볼까

세월인지 네월인지 나는 몰랐더니
뒷동산에 고목나무가 나를 가르쳐 주네

시들새들 봄배추는 찬이슬 오기만 기다리고
옥에 갇힌 춘향이는 이도령 오기만 바라네

청직산 금점이 얼마나 좋길래
꽃과 같은 나를 두고 단봇짐 싸나

우물가에 콩개구리는 뱀의 간장 녹이고
이십 안쪽 저 큰아기 나의 간장 녹인다.

놀다 가세 자다 가세 놀다 가세
저기 저 달이 다 지도록 놀다 가세

우리가 살면은 몇백년 사나
한번 났다 죽어지면 영별종천

날 가라네 날 가라네 나를 가라네
삼베길쌈 못한다고 나를 가라하네

삼베길쌈 못하는 건 배우면 하지
아들딸 못 낳는 건 백년 두고 원수

이번 재판에 판결 안나면 만국재판 하더라도
네 말 한마디 허락하면 아 이 고생 안 하련만

일낙서산에 지는 해는 내일 아침에 다시 뜨련만
한번 간 우리님은 언제 오나

고추밭을 메라면 반에 반골도 못 메는 잡년이
연애질 하는 데는 뼈골을 살살 녹인다.

덩덕쿵 덩덕쿵 찢는 방아
언제나 다 찢고 밤 마실 가나

영감아 땡감아 개떡 잡수
보리방아 품팔아 개떡 찢수

시아버지 죽어서 잘 죽었다고 했더니
왕골자리 떨어지니 또 생각나네

시어머니 죽어서 잘 죽었다고 했더니
보리방아 물 부어놓으니 또 생각나네

시동생이 죽어서 잘 죽었다고 했더니
나뭇가리 쳐다보니 또 생각나네

죽으라는 시어머니는 왜 안 죽고
죽지 말라는 친정 어머니 왜 죽었어.

서방님이 오신다기에 빨가벗고 잤더니
문풍지 바람에 감기 몸살났네.

문경새재 박달나무는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가고
우리네 청춘은 징용으로 다 간다.

바람아 광풍아 불지를 마라
머리단장 곱게 한 것 모두 흩트러진다.

5. 자료집

1) 목차

1. 방언과 표준어	<이호승>
① 충북 방언의 ‘방언(方言)’의 정확한 뜻이 뭐예요?	80
② 사투리와 방언은 같은 뜻을 갖나요?	90
③ 표준어는 왜 정하나요?	81
④ 표준어는 방언보다 더 우수한가요?	81
⑤ 서울 방언은 그대로 표준어가 되나요?	82
2. 충북 방언과 문화 그리고 삶	<이호승>
① 내가 쓰는 말은 전부 충북 방언인가요?	83
② 충북의 지역방언은 표준어와 거의 흡사한가요?	83
③ 충북의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는 지역방언들은 모두 동일한가요?	86
④ 일상생활에서 왜 충북의 지역방언을 즐겨 사용해야 하나요?	88
3. 충북 방언의 조사와 자료	<이호승>
① 충북의 지역방언 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89
② 지역방언을 조사할 때 어떤 질문지를 사용하나요?	90
③ 음운	91
④ 어휘	92
⑤ 문법	100
4. 문학 속의 충청 방언	<박경래>
① 가마리	103
② 가지뿌렁	103
③ 개갈 안 나다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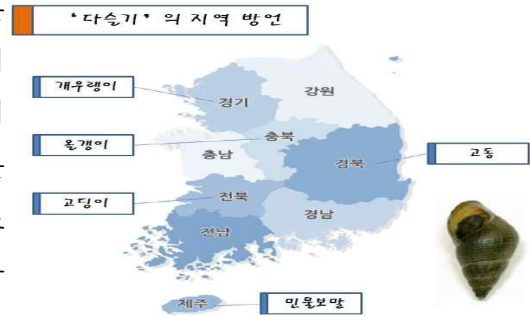
4	구덕살	104
5	기다	104
6	냥구	104
7	내둥	104
8	텨세	105
9	들벽대다	105
10	뜰팡	105
11	매꼰하다	105
12	빠가사리	106
13	삐질삐질	106
14	새	106
15	성글다	107
16	시여터지다	107
17	오지다	107
18	으재이뜨재이	107
19	장	107
20	짱구짱구	108
21	투가리	108
22	호맹이	108
23	후질르다	108
24	흡뜨다	109
5. 재미있는 충북 지명 이야기		<조항범>
1	무심천	110
2	까치내	112
3	달천	113
4	새재	114

⑤ 농다리	115
⑥ 배티고개	115
⑦ 말티고개	116
⑧ 지프내	118
⑨ 질마재/질매재	118

1. 방언과 표준어

① 충북 방언의 ‘방언(方言)’의 정확한 뜻이 뭐예요?

같은 대상을 두고 지역에 따라 말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어의 ‘다슬기’는 충북에서는 ‘올갱이’, 경기에서는 ‘개우렁이’, 경북에서는 ‘고딩이’, 전남에서는 ‘고동’, 제주에서는 ‘민물보말’이라고도 합니다. 또 충북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는 ‘올갱이, 올배이, 도실비’ 등으로 말이 다르고, 경기, 경북 등도 지역에 따라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 지역 안에서도 계층, 나이, 성별, 장면 등의 사회적 조건에 따라 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넌 왜 남자가 여자처럼 말하니?’라는 말은 성별에 따라 말이 다르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평소에 반말을 하던 친구 사이에서도 공식 석상에서는 정중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장면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예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연령대에 맞는 어휘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나, 젊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어휘들을 나이 드신 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는 나이에 따라 사용하는 말이 다른 경우입니다.



방언은 이처럼 특정 지역이나 사회적인 조건에 따라 특정 집단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역적 차이에 따라 형성된 방언을 지역방언이라고 하고, 사회적인 조건에 따라 형성된 방언들을 사회방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청주에서는 청주의 지역방언과 청주의 사회 집단들이 사용하는 사회방언들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② 사투리와 방언은 같은 뜻을 갖나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누구는 충북 사투리를 쓰고 누구는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고 말하곤 합니다. 사투리는 특정 지역의 독특한 언어적 특이성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충북 사람들이 ‘~어유(그랬어유)’를, 전남 사람들이 ‘~ㅇ께

(그랑께)’를, 경상도 사람들이 ‘~꺼(며 잡십니 꺼?)’를 즐겨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이 특이한 언어 특징을 강조하여 충북 사투리, 전남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충북 사투리, 전남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는 완전히 다른 언어적 특징만을 갖고 있을까요? 이 사투리들은 한국어이지만 충북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과 만나 사투리를 써서 대화를 하면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서로 이질적인 말입니다. 이에 반해 방언이란 특정 지역 사람들이나 사회 집단이 사용하는 말이 갖는 독특한 특징뿐만 아니라 한국어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면까지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방언을 좀 더 학술적으로 정의하면 특정 지역이나 사회 집단이 사용하는 말의 총체적인 체계로서 한 언어의 분화체(分化體)입니다. 그래서 충북 방언은 한국어의 여러 분화체들 중에서 충북에서 사용되는 한국어를 가리킵니다. 방언 중에서 지역방언은 지역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청주 방언은 청주 지역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③ 표준어는 왜 정하나요?

한국어에는 여러 방언들이 있고 각 지역마다 자신의 방언으로 의사소통을 하면 되는데, 굳이 표준어를 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일 각 지역마다 자신의 방언으로 교과서를 만들고 방송을 한다면 그 혼란은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또한 표준어가 없는 상황에서 방언의 차이가 더 커지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 방



언이 한국어지만, 외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표준어 교육을 하지 않게 되면 외래어, 비속어, 은어 등이 난무하여 우리말이 위축되거나 훼손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쓰는 표준어는 방언의 차이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불편을 덜고, 국민들의 일체감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말을 바르게 가꾸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④ 표준어는 방언보다 더 우수한가요?

‘표준어규정(1988)’의 총칙 1항은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크고 작은 방언들로 구성되는 데, 그중에서 서울 방언을 표준어로 선택한 것입니다.

서울 방언을 표준어로 정한 이유는 다른 방언보다 더 올바르고 우수하기 때문이 아니고 행정, 교통, 문화 등의 중심지로서 영향력이 크고 보급이 쉬운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 방언이나 충북 방언,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등은 다 그것대로 훌륭한 체계를 갖고 있는 언어인데,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서울 방언을 표준어로 선택한 것입니다.

㉟ 서울 방언은 그대로 표준어가 되나요?

현재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말이 모두 서울 방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사대문(四大門) 중심의 서울 장안에서 3대에 걸쳐 태어난 가족들만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쓰는 말이 서울 방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울 방언이 그대로 표준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인제 그때 나가 여기 오기 전에, 먼저 반장 허던 영감님이 그 두 내우가 있어.

빈 집이나 있으른 들어가 잠자구 나오구 ~ .

인제 수원꺼정 간다구 갔는데 가는 길두 몰르지. 맹겨 보질 않아서

<국립국어연구원(1997),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I)>

서울 방언의 ‘인제’, ‘나가’, ‘먼저’, ‘허던’, ‘있으른’, ‘잠자구 나오구’, ‘수원꺼정’, ‘간다구’, ‘길두’, ‘몰르지’, ‘맹겨’를 표준어로 고치면 ‘이제’, ‘내가’, ‘먼저’, ‘하던’, ‘있으면’, ‘잠자고 나오고’, ‘수원까지’, ‘간다고’, ‘길도’, ‘모르지’가 됩니다. 따라서 표준어는 서울 방언을 대상으로 하되 인공적인 조치가 가미되어 결정됩니다.

서울 방언 외의 다른 방언의 어휘들도 표준어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해산물 ‘멍게’는 본래 표준어가 ‘우렁챙이’였는데, 방언이던 ‘멍게’가 널리 쓰이게 되어 ‘멍게’와 ‘우렁챙이’가 모두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또한 원래는 ‘빈자떡’이 표준어였는데, 방언이던 ‘빈대떡’이 더 널리 쓰이게 되어 ‘빈자떡’은 표준어의 지위를 잃고 ‘빈대떡’이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표준어가 달라지는 것은 한국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서 일정한 기준에 맞는 어휘를 표준어로 정합니다.

2. 충북 방언과 문화 그리고 삶

① 내가 쓰는 말은 전부 충북 방언인가요?

현재 우리 충북의 사람들은 충북 방언을 사용하면서 표준어도 함께 구사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본다든가, 친구들과 만나 가볍게 대화를 한다든가, 주위 사람들과 만나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는 등의 일상생활에서는 표준어도 사용하지만 충북 방언을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집에 가는겨?’, ‘겨?, 안 겨?’,



‘핵교 댕겨 와유’ 등과 같은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 수업 시간이나 공식적인 회의 석상 등에서는 기본적으로 표준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농촌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표준어보다는 충북 방언을 더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는 충북의 지역방언을 조사하려면 농촌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오신 분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지역방언이 잘 보존되어 있는 이유는 표준어나 다른 지역방언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산, 강 등의 자연적 장애물로 인해 다른 지역 사람들과 교류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양식이나 문화 및 경제 생활에 적합한 어휘나 표현들을 만들어 쓰면서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그 지역의 방언이 된 것입니다.

1960년대까지 대도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농업이 주된 생계 수단이면서 대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조부모, 부모, 그리고 이웃의 어른들한테서 그 지역의 방언을 자연스럽게 배워 썼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어 더 이상 산, 강 등은 교류의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학교 교육이나 방송을 통해 날마다 표준어를 접하게 되고, 대가족도 해체되어 부모와 자식 중심의 가정생활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지역방언의 보존이나 전수는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② 충북의 지역방언은 표준어와 거의 흡사한가요?

충북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서 ‘했어유’의 ‘-어유’, ‘가새(가위)’ 등의 몇 가지 특징

을 제외하면 표준어와 아주 흡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거의 표준어만 사용한다고 자부하는 충청도민들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충청방언은 크게 보면 표준어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하여 중부방언으로 함께 묶이기도 하지만, 어휘, 음운, 문법의 구체적인 면을 들여다보면 표준어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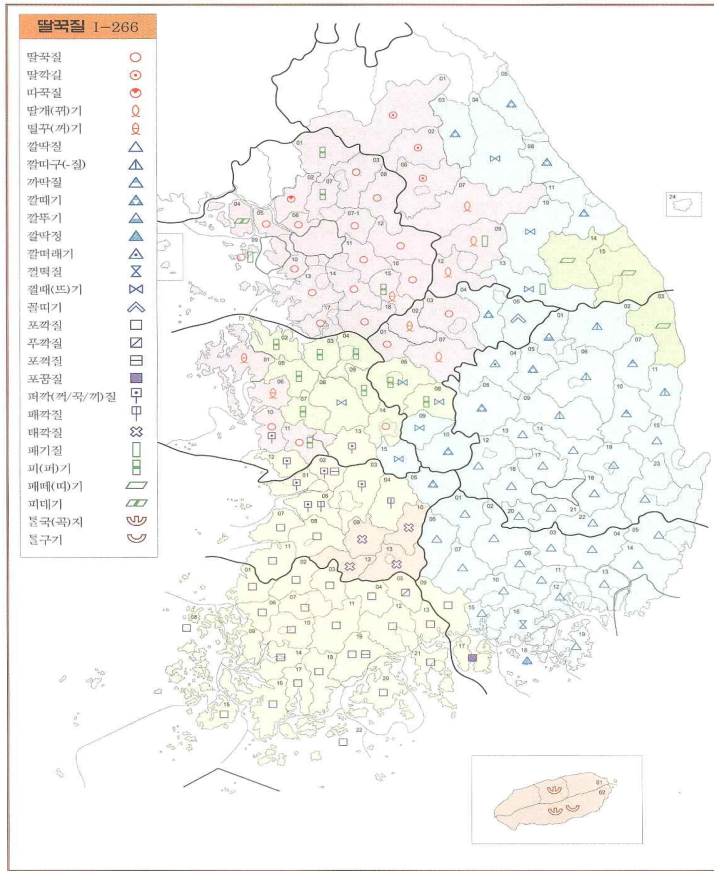
아직 학자들의 의견이 다르기는 하지만, 한국어를 대방언권으로 나누면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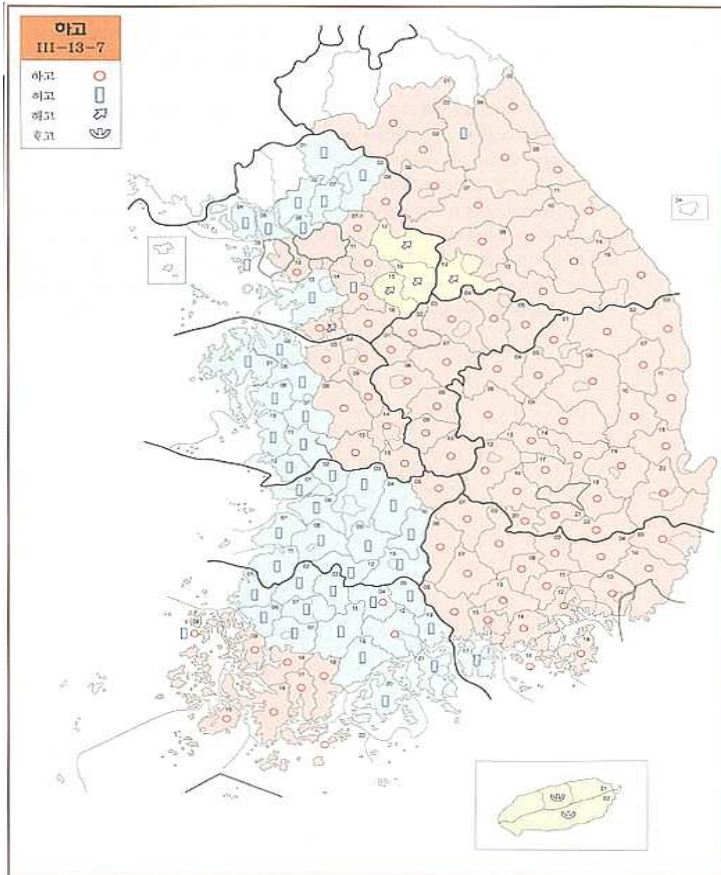
- 동북 방언(함경북도, 함경남도)
- 서북 방언(평안북도, 평안남도)
- 중부 방언(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황해도)
- 동남 방언(경상북도, 경상남도)
- 서남 방언(전남북도, 전라남도)
- 제주 방언(제주도)

위의 지도를 보면 충청도 방언과 표준어인 서울 방언은 중부방언으로 묶일 만큼, 충북 방언은 경상도 방언이나 전라도 방언보다는 상대적으로 표준어와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북 방언과 표준어는 모두 중부방언으로서 몇 가지의 중요한 언어 특징, 예를 들어 단모음의 수, 성조의 유무, 중세국어 자음인 ‘△, ㅍ’의 존속 여부, 중세국어 모음인 ‘·’의 변화 양상 등의 언어 특징에서 공통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나 충북 방언과 표준어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어휘, 음운, 문법의 측면에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의 언어지도는 이익섭 외 5인이 지은 <한국언어지도>의 ‘딸꾹질’ 항목을 인용한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표준어의 ‘딸꾹질’은 진천군(01), 충주시(03)에서는 ‘딸꾹질’과 동일한 어형이지만, 제천군(04)에서는 ‘갈때기’, 단양군(05)에서는 ‘꼴띠기’, 청주시와 청원군(06), 보은군(08)의 ‘피(퍼)기’나 ‘꼴때(뜨)기’, 옥천군(09)의 ‘꼴때(뜨)기’, 영동군(10)에서는 ‘갈때기’를 사용하여 지역마다 어형이 다릅니다. 충북 방언이 지역에 따라 표준어와 어형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다음 언어지도는 <한국언어지도>의 ‘하교’ 항목을 인용한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충북 방언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하교’는 표준어 ‘하교’와 어형이 동일합니다(사실 충북 방언을 더 세부적으로 조사해 보면 ‘하교’ 형 외에도 ‘하구’ 형이나 ‘해구’ 형도 나타납니다. 어느 지역의 어떤 제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얼마나 정확히 조사했느냐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방언 연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방언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충남 방언, 충북 방언, 강원도 방언, 경기도 방언이 중부 방언으로 함께 묶이지만 지역에 따라 어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 충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허교’ 형이 나타나고,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해교’ 형도 나타납니다.



결국 충북 방언은 그 자체로 완전한 체계를 갖는 언어 분화체로서 인접 방언들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면이 있으면서 차이점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어나 충남 방언, 강원도 방언, 경기도 방언과 유사한 모습도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과 다른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따라서 충북 방언은 다른 방언과 비교했을 때 공통적 요소와 차별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③ 충북의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는 지역방언들은 모두 동일한가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지역방언들은 모두 한국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지만, 몇 가지 언어 특징에 따라 6개의 대방언권으로 나눌 수 있듯이, 충북의 지역 방언들도 몇 가지 언어적 특징에 따라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지도는 방언 차이를 고려하여 충북의 13개 시·군을 3개의 방언권으로 나눈 것입니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의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북 방언들이 하나의 방언권으로 묶이지만, 충북 안에서도 각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주변 방언들과의 교류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방언형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④ 일상생활에서 왜 충북의 지역방언을 즐겨 사용해야 하나요?

현재 전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표준어와 자신의 지역방언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표준어가 더 품격 있는 우월한 언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서 지역방언의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께서 학교에 가는 손녀에게 “학교에 조심히 댕겨 오너라.”라고 했는데, 손녀가 할머니께 “‘학교’가 아니라 ‘학교’고, ‘댕겨’가 아니고 ‘다녀’라고 해야 돼요.”라고 대답하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이 손녀에게 무슨 말을 해 주어야 할까요?

우리의 일상 언어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정도 차이는 있지만 방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표준어만을 사용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왜 그런겨?’, ‘오늘 올갱이국 맛있었어.’, ‘국 줌 잘 저서라’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런겨?’, ‘올갱이국’, ‘줌 저서라’는 충북 방언입니다. 이들의 표준어는 각각 ‘그런 거야?’, ‘다슬기국’, ‘줌 저어라’입니다. 아무리 학교나 공공 방송을 통해 표준어 교육을 받고 있더라도 우리들은 충북 방언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충북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충북의 언어를 습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방언을 사용하게 되면 동질감과 소속감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방언은 충북 지역을 생활 터전으로 하여 살아온 사람들이 주변의 물건과 현상들을 나름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발전되어 온 언어로서 충북 지역의 지리 문화, 사회 경제, 사회 정서적 특색을 반영하고 있는 소중한 언어 문화의 유산입니다.

한국어의 실제 모습은 표준어가 아니라 살아 있는 방언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는 각 지역의 특색들이 반영되어 더 다양해지고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나 방송의 편의성 또는 한국인의 일체감 향상을 위해 표준어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표준어만 사용하기를 강제한다면 한국어의 폭은 좁아지고 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누가 강제한다고 해서 방언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방언은 오랜 역사를 지닌, 살아 숨쉬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표준어를 사용해야만 할 상황이라면 표준어도 정확하게 구사할 줄 알아야겠지만,

우리는 충북 도민으로서 충북 방언도 적극적으로 배우고 익혀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일상 언어생활에서는 가능하면 충북 방언을 사용하여 우리 방언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다털 그렇게 생각 하지유?”

3. 충북 방언의 조사와 자료

여기에 제시하는 충북 방언 자료 중에서 ‘④ 어휘’와 ‘⑤ 문법’은 세명대학교의 박경래 교수의 조사 보고서인 <2010년도 충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① 충북의 지역방언 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우리가 청주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고 해서 우리가 구사하는 방언이 그대로 청주 방언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표준어를 배웠고, 멀리 여행을 하거나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머물면서 또는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에 청주 방언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주 방언을 가장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3대 이상 대대로 청주에서 태어나 자란 토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학교 교육도 별로 받지 않았고, 군대나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에서 오래 머물지도 않았고, TV나 신문도 많이 접하지 않았으면서, 종교생활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갖춘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청주와 같은 큰 도시에서는 이런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을 찾기가 매우 어렵겠지요. 그래도 이런 조건들을 가장 많이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만 청주 방언의 모습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에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농촌에 가면 아직도 이런 분들 중에서 그 지역의 방언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계신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② 지역방언을 무엇으로 조사하나요?

이제 충북 방언을 잘 보존하고 있는 제보자를 구했다고 해서 무작정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고, 조사 과정에 꼭 필요한 장비인 녹음기나 비디오 카메라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조사 항목과 질문 방법을 미리 정리해 놓은 <지역어 조사 질문지(국립국어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질문지는 총 5권으로 구분되어 있고, 조사할 내용은 '제1편 구술 발화, 제2편 어휘, 제3편 음운, 제4편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사할 항목은 2171개나 됩니다. 여기에서는 각 편의 일부만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1편 구술 발화

- 1.1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 / 1.2 일생 의례
- 1.3 생업 활동 / 1.4 의생활 / 1.5 식생활
- 1.6 거주 생활 / 1.7 질병과 민간요법
- 1.8 세시 풍속과 놀이 / 1.9 특수 지역 생활

제2편 어휘

- 2.1 농경 / 2.2 음식 / 2.3 가옥 / 2.4 의복 / 2.5 민속 / 2.6 인체 2.7 육아 / 2.8 친족 / 2.9 동물 / 2.10 식물 / 2.11 자연

제3편 음운

- 3.1 음운 목록 / 3.1.1 단모음 / 3.1.2 이중모음
- 3.1.3 장모음, 성조 / 3.2 음운 과정 / 3.2.1 활용 / 3.2.2 곡용

제4편 문법

- 4.1 대명사 / 4.2 조사 / 4.3 종결어미 / 4.4. 연결어미
- 4.5 주체 존대 / 4.6 시제 / 4.7 부정 / 4.8 사동과 피동
- 4.9 보조용언 / 4.10 부사 / 4.11 관용적 표현

1.1, 1.2. 등은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서는 생략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무척 많습니다. 제보자와 함께 열심히 해도 며칠이나 걸리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 함어르신을 대상으로 조사할 때는 최대한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유지해야만 이 많은 분량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의 예를 보인 것인데, 질문 형식이 준비되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미리 충분히 숙지해야만 실전에서 자연스럽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배우들이 대본이 있다고 해서 연기할 때 대본을 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조사자도 질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암기한 다음에 슬쩍슬쩍 질문지를 보면서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휘의 질문 형식]

- 20102 이삭 <그림1> (이삭을 가리키면서)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벼나 보리, 밀 등에서 열매가 더부룩하게 달린
부분) ㉠ 이삭
20104 못자리 흙을 고르고 관관하게 만든 다음, 볍씨를 뿌리려고 만
든 논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의> 못자리의 각 판을
뜻하는 ‘모판’과 혼동하지 말 것.

‘20102’는 ‘이삭’ 항목의 번호입니다. 항목 수가 많아서 구별하기 쉽게 번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림1>’은 제보자가 볼 수 있는 ‘이삭’의 그림이나 사진을 뜻합니다.

[문법의 질문 형식]

- 40301 -아라 (어린 아이에게) 애야, 이리 좀 앉아라
40302 -게 (장모가 사위에게) 여보게, 이리 좀 앉게.

‘제4편 문법’은 조사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명령형 어미 ‘-아라’나 ‘-게’가 이 지역에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표준어로 표기된 위의 문장들이 사용되는 상황을 설명해 준 다음에 이 지역방언으로는 어떻게 말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유도해 내야 합니다. 조사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요령을 터득하게 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3 음운

질문지의 <제2편 음운>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음 체계와 모음체계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등과 같은 음운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히 충북 방언의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만 소개합니다.

충북 방언은 자음체계와 모음체계가 표준어와 동일합니다.

충북방언	
단모음(10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이중모음(11개)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ㅛ, ㅝ, ㅞ, ㅟ, ㅠ
자음(19개)	ㄱ, ㅋ, ㆁ, ㄷ, ㅌ,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ㅊ, ㅄ, ㅅ, ㅆ, ㅈ, ㅊ, ㅆ, ㅎ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모음과 자음을 경상도 방언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도에서는 ‘애’와 ‘에’, 그리고 ‘으’와 ‘어’가 구분이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지역에서는 ‘외’와 ‘위’도 단모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상도 방언은 단모음의 수가 10개가 아니라 6개인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상도에서는 단어 첫머리에서 ‘쓰’이 발음되지 못하여 ‘쌀’을 [살]로 발음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한 이중모음 ‘의, 왜, 웨’ 등도 발음하지 못하여, ‘외국, 꺾꽂이’ [에국], [게작]으로, ‘위장, 쥐’는 [이장], [지]로, ‘왜, 햇불’은 [와], [해뽕]로 발음하기도 합니다.

충북 방언에서는 표준어의 어형이 변하여 달리 발음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사위’를 [사우]로, ‘어제’를 [어재]로 발음하기도 하지만, 이는 ‘위’나 ‘에’를 구분해서 발음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표준어 ‘가위’가 충북에서는 지역에 따라 [가위]나 [가새]의 방언형이 나타나거나, 표준어 ‘제가’가 [제가]나 [지가]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것은 ‘위’나 ‘에’의 발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충북 방언에서는 표준어와 같이 10개의 단모음, 11개의 이중모음, 19개의 자음이 모두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를 다 구별하여 발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4 어휘

다음 <표>는 표준어 어휘에 대응하는 충북 방언형을 정리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조사된 방언형은 많이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언형 중에서 일부만 소개합니다.

그리고 표준어는 ‘겉[건]’의 형식을 제시했는데, ‘겉’는 표기이고 [건]은 실제 발음입니다. 방언형은 실제 발음을 그대로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 방언형들은 ‘국립국어원’에서 2010년도에 발간한 <2010년도 충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연구 책임자: 박경래)>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조사되지 않은 많은 방언형들이 있을 것이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사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표준어	제천	청원	충주	옥천	보은
가위[가위]	가위	가위/가새	가새/가:새	가위/가새	가새/가외/가위
가지[가지]	저까지	겨까지	나무까지	가쟁이	가지/가쟁이
감기[감기]	강:기	강:기/고뿔	감:기/고뿔	감:기/고뿔	강:기/감:기
개울[개울]	개울	도랑/개울/또랑	개울물/개울	개울/또랑물	개울
거울[거울]	거울	거울/체경/세경	세경/거울	거울	거울
겉[겉]	거죽/겉	거죽	겉	겹따기/겉	겉
고드름[고드름]	고드라미	곤두래미 고두래미/고두름	고드래미	고두라미	
고들빼기[고들빼기]	꼬들빼	꼬들뺑이	꼬들빼	꼬들빼기	고들빼기
고린내[고린내]	코린내	꼬랑내	발냄새	꼬랑내	구린내
고명[고명]	고명/꾸미	고명	꾸미	꾸미	고명/꾸미/뀌미
	<뜻풀이> 음식의 모양과 빛깔을 돋보이게 하고 음식의 맛을 더하기 위하여 음식 위에 얹거나 뿌리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 버섯, 실고추, 지단, 대추, 밤, 호두, 은행, 잣가루, 깨소금, 미나리, 당근, 파 따위를 쓴다. ≡ 웃고명				
고수머리[고수머리]	고두머리	고도머리	고두머리	꼬두머리	곱쌀머리 곱쌀머리 꼬두머리 고두머리
	<뜻풀이> 고불고불하게 말려 있는 머리털. 또는 그런 머리털을 가진 사람. ≡ 곱슬머리				
곳간[고간/곶간]	광	광	광	광/고간	두주/두지
구멍[구멍]	구멍/꾸녕	꾸녕	꾸녕	구녕	꾸녕/구멍/구멍
굳은살[구든살]	꾸득쌀	못	뚝쌀	뚝쌀	뚝쌀/구둥살
굵은체[굵:근체]	얼기미	영근채	얼기미	얼게미/영근채	중간채
	<뜻풀이> 올이 굵고 구멍이 큰 체. <참고 어휘> 고운체				
궁둥이[궁둥이]	궁:대이	방덩이	궁대이	궁:덩이/궁뎡이	궁:덩이
	<뜻풀이> 불기의 아랫부분. 앉으면 바닥에 닿는, 근육이 많은 부분이다. <참고> 엉덩이 ≡ 둔부, 히프(hip) : 불기의 윗부분				

귀이개[귀이개]	귀후비개	귀후비개	귀:개	귀휘비개 귀지개	귀휘비개
귀지[귀:지]	귀칭	귀속	귀채이	귀창	귀창
	<뜻풀이> 귓구멍 속에 낀 때.				
김치[김치]	김치	배추김치	배추김치	김치/짬지	김치/짬지
깍질[깍질]	깍쫄/깍떠기	깍:쫄	깍떠기	깍떠기/깍지	깍떠기/깍매기/깍쫄
	<p><뜻풀이> 딱딱하지 않은 물체의 겉을 싸고 있는 질긴 물질의 썬.</p> <p>[예] 굴, 양파, 사과, 사과, 내 손바닥에서 깍질이 벗겨져.</p> <p><참고> ‘깍질’과 ‘깍떼기’는 구별해서 써야 한다.</p> <p>‘깍떼기’는 달걀이나 조개 따위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이나 알맹이 빼내고 겉에 남은 물건을 이르는 말이다.</p> <p>[예] 달걀 깍떼기, 굴 깍떼기, 이불, 베개의 깍떼기, 속에 든 과자는 다 먹고 깍떼기만 남았다.</p>				
꼬리[꼬리]	꽁지	꼬리	꽁지/꼬리	꽁지	꽁지/꼬리/꽁뎡이
	<p><참고> ‘꼬리’와 ‘꽁지’는 본래 그 뜻이 다르다. ‘꼬리’는 ‘동물의 꼬무나 몸뚱이의 뒤 끝에 붙어서 조금 나와 있는 부분’을 가리키고, ‘꽁지’는 새의 꼬무에 붙은 것을 뜻한다. 하지만 ‘꽁지’는 ‘꼬리’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서 쓰일 수 있다.</p>				
나박김치[나박김치]	나박김치	나박찜치 나박김치	물김치	김치꼭	김치꼭
	<p><참고> 표준어에서는 ‘나박김치, 물김치≠국물김치’의 뜻을 구분하고 있다.</p> <p>나박김치≠나복저 : 김치의 하나. 무를 알파하고 네모지게 썰어 절인 다음, 고추, 파, 마늘, 미나리 따위를 넣고 국물을 부어 담근다.</p> <p>국물김치≠물김치: 국물의 양이 많고 국물 맛이 좋게 담근 김치</p>				
낙숫물[낙숫물]	초맘물/추념물	추념물	처마물	처맘물	처마물
내[내]	개울	냄물	큰개울	내	내
눈두덩[눈뚜덩]	눈탕이	눈탕이	눈태이	눈떠버리	눈탕이
다슬기[다슬기]	울:개이	베틀울갱이	울:배이	도실비 울뱅이	울갱이/도슬배 베트룰뱅이 베트룰갱이 벼트룽뱅이

덧[던]	새:차우/돈	차귀/짜꾸틀 차구틀/찌깨틀	새차우/덥치기	차구/툷	차귀/차구/던/돈
등[등]	등어리	등어리	등어리	등어리	등/등때기
딸꾹질[딸꾹질]	딸꾸기	꼰:띠기	꼰:띠기	딸꾹질	꼰띠기/괴:기
툷배기[툷빼기]	투가리	장툷빼기 장투가리/툷빼기	투가리	장툷가리	툷빼기/툷빼기
막대기[막때기]	작때기/막때기	막때기	작때기	작때기	작때기
머루[머루]	머루	머:루/멸:구	머:루	머:루	머루
	<뜻풀이> 포도과의 왕머루, 까마귀머루, 새머루, 개머루, 털개머루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몽말[몽말]	무:등	몽말		꼬췌워따구	
몽물[몽물]	등말	등몽	몽물	등몽	등떡
몽둥이[몽둥이]	몽:대이	몽:덩이	몽:대이	몽덩이	몽덩이
뫼자리 [뫼:짜리/뫼:짜리]	모:이짜리	산소짜리 모이짜리	미:짜리	뫼짜리	뫼:짜리/산소짜리
묘[묘]	산소/모:이	산소/무덩/모이	모이/무덩	뫼/무덩	산소/묘:소/묘:
바위[바위]	바:위	바위	바우	바우 땡어리	바위
발가락[발까락]	발꼬락	발꼬락	발꼬락	발꼬락	발꼬락
베개[베개]	벼:개	베:개/벼개		비:개/베:개	베:개/비:개
벼락[벼락]	벼락	베락/벼락	베락	베락	벼락
벽[벽]	벽/베름빱	벽/베름빱	벽	벽/베름빱	베름빱
보조개[보조개]	보주개	삼		삼	관지
복숭아[복숭아]	복숭아/복쌍	복숭아/복쌍/복쌍	복숭아	복숭아/복쌍	복숭아
부리[부리]	주대이/입	주덩이	주대이	주덩이	입/주덩이
뽕족하다[뽕조카다]	뽕조캐다	뽕조캐다	뽕주카다	뽕:조카다 뽕조카다	뽕:조카다 뽕조카다
사닥다리[사닥따리]	새다리	새다리	새다리	새다리	사다리

사위[사위]	사위	사위	사우	사위/사우	사위
새끼[새끼]	새끼	새끼/산:내끼	새끼	사내끼	새끼/새끼줄 사내끼
섬돌[섬뜰]	노주뜰	요지뜰	요지뜰/노지뜰	요지뜰 요들뜰	요지뜰/요지뜰
	<뜻풀이> 집채의 앞뒤에 오르내릴 수 있게 놓은 돌층계.				
소나기[소나기]	쏘내기	쏘내기/쏘낙비	쏘내기	쏘내기	소나기/쏘내기
수레[수레]	마:차	구루마/달구지	마:차	구루마	달구지/마:차 우:마차
숙주(나물)[숙쭈]	숙쭈나물	숙쭈나물	숙쭈나물	녹뚜나물	녹뚜나물 숙채(나물)
	<뜻풀이> 녹두를 시루 같은 그릇에 담아 물을 주어 썩을 낸 나물.				
식혜[시케/시케이]	감주/시케이	감조/단술/시케이	시케이/감주	단술/감주	단술/감주
짜락눈[짜랑눈]	짜래기눈	짜래기눈/짜랑눈	짜래기	짜랑눈	짜랑눈
짜라기눈[짜라기눈]	<뜻풀이> 빗방울이 갑자기 찬 바람을 만나 얼어 떨어지는 쌀알 같은 눈.				
썸바귀[썸바귀]	가새썸배 썸바귀/썸바기	썸나물/썸바귀	썸:바우/썸:바우	썸:나물	썸:바귀
아우보다[아우보다]	아수보다	아우보다 아수보다 동생보다	동상보다	아수보다	아수보다
아직[아직]	안적	아직	안직	아직	아직/안죽
엉덩이[엉덩이]	궁:대이/엉:에이	엉:덩이/응:덩이	불:기짱	궁:댕이/응댕이	응:치
여우[여우]	여우 여깁이/여깨이	여우/여수	여우	여우	여우
엿기름[엿끼름]	길금/엿길금	엿질곰	질금	엿질금	엿질곰
	<뜻풀이> 보리에 물을 부어 썩이 뜨게 한 다음에 말린 것. 녹말을 당분으로 바꾸는 효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식혜나 엿을 만드는 데 쓰인다. ≡ 엿길금, 건맥, 맥아, 맥알				

오른손[오른손]	바른손	바른손/오른손	오른손	바른손	오른쪽손 바른쪽손/바른손
왼손[왼손]	왼:손	왼:손	왼:손	왼:손	왼:쪽손/왼:손
이마빼기[이마빼기]	마:뺏/이마뺏	마뺏/이마뺏	마:뺏	이마뺏/마뺏 마:뺏	마:뺏
	<뜻풀이> ‘이마’를 속되게 이르는 말.				
장독대[장:뚝때]	장광	장광	장광/장또광	장광	장뚝때/장광
재봉틀[재봉틀]	재방	재봉틀/자방침	자방틀	자방틀	재봉/재방틀
주머니[주머니]	주머니	호:주머니	주머이	주머니	주머니/염낭 염낭 주머니
진눈깨비[진눈깨비]	징갈비	진눈깨비	징갈뻘	진눈깨비	진눈깨비
	<뜻풀이> 비가 섞여 내리는 눈. <참고 어휘> 마른눈				
집게[집게]	찌깨	찌깨	찌깨	찌깨	찌깨
찌꺼기[찌꺼기]	찌끄래기	찌깨기	찌꺼기	찌그래기 찌끄리기	찌끄리기 찌그래기/찌끼
참외[차뫼/차뫼]	차:매/차무	차:미	차:무	차뫼	차:뫼
칼국수[칼국쑤]	칼국쑤/누룽국	손꼭쑤	칼국쑤		칼국쑤
결두리[결뚜리]	새이참	새:참	새이	새:뺏/새뺏	새이참
	<뜻풀이> 농사꾼이나 일꾼들이 끼니 외에 참참이 먹는 음식. <비슷한 말> 새참, 사이참, 결두리, 참밥				
콧구멍[코꾸멍/콧꾸멍]	코꾸녕/코꾸먹	코꾸멍/코꾸녁	코꾸멍/코꾸녕	코꾸녁/코꾸녕	코꾸먹/코꾸녁/코꾸멍
포대기[포대기]	퍼대기	포대기	퍼대기	퍼대기	포대기
혀[혀]	세	세빠닥	세:	세	쇠/혀 혀빠닥/세빠닥
호두[호두]	호두/호도	호도	호도	호두/추자	호도/추자
호주머니[호주머니]	호주머이	주머니/호주머니	주머이 호주머이	봉창/호주머이 호주머니	엽쭈머니 개화쭈머니 주머니/호주머니
흰자위[흰자위]	하얀동자	흰창	흰동자	흰창	흰창

표준어	제천	청원	충주	옥천	보은
장끼[장끼]	쟁끼	쟁끼	쟁:끼	장끼	장평
	<뜻풀이> 평의 수컷.				
까투리[까투리]	까투리	앙평/까:투리	까투리/암평	암:평/암:꿩 까:토리	
	<뜻풀이> 평의 암컷				
꺼병이[꺼:병이]	꿩아병아리 꿩애병아리	평:병아리 평:애병아리	꿩애병아리	꿩새끼	평애병아리
	<뜻풀이> 평의 어린 새끼 는 평병아리				

표준어	제천	청원	충주	옥천	보은
그그저께[그그저께]	그그저께		저그저께	그끄저께	그끄저께
그저께[그저께]	어끄저께	어끄재	그저께	그저께	그저께
어제[어제]	어제	어제	어:재	어재	어재
오늘[오늘]	그밑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내일[내일]	내:일 널:	내일	널	널	내일 널:
모레[모레]	모:래	모:래	모래	모:래	모래
글피[글피]	그훈날	글꽤	글꽤	글꽤	글꽤
그글피[그글피]	그글꽤	그글꽤	저글꽤	그글꽤	그글꽤

표준어	제천	청원	충주	옥천	보은
곤지곤지[곤지곤지]	곤지곤지 짜깁짜깁	곤지곤지	곤지/곤지곤지	진진진	진:진
	<뜻풀이> 젓먹이가 왼손 손바닥에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댔다 뻗다 하는 동작				
따로따로[따로따로]	장:사장사 따루따루:	따루따루따루	따루따루	따루따루따루	따루따루따루따루
	<뜻풀이> 어린아이가 따로 서는 법을 익힐 때, 어른이 붙들었던 손을 떼면서 내는 소리 ≙ 섬마섬마, 따로따로따로				
죄암죄암[죄암죄암/죄암죄암]	쥐암:지암	지암지암/지암잡	쨌:쨌	잠잠잠	죄암죄암
	<뜻풀이> 젓먹이가 두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 <준말> 줍줍 <참고 어휘> 쥐엄쥐엄				
소꿉놀이[소꿉노리]	통고바리	동곱짚/소꿉짚난 동고파리	통고바리	반두깨미/반두깨 반두깨노리	동고파리
바람개비[바람개비]	팔랑개비	팔랑개비	팔랑개비	발랑개비	팔랑개비
사내아이[사내아이]	머스마	머스매	머스마	머시매	머시마/사나
계 집아이 [계:지바이/계:지바이]	여식/기지배 기지바이	기:지배	여시가	여식/기지배	여자애기 지지바/기지바

표준어	제천	청원	충주	옥천	보은
개구리[개구리]	개구리	개구락찌/개구리	깨:구리	깨구리/깨구래기	개구리/깨구리
거머리[거머리]	그:머리	금:저리/그:머리	그:머리	금:저리/그:머리	거:머리/그:머리
그리마[그리마]	그러마	돈뽕거지	그르매	거러매	거르매
	<뜻풀이> 절지동물문 그리맛과의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지네와 가까운 종류로 다리가 여러 쌍이며 머리에 긴 더듬이가 있다. 어둡고 습한 곳에서 작은 벌레는 잡아먹는다. 전 세계에 분포한다. <참고> ‘그리마’는 ‘돈벌레’로 달리 불리기도 한다.				
새우[새우]	새우	새우/새뱅이	새우	새뱅이(小) /징개미(大)	새오/새우

5 문법

<대명사>

표준어	제천	청원	충주	옥천	보은
저/제-(가)[저/제]	저가	제가	저가	지:가	저가
너희[너희] (아버지)	느: 아버지	느: 아버지 느:덜 아버지	느: 아버지	느: 아버지	느: 아버지
개-(가)[개]	가가	개:가	가:가	가:가	가:가
애-(가)[애]	야가	애:가	야:가	야:가	야가
재-(가)[재]	재가	재:가	자:가	자:가	자:가
어디[어디]	어디	워:디	어디	어디/워디	어대/어디
언제[언제]	언재	언:재	운재	언:재/원:재	언재
얼마나[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을마나/을매나/얼마나	얼매나
어떻게[어떠케]	우티개/어터개	어티개	우티기	어티개	우트개
이것[이건]	이것/이개	이개/이거	이기	이개/이거	이거
이리[이리]	일루/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어미>

표준어	제천	청원	충주	옥천	보은
(떡)-는다	멍는다	멍는다	멍는다	멍는다	멍년다
(떡)-네	머거	머거	멍내	멍내	멍내
(떡)-쇼	머거요	떡대유	멍내요	떡대:	머거요
(떡)-습니다	머거유	떡대유	멍내요	떡때요	머거요/멍내요
(떡)-네요	머거유	머거유	멍내요	떡때요:	머거요/멍내요
(무엇)-이냐?	머니?	뭐:냐?	모:냐?	뭐냐?	뭐:냐?/머:냐
(무엇)-인가?	멍:가?	뭐여?	머인가?/멍:가?	똥:가?	똥:가?/뭐:인가?
(무엇)-이오?	머:유?	뭐유?	머:래요?	뭐요:?	똥:녕까? 뭐에요?/머요?

(무엇)-입니까?	머:유?	뭐:유?	머:래요?	뭐요:?	뭘:닝까?/머애요?
(무엇)-인가요?	무어:유?	뭐:유?	머:래요?	뭐요:?	뭘:니까?/머애요?
(무엇)-이야?	머:유?/머:야?/머:여?	머:여?	머잉가?/명:가?/모:여?	뭐여:?	뭘애요?/머애요?/머요?/머여?
(먹)-고/고서	먹구	먹구	먹구	먹구	먹구서
(먹)-으려고	먹을라구	먹을라구	먹을라구	먹을라구	먹을라구
(죽)-도록	죽도록	죽도록	죽두룩	죽두룩	죽두룩

<조사>

표준어	제천	청원	충주	옥천	보은
(귀)-를	귀털	귀털	귀털	귀털	귀털
(찰쌀)-로	찰쌀루	찰쌀루	찰쌀루	찰쌀루	찰쌀로/찰쌀루
(너)-만큼	너만치	너만치	너만침	너만큼	너만창
(키)-도	키두	키두	키두	키두	키두
(날)-마다	날마다	날:마두	날마등	날마등	날마다/날:마등
(오늘)-부터	오늘버터	오늘부터	오늘버텀	오늘부름	오늘부터 오늘버텀
(너)-밖에	너배끼	너배끼/너빼끼	너빼끼	너배끼	너배끼

<부사>

표준어	제천	청원	충주	옥천	보은
실컷[실컸]	시컸	실컸	실컸	실컸	실컸
조금[조금]	조끔만	조끔만	조끔	조끔	쪼:끔
얼른[얼른]	얼릉	얼렁	얼릉	얼렁	얼렁
나중에[나중에]	다으매 이다으매	나:중에/양중에/낭중에	야:중에	다:매/나:중에	나:중에
모조리[모조리]	몽조리	점:부/몽땅/몽탕	다/씩/모조리	죄:/죄:다/모조리	몽땅/삭

		제:/꽤:/다:			
겨우[겨우]	간시니	겨우	제우/억찌루	간시니	간시니
걸핏하면[걸피타면]	투카먼 걸피태먼	뀨:뜨타먼 투카먼	투카먼/꺼짚태먼	갈썸만해두 건뜨타먼	뀨뜨타먼 걸피타먼
그냥[그냥]	거냥	그냥	기양/거냥/기냥	그냥	기양
벌써[벌써]	하마	그새/발써	벌써/하마	그새	그새/하마
가장[가장]	제일	젤:	질/젤:/제일	젤:	제일/젤:

<관용표현>

표준어	제천	청원	충주	옥천	보은
여보세요	여보세유 여보세요	나줍바유 나마유/여봐유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시요 여보세요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안녕하세유 진지 잡수셨어유 식사해셨어유	긴지 잡쑤셨어유 어디 가셔유	식사하싯어유 아침잡쑤어유	안녕하세요 진지 잡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요
여기 있습니다(물건을 사고 팔 때)	받으세유 여 있어요	이거 받아유	돈 받아유 물건 값을 받으세유	돈 받으시요 여깁어요	돈 받으세요 물건값 받으세요
예/네(대답)	어	마저/그려유 마저유/예	예/어	예	예/야/으:/어:
아니(대답)	아니	아:네유/아:녀	아:니	아녀요/아니여	아:니/아니

4. 문학 속의 충청 방언

여기서 제시하는 충청 방언들은 세명대학교 박경래 교수가 지은 <문학 속의 충청 방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① 가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어: 감• 뜻풀이: ① 일부 명사 뒤에 쓰여 그 명사가 나타내는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말 ② 일부 명사 뒤에서 그 명사의 재료나 소재가 됨을 나타내는 말• 다른 방언형: 가머리, 감• 사용지역: 충청도
아무리 봐도 박사 <u>가마리</u> 가 안 되는데도 박사가 돼 거들먹거리는 사람을 경멸한 채 넓을 박사 선비 사자의 박사(博士) 대신 엷을 박사 선비 사자의 박사(薄士) 또는 엷을 박사 거짓사자의 박사(薄詐)로 치부해 버리는 버릇 말이다. <p style="text-align: right;"><강준희, 이카로스의 날개는 녹지 않았다(하), 1996, 310></p> 공개하기 거북한 내막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남에게 웃음 <u>가마리</u> 를 보태 주기 싫어서도 혼자나 속 썩는 편이 낫겠던 것이다. <이문구, 우리 동네 정씨, 문학과지성 33, 1978>

② 가지뿌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어: 거짓말• 뜻풀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어 말함. 또는 그런 말.• 다른 방언형: 거지뿌렁, 거짓부리, 거짓말• 사용 지역: 충청도
“웬일이우?” / “임자 보고 싶어서…….” “ <u>가지뿌렁</u> ” / “정말야!” <이기영, 고향2, 1947, 312>

③ 개갈 안 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어: 대응 표준어 없음• 뜻풀이: 하는 짓이나 말이 칠칠치 못하거나 갈피가 없어 이치에 맞지 않고 논리도 없다.• 사용 지역: 충청도
“부디 덜렁대지 줌 말구, 워디 가서 충그리구 무슨 일에 해찰부리지 말구, 다다 입 다물 구, 그릇 줌 구만 깨치구, 그러구 지발 그 <u>개갈 안 나는</u> 창가 줌 구만 불러라.” <p style="text-align: right;"><이문구, 제3세대한국문학 9:李文求, 관촌수필, 1983, 83></p>

4 구덕살

- 표준어: 굳은살
- 뜻풀이: 잦은 마찰로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생긴 두껍고 단단한 살.
- 다른 방언형: 굳은살, 구둑살, 꾸덕살, 꾸뚝살, 장알, 뚝살, 석살, 썩살, 장아리
- 사용 지역: 충청도

손바닥이 부르터 물집이 생기고 물집이 터져 동전 같은 **구덕살**이 박혔을 때는 땅도 2백여 평 일구었고 온 몸은 뱀 허물처럼 얼룩얼룩 벗겨져 구릿빛으로 변해 있었다.

<강준희, 이카로스의 날개는 녹지 않았다(중), 1996, 303>

5 기다

- 표준어: 그렇다, 맞다
- 뜻풀이: ①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
② 묻는 내용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아니하다.
- 다른 방언형: 그룽다, 그룽다
- 사용 지역: 충청도, 전라도

예원은 파리 한국 대사관에 불일이 있어 갔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서울신문을 보고 내 사진과 당선 소감이 실린 글을 읽었는데 동명이인이 아닌가 싶어 사진을 유심히 봤으나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생략>.....

<강준희, 이카로스의 날개는 녹지 않았다(하), 1995, 165>

6 낭구

- 표준어: 나무
- 뜻풀이: 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여러 해살이 식물
- 다른 방언형: 낭기, 나무
- 사용 지역: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전라도,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하느님이 비를 주실 때 어떤 **낭구**만이 비를 맞구 자라라던가, 미륵동 아무개만이 비를 받아서 농살 잘 지으라던가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네 농군이 농살 짓는 것두 이 농살 지어서 나만 잘 먹으리라 하는 건 아니거던. <이무영, 농민, 1972, 46>

7 내둥

- 표준어: 여태껏, 이제껏, 지금까지
- 뜻풀이: 지금까지, 이제까지
- 다른 방언형: 내중
- 사용 지역: 충청도

“아침에 칠라면 성가시게스리 **내둥** 았던 짓 헐라네…… 게서 모기 뜯기느니 일루루 와 았지…… 선풍기 틀면 물컷 안 템벼 십상이더면.” <이문구, 으악새 우는 사연, 1977, 125>

⑧ 템세

- 표준어: 도리어
- 뜻풀이: 예상이나 기대 또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되거나 다르게.
- 다른 방언형: 템다, 템데, 텃다
- 사용 지역: 전국

“웬일이라니, 내가 헐라던 소리럴 **템세** 자기가 먼침 허구 있어, 나넌 웬 불빛인가 해서 올라왔다면.” <이문구, 장한몽최종, 1976, 553>

⑨ 들벽대다

- 표준어: 대응 표준어 없음.
- 뜻풀이: 일정한 공간에 많은 것이 가득하게 모여 자꾸 수선스럽게 움직이다.
- 다른 방언형: 들벽거리다
- 사용 지역: 충청도

“어매, 그 주꾸미 고락(墨汁) 같이 생긴 껌뎡이만 **들벽대는다** 그 노리내나 허구 워치기 산대유……” <이문구, 해벽, 1972, 376>

⑩ 뜰광

- 표준어: 토방
- 뜻풀이: 방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좀 높이 관관하게 다진 흙바닥, 흔히 이곳에 쪽마루를 놓기도 한다.
- 다른 방언형: 뜰방, 뜨럭, 봉당, 뜨랑
- 사용 지역: 강원도, 충청도

“자 저 아기를 보십시오. 벌써 저만침 효험이 있잖습니까?”
“예?” 하며 영감은 요로 싸서 **뜰광**에다 내뒀던 아이를 들여다보았다. 눈빛이 달랐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다. <이문구, 해벽, 1972, 389>

⑪ 매끈하다

- 표준어: 때끈하다
- 뜻풀이: 눈이 쑥 들어가고 생기가 없다
- 다른 방언형: 때끈하다, 때끈하다
- 사용 지역: 충청도

박성녀는 이를 해-- 벌리고 웃는다. 불암소 꼬리 같은 노란 머리를 간신히 정수리에 감어 언고 눈썹이 긴 **매끈한** 두 눈을 해멀거니 뜨고 섰는 모친의 경상을 쳐다볼수록 인순이는 가슴이 명쿨하였다. <이기영, 고향, 1947, 105>

12) 빠가사리

- 표준어: 자가사리
- 뜻풀이: 통가릿과의 민물고기로 몸의 길이는 5~13cm이며, 등은 짙은 적갈색, 배는 누런색, 지느러미 가장자리는 황백색이다. 네 쌍의 수염이 있고 입이 아래로 향하여 있다.
- 다른 방언형: 빠가, 동자개
- 사용 지역: 충청도, 강원도

무수천엔 고기가 지천으로 많았다. 껍지, 메기, 홍어, 동자개(**빠가사리**라고도 함), 쪽병이, 피라미, 불러지, 미꾸라지, 모래무지, 뱀장어 등등. <강준희, 이카로스의 날개는 녹지 않았다(상), 1996, 298>

13) 빼질빼질

- 표준어: 대응 표준어 없음.
- 뜻풀이: 성이 나거나 빠치거나 하여 생긴 노여운 마음이 자꾸 소극적인 태도로 나타내는 모양.
- 다른 방언형: 빼질빼질
- 사용 지역: 충청도

한데도 어머니가 끝내 눈갈사탕을 입에 넣어주지 않으면 “씨, 난 엄마 아들 안 해! 난 엄마 아들 아니여!” 하면서 **빼질빼질** 밖으로 나가 굴뚝 뒤나 헛간 구석에 틀어박히곤 했다. <강준희, 이카로스의 날개는 녹지 않았다(상), 1996, 283>

14) 새

- 표준어: 참
- 뜻풀이: 농부나 일꾼이 일을 하다가 아침과 점심 또는 점심과 저녁 사이에 먹는 끼니 때, 또는 그런 음식.
- 다른 방언형: 새이, 새참
- 사용 지역: 충청도

그랬는데 오후 **새** 때쯤 서울 본사에서 사장이 내려온다고 공장 내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광복, 목신의 마을, 1991, 146>

15 성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어: 성기다 • 뜻풀이: 어떤 사물과 사물 사이가 촘촘하지 못하고 듚성듬성 사이가 벌어져 있다. • 사용 지역: 충청도
<p>하늘에는 성근 별</p> <p>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정지용, 정지용시집, 향수, 1936></p>

16 시여터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어: 대응 표준어 없음. • 뜻풀이: 잘난 체하는 말이나 행동이 분수에 지나치고 건방져 아주 못 마땅한 데가 있다. • 다른 방언형: 시어터지다, 시터지다 • 사용 지역: 충청도
<p>“올봄에 고등학교 졸업한 늬 아너? 너지? 건방머리 시여터진 늬 같으니라구.”</p> <p style="text-align: right;"><이문구, 제3세대한국문학9:이문구, 우리 동네, 1983, 285></p>

17 오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어: 오달지다 • 뜻풀이: 아주 심하거나 지독한 데가 있다. • 사용 지역: 충청도
<p>“주렁이만 아구같이 찢어진 중 알엇등마, 아새끼 말버릇두 오지게 싸가지없네.” 장두식은 앉은 자리에서 여유있는 자세로 상대방의 위세를 잡도리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김중태, 해적 제1권, 1993></p>

18 으쟁이뜨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어: 어중이떠중이 • 뜻풀이: 여러 방면에서 모여든 사람들을 통틀어 낫잡아 이르는 말. • 다른 방언형: 으쟁이뜨쟁이, 으중이뜨중이, 으주이뜨주이, 거문뿔이셴뿔이 • 사용 지역: 충청도, 강원도
<p>“오늘 저녁 저 양반 댁에 또 잔치 한 번 벌어지겠구먼.”</p> <p>“그렇겠지, 가근방서 으쟁이뜨쟁이 다 끌어 모이겠지. 형님 강 주사 어른 해 가면서, 소작인들도 모일 테고.” <강준희, 이카로스의 날개는 녹지 않았다(상), 1996, 60></p>

19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어: 항상 • 뜻풀이: 언제나 변함없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방언형: 노상 • 사용 지역: 충청도
<p>“아저씨 좀 어떠세요?”</p> <p>“쟝 그러. 사람은 알아보느디 헛소리를 해서 탈이라니께.”</p> <p style="text-align: right;"><이광복, 목신의 마을, 1991, 259></p>

20 쟁구쟁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어: 단짠 • 뜻풀이: 서로 뜻이 맞거나 매우 친하여 늘 함께 어울리는 사이. • 다른 방언형: 단짠 • 사용 지역: 충청도
<p>“그날까지만 해두 엄 기사허구 최 기사는 쟁구쟁구였거든. 근디 옥자란 그 여자 …… 여간대기가 아니었던걸.”</p> <p style="text-align: right;"><이광복, 목신의 마을, 1991. 76></p>

21 투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어: 푹배기 • 뜻풀이: 찌개 따위를 끓이거나 설렁탕 따위를 담을 때 쓰는 오지그릇 • 다른 방언형: 푹배기, 푹배기 • 사용 지역: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p>정월 보름날 투가리에 시래기 무쳐 담듯 허지마시구, 혼인 때 쓸 두붓모처럼 깨끗하게 쌓주시라 이겁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이문구, 우리동네 김씨, 한국문학 49, 1977, 11></p>

22 호맹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어: 호미 • 뜻풀이: 김을 매거나 감자나 고구마 따위를 썰 때 쓰는 쇠로 만든 농기구. • 다른 방언형: 호매이, 호무, 호미 • 사용 지역: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p>“그러다가 호맹이루 막을 디 가래루두 못 막느문 그래유.”</p> <p style="text-align: right;"><이광복, 목신의 마을, 1991, 184></p>

23 후질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어: 휘지르다 • 뜻풀이: 어떤 일을 하느라고 옷을 보기 흉하게 구기거나 더럽히다. • 다른 방언형: 휘질르다, 후질르다, 후지르다. • 사용 지역: 충청도
--

“아이구 저이가 웬일이래여……. 저 옷 꼴 좀 봐요. 어서 들어가 누워요!”
 그의 처가 남편의 음성을 듣고 쫓아나온다. 그는 곧드레만드레한 남편을 집안으로 잡아
 끌었다.
 “똥 웬일야. 술을 좀 먹었지. 똥! 똥!”
 경춘이는 함부로 침을 뱉는다.
 “옷을 후질렀으니까 그렇지요. 얼마나 자셨길래 이러우 아이 술내야.”
 아내는 바지 가랭이에 흙이 묻은 것을 털어주며 밋상스레 경춘이를 쳐다본다.
 <이기영, 봄봄2, 1989, 182>

㉔ 흡뜨다

• 표준어: #치뜨다
 • 뜻풀이: 눈알을 위로 굴리고 눈시울을 위로 치뜨다
 • 사용 지역: 충청도

“응 해산귀신이 부들렸어요. 아이구 저 일을 어쩔까.” 노파는 기급을 해서 눈을 흡뜨고
 부르짖는다. <이기영, 고향2, 1947, 356>

“이 아가씨랑 나랑 천양지차 같더니, 무슨 농담을 그렇게 진담처럼 진하게 하셔?” 양 마
 담은 눈을 흡뜨며 따따부따할 채비를 하였다. <이문구, 산 너머 남촌, 1990, 283>

5. 재미있는 충북 지명 이야기

㉠ 무심천(無心川)

‘무심천’은 청주를 동(東)과 서(西)로 가르며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하천이다. 무심천 서쪽 지역이 개발되기 전에는 청주를 에워싼 채 흘렀다. ‘양평천, 월운천, 영운천, 명암천, 울량천, 발산천’ 등의 작은 내를 거느리고 있는 제법 큰 하천이다. ‘무심천’ 동쪽에 우뚝 선 ‘우암산’과 함께 청주를 대표한다.

이 하천에는 ‘무심천(無心川)’ 이외에 ‘대교천(大橋川), 심수(沁水), 심천(沁川)’ 등의 명칭이 결부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 옛 문헌에 많이 나오는 지명은 ‘大橋川’이다. 『新增東國輿地僧覽(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지리지, <大東輿地圖(대동여지도)>를 비롯하여 여러 고지도에 ‘大橋川’이라는 명칭이 다수 보인다. 곧 ‘大橋川’은 문헌에서 발견되는 무심천에 대한 최초의 공식 명칭인 셈이다. ‘大橋川’이라는 명칭은 이곳에 ‘대교(大橋)’, 곧 ‘큰 다리’가 놓여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大橋’가 있는 하천의 상류로부터 ‘大橋川’이라는 명칭이 쓰이기 시작하여 전 하천으로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大橋川’이라는 명칭은 19세기 말 문헌까지 보이다가 그 이후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을 대체한 명칭이 ‘무심천(無心川)’이다. ‘무심천(無心川)’이라는 명칭은 18세기 중기에 제작된 <海東地圖(해동지도)>(淸州牧)에 처음 보인다. 이후 <海東地圖(해동지도)> 계열의 <輿地圖(여지도)>, <地乘(지승)>, <八道輿地圖(팔도여지도)>, <廣輿圖(광여도)> 등에 일관되게 보인다. 이들 고지도를 보면 ‘無心川’이라는 명칭이 공히 ‘봉림수(鳳林藪)’라는 숲과 맞대어 표시되어 있다. ‘鳳林藪’는 무심천의 하류인 지금의 운천동 하천가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숲이다. 이 숲 앞에 ‘無心川’이라는 명칭이 명기되어 있는 것은, ‘無心川’이라는 명칭이 처음에는 하천의 하류(곧, 지금의 운천동) 쪽을 가리켰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처음에는 ‘鳳林藪’ 앞 하천을 중심으로 쓰이다가 전 하천으로 확대되어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無心川’이라는 명칭은 19세기 말의 제영시(題永詩)에도 간혹 보인다. ‘無心川’이라는 명칭이 본격적으로 문헌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20세기를 넘어서이다. 20세기 초에 발행된 여러 신문과 일반 출판물에 ‘無心川’이라는 명칭이 빈번하게 나온다. 이

런 점 때문에 한때 ‘無心川’을 일제강점기 이후에 일제가 나쁜 의도를 갖고 만든 부정적 의미의 명칭으로 오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無心川’은 ‘大橋川’이라는 공식 명칭과 더불어 ‘무심천’에 대한 명칭으로 오래 전부터 쓰여 온 것임에 틀림이 없다. ‘無心川’은 20세기 이후, ‘大橋川’이라는 명칭을 제치고 하천의 대표적 명칭으로서의 지위를 얻는다.

‘無心川’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전한다. ‘무심하게 말없이 흐르는 내’라는 설, ‘무심하고 무정한 내’라는 설, ‘물이 없는 내’라는 의미의 ‘無水川’이 변한 것이라는 설, ‘수심이 없는 내’라는 의미의 ‘無深川’이 변한 것이라는 설, ‘무성뚝((武城-) 안으로 흐르는 沁川’이라는 의미의 ‘무심천(武沁川)’에서 변한 것이라는 설, 불교용어 ‘無心’에서 왔다는 설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 합의된 설은 없다. 불교용어 ‘무심(無心)’에서 왔다는 설이 그런대로 믿을 만한데, 이 설은 무심천 하류(지금의 운천동 지역)에 사찰이 많았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지금까지 발견된 ‘思惱寺 銘文(사뇌사 명문)’, ‘雲泉洞寺址 遺物(운천동사지 유물)’, ‘新羅寺跡碑(신라사적비)’, ‘興德寺 銘文(흥덕사 명문)’, ‘句陽寺 銘文(구양사 명문)’ 등을 토대로 해 볼 때 지금의 운천동 일대에는 많은 사찰이 몰려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 지역은 한때 불교와 깊은 인연이 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운천동 일대가 사찰 지역이었으므로 그 사찰 앞을 흐르는 하천도 도량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하천이 ‘無心川’이라는 불교식 명칭을 가질 수도 있다. <海東地圖>(淸州牧)를 비롯한 고지도에 ‘無心川’이라는 명칭이 예전의 절터였던 ‘鳳林藪’와 맞대어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주로 사찰 앞의 하천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불교와 밀접히 관련된 명칭임을 암시해 준다. 하지만 ‘無心川’의 ‘無心’이 불교용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굳이 하천 이름을 만드는 데에 이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흥덕사에 기거하던 백운화상의 ‘무심 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沁水’ 및 ‘沁川’은 본래 중국 ‘상당현(上黨縣)’에 있는 큰물에 대한 명칭이다. 청주의 옛 이름인 ‘상단(上黨)’을 중국으로부터 빌려올 때 그 지역에 있는 큰물의 명칭인 ‘沁水’ 및 ‘沁川’이라는 명칭까지 가져왔다면 이들 명칭은 아주 오래 전부터 쓰인 것

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沁水’ 및 ‘沁川’은 주로 문인(文人)들의 제영시(題永詩)에 국한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沁水’ 및 ‘沁川’이 주로 지식인 계층에 한정되어 쓰이던 고급어휘였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들 명칭이 대중화하지 못한 이유도 그 명칭의 성격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② 까치내

‘까치내’는 금강 지류인 미호천(美湖川)의 일부이다. ‘까치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한다.

경상도 상주에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호를 하연재(荷然齋)라 하는 노학자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는 학문에 뛰어났고 천문지리까지 통달했다. 그의 제자 중에서는 이원조와 백구영이 출중했다. 이원조는 학행이 뛰어난 비한행이청년으로 장차 나라에 크게 쓰일 것이라 기대하여 하연재가 가장 아꼈다. 백구영은 기골이 장대한 무인 기질의 젊은이로서 그 또한 공부에 열중하여 학문에 뛰어났다.

나라에 과거령이 선포된 어느 해 이원조는 청운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스승과 작별하고 서울로 향했다. 그 며칠 뒤 백구영이 스승을 뵈고 역시 길을 떠나겠다고 했다. 스승이 여러 가지 말로 만류했지만 막무가내였다. 그러자 하연재는 “네가 가더라도 네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백구영이 떠나자 옆에 있던 하연재의 한 친구가 내막을 물었다. 그러자 하연재는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범이 둔갑한 것인데 원수를 갚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렸으나 듣지 않는다.”라고 했다.

한편 이원조는 청주를 지나 합수머리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그런데 노독이 났던지 심하게 앓게 되었다. 주인이 의원을 불렀으나 차도가 없었다. 누가 흰 까치 고기를 먹으면 나을 것이라 하였다. 마침 합수머리 부근에 전에 없었던 까치 몇 마리가 며칠 전부터 날아와 놀고 있었다. 주인덕에서 시험삼아 미끼를 놓았더니 흰 까치 한 마리가 잡혔다. 그런데 까치를 들고 오는 도중에 갑자기 큰 범이 나타나 까치를 물고 가버렸다. 이원조의 병세는 더욱 위중해 갔다.

혼미한 가운데 이원조가 꿈을 꾸어 한 곳에 가니 세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 이원조가 가까이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한 노인이 먼저 “이번 과거에는 이원조가 장원을 할 테지.” 하였다. 그러자 또 한 노인이 “호환(虎患)을 면하고 살 수만 있으면야 장원이 되겠지만 아마 호환을 면할 수 없을 걸.” 하였다. 그러자 세 번째 노인이 “아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릴 방법은 없겠는가?” 하였다. 이에 이원조가 세 노인 앞에 가서 수없이 절을 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세 노인이 무어라고 의논하던니 사람을 하나 불렀다. 노인은 그 사람에게 저 앞 동네 새터말에 가서 김포수를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한참 뒤 포수가 오자 노인들은 “자네 합수머리 주막에 가서 범을 잡아 상주 선비 이원조를 구하게.” 했다.

아직 꿈이 채 깨기도 전에 이원조가 묵던 방 밖에서 벼락치듯 큰 총소리가 났다. 그러더니 밖에서 누가 여기 상주 선비 이원조란 분이 계시냐고 물었다. 이원조가 겨우 몸을 추슬러 나가 보니 밖에 한 포수가 총을 들고 서 있고 그 앞에는 큰 범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 이원조가 자세히 보니 포수는 바로 아까 꿈에서 본 그 사람이었다. 포수 역시 꿈에 신령의 계시를 받고 주막에 달려와 범을 쏘았다고 했다. 그 죽은 범은 바로 백구영이었던 것이다. 이원조는 건강이 회복되어 과거를 보아 장원급제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흰 까치가 나타났던 합수머리를 그때부터 ‘까치내’라 불렀다 한다.

위의 전설에 따르면, ‘까치내’는 ‘흰 까치가 나타난 합수머리’로 해석된다. ‘까치내’의 ‘까치’를 조류로 본 것이다. 지금도 ‘합수머리’ 근방에는 까치가 많이 날아든다고 한다. 그런데 까치가 많이 날아든다고 해서 하천의 이름을 ‘까치내’라고 했다는 것은 어딘지 의심스럽다. ‘까치내’의 유래는 다른 데서 찾을 수도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까치내’를 ‘아치내’ 또는 ‘가지내’의 변형으로 보기도 한다. ‘아치내’는 ‘작은 내’라는 뜻인데, ‘아치내’가 음상(音相)이 유사한 ‘까치내’로 변했다는 것이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 등장하는 ‘까치’ 중에는 ‘아치’로부터 변형된 것이 많다는 점에서 보면 ‘아치내’ 설은 그런 대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이곳의 ‘까치내’가 그렇게 작은 내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설은 문제가 있다.

‘가지내’는 ‘물줄기가 나뭇가지처럼 여러 갈래로 나뉜 내’를 가리킨다. 이에 한자 지명 ‘枝川’이 대응된다. 이곳이 여러 물줄기가 모이는 합수머리라는 점에서 그 물줄기를 ‘가지’ 모양으로 인식할 수 있다. 실제 ‘가지내’와 함께 ‘까치내’라는 지명이 함께 쓰이는 지역도 있어 ‘가지내’ 설이 힘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이곳 ‘까치내’에는 ‘가지내’라는 속지명과, 또 이를 근거로 한 ‘枝川’, ‘之川’ 등과 같은 한자 지명이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 약점이 될 수 있다.

‘까치내’는 『東國輿地志(동국여지지)』(17세기 후반), 『輿地圖書(여지도서)』(18세기 후반) 등과 같은 지리지, 그리고 다수의 고지도에 줄곧 ‘鵲川(작천)’으로 나온다. 이로 보면 적어도 조선 시대에는 ‘가지내’가 아닌 ‘까치내’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③ 달천(達川)

‘달천(達川)’은 충북 보은군 속리산에서 발원하여 괴산군을 거쳐 충주시의 남한강으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이곳 ‘達川’은 15세기의 『龍飛御天歌(용비어천가) 5:42』(1447)에도 나올 정도로 유서가 깊다.

‘達川’은 고유어 지명 ‘달내’를 한역한 지명이다. ‘달내’가 『龍飛御天歌』에 ‘達川’과 함께 보인다. 이로 보면 하천의 본래 이름은 ‘달내’였는데, 한자화되어 ‘達川’으로 바뀐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은 ‘달내’라는 지명이 잘 쓰이지 않으나, ‘달내’에 ‘강’을 덧붙인 ‘달내강’이라는 지명이 비교적 널리 쓰이고 있어 ‘달내’의 존재가 분명해진다.

‘달내’에는 몇 가지 유래설이 결부되어 있다. 첫째, ‘달’을 형용사 어간 ‘달-[ㅈ]’로

보아 ‘달내’를 ‘물맛이 단 내’로 해석한다. 이에 따라 ‘甘川’이라는 한자 지명을 대응하기도 한다. 둘째, ‘달’을 ‘수달’로 보아 강에 수달이 많아서 ‘수달강’이라 했다가, 이것을 ‘달강’으로 바꾸었다고 설명한다. 셋째, ‘달내’를 “달라고나 해보지.”라는 심히 외설적인 표현의 ‘달라’에서 온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들 여러 유래설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달내’의 ‘달’은 ‘山’을 뜻하는 고구려말로 추정된다. ‘달골, 달등, 달실, 달재’ 등의 ‘달’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본다. 이에 따르면 ‘달내’는 ‘산에 있는 내’, 곧 ‘산을 끼고 흐르는 내’로 해석된다. 이 내가 주로 산악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는 점이 이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되내, 산내, 산의내’ 등과 같은 의미이다.

‘達川’은 ‘달’의 어원을 잃고 그저 같은 음의 한자로 바꾼 한자 지명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達川’은 별다른 뜻이 없다.

④ 새재

‘새재’는 괴산군 연풍면과 경북 문경시 문경읍 경계에 위치하는 고개이다. 예전에 영남 사람들은 이 고개를 넘어 충주와 여주를 거쳐 서울에 이르렀다. 영남 사람들이 서울로 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넘던 영남 고개가 바로 ‘새재’이다. 일제강점기에 이화령에서 충주 수안보로 통하는 3번 국도가 나면서 ‘새재’는 옛길로 남게 되었다. 이곳 ‘새재’에는 여러 가지 유래설이 결부되어 있다.

첫째는 ‘새’를 ‘鳥’의 뜻으로 보아, ‘새재’를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로 해석한다. ‘조령(鳥嶺)’이라는 한자 지명은 그래서 생겨난 것이다. 둘째는 ‘새’를 ‘新’의 뜻으로 보아, ‘새재’를 ‘새로 닦은 고개’로 해석한다. 이는 ‘하늘재’가 폐쇄되고 새로이 놓인 고개라는 점에 근거한다. 셋째는 ‘새’를 ‘間’의 뜻으로 보아, ‘새재’를 ‘사이에 있는 고개’로 해석한다. 이는 이 고개가 ‘하늘재’와 ‘이우릿재’ 사이에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넷째는 ‘새’를 ‘草’의 뜻으로 보아, ‘새재’를 ‘억새풀이 많은 고개’로 해석한다. 이는 예전에 이 고개를 ‘草岫(초점)’이라 했다는 점과 이 고개 밑에 ‘푸실’이라는 마을이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푸실’은 ‘풀실’에서 변한 어형으로, ‘억새풀이 무성한 골짜기’라는 뜻이다. ‘草岫’ 또는 ‘푸실’이라는 지명을 보면 이곳에 억새풀이 많았던 것임은 분명하다. ‘푸실’ 마을은 ‘위푸실(상초리)’과 ‘아래푸실(하초리)’로 나뉜다.

⑤ 농다리(籠--)

‘농다리’ 충북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의 세금천(洗錦川)에 놓여 있는 다리이다. 충북 지방유형문화재 제28호이다. 이 다리는 신라 또는 고려 때 축조한 다리로 추정되나 정확한 축조 연대는 알 수 없다.

돌과 자갈을 섞어 둘레 2.5m, 높이 2m 가량 되게 쌓았는데, 마치 지네의 발 형국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무리 큰물이 나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큰 홍수로 다리 일부가 유실되기도 하였다.

‘농다리’의 유래를 밝으면 움직이고 잡아당기면 돌아가는 돌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물이 다리 위로 넘쳐흐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며, 지네가 기어가는 모습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유래설은 신빙성이 없다. ‘농다리’의 ‘농’은 한자 ‘籠’이기 때문이다.

‘농(籠)’은 ‘농다리’를 비롯하여 ‘농독, 농돌, 농바우, 농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요소로 아주 적극적으로 쓰인다. 농 꺾잡을 쌓아 올리거나 농작처럼 포개져 있는 듯한 형상의 지물(地物)을 ‘농’을 이용하여 그렇게 명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다리’는 ‘농 꺾잡을 쌓아 올리듯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만든 다리’로 해석된다. 실제 이 다리는 교각(橋脚)을 자연석을 이용하여 축대를 쌓듯이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농다리’에는 ‘籠橋(농교)’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⑥ 배티고개

‘배티고개’는 백곡면 양백리 ‘배티’ 마을에서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배티’는 지금 마을 이름으로 쓰이고 있지만 본래는 고개 이름이다.

조선 시대에 반역의 뜻을 품은 신천영(申天永)의 무리와 과거 북병사(北兵使)를 지낸 이순곤(李順坤)의 의병이 이곳 고개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고 한다. 이 싸움에서 신천영이 패하자 이 고개를 ‘패한 고개’라 하여 ‘패티(敗-)’라 불렀고, 이것이 변하여 ‘배티’가 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설은 미덥지 않다. ‘배티’라는 고개 이름의 유래는 분명하지는 않으나 마을 어귀에 아름드리 ‘돌배나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중시하면, ‘배나무’와 관련되어 만들어진 이름이 아닌가 추정된다.

‘배티’의 ‘배’를 ‘梨’의 뜻으로 보고 한자화한 지명이 ‘이티(梨-)’이다. ‘배티’, 곧 ‘이티(梨-)’는 천주교 탄압 당시 교도 30여 명이 관군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한 곳이다. 지금은 성역화하여 순례지가 되었다. 이곳을 ‘배티성지’라 부른다.

‘배티’는 고개 이름에서 이 고개 밑에 조성된 마을 이름으로 전용된다. ‘배티’ 마을은 ‘아랫말, 중간말, 꼭대기말’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가운데 현재 ‘중간말’은 없어졌다. ‘배티’가 고개 이름에서 마을 이름으로 전용되어 주로 마을 이름으로 쓰이게 되자 이 마을에 있는 고개를 지시하기 위해 마을 이름으로서의 ‘배티’에 ‘고개’를 덧붙여 ‘배티고개’라 부른 것이다. ‘배티고개’는 ‘배티 마을에 있는 고개’라는 뜻이다.

㉞ 말티고개

‘말티고개’는 ‘속리산’ 초입에 있는 고개이다. 열두 구비를 돌아 해발 430m에 이르는 아주 험하고 가파른 고개이다.

이 고개에 대해서는 조선조 세조(世祖)가 속리산에 거둥할 때 고개가 너무 급경사라 가마 이동이 어려워 말로 바꾸어 타고 넘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지명 전설이 전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야기는 ‘말티고개’의 ‘말’과 동물의 ‘말[馬]’이 우연히 음상이 같음으로 해서 생겨난 민간어원이다.

이 고개는 ‘말티고개, 말티재’라는 비교적 긴 명칭 이외에 ‘말티, 말재’라는 짧은 명칭도 아울러 갖고 있다. ‘말티, 말재’는 ‘고개’를 뜻하는 ‘티, 재’에 접두사 ‘말-’이 결합된 형태이다. 선행 요소 ‘말-’은 ‘물-’로 소급한다. 중세국어 ‘물피’(『龍飛御天歌 5:42』(1447))라는 지명의 ‘물-’이 그와 같은 것이다. ‘물피’에는 ‘馬山(마산)’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이는 ‘물-’을 ‘馬’의 뜻으로 보고 한자화한 지명이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 나타나는 ‘물-’은 본래 ‘馬’의 뜻이지만 접두사화하여 ‘馬’의 특징인 ‘大’의 뜻을 보인다. ‘말’이 다른 짐승에 비해 몸집이 크기 때문에 그것에 ‘大’라는 상징적 의미가 생겨난 것이다. 그리하여 ‘물피’는 ‘말처럼 생긴 산’이 아니라 ‘(말처럼) 큰 산’으로 해석된다. 지명의 선행 요소 ‘말-’이 ‘물-’로 소급하고, ‘물-’이 ‘大’의 뜻을 갖는다면 ‘말-’도 ‘大’의 뜻을 갖는다. 전국에 널리 분포하는 ‘말고개, 말골, 말무덤, 말바우, 말배미’ 등에 보이는 ‘말-’도 ‘大’의 뜻을 갖기는 마찬가지이다. ‘말-’은 지명 이외에 ‘말개미, 말거미, 말매미, 말벌, 말승냥이, 말잠자리, 말조개’ 등과 같은 일

반 명사에도 쓰여 ‘보통 것보다 큰 것임’을 지시한다.

한편 지명의 선행 요소로서의 ‘말-’을 중세국어 ‘ᄃᆞᆫ’와 연계해서 설명하기도 한다. ‘ᄃᆞᆫ’가 ‘으뜸가는 (것)’, ‘큰 (것)’, ‘마루’, ‘용마루’, ‘용마루 같이 생긴 것’ 등과 같은 의미를 지녀 의미상 아주 동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말[馬]’이 중세국어에 ‘말’로 나온다는 점에서 ‘ᄃᆞᆫ’와 직접 연계하여 설명하기는 곤란할 듯하다.

‘말재’의 ‘재’는 ‘고개[嶺]’를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이다. ‘박달재, 배재, 싸리재’ 등에 쓰인 ‘재’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말티’의 ‘티’는 그 정체가 분명하지 않다. ‘티’를 ‘귀티, 애티, 촌티’ 등에 보이는 ‘티’와 같은 종류의 접미사로 보기도 하나, 이들에 보이는 ‘티’와 고개 명칭에 붙은 ‘티’ 사이에 어떤 의미적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 ‘티’를 한자 ‘峙(치, 산이 우뚝하다)’로 보기도 하는데, 이는 ‘티’를 포함한 고개 명칭이 한자화할 때 ‘티’가 ‘峙’로 표기된다는 데에 근거한 설명이다. 그러나 ‘峙’의 한자음을 정확히 재구하기 전까지는 ‘티’와 ‘峙’가 동일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티’를 ‘재’와 같이 ‘고개’를 뜻하는 고유어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전국에는 ‘말티’ 이외에도 ‘티’ 또는 이것이 구개음화된 ‘치’를 포함하는 고개 명칭이 수없이 많다. ‘박달치, 배티, 싸리티’ 등이 바로 이들이다. 이들 ‘티’를 포함하는 고개 이름은 ‘재’를 포함하는 고개 이름과 함께 나타나는 큰 특징을 보인다. 이는 ‘티’가 ‘재’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단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해 준다. 이렇게 보면 ‘말재’는 ‘말재’로, ‘말티’는 ‘말티’로 소급하며, ‘큰 고개’라는 어원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드러난다. ‘큰 고개’라는 의미는 아주 보편적인 것이어서 이와 같은 의미를 함축하는 ‘말재’나 ‘말티’ 또한 여러 지역의 고개에 결부될 수 있다.

그런데 ‘큰 고개’라는 의미는 ‘말재’나 ‘말티’로 충분한데 ‘말티’에 ‘재’나 ‘고개’가 덧붙은 ‘말티재’나 ‘말티고개’가 어떻게 하여 생겨난 것인지 궁금하다.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말티’에 보이는 ‘티’의 의미가 불분명해지자 ‘고개’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 그와 같은 의미로 적극적으로 쓰이는 ‘재’와 ‘고개’를 덧붙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말티재’와 ‘말티고개’는 ‘峴’이라는 의미가 중첩된 동의 중복형 지명이 된다. 둘째, ‘말티’가 고개 이름에서 그 고개 밑에 있는 마을 이름으로 전용되어 쓰이자 그 마을에 있는 고개를 지시하기 위해 마을 이

름으로서의 ‘말티’에 ‘재’나 ‘고개’를 붙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말티재’나 ‘말티고개’는 ‘말티’ 마을에 있는 고개가 된다. 어느 쪽에서 보든 ‘말티재’와 ‘말티고개’는 이차적으로 만들어진 잉여적인 지명의 성격이다. 그리하여 이들보다는 그 본래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재’ 또는 ‘말티’라는 고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말티고개’ 정상에 세워진 비문에는 ‘말재’라는 이름이 쓰여 있다.

㉘ 지프내

‘지프내’는 영동군 심천면 심천1리를 가리킨다. 지금은 마을 이름으로 쓰이고 있으나 본래는 내 이름이다.

이는 ‘기픈내’에서 변형된 어형이다. ‘기픈내’가 구개음화에 의해 ‘지픈내’로 변한 다음 ‘ㄴ’ 탈락에 의해 ‘지프내’로 변한 것이거나, ‘기픈내’에서 먼저 ‘ㄴ’이 탈락하여 ‘기프내’로 변한 다음 구개음화에 의해 ‘지프내’로 변한 것이다. ‘기픈내’의 ‘기픈’은 ‘깊-[深]’의 관형사형이므로 ‘기픈내’는 ‘수심이 깊은 내’로 해석되며, 이에 ‘深川(심천)’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아울러 ‘기픈내’에서 변한 ‘지픈내’나 ‘지프내, 기프내’ 또한 ‘수심이 깊은 내’로 해석되며, 이에도 ‘深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이곳 ‘지프내’는 ‘양강천’과 ‘송천’이 합하여 실제 깊은 내를 이루고 있다. ‘지프내’라는 이름이 내를 따라 형성된 마을 이름으로 전용되어 그렇게 쓰인 것이다. 지금은 ‘지프내’보다는 ‘深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더 일반적으로 쓰인다.

㉙ 질마재/질매재

‘질마재’는 영동군 상촌면 임산리 관터 마을 동쪽에 있는, ‘관터’에서 ‘김천’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이다. ‘질매재’라고도 하는데, 이는 ‘질마재’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전국에 ‘질마재’ 또는 ‘질매재’라는 고개가 아주 흔하다.

‘질마재’는 ‘길마재’에서 구개음화를 겪은 어형이고, ‘길마재’는 ‘길마’와 ‘재’가 결합된 형태이다. ‘길마’는 ‘짐을 실으려고 소의 등에 얹는 안장’을 뜻하는데, 높고 가파른 것이 특징이다. ‘길마’는 ‘길마재’를 비롯하여 ‘길마고개, 길마논, 길마바위, 길마배미, 길마산, 길마치’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아주 ‘길마재’를인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서의 ‘길마’는 ‘길마’처럼 ‘높고 가파른 형상’을 지시한다.

한편 ‘재’는 ‘巔(령)’의 뜻이다. 이에 따라 ‘길마재’는 ‘길마처럼 높고 가파른 고개’로 해석된다. 이는 ‘길마고개’와 같은 의미이다. 이들에는 ‘鞍峴(안현)’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기도 한다. ‘길마재’는 지역에 따라서는 구개음화된 ‘질마재’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곳의 ‘질마재’나 서정주의 <질마재 신화>라는 작품집에 보이는 ‘질마재’도 그와 같은 것이다. ‘길마재’나 ‘질마재 고개가 있는 산’ 또는 ‘그 고개 밑에 있는 마을’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6. 전시 자료

1) 방언 조사 자료

◆ 생활 환경: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충북 청원 지역)

◇ 관련 질문지

- 10101 이 마을은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주민들은 주로 어떤 성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10102 이 마을 이름이나 마을 주위의 산, 강, 저수지, 들판, 골짜기 이름과 그 유래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이름 유래 외에 산, 바위, 나무, 호수 등에 얽힌 옛날이야기도 수집)
- 10103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갑니까? (농촌 지역이라면) 이 마을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기 위해 만든 모임(조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참고** 동네 고사, 혼인계, 당계, 상여계, 송계
- 10104 이 마을이 다른 이웃 마을과 다른 독특한 특징이나 자랑거리가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참고** 주요 문화제, 전통 민속놀이, 특산물 산출
- 10105 지금의 마을은 어르신이 어렸을 때와 비교해 볼 때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참고** 마을의 형태, 주민 수와 성씨별 구성, 풍습

◇ 조사의 실제

◇◇ 지역어

이 동네:가 이장니만태 여쭙보니까 그래두 며뽕년 대따 그러시더라고요.

- 엔:나래는 여기는 광산 김서방네가 모자리루 사라씨씨유, 광산 김씨네가. 우리가 광산 김간데, 광산 김씨가 모자리루 사런는데 지금더른 마::니 떠나구 그래서 각쌍바지가 마:너유. 광산 김씨가 망:쿠 저 부땅꼬리라는 데는 왕씨가 살:구, 고: 알루 요: 알루는 인제 김씨네가 마:니 사러썸넌데 지그먼 짐::부 객 찌루 떠나구 도러가시구 이래서 메짱 안사러유, 김씨네가.

요 황칭나라구 하능 건 왜 그런 이르미 생겨때요?

- 그건 나두 자시 몰르거씨유, 이 동네는 황칭:나라구: 해두 동네.
= 예:전서부텀 내려가때는 거 몰:르지 며, 뭐: 때때.
- 동네 요기 이르미 메:: 쑤대여. 멘:: 불리대 이씨 이러캐. 요기서 저 부땅꼴 서부터 요리캐 내려오며서. 쨌: 먼저넌 부땅꼴, 또 쪼끔 도러가서는 황칭, 황 칭이, 고기를 인저 황칭이라구 엔나래 불를 때 그르케 불러씨유, 예. 그라구 그: 아네는 또 조봉꼴, 또 저짜 쑤트머리 이장님덜 지빈넌 데루는 불군디기, 또 인저 저 건너 보이넌 데넌 신대, 또 한동네 저::기 사네 가면 메 찌비 사 런넌데 거기넌 벼재, 벼재라구 하구. 그르케 이르미:: 여:러 군데에:/

거 봐요. 모르능 거 업쓰시자너. 그렇 거...

- 아 그렇 거... 허허허.

여기 또 산두 이짜너요. 산 이름두...

- 예 저:기 너픈 봉 보이넌 데가 왕암산.
= 이짜기 왕암산, 저짜개는 백쪽싸니지.
- 아니:. 거기럴 왜 내개 얘기해씨, 여 뒤에럴 얘기 해씨. 왕암산 이꾸, 거기 인제 시:루봉이라구 이꾸. 올라루넌 맹 그양 우리 종산덜, 배:재, 음달, 인저 저짜그루 가면 인저 증:꼴, 저기 저 보이넌 대넌 인저 백쪽산, 그러쨌씨유.

저기 며 산이나 이런 대 때무내 생긴 이름 유래가 이씨요? 엔나린대 며 이래서 이르키 이르미 생겨따 며 이런 거.

= 그렇 거는 몰르지유. 그렇 건 잘 몰르지유, 그렇 건 잘 몰러.

저 위에는 저수지두 이편대.

- 야, 거 방조괴, 예, 저수지 이씨. 그거넌 며 얼마:: 안 저, 한 제가. 유기오 때 헨나?

= 일짱 때: 해씨. 일짱 때 팡 강가 그계?

방주기라 그래요?

= 어.

저:수지라구...

- 저수지라구두 하구, 엔:나래넌 우리더리 부를 재넌 방주기라구 헨넌데, 이제 지금더런 저수지라구 그르캐 부르대유.

으음: 예저내는 방주기라구...

- 예:. 방주기라구 헨는데, 지그먼 저수지라구 그르카구, 저: 저::기 건너가면 인저 밤:나리라구 거기 인저 이, 약썰무리라구 거기 이, 이꾸. 엔나래넌 그 무리 조아씨띠야, 약썰무리. 그랜대 지그문 인저 씨떡쩍 아나이가 그래구. 또 요기 조봉고리라는 데두 샤:민넌 데 거기넌 또 오샤:미라구 이르캐 바가치썰 종:그망개 이르캐 이씨구. 낭 그렇 거빠끼 몰라, 엔:날 저기넌 잘 몰:러, 어트 캐서 여:가 황청니라구 댜:는 이릉 건 몰:러.

그 어떤 때 보면 며 바위가 인는데 그건 누구, 누가 어트개 해서 이런 이르미 부터따 며 이렇 거뚜 이떠라구요.

- 요기능 그렇 거 움씨: 그냥 저: 위에 올라가면 그 큰:: 바위 인넌데, 그냥 방구배기라구 그냥 이르마지, 누가 며: 저기해서 이르먼 움씨유.

나무: 두 이짜너요? 느트나무 콩: 거.

- 그췌 여긴 나무가야:, 며 뺩넌 댜 나무가 이췌는데 인재 벼:서 움씨저찌.

비였어요?

- 예:. 인저 대꾸 이르캐 인저 절판나구 그래서 인저 그건 아주 갱::장이 그냥 이만치 커췌는데 건 움씨지구 저 아괘 드러오넌 대 그개 인저 서낭나무 라구 인저, 거기 엔:나래넌. 거기다가 인저 며 새끼줄 매고 며: 고:사두 지내

구 그래지만 지금더리야 누가 그렇 거 해유, 안 하니께 며.

저기 저: **쪼근 문주리 2구요?**

- 아니 요기. 요, 요기 바:루.

요기 바루 미태?

- 응, 요고: 우리 동네 드는대, 도로 아패 고 도로까애, 어, 회:관 저태. 예.

= 도로 아패, 도로 아패.

- 그 나무두 그 엔나래능 그르케 새끼쫄 매구 우:애구 그라던 나무유.

거기 며 떡뚜 해다 노쿠.

- 그림, 그림 거 떠캐다 노쿠 우:애구 며.

이 동네::예:만 어떤 특빠란 문화재나 특산무리나 이렇 거 이씨요?

- 여기능 그렇 건, 농사럴 저두 그냥 제위 바태 그저 콩팍 싱꾸 그렇거지 뭇: 하우스 하는 사람두 하나두 읍짜너유 이동내년. 그렇 거 특싼물 하년 사 라미 하:나두 읍씨유. 고, 주로 해따녕 개 엔:나래 담배 농사 줌 하구, 고추 농사 줌 하구 그르카지 여기는 아:무 거뚜 그렇 거 며 특쌘물 하는 사라미 읍년대, 지그문 며 요 빨간 재지비 요 아래서 배: 배럴마:니 하더라구 배 농 사럴.

아, 과:이리요?

- 예.

문화재 가통 거는 업씨요?

- 그렇 건 난 모르건는대유. 애:기두 모뜨러바:씨.

지금 저기: **엔나래 어릴 때하구 지금하구 비교해 보면요, 이 동네가 어 트개 달라져씨요? 엔날 똥내하구? 어릴 때. 아주 저 쪼그말 때 한 열대여 서 싸래서 스무 살 때 이동내하구 지금 보시는 이 동네하구가 어트개 달 라져씨요?**

- 그췌유, 머라구 마럴 햐. 그르케, 며 달라지기가 달라져씨. 세위리 달라져 쫘개 달라진년대, 엔:나래야 며 더:: 그냥, 그때야 더 어렵개덜 사러꾸 지그문 줌 저 다:덜 잘: 살:구 그라자나유. 며 그때는 때꺼리두 읍씨서 쫘쫘매구 며,

머리꼬개예 머리 뜨더다가 머 뽀까서 떡빠리 해머꾸 찢머리 해서 바패 머꾸
이래찌만 지금더른 여르매두 다: 쌀밤 머꾸 그러캐 살자너?

떡빠리는 머:구, 찢머리는 머요?

- 허허허허, 그개 물:르시지, 떡빠리는 머리가 꽤먼 새과랑 걸 뜨더다가 뽀까
가지구 빠:서 까블러 가주구 그러면 그개 떡빠리구. 찢머리닌: 머리가 인저
줍 들:릭짜너.

새과랑 거보다 쪼끔 더 되쓸 때.

- 응, 더 대쓸 때 인재 그과닝개, 때꺼리가 업써닝개 그걸 뜨더다가 비벼 가
주구서 인저 소태다 쪼 가주구: 너러 말러 가주구 인저 도구탕애다 이르캐
찌어 가주구서 바패 멩는 거유.

그래잉까 덜 영그릉 거...

- 으아, 쪼끔 인재 들: 돼서 그과먼 그르캐. 그르니까 뭐 이 동네 엔:나래야
머 징그라개 어렵개 사라찌 머. 일짱 시대 때 그냥 모 그냥 과:무더노먼 머
방꾸두꺼지 뜨꾸 와서, 일짱 시대 때 일본 싸람더리 차저가구 뭐. 아:이구,
엔:나래 나, 여기 먼:써기가 유다랭이라느이, 저: 가:덕 싸라민대 그이가 먼:써
긴대 머: 워:따 감취두 머 모:땅하개 와서 차저가구 그래서 머, 마랄 꺼두 읍
씨 고상해찌유 머.

= 꽤;니 쓸때엄는 소리하구 [xxx].

- 아이, 그전 그릉 거 그르캐 해짜너?

겐차나요, 그런 얘기 해두 이거 아무 전혀 문제...

- 아 일짱시대 때 다 그르컨능 걸 머.

오히려 그 때 조선 싸람드리 더 나빠다면서요 멀.

- 조선 싸람더리 나뽕건: 유기오:: 나서지: . 유기오 나서: 조선 인저이, 여기
싸라미래두 빨갱이 물드른 사람더런: 그냥 머: 워디가 수, 수무먼 막: 꼬냥
차자내구 머 갱장하개 그르캐찌유. 저이두 저기 우리가 유기오 때 피나늘
양: 가서, 저이가 부뜰러 갈 뻔해씨. 의용구내 부뜰러 간는데 물::래 수머서루
와 가주구 머 콩바태 가서두 송:꾸, 우리 드껴태. 낭 그래두, 그때 놀:래서 이

르캐 지금두 가지미 두근거리여. 요기다 땅:꾸럴 파구 인년대, 저이가 의용군
 가따가 인전 내빼 와서 저: 콩바태 워디가 송꾸 이르캐 헨년대, 요 아래찌비
 혈련년대 거기 사년 사람두 가치 간년대, 그 사라면 안: 내빼구 저이하구 인
 저 어떤 저 유송개비란 사라마구 둘:만 도망을 와서 완년대. 그 사라미 그냥
 그 콩... 저:기 빨갱이드를 데리구 와서, 내... 우리가 저짜그루 대:문가니 이
 썬건내, 거기럴 나가너라구 내가 이르캐 나가니캐 그::냥 빨갱이더리 와서 총
 열 디리대구 막 이르카구, 요 땅:꾸래 수면능개배, 땅:꾸래다 대구 막: 총열
 쏘구. 요 그 뒤에 예배당이 이썬썬요 요기, 저 지비. 거기따가 인저 빨갱이
 사무시럴 차려 노쿠서 그르니 요그서 요리 올라나리니 내가 얼마나 무서꺼
 썬. 잠두 못 짜구 불두 못 쓰구:. 그때 파월 메친날 해방대짜너?

예.

- 글... 그:때만 안 대쓰면 우리 시꾸는 다:: 중는디야:. 그란대 마::침 그때
 그냥... 아유, 떨, 지금두 떨려서 얘기럴 하면 무서워. 그르캐 고상을 하구 사
 러썬유.

그때:는 동내가 지금처럼 이르캐 기와지비나 이렇 건 별루 업썬썬요?

- 그러먼뉴. 초가지비구 이 자리두 왕굴자리구, 흑뺨또리... 흑찌비구 다 그
 래썬유, 인저. 다시 인저 이 부역:뚜 저러캐래두 혼: 지비래두 뜨더 가주구
 인저 개:량하구, 저른 미다지두 하구 이래썬. 이르캐 열:구 단는 무내다가,
 뜨:력뚜 이르캐 우리지븐 너꾸구, 엔::나레 엔:나레 이개 진 지빈대, 허허 그
 냥 요기다가 이르캐 그냥 곤처 가주구 이래 사:능 기지.

**그때 이 동내 사람들 살아뜬 사라마:구 지금 사는 사람들하구 사람 수
 짜두 마니 달라져썬요?**

- 달:러지구 말구유:. 그저내 살던 사람더런 다: 떠나구: 죽꾸: 그라구 새루
 드러온 사람더리: 여기 열추 반저리 다 델끼여 아마, 그지? 반저른 안대두
 마:너유. 여기 드러온 사람더리. 그래서 땀짙 각성바지여. 요기년 김서방내,
 저:기년 왕:서방내, 조 문:터년 고통 신씨 신서방내, 또 저 개깅이라년 대년
 조:씨내 이르캐 그냥 무디기루 사러썬년대... 지그면...

= 문:능 기나 대다패유:

아이 갠차너요.

- 지금더런 머. 아 머 무러본다년대 그래 어트개 뵐: 갈쳐 쥐?

그걸 물어 보능 거요. 갠차나요. 그거 그렁 거 무러보는 거요, 지금 여기. 어떤, 어떤 말스를 하셔두 상관업써요. 호호호 걱쟁하지 마셔요.

- 아 요기 씨 인내!: 그렁거 다: 저기...

여기 머 주민 수하구 성씨 별루 어트개 댜는지 이르케 무러보구 알:면 말쌘해 달라구 대 이써요.

◇◇ 표준어

이 동네가 이장님한테 여쭙 보니까 그래도 몇 백 년 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 옛날에는 여기는 광산 김서방네가 못자리로 살았었지요, 광산 김씨네가. 우리가 광산 김간데, 광산 김씨가 못자리로 살았는데 지금은 많이 떠나고 그래서 각성바지가 많아요. 광산 김시가 많고 저 불당골이라는 데는 왕씨가 살고, 그 아래 요 아래로는 이제 김시네가 많이 살았었는데 지금은 전부 객지로 떠나고 돌아가시고 이래서 몇 집 안 살아요, 김씨네가.

요 황청리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 이름이 생겼다고 해요?

- 그것은 나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 동네는 황청리라고 해도 동네.

= 예전서부터 내려갔다는 것은 모르지 뭐, 무엇 때문에.

- 동네 여기 이름이 몇 군데야. 몇(군데로) 분리 되어 있어 이렇게. 여기서 저 불당골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제일 먼저는 불당골, 또 조금 내려서는 방구배기, 이제 또 조금 여기 와서는 도람말, 또 조금 돌아가서는 황청, 황츠이이, 거기를 이제 황청이라고 옛날에 부를 때 그렇게 불렀어요, 예.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좁은골, 또 저쪽 꼬트머리 이장님들 집 있는 데로는 불군디기, 또 이제 저 건너 보이는 데는 신대, 또 한 동네 저기 산에 가면 몇 집

이 살았는데 거기는 벼재, 벼재라고 하고. 그렇게 이름이 여러 군데예요.

그거 보세요, 모르는 것 없으시잖아. 그런 것...

- 아 그런 거... 허허허.

여기 또 산도 있잖아요? 산 이름도...

- 예, 저기 높은 봉 보이는 데가 왕암산.

= 이쪽이 왕암산, 저쪽은 백죽산이지.

- 아니, 거기를 왜 내가 얘기했어, 여기 뒤예를 얘기 했지. 왕암산 있고, 거기 이제 시루봉이라고 있고, 요쪽으로는 그냥 우리 종산들, 벼재, 음달, 이제 저쪽으러 가면 이제 증골, 저기 저 보이는 데는 이제 백죽산, 그렇게 했어요.

저기 뭐 산이나 이런 데 때문에 생긴 이름의 유래가 있어요? 옛날에 뭐 이래서 이렇게 이름이 생겼나 뭐 이런것.

= 그런 것은 모르지요.

- 그런 것은 잘 모르지요, 그런 것은 잘 몰라.

저 위에는 저수지도 있던데.

- 예, 거기 방죽이, 예, 저수지 있어, xxx 되써유 저기 일제 때. xxx 되었어요, 저기 일제 때. 그것은 뭐 얼마 안(되었어) 저, 한 지가. 육이오 때 했나?

= 일정 때 했어.

- 일정 때 판 것인가 그게?

방죽이라 그래요?

= 응.

- 예.

저수지라고...

- 저수지라고도 하고, 옛날에는 우리들이 부를 때는 방죽이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은 저수지라고 그렇게 부르대요.

음, 예전에는 방죽이라고...

- 예, 방죽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저수지라고 그렇게 하고, 저 저기 건너가면 이제 뱀나리라고 거기 이제 약숫물이라고 거기 있고. 옛날에는 그 물이 좋았

있대, 약숫물이. 그런데 지금은 씨먹지를 얹으니까 그렇고, 또 여기 좁은골이라고 하는 데도 샘이 있는데 거기는 또 옷샘이라고 이렇게 바가지샘이 조그만한 게 이렇게 있었고. 난 그런거 밖에 몰라, 옛날 저기는 잘 몰라, 어떻게 해서 여기가 황청리라고 됐는지 이런 것은 몰라.

어떤 때 보면 뭐 바위가 있는데 그건 누구, 누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 여기는 그런 거 없어. 그냥 저 위에 올라가면 그 큰 바위 있는데, 그냥 방구배기라고 그냥 이름하지, 누가 뭐 저기 해서(붙인) 이름은 없어요.

나무도 있잖아요? 느티나무 큰 것.

- 글썄 여기는 나무가, 몇 백 년 된 나무가 있었는데 이제 베어서 없어졌지.

베었어요?

- 예.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결단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아주 굉장히 그냥 이만큼 컸었는데 그것은 없어지고 저 앞에 들어오는 데 그게 이제 서낭나무라고 이제, 거기 옛날에는. 거기에다가 이제 뭐 새끼줄 매고 뭐 고사도 지내고 그랬지만 지금드리야 누가 그런 것을 해요, 안 하니까 뭐.

저기 저 문주리 2구요?

- 아니 요기. 요, 요기 바로.

요기 바로 밑에?

- 응, 요것 우리 동네 들어오데, 도로 앞에 그 도로 가에, 응, 회관 곁에. 예.

= 도로 앞에, 도로 앞에.

- 그 나무도 그 옛날에는 그렇게 새끼줄 매고 위하고 그러던 나무예요.

거기 뭐 떡도 해다 놓고.

- 그럼, 그럼 거기 떡 해다 놓고 위하고 뭐.

이 동네에만 있는 어떤 특별한 문화재나 특산물이나 이런 것 있어요?

- 여기는 그런 것은, 농사를 지어도 그냥 겨우 밭에 그저 콩팥 심고 그런 거지 뭐. (비닐)하우스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잖아요 이 동네에는. 그런 것 특산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고, 주로 했다는 게 옛날에 담배농사 좀 하

고, 고추농사 좀 하고 그렇게 하지 여기는 아무 것도 그런 거 뭐 특산물 하는 사람 없는데, 지금은 뭐 요 빨간 기와집에 요 아래에서 배, 배를 많이 하 더라고 배농사를.

아, 과일요?

- 예.

배나무?

- 예.

문화재같은 것은 없어요, 여기는?

- 그런 건 난 모르겠는데요. 얘기도 못 들어봤어.

지금 저기, 옛날에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요, 이 동네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옛날 동네하고? 어릴 때. 아주 저 조그마할 때 한 열대 여섯 살에서 스무 살 때 이 동네하고 지금 보시는 이 동네하고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 글썄요, 뭐라고 말을 해. 그렇게, 뭐 달라지기야 달라졌지. 세월이 달라졌 으니까 달라졌는데, 옛날에야 뭐 더 그냥, 그때야 더 어렵게들 살았고 지금은 좀 이제 다들 잘 살고 그러잖아요. 뭐 그때는 뗏거리도 없어서 찢찢 매고 뭐, 보릿고개에 보리 뜯어다가 뭐 볶아서 떡보리 해 먹고 찢보리해서 밥해 먹고 그랬지만 지금은 여름에도 다 쌀밥 먹고 그렇게 살잖아?

떡보리는 뭐고, 찢보리는 뭐예요?

- 히히히히, 그게 모르시지, 떡보리는 보리가 패면 새파란 것을 뜯어다가 볶 아가지고 빵아서 까불러 가지고 그러면 그게 떡보라고, 찢보리는 보리가 이제 좀 덜 익잖아.

새파란 것보다 조금 더 되었을 때.

- 응, 더 되었을 때 이제 급하니까, 뗏거리가 없으니까 그것을 뜯어다가 비벼 가지고 이제 술에다 찢 가지고 널어서 말려 가지고 이제 절구통에 다 이렇게 찢어 가지고 밥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여문 것...

- 어, 조금 이제 덜 되어서 급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뭐 이 동네 옛날에야 뭐 징그럽게 어렵게 살았지 뭐, 일정 시대 때 그냥 뭐 그냥 파묻어 놓으면 뭐 방구들까지 뜯고 와서, 일정 시대 때 그냥 뭐 그냥 파묻어 놓으면 뭐 방구들까지 뜯고 와서, 일정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찾아가고 뭐. 아이고, 옛날에 나, 여기 면서기가 유달영이라는 이, 저기 가덕 사람인데 그이가 면서기인데 뭐 어디에다 감춰도 못 당하게 와서 찾아가고 그래서 뭐, 말할 것도 없이 고생했지요 뭐.

=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고 [***].

- 아이, 그전에 그런 것 그렇게 했잖아?

괜찮아요, 그런 얘기해도. 이거 아무 전혀 문제...

- 아 일정시대 때 다 그렇게 했는 걸 뭐.

오히려 그 대 조선 사람들이 더 나빴다면서요 필.

- 조선 사람들이 나쁜 것은 육이오(6.25) 나서지. 육이오(6.25) 나서 조선 이제 이, 여기 사람이라도 빨갱이 물든 사람들은 그냥 뭐 어디에 가서 수, 숨으면 막 그냥 찾아내고 뭐 굉장하게 그렇게 했지요. 저이도 저기 우리가 육이오(6.25) 때 피난을 안 가서, 저이가 잡혀갈 뻔했어. 인민군에 붙들려 갔는데 몰래 숨어서 와 가지고 뭐 콩밭에 가서도 숨고, 우리 뒤꼍에. 난 그래도, 그때 놀라서 이렇게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리. 요기에다 땅굴을 파고 있는데, 저이가 인민군 갔다가 이제 내빼 와서 저기 콩밭에 어디에 가 숨고 이렇게 했는데, 요 아랫집이 헐렸는데 거기 사는 사람도 같이 갔는데, 그 사람은 안 내빼고, 저이하고 이제 어떤 저 유승갑이라는 사람하고 둘만 내빼서 왔는데. 그 사람이 그냥 그 공... 빨갱이들을 데리고 와서, 내...우리가 저쪽으로도 대문간이 있었는데, 거기를 나가느라고 내가 이렇게 나가니까 그냥 빨갱이들이 와서 총을 들이대고 막 이렇게 하고, 요 땅굴에 숨었는가 봐(숨었는가 보다고), 땅굴에다 대고 막 총을 쏘고. 요기 뒤에 예배당이 있었어 요기에, 저 집에. 거기에다가 이제 빨갱이 사무실을 차려 놓고서, 그러니 여기서 요리 오르내리니 내가 알마나 무섭겠어. 잠도 못 자고 불도 못 켜고. 그때 팔월 며

칠 날 해방 됐잖아?

예.

- 그... 그때만 안 됐으면 우리 식구는 다 죽는데. 그런데 마침 그때 그냥... 아이고 떨, 지금도 떨려서 얘기를 하면 무서워.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살았어요.

그때는 동네가 지금처럼 이렇게 기와집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었지요?

- 그럼은요. 초가집이고 자리도 왕골자리고, 흙벽돌이... 흙집이고 다 그랬지요, 이제. 다시 이제 이 부엌도 저렇게라도 헌 집이라도 뜯어 가지고 이제 개량하고, 저런 미닫이도 하고 그랬지. 이렇게 열고 닫는 문에다가, 뜨럭도 이렇게 우리 집은 높 이제 이 부 이 부이것이 지은 집 하이제허허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냥 고쳐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지.

그때 이 동네 사람들 살았던 사람하고, 지금 사는 사람들하고 사람 숫자도 많이 달라졌지요?

- 달라지고 말고요. 그전에 살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죽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 얼추 반절이 다 될거야 아마, 그렇지? 반절은 안 되어도 많아요.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그래서 말짱 각성바지야. 여기는 김씨네, 저기는 왕씨, 조 문터는 고령 신씨 신서방네, 또 저 개깁이라는 데는 조씨네 이렇게 그냥 무더기로 살았었는데... 지금은...

= 묻는 것이나 대답해요.

아이 괜찮아요.

- 지금은 뭐. 아 뭐 물어본다는데 그래 어떻게 뭘 가르쳐 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거,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어떤, 어떤 말씀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하하 걱정하지 마세요.

- 아 여기 씨 있네, 그런 거 다 저기...

여기 뭐 주민 수와 성씨 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알면 말씀해 달라고 되어 있어요.

◆ 민속 신앙(충북 제천 지역)

◇ 관련 질문지

10103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갑니까? (농촌 지역이라면) 이 마을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기 위해 만든 모임(조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참고** 동네 고사, 혼인계, 당계, 상여계, 송계

◇ 조사의 실제

◇◇ 지역어

예저내 여기 동네에서두 고사 지나구 며 그렇 거 이씨씨씨요?

- 아:, 그럼유. 이쨌 아:, 이씨씨유. 저 서낭당이라구 저 느트나무 저 이짜너유.

예, 큼 거요.

- 예:. 거기다가 지:내씨유.

요새는 안하구요?

- 안: 해유, 인젠. 인젠 미 | 시니 모: 인너냐구 다 치어 버리씨유, 다:

- 해구 말:구. 아, 금쭈래 츠구 아주 부정한 사람 모: 뜨러오개 해구 대단해씨유 며.

떡두 해 머꾸요?

- 아:, 그럼유. 떠카구 포하구 지:사 지내능 거모냥으루 아주 다: 해씨유.

그개 동네 사람들 이르캐.

- 그럼.

결쏘카는 대는 도움이 마니 되능 거 가터요.

- 그췌 뭐 그, 그래서 인재 술 떡 인재 이래:서 지:내구 노너 머꾸 그 그래씨유. 그 그거 해:찌. 지끄면 업:씨유. 며 별루 읍쓸 끄구, 산 산선, 산신지 지내녕 거, 저 산꼬래 지푼 상고래.

- 거 며 호:래이가 니리온다다 며 니리온다다 인재 그래 가주 우:해녕거 인

재. 그래서 큰: 산, 내 저: 장선니래년 대 거기 가 보신년지 몰:러두 장선니래
 년 대 안직 거긴 헬 꺼여. 사내 가서 통대지릴 자버 가주구 저:기 터릴 다:
 뽀꾸 이래서 통대질 가따가 산신지 상 산꼭때기 거 가서 지내년대가 이썬유.
 그래서 지내년 이쓰꾸. 이 금수사내두 이쓰 꺼유, 아마. 그 큰 사내 이쓰 곁.
 이썬 꺼래유. 그릴 꺼래유.

◇◇ 표준어

예전에 여기 동네에서도 고사 지내고 뭐 그런 것 있었었지요?

- 아, 그럼요. 있었(지) 아, 있었지요. 저 서낭당이라고 저 느티나무 저 있잖
 아요.

예, 큰 것이요.

- 예. 거기에다 지냈어요.

요새는 안 하고요?

- 안 해요, 이제는. 이제는 미신이 뭐 있느냐고 다 치워 버렸어요, 다.

- 하고 말고. 아, 금줄 해 치고 아주 부정한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대단했
 지요 뭐.

떡도 해 먹고요?

- 아, 그럼요. 떡하고 포하고 제사 지내는 것모양으로 아주 다 했지요.

그것이 동네 사람들 이렇게.

- 그럼.

결속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 글세 뭐, 그 그래서 이제 술 떡 이제 이렇게 해서 지내고 나눠 먹고 그랬
 지요. 그 그것(을) 했지. 지금은 없어요. 뭐 별로 없을 것이고, 산 산신, 산신
 제 지내는 것, 저 산골에 깊은 산골에.

- 그 뭐 호랑이가 내려온다든가 뭐가 내려온다든가 이제 그래 가지고 위하
 는 것 이제. 그래서 큰 산, 내 저 장선리라는 데 저기 가 보셨는지는 몰라도

장선리라는 데는 아직 거기는 할 거야. 산에 가서 통돼지를 잡아 가지고 털을 다 뽑고 이래서 통돼지를 가져다가 산신제 산 산꼭대기 거기 가서 지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내는 (일이) 있었고. 이 금수산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큰 산에(는) 있을 걸. 있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 전통 혼례(충북 제천 지역)

◇ 관련 질문지

10207 전통 혼례식을 할 때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절차로 하는지 혼례 풍습에 대해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참고** 새색시, 청홍 치마저고리, 족두리, 청실홍실, 큰상, 신행, 폐백, 첫날밤

10208 전통 혼례식 때는 주로 어떤 음식을 준비합니까? **참고** 국수, 칼국수, 국물, 고명, 김, 부침개, 떡, 돼지잡기

10209 그 혼례식 음식은 어떻게 만듭니까?

10210 이 마을에서 전통 혼례식을 할 때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참고** 첫날밤 신방 엿보기, 신랑 발바닥 때리는 장난, 동상례

◇ 조사의 실제

◇◇ 지역어

그럼 인재 고 예시근 또 할 꺼 아니요? 상 차려 노쿠 며 이르캐.

= 상 채려 놓능 거요?

절두 하구 며 그러자너요? 어뜨캐 차려 입꾸 어떠캐 해요? 그거는?

- 사:모각, 사:모관대 해자너. 사:모, 사:모관대 해:구 거 임녕 거 이짜너 그거, 그거 하구. 여자년 족또리 낭자 하구 또 그뚜 임녕 기 이짜너.

오슨 며 이버요?

= 오설?

- 아이 그거 다: 거기 원;사미지 며, 원:삼, 그래 우너삼, 우너삼.

원삼쪽뚜리내 그림?

- 남자년 인제, 저 저 저, 그 사:모광대 해고 그거고.
- 시방두 거 사:모광대 나오던대 며 태래비에.
- 아이지금 저 저기두 이짜너. 저, 저 피:박 반년 대 거 이짜너 왜. 거기이 그거여.

피박?

- 그: 피:박 반는데 왜 남자 임녕 거 그거여 그거. 장:개갈 쟈 그 캐능거 그 거야.

치마조고리는 어떻 거 이벼요?

- = 초마조고리 며 며, 그저내 며 인년 사:람 몰:러두 우리내년 명지초마 명지 조고리지. 그거뚜 아주 잔친날 잘:해, 잘:해느라구.

새까른 이꾸요?

- 새까른 파:래쿠 빨가쿠 그러치, 며 며 며.

치마조고리가?

- 그림.

치마조고리가?

- 그 채:다니 그러니까루 그러치, 며 며 며.

부:농처마애.

- = 풀뚜선처마애,
- 몰:러 알:문 며.
- = 노랑 조고링가 그르캐 해찌?
- 모:르개씨 난.

어떤, 어떤 처마애 노랑조고리요?

- = 풀뚜선초마 노랑조고리지 며.

꼬뚜선초마가 며요?

- = 풀뚜선초마만 빨:간 풀뚜산.

꼬뚜산?

= 야.

- 그거뚜 여 여, 여기, 여기다가 머 머, 파:란 건지 머 머, 무내 인녕건지 물:루 해서 또 달지 왜.

= 꼬똥?

- 음 꼬똥.

= 꼬똥 다는 오뚜 이꾸 꼬똥 안 다는 오뚜 이꾸.

실두 이짜너요. 실두 새깁 인는 실 그렇 거는 안 하나요?

- 칭홍.

그거는 언재 하능 거요?

- 칭홍.

예.

- 그거 거 소내다 거러 가주성랑에 이 잔 얼릴 찌개, 잔 올릴 찌개 이 가머 가주구 이래.

고걸 자새히 함 번 설명 줌 해조 보새요. 저는 고걸 자새히 본 저기 업 꺼든요? 예저내 뭐 닥뚜 뭐 이르키 가따 노쿠 상 위애다 올리구.

= 상애다 가따 논능 거요? 닥뚜 가따 노쿠.

- 암:탁.

= 용떠걸, 용떠걸 이짜개 하나 노쿠 이짜개 하나 노쿠 그래유, 용떠걸. 일찍 그저넨 지배서 절퍼닐 해:짜나요. 시방은 기개 가서 해지만 절퍼늘 해서 용 떠걸 맹글드라구요. 용떠걸 해서 여기 하나 노쿠 여기두 해:노쿠 거기다가 머여 쌀두 노쿠, 쌀두 노쿠, 머:털 나 또.

- 줍쌀.

= 줍쌀?

- 줍쌀.

= 쌀두 느쿠 줍쌀두 느쿠.

- 그러치 줍쌀 쌀, 줍쌀 이래서 암:딱, 암:따 캄마리 수따 캄마리. 그애 상 우 애다, 인재 지:쌍 우애다 인재 이래 양쪼개서 들구 이꾸. 여:자 남자라능 기

지 거기.

다글?

- 그러치. 닥: 그러치.

으음:

- 그래니까 수:딱 앵따기니까 여자.

여자 남자.

- 어 어, 그러치.

= 그래 가주구 인재 그 용띠걸 인재 사흘마내 그걸 가주 떡구걸 꼬리드라구요. 용띠걸 쓰:러서 사흘마내, 그 띠글 쓰:러서 머여 아침 새벽조반도 국 끼리 주구 그래대. 엔:나래 그래녕 거만 봐:찌 우렁 그르캐 해: 보던 안 해씨두 그건 보기만 해:찌. 히히히.

- 그래 머 저기 머여 밤:, 밤: 대:추 노쿠 그래지 아마? 그거뚜 밤: 대:추두 노;쿠.

= 그때 그 이 가:는 사람 그 대:래청에서 나온 싸:럴 가따가 이때 머구먼 그 이럴 양 간대. 거기 야:기래요, 대래청에서 나온 쌀두.

- 그 밤: 대:추 노쿠.

그러면 대래청을 맨드러 논능 거내요?

- 그럼. 무를, 무를 한 냥푼 또 떠나 나:이 돼. 그래 메:나리를 찌기 서너 뿌리 뽀브다가.

= 그래두 똑띠기 반:내 머. 난: 몰:러. 어허허허.

- 그걸 뽀버다가 무래다 형고 가주설랑애 뿌리럴 씨: 가주구 그래서 이래느: 논는다구 향, 쟁바내다 이리캐.

= 그래 양푸니지 머.

- 양푼, 양푼. 그러캐 해:따구.

거 왜 그래요?

- 누가 아러? 그췌 왜 그래는지.

= 그거 무신 방버빙가 부지유 머.

- 그리구 잔 올리구.

절두 하자나요?

- 저런 남, 남, 남자가 이:배 해면 여자는 사:배 해구 그래씨.

오슨 어떤 오슬 이버요?

- 오슨 그러태이까 멀. 그 그 그.

= 사:모광대 이꾸 그래씨.

- 사:모광대행 거 그거지 머여. 지금 쪽또리 쓰, 저 해구 왜 저 저, 피:박받넌 그러키 해구 헨대니까 멀.

사모관대라고 하는 거는 과노시예요?

- 그러치. 그거 거, 그거 인재 이래 쓰구, 쓰구 이 거 이꾸, 그래구 피:박바들 짜 남자넌 그러쿠, 여자넌 쪽또리 해구 해자너. 그래니까 그, 그시그루 해씨, 엔:나레두. 지끔두 저기 별나개 하넌 사라면 그러케 해:, 예:식짱애 양 가구. 예:식짱애 가두 그러케 헬라면 해구 그랜다구. 해닝 거. 그 사:모광대래닝 거.

= 저 왜 선상 손자메누리 볼 찌개 지배서 잔치행 걸.

- 어:, 그럼 그러케 해지며. 헬람 그러케 헬라 그래씨 머. 그러케 헬라 그래지 머.

엔나래 저기 그러케 인재 겨론하자너요? 그러면 재미인는 일두 만차너요? 골려주기두 하구 머.

- 하:이구.

천날 빠매 문두 찌구 그런다면서요? 그런 얘기 흑씨 재미 이씨면 일 이 쓰면 하나 나매, 나매 얘기든지 머.

- 저기 그 천날빠매 저기 머여 그.

= 신방 채리능 거.

- 신방 채리는 거.

- 몽꾸녀글 이 신, 저 문, 문 저기 그걸루 해나왔어요, 문쫂우. 이누무걸 구 녀걸 안 뜯버리면 치멸 발러 가주구 구녕얼 뜯버서 이래 가주구, 그 두:내우 우트개 해능가 보너라구 문 인:넌 대루 다: 뜯버 노쿠, 짜개, 짜개구막 이래

구 디다다보자너.

= 아이 장난이 심해 그 문 다: 뜨더나요.

- 그래구 실랑 저기 나갈 찌개 구라멸 까러, 미태다가, 자리 미태다가. 그래, 그래구실랑에 나가다가 나가떠러지는 수도 이따구 또.

= 콩얼, 콩얼 느턴지.

- 콩.

= 그 장나니지, 장나니 심:한 사라미지.

- 그, 그눔더리 그랜다구. 콩얼, 콩얼 도짜리 미태다가, 자릴 까러여 되니까. 사:모광대 해구 그 해자면, 계구 나올 찌개 망신 씨기너라구 그눔새끼더리 그래자너. 그래자너 콩얼, 콩얼 가따가 깔, 깔:던지 자리 미태다. 그림 미그러, 미그러져 나가 떠러지자너 사:모광대 해구. 치: 지라리지.

- 별짓 다해지. 그래구 실랑 다리 멍넌다구 나오면 다 버서 노쿠넌다러 멍는 다구 이우찌배 끌:구 가서. 난 달리 바:써, 달리 보기는.

= 아이, 나이가 어리니까루 맘마이 보구 ***.

- 아, 요눔 새끼더리 지개꼬리 참바, 지개꼬리, 지개꼬리럴 가따가 이, 이 양 쪽 여기 발모글 이래 가주구 매:다러.

꺼꿀루?

- 대달뽀. 그럼 꺼꾸루 매:달지. 매:다러 노쿠실랑에.

어따가요?

- 아, 대달뽀에다가 매:달지, 방. 그래군 물, 물: 바거 눈: 데 매다러 놔:써. 그 래 내: 둘:째 처나미, 저 저, 큰 처나미지 그래니까 내 미치지마넌, 아, 승:지 리 나:서 니:기 와서 니:미 막 지라럴 빠드민선 그래민선 나설 가주구 니:미 막 참바릴 막 꼬너 노쿠 그래 가주구 갠자너씨요. 아, 여:가 발모기 아피 주 갠넌대 머 우트개녕 거여, 매달리 가주구.

왜, 왜그래능 거요?

- 그 다러플, 단대능 기지 다러 멍너라구. 아, 머 머 머, 머, 머글 꺼 머글라 그래는지 다, 단대는데 우트개녕 거여, 나: 드루워. 별:노무 꼴 다 봐:짜.

발빠닥뚜 때리구 그런다면서요?

- 아:, 그럼요.

- 다리 가주 뚜드리 꽤자너. 망치루다 저거 방매이루 때리던지 저 까:꾸루 세워 노쿠설랑애 때린다구.

동내 청년드리 그래는 거요?

- 그러치.

칭구드리 그래요? 아니면 따른 사람이?

- 아이 땀: 늪더리 그러치. 그 동, 동네 심:해, 심:해니까.

= 이이넌 처가찌배 와서 천날빠멀 지:내짜너요.

처가찌비 처가 똥내에서 그런다구요?

= 그러면. 처가 똥내서.

- 그럼. 그, 그동내서 그래지. 왜 이 여 저 내: 동내서 그래 왜?

색씨 빼서 가따구?

- 그래지 머.

- 드:루워서. 아이 여보캐 콩얼 까러 나:쓸 짜 머 나가 떠리지넌대 머 우트개 능 거여, 머 머 머. 사:모관대럴 해구설랑애 나가넌데 자리 미태다가 콩얼 까 라 낫:는대 그럼 그르키 암 미끄러져? 엔:나렌 그르키 심:해씨.

- 오:짜글

재미로 하능 거자너요, 그래두?

- 어?

재미로 하능 거자너요?

- 재:미가 머여 무리루 그래능 기지.

= 그래두 그 장난꾸니 재:미루 그래지:

- 아:이구, 재:미가 머여. 아이구 주겨유 주거.

= 장난꾸니 그래두 재:미루 그래지.

- 주거, 주거, 주거, 장:개 한: 번 갈래면 주거, 주거.

= 아, 저 맘:부기는 처가찌배서 모:자구서 바매 달려 와때자너.

- 중저니 을:마나 심:헨덴대 거.
- = 그래 바매 그썸 올러 와뜨래:.
- 아:이구, 중저니 을:마나 썸다: 구려:, 어이구: 아, 저 자:인, 자, 자:이니 죽
편지 장:모가 죽편지 해면 연초때릴 질머 지키 가주설랑애 니:기다러 멩넨대
참 지:독해다구.
- 지끄미니 그러치, 지그면 아:러서 돈 암매 주;마, 아주 이래, 이래자너. 그
런대 그전엔 그기 읍:써: 연토때릴 질머 지키구 아유 대단해: 다러 멩넨다구
다러.
- 아:이고.

◇◇ 표준어

그럼 이제 그 예식은 또 할 것 아니에요? 상 차려 놓고 뭐 이렇게?

= 상을 차려 놓는 거요?

절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어떻게 차려 입고 어떻게 해요? 그것은?

- 사모관(대), 사모관대 하잖아. 사모, 사모관대 하고 그 입는 것 있잖아. 그
것, 그것 하고. 여자는 족두리 남자 하고 또 그것도 입는 것이 있잖아.

옷은 뭐 입어요?

= 옷을?

- 아이 그거 다 거기 원삼이지 뭐, 원삼. 그래 원삼, 원삼.

원삼 족두리네 그러면?

- 남자는 이제, 저 저 저, 그 사모관대 하고 그것이고.

= 지방도 그 사모관대 나오던데 뭐 텔레비전에.

- 아이 지금 거, 저기도 있잖아 저거 폐백 받는 데 그 있잖아 왜. 그것이 그
것이야.

폐백?

- 그 폐백 받는데 왜 남자 입는 것이 그것이야. 그것. 장가갈 때 그 하는 것
그것이야.

치마저고리는 어떤 것 입어요?

= 치마저고리 뭐 뭐, 그전에 뭐 있는 사람은 몰라도 우리네는 무명치마 무명저고리지. 그것도 아주 잔칫날 잘하, 잘하느라고.

색깔은 있고요?

= 색깔은 파랗고 빨갛고 그렇지, 뭐 뭐 뭐.

치마저고리가?

- 그림.

치마저고리가?

- 그 채단이 그러니까 그렇지, 뭐 뭐 뭐.

분홍치마에.

= 풀두선치마에,

- 몰라 알면 뭐.

= 노랑 저고리가 그렇게 했지?

- 모르겠어 난.

어떤, 어떤 치마에 노랑 저고리예요?

= 풀두선치마 노랑 저고리지 뭐.

풀두선치마가 뭐예요?

= 풀두선 치마만 빨간 풀두선.

꽃두산?

= 예.

- 그것도 여 여, 여기, 여기다가 뭐 뭐, 파란 것인지 뭐 뭐, 무늬 있는 것인지 무엇으로 해서 또 달지 왜.

= 끝둥?

- 음 끝둥.

실도 있잖아요. 실도 색깔있는 실 그런 것은 안 하나요?

- 칭흥.

그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 청홍.

예.

- 그거 거 손에다 걸어 가지고서 이 잔 올릴 적에, 잔 올릴 적에 이 감아 가지고 이래.

그것을 자세히 한 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저는 고걸 자세히 본 적이 없거든요. 예전에 뭐 닭도 뭐 이렇게 갖다 놓고 상위에 올리고.

= 상에다 갖다 놓는 것이요? 닭도 갖다 놓고.

- 암탉.

= 용떡을, 용떡을 이쪽에 하나 놓고 이쪽에 하나 놓고 그래요, 용떡을. 일찍 그전엔 집에서 절편을 했잖아요. 시방은 기계에 가서 하지만 절편을 해서 용떡을 만들더라고요. 용떡을 해서 여기 하나 놓고 여기도 해 놓고 거기에다 뭐야 쌀도 놓고, 쌀도 놓고, 뭐를 놔 또.

- 줍쌀.

= 줍쌀?

- 줍살.

= 쌀도 넣고 줍쌀도 넣고.

- 그렇지 줍쌀 쌀, 줍쌀 쌀 이래서 암탉, 암탉 한 마리 수탉 한 마리 그래 상 위에다 이제 제상 위에다 이제 이래 양쪽에서 들고 있고 여자 남자 라는 것이지 그것이.

닭을?

- 그렇지. 닭. 그렇지.

예.

- 그러니까 수탉 암탉이니까 여자.

여자 남자.

- 어 어, 그렇지.

=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용떡을 이제 사흘만에 그것을 가지고 떡국을 끓이더라고요. 용떡을 썰어서 사흘만에, 그 떡을 써어서 뭐야 아침 새벽조반도 국

끓여 주고 그러데. 옛날에 그러는 것만 봤지 우리는 그렇게 해 보지는 않았어도 그건 보기만 했지. 히히히

- 그래 뭐 저기 뭐여 밤, 밤 대추 놓고 그러지 아마? 그것도 밤 대추도 놓고.

= 그 때 그 이가는 사람 그 대례청에서 나온 쌀을 가져다가 입에 먹으면 그이를 안 간대. 그게 약이래요, 대례청에서 나온 쌀도.

- 그 밤 대추 놓고.

그러면 대례청을 만들어 놓는 거네요?

- 그럼. 물을, 물을 한 양푼 또 떠다 봐야 돼. 그래 미나리를 저기 서너뿌리 뽑아다가.

= 그래도 똑똑히 봤네 뭐. 난 몰라. 어허허허.

- 그것을 뽑아다가 물에다 행귀 가지고서 뿌리를 씻어 가지고 그래서 이래 넣어 놓는다고, 쟁반에다 이렇게.

= 그래 양푼이지 뭐.

- 양푼, 양푼. 그렇게 했다고.

그거 왜 그래요?

- 누가 알아? 글썸 왜 그러는지.

= 그것이 무슨 방법인가 보지요 뭐.

- 그, 그렇게 했어.

= 무슨 방법인가 보지 뭐.

- 그리고 잔 올리고.

절도 하잖아요?

- 절은 남, 남, 남자가 이배 하면 여자는 사배 하고 그랬어.

웃은 어떤 웃을 입어요?

- 웃은 그렇다니까 뭘. 그 그 그.

= 사모관대 입고 그랬지.

- 사모관대한 것 그것이지 뭐야. 지금 족두리 쓰(고), 저 하고 왜 저저 폐백

받는(것은) 그렇게 하고, 한다니까 뭘.

사모관대라고 하는 것은 관웃이예요?

- 그렇지. 그거 인제 이래 쓰고, 쓰고 이 거 입고, 그리고 폐백 받을 때 남자는 그렇고 여자는 족두리 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그식으로 했어, 옛날에도. 지금도 저기 별나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 예식장에 안 가고. 예식장에도 그렇게 하려면 하고 그런다고. 하는 것. 그 사모관대라는 것.

= 저 왜 선생 손자며느리 볼 적에 집에서 잔치한 걸.

- 어, 그럼 그렇게 하지 뭐. 하려면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뭐.

옛날에 저기 그렇게 이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재미있는 일도 많잖아요? 골려주기도 하고 뭐.

- 아이고.

첫날밤에 문도 찢고 그런다면서요. 그런 얘기 혹시 재밌었던 일 있으면 하나 남의 얘기든지 뭐.

- 저기 그 첫날밤에 저기 뭐야 그.

= 신방 차리는 것.

- 신방 차리는 것.

- 문구멍을 이 신, 저 문, 문 저기 그것으로 해 놓았어요, 문종이. 이놈의 것을 구멍을 안 뚫어지면 침을 발라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이래 가지고, 그 두 내외 어떻게 하는가 보느라고 문을 있는 대로 다 뚫어 놓고, 찢 찢고 막 이러고 들여다보잖아.

= 아이 장난이 심해 그 문 다 뜯어놓아요.

- 그리고 신랑 저기 나갈 적에 굴밤을 깔아, 밑에다가, 자리 밑에다가. 그래 그러고서 나가다가 나가떨어지는 수도 있다고 또.

= 콩을, 콩을 넣든지.

- 콩.

= 그 장난이지, 장난이 심한 사람이지.

- 그, 그놈들이 그런다고. 콩을, 콩을 돛자리 밑에다가, 자리를 깔아야 되니까. 사모관대하고 그 하려면, 그리고 나올 적에 망신시키느라고 그놈새끼들이 그러잖아. 그렇지 않으면 콩을, 콩을 갖다가 깔, 깔든지, 자리 밑에다. 그럼 미끄러(져), 미그러져 나가떨어지잖아, 사모관대 하고. 지랄이지.

- 별짓 다하지. 그리고 신랑 달구쳐 먹는다고 나오면 다 벗어 놓고는 달구쳐 먹는다고 이웃집에 끌고 가서. 난 달려 봤어, 달려 보기는.

= 아이, 나이가 어리니까. 만만히 보고 ***.

- 아, 요놈 새끼들이. 지게꼬리, 참바 지게꼬리, 지게꼬리를 갖다가 이, 이 양쪽 여기 발목을 이래 가지고 매달아.

거꾸로?

- 대들보. 그럼 거꾸로 매달지. 매달아 놓고서.

어디에요?

- 아, 대들보에다 매달지, 방(에). 그러고는 못, 못 박아 놓은데 매달아 봤어. 그래 내 둘째 처남이 저 저, 큰 처남이지 그러니까 내 밑이지마는, 아 성질이 나서 네기 와서 네미 막 난리를 치면서 그러면서 낫을 가지고 네미 막 참바를 막 끊어 놓고 그래 가지고 괜찮았어요. 아, 여기가 발목이 아파 죽겠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매달려 가지고.

왜, 왜 그러는 거예요?

- 그 달구쳐, 달구친다는 것이지. 달구쳐 먹느라고. 아, 뭐 뭐 뭐, 뭐, 먹을 것 먹으려 그러는 지 달, 달구친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나 더러워. 별놈의 꼴 다 봤지.

발바닥도 때리고 그런다면서요?

- 아, 그럼요.

- 달구쳐 가지고 두드려 패잖아. 망치로 저 저, 방망이로 때리든지 저 거꾸로 세워 놓고서 때린다고.

동네 청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 그렇지.

친구들이 그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 아이, 다른 놈들이 그러지. 그 동, 동네(가) 심하, 심하, 심하니까.

= 이이는 처갓집에 와서 첫날밤을 지냈잖아요.

처갓집이 처가 동네에서 그러다고요?

= 그림. 처가 동네서.

- 그림. 그, 그 동네에서 그러지. 왜 이 여 저저 내 동네에서 그래 왜? 색시 빼앗아 갔다고?

- 그러지 뭐.

- 더러워서. 아이, 여북하면 콩을 깔아 놓았을 때 뭐 나가떨어지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 뭐 뭐. 사모관대를 하고서 나가는데 자리 밑에다가 콩을 깔아 놔는데 그림 그렇게 안 미끄러져? 옛날에는 그렇게 심했어. ***

재미로 하는 것이잖아요?

- 어?

재미로 하는 것이잖아요?

- 재미가 뭐야 일부러 그러는 것이지.

= 그래도 그 장난꾼이 재미로 그러지.

- 아이고, 재미가 뭐야. 아이고, 죽어요, 죽어.

= 장난꾼이 그래도 재미로 그러지.

- 죽어, 죽어, 죽어. 장가 한 번 가려면 죽어, 죽어.

= 아, 저 만복이는 처갓집에서 못 자고는 밤에 달려 왔다잖아.

- 중전(마을)이 얼마나 심한 데인데 거(기가).

= 그래 밤에 글썸 올라 왔더라.

- 아이고, 중전이 얼마나 세다 그래, 아이고. 아, 저 장인, 장, 장인이 죽든지 장모가 죽든지 하면 연춍대를 짚어지워 가지고서 네기 달구쳐 먹는데 참 지독하다고.

- 지금이니 그렇지, 지금은 알아서 돈 얼마 주마, 아주 이래 이러잖아. 그런데 그전에는 그것이 없어. 연춍대를 짚어지우고 아휴 대단해. 달구쳐 먹는다

고 달구쳐(먹는다고).

- 아이고.

◆ **살림살이: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충북 충주 지역)**

◇ **관련 질문지**

10211 결혼을 한 후에 신혼살림은 어떤 것을 마련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10212 첫아이를 가져서부터 낳을 때까지 있었던 일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참고** 임신부, 입덧, 산과 삼 가지

◇ **조사의 실제**

◇◇ **지역어**

시논살림하, 하면서 준비항 거요

- 준:비구 말구 읍:씨유.

= 가마니 처씨유, 가마니.

= 가마니 처따구.

- 우리넌 가마니 가주, 가마니라구 선상니믄 보구 아시개찌유?

= 옴:나래.

예.

- 가마닐 두: 시꾸가 새길 파:서 해: 가민선 사:백 깎 처씨, 사:백 깨, 한 해 끼우래.

항 겨우래요?

- 야:.

아이구...

- 바:멀 잠두 모 짜요.

- 내가, 내가 빨:라무 해러 가머넌 혼자 안저 새끼 꼬구, 두:리 밤새두룩.
아까 그 나무가 시보 전, 십 쩌 며 십삼 전 이르캐 한다구 그래짜나요?

- 야:

- 그건 열레 살버팁 장사헬 찌개 그래구.

나무 한 지때?

- 야아.

그때 시보 저니면 쌀:로 하면 얼마나 돼써요?

- 쌀:루 해머넌 한 되, 한 되두 채 안 돼써유, 한 되 한 되.

- 인재 그 후:애는 사:십 쩌 해머넌 한 되릴 해고, 그 땀 한 되.

그럼...

- 한, 한 되두 안 돼써유.

그럼 하루에 나무 얼마나 할 쑈 인는대요?

- 하 한 짐. 한 버니유.

하루에 나무 한 짐 해오면...

= 여기서두 저:기 저 어디여, 저 망네이꼬개래넌 데가 이십 닌가 삼십닌가
거기 가서 새복빡 해 먹꾸 가서 한 짐 해 가주 오는대유, 술 쓸까루 그거 차
곡:차곡 해 가주구.

- 술림만 해 오대요, 빨:간 술림만.

- 그래여지 가따 과리유, 다른 나무넌 안 안 팔리유.

- 빨:간 손님만 해 와유.

= 하루 열 깨릴 치면 아루 아러 볼꺼유, 하루 두:리 열 깨를 쳐써유.

가마니?

= 야.

= 그래니 사:람 꼬리 되개써유?

= 아:이구 나 가마이 치능 거 친정에서 그쎄 일짱 때 억찌루 시키유, 처라구
며 가마이 치라구 서기더리 나와 시키구 그랜대.

= 이:거 저기 저: 아부지하구 모두 매팔리서 징:일 처야 가마이 한 짹뚜 간:

시이 열거 놔유.

= 그저내는 손씨가 아이구: 아이구 난 가마이 모: 칠쫄 아라떠니 와서치니까
유 매:일 달구 치면 안 마즐 싸람 읍씨.

= 아이 그러캐 해니까 또 따러 해개 되유.

= 아:이고: 그래 가주 하루 열 짜겅 치면 자구 인나서 새보개 불키 노쿠 등
잔뿔 키 노쿠, 또 한 떡 치 노쿠서는 또 아침 해 머꾸 또 치구 이래가주 구
하루 바매 치구 어신새벽 처 가주구 비료 까마이 열 짜겅 처씨유, 열썩.

= 그래니 사:라미 전디 나유.

그거 해서 며: 해씨요?

- 파러유, 정부에서 사녕 거.

- 여:저 모깨 모깨서 여기서두 안 사구 모깨서 인재 정부에서 사녕 개 이씨
유.

- 거기서 파러요, 그때년 배당얼 해유.

- 메 깨릴 처라 메 끼릴 내:라, 막 배당얼 해유.

- 그이 배당 모태년 사람도도 망:코

- 그 여기서 인재 가마이를 이방에서 처 가주구서년 오:일망큼 가따 파년대,
오:일망큼 파년대 나흘 똥아내 사:시 깰 처 가주구 하루 꾸며 또 꾸매여거렁.

- 하루 사:시 깰 꾸며 가주구 사:시 깨를 지구선 모깰 가여지유, 그랭 건 파
러유.

저두 쫄꼬말 때 가마니 치능 거 받는대요, 여파서 함 번 해 보기두 하구.

근데 그:.

= 생강나실 끼여.

예.

그 찌기 바디라 그래지요, 그개?

- 예:.

거기 저 구멍애다가 새끼줄 쪽 꼬여 가주구.

- 예:.

게 이르:캐 틀 맨드러 가주구 거기다가 줄 거 저 새끼줄 거러서 그거 하나
자나요?

- 예:, 그래유, 예:.

그 이르미 다 다르지요, 이거 줄하구 이 틀하구 또 이르캐...

- 트리 이꾸 바디가 이꾸 인재 바느... 가마니 바누리 이꾸:.

- 꾸미는 바누리 이꾸 인재 그 또 이르미 달때뚜 이꾸 뭐.

달때요?

- 인저 저 새끼릴 으:거릴 해 가주선 여기 감:넌 거 달 때.

어디다, 어디 쓰능 건대요?

- 그: 저: 트래다 이래 냉겨 가주구.

예.

- 여 가느댕 거 가주구 이르캐 해서 새끼릴 그걸 가머애 해자너.

아, 미태 이르캐?

- 야:.

새끼 무꺼 논능 거요?

- 야.

그거 달때라구 한다구요?

- 야.

- 그래구 뒤:애 또 이재 켩기녕 건 빌짱이라 그래고.

예에.

- ** ** **.

저 팽팽하개 이르캐 새끼줄...

- 예:.

팽팽하개... ** ** 거.

- 예:.

비짱, 그 트리 이꾸 미태 새끼줄 몽능 거는 달때구, 그 다매.

- 바디.

바디가 이꾸.

- 인재 바늘

바누리 이꾸, 뒤에 비짱이 이꾸.

- 예:.

예에.

지프루 하능 거자너요, 집뚜 그거 그냥 안 하구 저:기...

- 때리...뚜디려이지유.

- 두 지필 이거 다:널 무꺼 가주서넌 그: 저: 나무루다가 이 망치, 평매해 가
주구 뚜디리유, 부뚜러깨.

망...덜 해 가주구유?

- 평매를 멩기러 가주구.

평매.

- 헤헤헤.

- 그걸 뚜디리유.

그 저 물 물 추겨 가꾸 하지요, 그 저 암 뿌서지개.

- 음 모여:... 말:르머넌 무렐 추기지만 그러차눔 물 안추겨유.

- 그게 사물 다: 이썸넌대 우리 사:우가 머 꼴똥푸무루다가 가따 준다구 가
주 가구 모두 그래 가주서넌 흐흐 안 나머서유.

= 다: 주서 가씨.

= 다디미뜰, 박딸나무 다디미뜰조차 다: 가주 강 걸, 허허허

= 다디미방매이 머 다: 주서 강 걸.

요새 그렇 거 안 써요?

= 안: 써유.

그러면 인재 할머니가 큰 크나들, 크나들 크나드리 맨 마지이요 켈: 크지
요, 켈: 위지요?

= 예:.

크나들 가져쓸 때 그: 가져서부터 날 때까지 트키 머 생강나능 거 이써요,

그때 이씨뎐 이리?

= 물:러유, 일: 해는 대 정시니 골몰해서 며: 생각나녕 거뚜 읍씨유.

= 머꾸 일:만 해씨니까유.

그때 머 저기 입떠타구 그러셔쓸...

= 예, 그렇 건 이씨 이씨유 쫓꼬마큼.

어쩔 어뎐는대요.

= 그래니까:- 머:뎐 음시기 시롱 개 이꾸.

= 또 뭐, 줌 꼬치장 거튼 대가 밭가캐 비비 머꾸 십씨두 해고.

= 이 시구, 머 살구 거튼 거뚜 머끼 시꾸 이리치유.

- 그러니까 워낭 머 읍:씨니까 그냥 그래구 사:니까, 우리능 그르캐 사:니까,
머 머꾸 시봉 거뚜 몸: 머꾸 머 허허허 그래구 지내씨유.

하라부지가 줌 저기 마래내 주시면, 허허허 떡꾸 시풍 거 줌 마련해...

= 아이구 그렐 처라리 어디씨유.

입떠타뎐 어때요, 어떠캐 되능겨요?

= 그르이까 바벌 한동안 몸: 먹찌유

예.

= 예, 바짚 안 해씨:.

= 그래다 인젠 서너 달 너머 딸 되뎐 도러스지유.

- 아이구 해필 니리 가주 질: 고생시루캐 이리캐 사:년 사라만태 오셔 가주
구서년.

- 머이 여지캐 머:래유, 나 저 크민서년 그때 나이 지금 기어기 안 나년대,
장:사찌비 아까 얘기했년대 여기 저 머여 거 미실 태동이라년 사람 관:도 성
장한 사람이, 그 지비 그 윤XX래는 이가 주건년대.

- 장:사찌비 바번, 아침두 몸 머꾸 증:심두 몸 머꾸 저녁두, 시: 끼 네: 끼 몸:
머그니까 배가 고르니까 장사찌브루다 바블 으:더머그러 간는데.

- 바블 으:더머그러 가년대 조: 우애렐 올라가니까루, 차마 모: ㄱㄱ 래떠라
구유, 바블 으더는 모: 까개씨유

- 그래 혈: 쭉 읊씨 되루 니리와서 자구서넌 그 이튼날, 그이 저녁뚜 몸머꾸 그 이천날두 아침두 몸 머거찌, 사문 머글 깨 업씨 굴므니까.
- 그래 가주 장사찌배를...

◇◇ 표준어

신혼살림 하면서 준비한 거요.

- 준비고 말고 없어요.
- = 가마니 쳤어요, 가마니.
- = 가마니 쳤다고.
- 우리는 가마니 가지고, 가마니라고 선생님은 보구 아시겠지요?
- = 옛날에.

예.

- 가마니를 두 식구가 새끼를 파서 해 가면서 사백 개를 쳤어, 사백 개, 한 해 겨울에.

한 겨울에요?

- 예.

아이고...

- 밤에 잠도 못 자요.
- 내가, 내가 땀나무 하러 가면 혼자 앉아서 새끼 꼬고, 둘이 밤새도록.

아까 그 나무가 십오 전, 십 전 뭐 십삼 전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 예.
- 그리고는 열네 살부터 장사를 할 적에 그러고.

나무 한 짐에?

- 예.

그때 십오 전이면 쌀로 하면 얼마나 됐어요?

- 쌀로 하면 한 되, 한 되도 채 안 됐어요, 한 되 한 되.

- 이제 그 후에는 사십 전 하면은 한 되를 하고, 그때는 한 되요.

그럼...

- 한, 한 되도 안 됐어요.

그럼 하루에 나무는 얼마나 할 수 있는데요?

- 하 한 짐, 한 번이요.

하루에 나무 한 짐 해 오면...

= 여기에서도 저기 저 어디야, 저 망녕이고개라는 데가 이십 리인가 삼십 리인가 거기 가서 새벽밥 해 먹고 가서 한 짐 해 가지고 오는데요, 솔 솔 가리 그거 차곡차곡 해 가지고.

- 솔잎만 해 와야 되요, 빨간 솔잎만.

- 그래야지 갖다 팔아요, 다른 나무는 안 안 팔려요.

- 빨간 솔잎만 해 와요.

= 하루 열 개를 치면 알아 볼 거예요, 하루 둘이 열 개를 쳤어요.

가마니?

= 예.

= 그러니 사람 풀이 되겠어요?

= 아이고 나 가마니 치는 거 친정에서 글썸 일정 때 억지로 시켜요, 치라고 뭐 가마니 치라고 서기들이 나와서 시키고 그러는데.

= 이 그 저기 저 아버지하고 모두 매달려서 종일 쳐야 가마니 한 짝도 간신히 엮어 놓아요.

= 그전에는 솜씨가 아이고 아이고 나는 가마니 못 칠 줄 알았더니 와서 치니까요 매일 달고 치면 안 맞을 사람 없어.

= 아니 그렇게 하니까 또 따라 하게 돼요.

= 아이고 그래 가지고 하루 열 짝을 치면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불 켜 놓고 등잔불 켜 놓고, 또 한 짝 쳐 놓고서는 또 아침 해 먹고 또 치고 이래 가지고 하루 밤에 치고 첫새벽 쳐 가지고 비료 가마니 열 짝을 쳤어요, 열 짝.

= 그러니 사람이 견더 나요.

그거 해서 뭐 했어요?

- 팔아요, 정부에서 사는 것.

- 여 저 목계 목계에서 여기에서도 안 사고, 목계에서 이제 정부에서 사는 게 있어요.

- 거기에서 팔아요, 그때는 배당을 해요.

- 몇 개를 쳐라 몇 개를 내라, 막 배당을 해요.

- 그 여기에서 이제 가마니를 이 방에서 쳐 가지고서 닷새만큼 갖다 파는데, 닷새만큼 파는데 나흘 동안에 마흔 개를 쳐 가지고 하루 꿰매 또 꿰매야 하거든.

- 하루 마흔 개를 꿰매 가지고 마흔 개를 지고서 목계를 가야지요, 그런 것을 팔아요.

저도 조그마할 때 가마니 치는 거 봤는데, 옆에서 한 번 해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 생각나실 거야.

예.

그 저기 바디라고 그러지요, 그게?

- 예.

거기 저 구멍에다가 새끼줄 쪽 꿰 가지고.

- 예.

그게 이렇게 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줄 그 저 새끼줄 걸어서 그거 하잖아요?

- 예, 그래요, 예.

그 이름이 다 다르지요, 이거 줄하고 틀하고 또 이렇게...

- 틀이 있고 바다가 있고 이제 바느... 가마니 바늘이 있고,

- 꿰매는 바늘이 있고 이제 그 또 이름이 달대도 있고 뭐.

달대요?

- 이제 저 새끼를 여기를 해 가지고서 여기 감는 것은 달대.

어디에다, 어디 쓰는 건데요?

- 그 저 틀에다 이렇게 넘겨 가지고.

예.

- 여기 가느다란 것 가지고 이렇게 해서 새끼를 그것을 감아야 하잖아.

아. 밑에 이렇게?

- 예.

새끼 묶어 놓은 거요?

- 예.

그것을 달대라고 한다고요?

- 예.

- 그리고 뒤에 또 이제 쾅기는 것은 빗장이라고 하고.

예.

- ** ** **.

저 팽팽하게 이렇게 새끼줄...

- 예.

팽팽하게... ** ** 것.

- 예.

빗장, 그 틀이 있고 밑에 새끼줄 묶는 것은 달대고, 그 다음에.

- 바디

바디가 있고

- 이제 바늘.

바늘이 있고, 뒤에 빗장이 있고.

- 예.

예.

짚으로 하는 거잖아요, 짚도 그거 그냥 안 하고 저기...

- 때려... 두드려야지요.

- 지을 이거 단을 묶어 가지고서 그 저 나무로 이 망치, 떡매 해 가지고 두드려요, 부드럽게.

망...뭘 해 가지고요?

- 떡매를 만들어 가지고.

떡매.

- 헤헤헤.

- 그것을 두드려요.

그 저 물 물 축여 가지고 하지요, 그 저 안 부서지게.

- 뭐야...마르면 물을 축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물 안 축여요.

- 그게 사뭇 다 있었는데 우리 사위가 뭐 골동품으로 갖다 준다고 가지고 가고 뭐 그래 가지고 흐흐 안 남았어요.

= 다 주워 갔어.

= 다듬잇돌, 박달나무 다듬잇돌조차 다 가지고 간 걸, 허허허.

= 다듬잇방망이 뭐 다 주워 간걸.

요새 그런 것 안 써요?

= 안 써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큰 큰아들, 큰아들 큰아들이 맨 만이지요, 제일 크지요, 제일 위지요?

- 예.

큰아들 가졌을 때 그 가져서부터 날 때까지 특히 뭐 생각나는 것 있어요, 그때 있었던 일이?

= 몰라요, 일 하는 데 정신이 골몰해서 뭐 생각나는 것도 없어요.

= 먹고 일만 했으니까요.

그때 뭐 저기 입덧하고 그러셨을...

= 예, 그런 것은 있어 있어요 조금.

어떻게 어땠는데요.

= 그러니까 뭐 어떤 음식이 싫은 게 있고.

- = 또 뭐, 좀 고추장 같은 데다 발갥게 비벼 먹고 싶기도 하고.
- = 이 시고, 뭐 살구 같은 것도 먹고 싶고 이렇지요.
- 그러니까 워낙 뭐 없으니까 그냥 그러고 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니까, 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뭐 허허허 그러고 지냈어요.
- 할아버지가 좀 저기 마련해 주시면, 허허허허 먹고 싶은 것 좀 마련해...**
- = 아이고 그럴 겨를이 어디 있어요.
- 입덧 하면 어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 그러니까 밥을 한동안 못 먹지요.
- 예.**
- = 예, 반지를 앓아서.
- = 그러다 이제 서너 달 네댓 달 되면 돌아서지요.
- 아이고 하필 이래 가지고 제일 고생스럽게 이렇게 사는 사람한테 오셔 가지고서.
- 뭐 여북해 뭘 해요, 나 저 크면서 그때 나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장삿집이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 저 뭐야 그 미실 태동이라는 사람 간도 성장한 사람이, 그 집에 그 윤XX이라는 이가 죽었는데.
- 장삿집이 밥은,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못 먹고), 세 끼 네 끼 못 먹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장삿집으로 밥을 얻어먹으러 갔는데.
- 밥을 얻어먹으러 가는데 저 위로 올라가니까, 차마 못 가겠더라고요, 밥을 얻으려는 못 가겠어요.
- 그래 할 수 없이 도로 내려와서 자고서 그 이튿날, 그 저녁도 못 먹고 그 이튿날도 아침에 못 먹었지, 사뭇 먹을 게 없어서 굶으니까.
- 그래 가지고 장삿집에를

2) 지명 자료



① 무심천(無心川)

‘무심천’은 청주를 동(東)과 서(西)로 가르며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하천이다. 무심천 서쪽 지역이 개발되기 전에는 청주를 에워싼 채 흘렀다. ‘양평천, 월운천, 영운천, 명암천, 울량천, 발산천’ 등의 작은 내를 거느리고 있는 제법 큰 하천이다. ‘무심천’ 동쪽에 우뚝 선 ‘우암산’과 함께 청주를 대표한다.

이 하천에는 ‘무심천(無心川)’ 이외에 ‘대교천(大橋川), 심수(沁水), 심천(沁川)’ 등의 명칭이 결부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 옛 문헌에 많이 나오는 지명은 ‘大橋川’이다. 『新增東國輿地備覽(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지리지, <大東輿地圖(대동여지도)>를 비롯하여 여러 고지도에 ‘大橋川’이라는 명칭이 다수 보인다. 곧 ‘大橋川’은 문헌에서 발견되는 무심천에 대한 최초의 공식 명칭인 셈이다. ‘大橋川’이라는 명칭은 이곳에 ‘대교(大橋)’, 곧 ‘큰 다리’가 놓여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大橋’가 있는 하천의 상류로부터 ‘大橋川’이라는 명칭이 쓰이기 시작하여 전 하천으로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大橋川’이라는 명칭은 19세기 말 문헌까지 보이다가 그 이후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을 대체한 명칭이 ‘무심천(無心川)’이다. ‘무심천(無心川)’이라는 명칭은 18세기 중기에 제작된 <海東地圖(해동지도)>(淸州牧)에 처음 보인다. 이후 <海東地圖(해동지도)> 계열의 <輿地圖(여지도)>, <地乘(지승)>, <八道輿地圖(팔도여지도)>, <廣輿圖(광여도)> 등에 일관되게 보인다. 이들 고지도를 보면 ‘無心川’이라는 명칭이 공회 ‘봉림수(鳳林藪)’라는 숲과 맞대어 표시되어 있다. ‘鳳林藪’는 무심천의 하류인 지금의 운천동 하천가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숲이다. 이 숲 앞에 ‘無心川’이라는 명칭이 명기되어 있는 것은, ‘無心川’이라는 명칭이 처음에는 하천의 하류(곧, 지금의 운천동) 쪽을 가리켰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처음에는 ‘鳳林藪’ 앞 하천을 중심으로 쓰이다가 전 하천으로 확대되어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無心川’이라는 명칭은 19세기 말의 제영시(題永詩)에도 간혹 보인다. ‘無心川’이라는 명칭이 본격적으로 문헌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20세기를 넘어서이다. 20세기 초에 발행된 여러 신문과 일반 출판물에 ‘無心川’이라는 명칭이 빈번하게 나온다. 이런 점 때문에 한때 ‘無心川’을 일제강점기 이후에 일제가 나쁜 의도를 갖고 만든 부정적 의미의 명칭으로 오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無心川’은 ‘大橋川’이라는 공식 명칭과 더불어 ‘무심천’에 대한 명칭으로 오래 전부터 쓰여 온 것임에 틀림이 없다. ‘無心川’은 20세기 이후, ‘大橋川’이라는 명칭을 제치고 하천의 대표적 명칭으로서의 지위를 얻는다.

‘無心川’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전한다. ‘무심하게 말없이 흐르는 내’라는 설, ‘무심하고 무정한 내’라는 설, ‘물이 없는 내’라는 의미의 ‘無水川’이 변한 것이라는 설, ‘수심이 없는 내’라는 의미의 ‘無深川’이 변한 것이라는 설, ‘무성독(武城-) 안으로 흐르는 沁川’이라는 의미의 ‘무심천(武沁川)’에서 변한 것이라는 설, 불교용어 ‘無心’에서 왔다는 설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 합의된 설은 없다. 불교용어 ‘무심(無心)’에서 왔다는 설이 그런대로 믿을 만한데, 이 설은 무심천 하류(지금의 운천동 지역)에 사찰이 많았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지금까지 발견된 ‘思惱寺 銘文(사녀사 명문)’, ‘雲泉洞寺址 遺物(운천동사지 유물)’, ‘新羅寺跡碑(신라사적비)’, ‘興德寺 銘文(흥덕사 명문)’, ‘旬陽寺 銘文(구양사 명문)’ 등을 토대로 해 볼 때 지금의 운천동 일대에는 많은 사찰이 몰려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 지역은 한때 불교와 깊은 인연이 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운천동 일대가 사찰 지역이었으므로 그 사찰 앞을 흐르는 하천도 도량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하천이 ‘無心川’이라는 불교식 명칭을 가질 수도 있다. <海東地圖>(淸州牧)를 비롯한 고지도에 ‘無心川’이라는 명칭이 예전의 절터였던 ‘鳳林藪’와 맞대어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주로 사찰 앞의 하천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불교와 밀접히 관련된 명칭임을 암시해 준다. 하지만 ‘無心川’의 ‘無心’이 불교용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굳이 하천 이름을 만드는 데에 이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흥덕사에 기거하던 백운화상의 ‘무심 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沁水’ 및 ‘沁川’은 본래 중국 ‘상당현(上黨縣)’에 있는 큰물에 대한 명칭이다. 청주의 옛 이름인 ‘상단(上黨)’을 중국으로부터 빌려올 때 그 지역에 있는 큰물의 명칭인 ‘沁水’ 및 ‘沁川’이라는 명칭까지 가져왔다면 이들 명칭은 아주 오래 전부터 쓰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沁水’ 및 ‘沁川’은 주로 문인(文人)들의 제영시(題永詩)에 국한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沁水’ 및 ‘沁川’이 주로 지식인 계층에 한정되어 쓰이던 고급어휘였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들 명칭이 대중화하지 못한 이유도 그 명칭의 성격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2] 까치내

‘까치내’는 금강 지류인 미호천(美湖川)의 일부이다. ‘까치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한다.

경상도 상주에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호를 하연재(荷然齋)라 하는 노학자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는 학문에 뛰어났고 천문지리까지 통달했다. 그의 제자 중에서는 이원조와 백구영이 출중했다. 이원조는 학행이 뛰어난 비한행이 청년으로 장차 나라에 크게 쓰일 것이라 기대하여 하연재가 가장 아꼈다. 백구영은 기질이 장대한 무인 기질의 젊은이로서 그 또한 공부에 열중하여 학문에 뛰어났다.

나라에 과거명이 선포된 어느 해 이원조는 청운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스승과 작별하고 서울로 향했다. 그 며칠 뒤 백구영이 스승을 뵈고 역시 길을 떠나겠다고 했다. 스승이 여러 가지 말로 만류했지만 막무가내였다. 그러자 하연재는 “네가 가더라도 네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백구영이 떠나자 옆에 있던 하연재의 한 친구가 내막을 물었다. 그러자 하연재는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범이 둔갑한 것인데 원수를 갚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했으나 듣지 않는다.”라고 했다.

한편 이원조는 청주를 지나 합수머리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그런데 노독이 났던지 심하게 앓게 되었다. 주인이 의원을 불렀으나 차도가 없었다. 누가 흰 까치 고기를 먹으면 나을 것이라 하였다. 마침 합수머리 부근에 전에 없었던 까치 몇 마리가 며칠 전부터 날아와 놀고 있었다. 주인택에서 시험삼아 미끼를 놓았더니 흰 까치 한 마리가 잡혔다. 그런데 까치를 들고 오는 도중에 갑자기 큰 범이 나타나 까치를 물고 가버렸다. 이원조의 병세는 더욱 위중해 갔다.

혼미한 가운데 이원조가 꿈을 꾸어 한 곳에 가니 세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 이원조가 가까이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한 노인이 먼저 “이런 과거에는 이원조가 장원을 할 테지.” 하였다. 그러자 또 한 노인이 “호환(虎患)을 면하고 살 수만 있으면야 장원이 되겠지만 아마 호환을 면할 수 없을 걸.” 하였다. 그러자 세 번째 노인이 “아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릴 방법은 없겠는가?” 하였다. 이에 이원조가 세 노인 앞에 가서 수없이 절을 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세 노인이 무어라고 의논하던 사람을 하나 불렀다. 노인은 그 사람에게서 저 앞 동네 새터말에 가서 김포수를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한참 뒤 포수가 오자 노인들은 “자네 합수머리 주막에 가서 범을 잡아 상주 선비 이원조를 구하게.” 했다.

아직 꿈이 깨 깨기도 전에 이원조가 묵던 방 밖에서 벼락치듯 큰 총소리가 났다. 그러더니 밖에서 누가 여기 상주 선비 이원조란 분이 계시냐고 물었다. 이원조가 겨우 몸을 추슬러 나가 보니 밖에 한 포수가 총을 들고 서 있고 그 앞에는 큰 범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 이원조가 자세히 보니 포수는 바로 아까 꿈에서 본 그 사람이었다. 포수 역시 꿈에 신령의 계시를 받고 주막에 달려와 범을 쏘았다고 했다. 그 죽은 범은 바로 백구영이었던 것이다. 이원조는 건강이 회복되어 과거를 보아 장원급제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흰 까치가 나타났던 합수머리를 그때부터 ‘까치내’라 불렀다 한다.

위의 전설에 따르면, ‘까치내’는 ‘흰 까치가 나타난 합수머리’로 해석된다. ‘까치내’의 ‘까치’를 조류로 본 것이다. 지금도 ‘합수머리’ 근방에는 까치가 많이 날아든다고 한다. 그런데 까치가 많이 날아든다고 해서 하천의 이름을 ‘까치내’라고 했다는 것은 어딘지 의심스럽다. ‘까치내’의 유래는 다른 데서 찾을 수도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까치내’를 ‘아치내’ 또는 ‘가지내’의 변형으로 보기도 한다. ‘아치내’는 ‘작은 내’라는 뜻인데, ‘아치내’가 음상(音相)이 유사한 ‘까치내’로 변했다는 것이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 등장하는 ‘까치’ 중에는 ‘아치’로부터 변형된 것이 많다는 점에서 보면 ‘아치내’ 설은 그런 대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이곳의 ‘까치내’가 그렇게 작은 내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설은 문제가 있다.

‘가지내’는 ‘물줄기가 나뭇가지처럼 여러 갈래로 나뉜 내’를 가리킨다. 이에는 한자 지명 ‘枝川’이 대응된다. 이곳이 여러 물줄기가 모이는 합수머리라는 점에서 그 물줄기를 ‘가지’ 모양으로 인식할 수 있다. 실제 ‘가지내’와 함께 ‘까치내’라는 지명이 함께 쓰이는 지역도 있어 ‘가지내’ 설이 힘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이곳 ‘까치내’에는 ‘가지내’라는 속지명과, 또 이를 근거로 한 ‘枝川’, ‘之川’ 등과 같은 한자 지명이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 약점이 될 수 있다.

‘까치내’는 『東國輿地志(동국여지지)』(17세기 후반), 『輿地圖書(여지도서)』(18세기 후반) 등과 같은 지리지, 그리고 다수의 고지도에 줄곧 ‘鶴川(작천)’으로 나온다. 이로 보면 적어도 조선 시대에는 ‘가지내’가 아닌 ‘까치내’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③ 달천(達川)

‘달천(達川)’은 충북 보은군 속리산에서 발원하여 괴산군을 거쳐 충주시의 남한강으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이곳 ‘達川’은 15세기의 『龍飛御天歌(용비어천가) 5:42』(1447)에도 나올 정도로 유서가 깊다.

‘達川’은 고유어 지명 ‘달내’를 한역한 지명이다. ‘달내’가 『龍飛御天歌』에 ‘達川’과 함께 보인다. 이로 보면 하천의 본래 이름은 ‘달내’였는데, 한자화되어 ‘達川’으로 바뀐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은 ‘달내’라는 지명이 잘 쓰이지 않으나, ‘달내’에 ‘강’을 덧붙인 ‘달내강’이라는 지명이 비교적 널리 쓰이고 있어 ‘달내’의 존재가 분명해진다.

‘달내’에는 몇 가지 유래설이 결부되어 있다. 첫째, ‘달’을 형용사 어간 ‘달-[甘]’로 보아 ‘달내’를 ‘물맛이 단 내’로 해석한다. 이에 따라 ‘甘川’이라는 한자 지명을 대응하기도 한다. 둘째, ‘달’을 ‘수달’로 보아 강에 수달이 많아서 ‘수달강’이라 했다가, 이것을 ‘달강’으로 바꾸었다고 설명한다. 셋째, ‘달내’를 “달라고나 해보지.”라는 심히 외설적인 표현의 ‘달라’에서 온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들 여러 유래설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달내’의 ‘달’은 ‘山’을 뜻하는 고구려말로 추정된다. ‘달골, 달등, 달실, 달재’ 등의 ‘달’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본다. 이에 따르면 ‘달내’는 ‘산에 있는 내’, 곧 ‘산을 끼고 흐르는 내’로 해석된다. 이 내가 주로 산악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는 점이 이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피내, 산내, 산의내’ 등과 같은 의미이다.

‘達川’은 ‘달’의 어원을 잃고 그저 같은 음의 한자로 바꾼 한자 지명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達川’은 별다른 뜻이 없다.



4 새재

‘새재’는 괴산군 연풍면과 경북 문경시 문경읍 경계에 위치하는 고개이다. 예전에 영남 사람들은 이 고개를 넘어 충주와 여주를 거쳐 서울에 이르렀다. 영남 사람들이 서울로 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넘던 영남 고개가 바로 ‘새재’이다. 일제강점기에 이화령에서 충주 수안보로 통하는 3번 국도가 나면서 ‘새재’는 옛길로 남게 되었다.

이곳 ‘새재’에는 여러 가지 유래설이 결부되어 있다.

첫째는 ‘새’를 ‘鳥’의 뜻으로 보아, ‘새재’를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로 해석한다. ‘조령(鳥嶺)’이라는 한자 지명은 그래서 생겨난 것이다. 둘째는 ‘새’를 ‘新’의 뜻으로 보아, ‘새재’를 ‘새로 닦은 고개’로 해석한다. 이는 ‘하늘재’가 폐쇄되고 새로이 놓인 고개라는 점에 근거한다. 셋째는 ‘새’를 ‘間’의 뜻으로 보아, ‘새재’를 ‘사이에 있는 고개’로 해석한다. 이는 이 고개가 ‘하늘재’와 ‘이우릿재’ 사이에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넷째는 ‘새’를 ‘草’의 뜻으로 보아, ‘새재’를 ‘억새풀이 많은 고개’로 해석한다. 이는 예전에 이 고개를 ‘草岾(초점)’이라 했다는 점과 이 고개 밑새’를푸실’이라는 마을이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를푸실’은 ‘풀실’에서 변어형으로, ‘억새풀이 무성 ‘골짜기 놓인 뜻이다. 를草岾’ 또는 ‘푸실’이라는 지명을 ’를 이곳에 억새풀이 많았던 이은 개가하다. 를푸실’ 마을은 ‘위푸실(상초리)’과 ‘아래푸실(하초리)’로 나뉜다.



⑤ 농다리(籠--)

‘농다리’ 충북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의 세금천(洗錦川)에 놓여 있는 다리이다. 충북 지방유형문화재 제28호이다. 이 다리는 신라 또는 고려 때 축조한 다리로 추정되나 정확한 축조 연대는 알 수 없다.

돌과 자갈을 섞어 둘레 2.5m, 높이 2m 가량 되게 쌓았는데, 마치 지네의 발 형국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무리 큰물이 나오더라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큰 홍수로 다리 일부가 유실되기도 하였다.

‘농다리’의 유래를 밝으면 움직이고 잡아당기면 돌아가는 돌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물이 다리 위로 넘쳐흐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며, 지네가 기어가는 모습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유래설은 신빙성이 없다. ‘농다리’의 ‘농’은 한자 ‘籠’이기 때문이다.

‘농(籠)’은 ‘농다리’를 비롯하여 ‘농독, 농돌, 농바우, 농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아주 적극적으로 쓰인다. 농 궤짝을 쌓아 올리거나 농짝처럼 포개져 있는 듯한 형상의 지물(地物)을 ‘농’을 이용하여 그렇게 명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다리’는 ‘농 궤짝을 쌓아 올리듯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만든 다리’로 해석된다. 실제 이 다리는 교각(橋脚)을 자연석을 이용하여 축대를 쌓듯이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농다리’에는 ‘籠橋(농교)’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6 배티고개

‘배티고개’는 백곡면 양백리 ‘배티’ 마을에서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배티’는 지금 마을 이름으로 쓰이고 있지만 본래는 고개 이름이다.

조선 시대에 반역의 뜻을 품은 신천영(申天永)의 무리와 과거 북병사(北兵使)를 지낸 이순곤(李順坤)의 의병이 이곳 고개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고 한다. 이 싸움에서 신천영이 패하자 이 고개를 ‘패한 고개’라 하여 ‘패티(敗-)’라 불렀고, 이것이 변하여 ‘배티’가 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설은 미덥지 않다. ‘배티’라는 고개 이름의 유래는 분명하지는 않으나 마을 어귀에 아름드리 ‘돌배나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중시하면, ‘배나무’와 관련되어 만들어진 이름이 아닌가 추정된다.

‘배티’의 ‘배’를 ‘梨’의 뜻으로 보고 한자화한 지명이 ‘이티(梨-)’이다. ‘배티’, 곧 ‘이티(梨-)’는 천주교 탄압 당시 교도 30여 명이 관군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한 곳이다. 지금은 성역화하여 순례지가 되었다. 이곳을 ‘배티성지’라 부른다.

‘배티’는 고개 이름에서 이 고개 밑에 조성된 마을 이름으로 전용된다. ‘배티’ 마을은 ‘아랫말, 중간말, 꼭대기말’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가운데 현재 ‘중간말’은 없어졌다. ‘배티’가 고개 이름에서 마을 이름으로 전용되어 주로 마을 이름으로 쓰이게 되자 이 마을에 있는 고개를 지시하기 위해 마을 이름으로서의 ‘배티’에 ‘고개’를 덧붙여 ‘배티고개’라 부른 것이다. ‘배티고개’는 ‘배티 마을에 있는 고개’라는 뜻이다.

7 말티고개



‘말티고개’는 ‘속리산’ 초입에 있는 고개이다. 열두 구비를 돌아 해발 430m에 이르는 아주 험하고 가파른 고개이다.

이 고개에 대해서는 조선조 세조(世祖)가 속리산에 거동할 때 고개가 너무 급경사라 가마 이동이 어려워 말로 바꾸어 타고 넘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지명 전설이 전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야기는 ‘말티고개’의 ‘말’과 동물의 ‘말[馬]’이 우연히 음상이 같음으로 해서 생겨난 민간어원이다.

이 고개는 ‘말티고개, 말티재’라는 비교적 긴 명칭 이외에 ‘말티, 말재’라는 짧은 명칭도 아울러 갖고 있다. ‘말티, 말재’는 ‘고개’를 뜻하는 ‘티, 재’에 접두사 ‘말-’이 결합된 형태이다. 선행 요소 ‘말-’은 ‘말-’로 소급한다. 중세국어 ‘말피’(『龍飛御天歌 5:42』(1447))라는 지명의 ‘말-’이 그와 같은 것이다. ‘말피’에는 ‘馬山(마산)’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이는 ‘말-’을 ‘馬’의 뜻으로 보고 한자화한 지명이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 나타나는 ‘말-’은 본래 ‘馬’의 뜻이지만 접두사화하여 ‘馬’의 특징인 ‘大’의 뜻을 보인다. ‘말’이 다른 접충에 비해 몸집이 크기 때문에 그것에 ‘大’라는 상징적 의미가 생겨난 것이다. 그리하여 ‘말피’는 ‘말처럼 생긴 산’이 아니라 ‘(말처럼) 큰 산’으로 해석된다. 지명의 선행 요소 ‘말-’이 ‘말-’로 소급하고, ‘말-’이 ‘大’의 뜻을 갖는다면 ‘말-’도 ‘大’의 뜻을 갖는다. 전국에 널리 분포하는 ‘말고개, 말골, 말무덤, 말바우, 말배미’ 등에 보이는 ‘말-’도 ‘大’의 뜻을 갖기는 마찬가지이다. ‘말-’은 지명 이외에 ‘말개미, 말거미, 말배미, 말벌, 말송나방, 말잡자리, 말조개’ 등과 같은 일반 명사에도 쓰여 ‘보통 것보다 큰 것임’을 지시한다.

한편 지명의 선행 요소로서의 ‘말-’을 중세국어 ‘마랏’와 연계해서 설명하기도 한다. ‘마랏’가 ‘으뜸가는(짓), ‘큰(짓), ‘마루’, ‘용마루’, ‘용마루 같이 생긴 짓’ 등과 같은 의미를 지녀 의미상 아주 동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말[馬]’이 중세국어에 ‘말’로 나온다는 점에서 ‘마랏’와 직접 연계하여 설명하기는 곤란할 듯하다.

‘말재’의 ‘재’는 ‘고개[嶺]’를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이다. ‘박달재, 배재, 싸리재’ 등에 쓰인 ‘재’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말티’의 ‘티’는 그 정체가 분명하지 않다. ‘티’를 ‘귀티, 애티, 촌티’ 등에 보이는 ‘티’와 같은 종류의 접미사로 보기도 하나, 이들에 보이는 ‘티’와 고개 명칭에 붙은 ‘티’ 사이에 어떤 의미적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 ‘티’를 한자 ‘峙(치, 산이 우뚝하다)’로 보기도 하는데, 이는 ‘티’를 포함한 고개 명칭이 한자화할 때 ‘티’가 ‘峙’로 표기된다는 데에 근거한 설명이다. 그러나 ‘峙’의 한자음을 정확히 재구하기 전까지는 ‘티’와 ‘峙’가 동일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지금로서는 ‘티’를 ‘재’와 같이 ‘고개’를 뜻하는 고유어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전국에는 ‘말티’ 이외에도 ‘티’ 또는 이것이 구개음화된 ‘치’를 포함하는 고개 명칭이 수없이 많다. ‘박달치, 배티, 싸리티’ 등이 바로 이들이다. 이들 ‘티’를 포함하는 고개 이름은 ‘재’를 포함하는 고개 이름과 함께 나타나는 큰 특징을 보인다. 이는 ‘티’가 ‘재’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단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해 준다. 이렇게 보면 ‘말재’는 ‘말티’로, ‘말티’는 ‘말티’로 소급하며, ‘큰 고개’라는 어원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드러난다. ‘큰 고개’라는 의미는 아주 보편적인 것이어서 이와 같은 의미를 함축하는 ‘말재’나 ‘말티’ 또한 여러 지역의 고개에 결부될 수 있다.

그런데 ‘큰 고개’라는 의미는 ‘말재’나 ‘말티’로 충분한테 ‘말티’에 ‘재’나 ‘고개’가 덧붙은 ‘말티재’나 ‘말티고개’가 어떻게 하여 생겨난 것인지 궁금하다.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말티’에 보이는 ‘티’의 의미가 불분명해지자 ‘고개’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 그와 같은 의미로 적극적으로 쓰이는 ‘재’와 ‘고개’를 덧붙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말티재’와 ‘말티고개’는 ‘髑’이라는 의미가 중첩된 동의 중복형 지명이 된다. 둘째, ‘말티’가 고개 이름에서 그 고개 밑에 있는 마을 이름으로 전용되어 쓰이자 그 마을에 있는 고개를 지시하기 위해 마을 이름으로서의 ‘말티’에 ‘재’나 ‘고개’를 붙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말티재’나 ‘말티고개’는 ‘말티’ 마을에 있는 고개가 된다. 어느 쪽에서 보든 ‘말티재’와 ‘말티고개’는 이차적으로 만들어진 잉여적인 지명의 성격이다. 그리하여 이들보다는 그 본래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재’ 또는 ‘말티’라는 고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말티고개’ 정상에 세워진 비문에는 ‘말재’라는 이름이 쓰여 있다.



⑧ 지프내

‘지프내’는 영동군 심천면 심천1리를 가리킨다. 지금은 마을 이름으로 쓰이고 있으나 본래는 내 이름이다.

이는 ‘기픈내’에서 변형된 어형이다. ‘기픈내’가 구개음화에 의해 ‘지픈내’로 변한 다음 ‘ㄴ’ 탈락에 의해 ‘지프내’로 변한 것이거나, ‘기픈내’에서 먼저 ‘ㄴ’이 탈락하여 ‘기프내’로 변한 다음 구개음화에 의해 ‘지프내’로 변한 것이다. ‘기픈내’의 ‘기픈’은 ‘깊-[深]’의 관형사형이므로 ‘기픈내’는 ‘수심이 깊은 내’로 해석되며, 이에 ‘深川(심천)’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아울러 ‘기픈내’에서 변한 ‘지픈내’나 ‘지프내, 기프내’ 또한 ‘수심이 깊은 내’로 해석되며, 이에도 ‘深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이곳 ‘지프내’는 ‘양강천’과 ‘송천’이 합하여 실제 깊은 내를 이루고 있다. ‘지프내’라는 이름이 내를 따라 형성된 마을 이름으로 전용되어 그렇게 쓰인 것이다. 지금은 ‘지프내’보다는 ‘深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더 일반적으로 쓰인다.

⑨ 질마재/질매재



‘질마재’는 영동군 상촌면 임산리 관터 마을 동쪽에 있는, ‘관터’에서 ‘김천’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이다. ‘질매재’라고도 하는데, 이는 ‘질마재’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전국에 ‘질마재’ 또는 ‘질매재’라는 고개가 아주 흔하다.

‘질마재’는 ‘길마재’에서 구개음화를 겪은 어형이고, ‘길마재’는 ‘길마’와 ‘재’가 결합된 형태이다. ‘길마’는 ‘짐을 실으려고 소의 등에 엮는 안장’을 뜻하는데, 높고 가파른 것이 특징이다. ‘길마’는 ‘길마재’를 비롯하여 ‘길마고개, 길마논, 길마바위, 길마배미, 길마산, 길마치’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아주 ‘길마재’를인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서의 ‘길마’는 ‘길마’처럼 ‘높고 가파른 형상’을 지시한다.

한편 ‘재’는 ‘嶺(령)’의 뜻이다. 이에 따라 ‘길마재’는 ‘길마처럼 높고 가파른 고개’로 해석된다. 이는 ‘길마고개’와 같은 의미이다. 이 들에는 ‘鞍峴(안현)’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기도 한다. ‘길마재’는 지역에 따라서는 구개음화된 ‘질마재’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곳의 ‘질마재’나 서정주의 <질마재 신화>라는 작품집에 보이는 ‘질마재’도 그와 같은 것이다. ‘길마재’나 ‘질마재 고개가 있는 산’ 또는 ‘그 고개 밑에 있는 마을’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3) 문학 속 충청 방언

갈 비



- 표준어: 솔가리
- 품 사: 명사
- 뜻풀이: 낙엽이 진 소나무의 잎.
- 다른 방언형: 솔검불, 솔까래, 솔갈비, 솔가리
- 사용 지역: 충청도, 함경도

돈 될 것이라곤 만고에 나무밖에 없어서였다. 나무는 주로 갈비였는데 가파른 한뎃재를 넘어 20리가 실한 읍내까지 죽어라고 지고가 봤자 겨우 쌀 한되박 값이었다. <강준희, 이카로스의 날개는 녹지 않았다(상), 1996, 325>

아, 금수산자락 긴 솔밭엔 지금쯤 빠알간 알밤색 갈비가 여기 이 은행잎처럼 쌓였겠구나. <강준희, 이카로스의 날개는 녹지 않았다(중), 1996, 155>

<해설> ‘갈비’는 소나무의 낙엽, 즉 솔잎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뜻하는 충청도 방언이다. ‘갈비’를 갈퀴로 긁어모아 땀감으로 쓰기도 하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로 쓰기도 하여 ‘땀감’의 의미로도 쓰인다. 이와 같이 ‘갈비’는 소나무의 낙엽을 의미하기도 하고 땀감이나 불쏘시개의 의미로도 쓰이는데 후자의 경우는 넓은 의미로 땀감을 의미하는 ‘나무’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무슨 나무 해 왔니?’하고 물으면 ‘갈비 해 왔어.’와 같이 대답한다. 이때의 ‘갈비’는 솔잎이 주가 되는 낙엽 나무라는 뜻이 강하다. 갈퀴로 ‘갈비’를 그러모을 때 솔잎뿐만 아니라 솔잎과 함께 떨어진 다른 나무의 잎도 그러모으게 된다는 점에서 ‘땀감’의 의미로 쓸 때는 ‘잎나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잎나무’는 낙엽으로서의 땀감 외에 잔가지가 많고 잎이 달려 있는 가는 줄기 나무를 뜻하기도 한다.

충북 방언에서는 ‘땀감’을 가리키는 말로 ‘잎나무’ 외에 ‘물거리’와 ‘등거리’가 있다. 싸리나무나 물푸레나무 등과 같이 가늘고 긴 나뭇가지를 낫으로 베어 단으로 묶은 나무를 ‘물거리’라고 하고, 톱으로 베어 장작을 썰 수 있는 굵고 긴 나무토막을 ‘등거리’라고 한다. ‘물거리’는 ‘줄거리’ 또는 ‘줄거리’라고도 하고 ‘줄거리’ 또는 ‘줄거리’라고도 한다.

땀감으로 쓸 나무는 주로 겨울에 한다. 관목과 교목 등 낫으로 베어 단으로 묶은 ‘물거리’ 나무를 지게로 쳐다가 뒤꼍이나 마당가에 쌓아 놓았다가 주로 밥을 지을 때 아궁이에 땀다. 이에 반해 굵은 소나무나 참나무 등의 밑동을 톱으로 베어 가지를 잘라 줄기나무인 ‘물거리’를 하고, 굵은 통나무는 지게로 쳐다가 적당한 길이로 잘라 토막을 내어 도끼로 장작을 땀다. 장작은 뒤꼍 처마 밑이나 울타리 밑에 차곡차곡 쌓아 말렸다가 겨울에 군불을 때거나 밥을 지을 때 땀감으로 쓰기도 한다.

기다

- 표준어: 그렇다, 맞다
- 품 사: 형용사
- 뜻풀이: ①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
② 묻는 내용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아니하다.
- 다른 방언형: 그롱다, 그렁다
- 사용 지역: 충청도, 전라도

예원은 파리 한국 대사관에 불일이 있어 갔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서울신문을 보고 내 사진과 당선 소감이 실린 글을 읽었는데 동명이인이 아닌가 싶어 사진을 유심히 봤으나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출생지를 보니 단양으로 돼 있어 확신을 가지고 주소를 베껴왔는데, 그래도 못 미더워 한국의 서울신문사로 국제전화를 해 내 신상명세를 확인하고서야 편지를 한 다면서 언제 파리에 올 기회가 있거든 꼭 좀 만나자며 전화번호를 적어 보 냈다. <강준희, 이카로스의 날개는 녹지 않았다(하), 1996, 165>

<해설> 충청도 방언에서 ‘기다’는 ‘기다, 기구, 기지, 기니, 기여/겨’와 같이 활용한다. ‘기다’는 표준어 ‘그렇다’ 또는 ‘맞다’에 대응하는 충청도 방언으로 예문에서와 같이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에서와 같이 ‘아니다’와 짝을 이루어 쓰 이거나 ‘기여 안 기여’에서와 같이 부정어 ‘안’과 함께 부정 표현으로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 ‘기여 안 기여’를 표준어로 바꾸면 ‘그래 안 그래?’ 또는 ‘맞아 안 맞아?’, ‘웁아 안 웁아?’ 정도가 가 된다. 예문의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를 표준어로 고치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가 된다. 이와 같이 ‘기다’에 대립되는 표현은 ‘안 기다’이고 ‘기다’의 의미는 ‘그렇다’기도 ‘맞다’의 뜻으로 쓰 인다고 할고 ‘기 같기권러나 ‘이 사람이 기다, 이 책상이 기다’와 같이 문장의 주어가 ‘사람, 사물’등 체언일 때는 선행하는 문장에 따라 ‘기다’가 ‘그렇다’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맞다’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 같기즉 선행 문장이 ‘늦게 온 사람이 누구 니?’나 ‘부썬 책상이 어느 것이니?’와 같이 서술어가 요구하는 대상을 확인하는 의문사를 포함한 의문문이고 판정을 요구하는 의문문일 때는 ‘기다’가 ‘맞다’의 의미 로 자연스럽게 쓰인다같기또한 충청도 방언에서 ‘기다’가 “이기 기지?(이게 맞지?/이게 웁지?/이게 틀림없지?)”와 같은 예문에 쓰이면 ‘맞다, 웁다, 틀림없다’의 의미로 쓰 이고, ”이 전화번호가 겁니다“와 같은 예문서는 ‘웁다, 맞다’의 의미로 쓰인다는 점 에서 ‘기다’가 넓은 의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건찹질하다

- 표준어: 대응 표준어 없음
- 품 사: 형용사
- 뜻풀이: 감칠맛이 없으면서 조금 짠 맛이 있다.
- 사용 지역: 충청도

오줌이라도 받아마시자! 나는 생각다 못해 마침내 오줌을 받아마시 기에 이르렀다. 뜨뜻미지근하고 건건찹질한 액체가 목줄기를 타고 꿀꺽꿀꺽 넘어가자 그래도 한결 살 것 같았다.

<강준희, 이카로스의 날개는 녹지 않았다(중), 1996, 286>

<해설> ‘건건찹질하다’는 ‘건건하다’와 ‘찹질하다’의 어간이 합성된 단어로 분석된다. ‘찹질하다’는 한글 맞춤법 제 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찹찹 하다’로 표기해야 한다.

‘건건하다’는 김장할 때 소금을 뿌려 절인 배추에 양념 무친 것을 금방 먹 으면 감칠맛은 없고 간이 배어 조금 짠 맛이 느껴지는 것을 가리킨다. 즉 ‘간 이 배어 짠 맛은 약간 있지만 감칠맛이 없다’는 뜻으로 쓰인다.

다 자란 옥수수대 껍질을 벗기고 속대를 씹어 단물을 짜 먹을 때 달고 감 칠맛은 안 나고 약간 짠 듯한 맛이 느껴지는데 이런 맛을 표현할 때 ‘맛이 찹 찹하다’ 또는 ‘찹찹해서 못 먹겠다’와 같이 쓴다. ‘건건찹찹하다’는 ‘건건하다’ 와 ‘찹찹하다’가 합성된 말이므로 의미도 두 단어의 의미가 복합되어 있다. 감 칠맛이 없고 조금 짠 맛이 느껴질 때 쓰인다.

꽤구락지



- 표준어: 개구리
- 품 사: 명사
- 뜻풀이: 올챙이가 자란 것으로 뒷발이 길고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는 개구리 목의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다른 방언형: 개구락지, 개구래기, 깨고락지, 깨고래기, 깨구락지, 깨구리, 깨고리, 깨우래기, 떡장구, 머구리, 메구락지
- 사용 지역: 충청도

나무두 마주 스는 게 있고, 꽤구락지도 올챙이가 크야 자손 본다우.
 <이문구, 제3세대한국문학9:李文求, 관촌수필, 1983, 113>
 꽤구락지 잔등에 점이 백였으면 속두 점이 백였다나?
 <이문구, 산 너머 남촌, 1990, 241>

<해설> ‘꽤구락지’는 ‘깨구락지, 깨구리, 깨고락지, 깨고래기, 깨구락지, 깨구래기’ 등과 함께 ‘개구리’의 방언형 가운데 하나다. 보통은 중립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꽤구락지 뺨듯 한다’에서와 같이 ‘개구리를 낮추어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 ‘꽤구락지’를 비롯하여 ‘깨구락지, 깨고락지, 깨구락지’ 등은 속된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개구리’의 방언형은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를 보이는데 다음의 예문에서와 같이 충청도 방언에서 ‘깨고리’로도 나타난다.

남술이는 이런 자신이 있는지라 명태를 한숨에 내리바수는데 그것은 마치 올모기가 깨고리를 잡아먹듯 차차 명태의 몸뚱아리가 입안으로 들어가며 바삭바삭 소리만 설새없이 나는 것이었다.
 <이기영, 봄봄, 1989, 092>

‘개구리’의 방언형 가운데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며 가장 많이 쓰이는 어형은 ‘깨구리’다. ‘깨고리’와 ‘깨구락지, 깨고락지, 깨구락지’ 형도 남한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쓰인다. 전남 지역에서는 ‘깨우래기, 깨우락지’나 ‘머구리’가 쓰이고 북한 지역에서는 ‘메구락지, 메구리’와 ‘떡장구, 떡장구’ 형이 쓰여 특이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제주도에서는 특이한 형태인 ‘가개비, 갈개비’ 형이 쓰인다.

충청도에서는 표준어 ‘개구리’에 대응하는 방언형으로 ‘깨구리’가 가장 많이 쓰인다. 충청도에서는 ‘깨구리’라고 하면 여름철 논둑이나 풀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구로’로 식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떡개구리’라고도 한다. ‘창깨구리’는 표준어 ‘참개구리’에 대응하는 충청도 방언형이다.

충청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개구리 종류로는 ‘떡개구리, 창깨구리, 엉머구리/앙마구리, 무당개구리/비단개구리/귀신개구리’ 등이 있다. ‘깨구리’는 이들을 통칭하는 상위어로 쓰이기도 하고 ‘떡개구리’의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대구

- 표준어: 자꾸
- 품 사: 부사
- 뜻풀이: 여러 번 반복하거나 끊임없이 계속하여.
- 다른 방언형: 대꾸, 대이구, 다자꾸
- 사용 지역: 충청도

마누라는 대구 엮었던 때와 달리 제법 목직하게 장을 보아왔다.

<이문구, 산 너머 남초느 1990, 125>

상배는 더 할 말도 없었지만, 대구 권하다간 무슨 말까지 들을지도 모르겠어 그대로 발걸음을 돌이켰다. <이문구, 장한몽최종, 1976, 558>

“총각이 거름을 얼마나 잘 짓는지 몰라두 박서방의 거름은 따라 하기가 어려울걸 내가 이번 동행에 속이 여간 상하지 안했서.” 하고 말 참견하였다 천왕동이 불출이의 말은 대구 하지 아니하고 유복이더러 “대관절 배천이 여긔서 뭣 리나 되나.” <홍명희, 임거정1, 1939, 647>

그래 남정네가 남의 집 안여편네에게 대구 더러운 입정을 놀리는 것이 세상 천하에 어디 잇는 법이요 그런 법이 잇스면 좀 압시다. <홍명희, 임거정3, 1939, 254>

<해설> ‘대구’는 표준어의 ‘자꾸’에 대응하는 충청도 방언형이다. 이 말 뒤에는 예문에서 보듯이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온다. 「대:구」와 같이 길게 발음하여 동작이 반복되거나 계속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대:구다움의 예에서와 같이 ‘여러 번 반복하거나 끊임없이 계속하여’를 뜻하는 충청도 방언으로 ‘대구’ 외에 ‘대이구, 대꾸’ 등도 쓰인다. 역시 뒤에 오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인다. ‘대구’는 ‘대이구’가 축약된음하여이고 ‘대꾸’는 이것이 된소리로 발음된음것으로 보인다. ‘대구’나 ‘대꾸’는 「대:구」나 「대:꾸」와 같이 장모음으로 발음되면 반복하거나 계속되는 뜻을 더 강조하는 느낌이 있다. ‘대이구’는 아래의 예문에서 보듯이 장모음으로 실현되는 「대: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애덜이 대이구 놀자구 오넨디 워칙현대유<이문구, 관촌수필, 1972, 134>

그런디 나버러 대이구 이종헌티 말쭙 해 달라는겨<이문구, 으악새 우는 사연, 1977, 141>

비싼 물 옆치기 해가는 주제에 대이구 유식헌 소리만 무식하게 짓까부르면 다여?<이문구, 우리 동네 金氏, 한국문학49, 1977>

내등

- 표준어: 여태껏, 이제껏, 지금까지
- 품 사: 부사
- 뜻풀이: 지금까지, 이제까지.
- 다른 방언형: 내중
- 사용 지역: 충청도

“아침에 칠라면 성가시게스리 내등 았던 짓 헐라네…… 게서 모기 뜯기느니 일루루 와 았지…… 선풍기 틀면 물컷 안 텨벼 십상이더먼.” <이문구, 으악새 우는 사연, 1977, 125>

<해설> ‘내등’은 어떤 행동이나 일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말하는 현재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음을 불만스럽게 여기거나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나 일이 말하는 현재까지 계속되어움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화자가 말하는 기점을 중심으로 그 이전부터 이때까지의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내등’은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져오던 것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도 쓰인다. 문장에서 ‘내등’ 뒤에 오는 말은 화자가 말하는 기점을 중심으로 그때까지는 어떤 일이나 행동이 긍정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그 이후로는 부정적으로 진행됨을 나타낼 때 쓰인다. 이와 같이 어떤 일이 지속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거나 맨 나중까지 계속되었을 때 그 때까지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점에서 보면 현재 국어 ‘나중’ 또는 ‘내내’와 유의관계로 파악된다. ‘내등’을 한자어 ‘내중(乃終)’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뜰팡



- 표준어: 토방
- 품 사: 명사
- 뜻풀이: 방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좀 높이 판판하게 다진 흙바닥. 흔히 이곳에 쪽마루를 놓기도 한다.
- 다른 방언형: 뜰방, 뜨럭, 봉당, 뜨랑
- 사용 지역: 강원도, 충청도

소마차가 동리 앞을 지날 때마다 주막집 뜰팡에 멍석을 깔고 땀을 dri던 일꾼들의 눈이 일시에 마차짐으로 옮겨진다.

<이무영, 제일과제일장, 1939, 139>

추측이 거기에 이르자 구는 방바닥에 편히 누워 구경만 할 순 없겠기로 손가락 끝이 뜨겁도록 태운 콩초를 뜰팡에 내던지며 문을 닫았다.

<이문구, 장한몽, 1979, 551>

“자 저 아기를 보십시오. 벌써 저만침 효험이 있잖습니까?”

“예?” 하며 영감은 요로 싸서 뜰팡에다 내놔던 아이를 들여다보았다. 눈빛이 달랐다. 얼굴에 생기가 들고 있었다.

<이문구, 해벽, 1972, 389>

<해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뜰’을 ‘집 안의 앞뒤나 좌우로 가까이 달려 있는 빈터로 화초나 나무를 가꾸기도 하고, 푸성귀 따위를 심기도 하는 곳’으로 풀이하고 있다. 충청도에서는 이런 뜻으로 ‘울안’을 주로 쓴다. ‘울안에 화초를 심었다’나 ‘울안에 채소를 심었다’ 등과 같이 쓰인다. 그런데 충청도 방언에서는 지역에 따라 ‘뜰’이 ‘토방’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충청도에서 쓰이는 방언형 ‘뜰팡, 뜨럭, 봉당’ 등은 전통 가옥의 마당이나 뒤뜰에서 방으로 들어갈 때 올라서는 ‘토방’의 뜻으로 쓰인다. 충북 지역에서는 다음의 예문에서와 같이 이 ‘토방’을 ‘봉당’ 또는 ‘뜨럭’이라고도 한다.

봉당 썰어라. / 뜨럭으루 올라 앉어라.

‘봉당’이나 ‘뜨럭’은 집 들레에 처마 밑으로 50cm 내외의 폭으로 만드는데 집채 앞쪽에는 마루를 놓아 마루 끝 앞부분에 위치하고 집의 옆쪽이나 건넌방 쪽에는 쪽마루가 놓이고 쪽마루 끝에 위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집채의 앞이나 뒤 마당에서 토방을 거쳐 방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마당에서 토방으로 오르내릴 수 있기 높은 돌층계를 ‘섬돌’이라고 하고, 방문 앞 ‘토방’에 신을 벗어 놓을 수 있게 놓은 돌은 ‘땃돌’이라고 한다. ‘땃돌’을 충청도 방언에서는 ‘노깃돌’이라고도 하는데 지역이나 화자에 따라 ‘섬돌’을 ‘노깃돌’이라고 하기도 한다. 비가 와도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이 ‘토방’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뜰팡’이 쓰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여우가 우는 소리였다. 백일해(百日咳)하는 갓난아이가 기침 끝에 금방 숨넘어갈 듯 자지러지는 소리, 그것은 대북이가 뜰팡 섬돌 끝에 걸린 채 일난 소리로 나를 부르지 않더라도 능히 알 수 있던 것이다. <이문구, 판촌수필, 1972, 181>

셀족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어: 셀족하다 • 품사: 형용사, 동사 • 뜻풀이: ①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서 약간 고까워하는 태도가 있다. ② 마음에 차지 않거나 고까운 마음이 있어 입이나 눈이 한쪽을 약간 셀그러지게 움직이다. • 다른 방언형: 셀쪽하다, 실쪽하다 • 사용 지역: 충청도
<p>“삼월 초생에는 큰아버님께서 상경하실 뜻하다.”는 사촌의 편지를 본 안해는 좀 셀족한 눈치였다. <이무영, 흙을 그리는 마음, 1932, 106></p> <p>방개는 별안간 눈초리가 셀족해지며 자기로도 억제치 못할 어떤 감정에서 못 본 체하고 그대로 지나가랴니까 인둥이가 빙그레 웃고 길을 막어선다. <이기영, 고향 3, 1947, 187></p>

<해설> ‘셀족하다’는 ‘셀족’과 ‘-하다’로 분석할 수 있다. ‘셀족’은 표준어 ‘셀쪽’에 대응하는 충청도 방언형으로 「셀쪽」으로 발음된다. ‘셀족’은 첫 번째 예문에서와 같이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약간 고까워하는 태도가 있다’는 뜻의 형용사로도 쓰이고, 두 번째 예문에서와 같이 ‘마음에 차지 않거나 고까운 마음이 있어 입이나 눈이 한쪽으로 약간 셀그러지게 움직인다’는 뜻의 동사로도 쓰인다. 어감상 ‘셀족하다’나 ‘셀쪽하다’는 ‘셀쪽하다’보다 동작이 작고 가벼운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행동이 약간 귀엽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충청도 방언에서 ‘셀족하다’ 외에 ‘셀쪽하다’와 ‘실쪽하다’도 쓰인다. ‘셀쪽하다’나 ‘실쪽하다’는 ‘셀족하다’보다 크고 무겁고 어두운 느낌이 있다.

빠가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어: 자가사리 • 품사: 명사 • 뜻풀이: 통가릿과의 민물고기로 몸의 길이는 5~13cm이며, 등은 짙은 적갈색, 배는 누런색, 지느러미 가장자리는 황백색이다. 네 쌍의 수염이 있고 입이 아래로 향하여 있다. • 다른 방언형: 빠가, 동자개 • 사용 지역: 충청도, 강원도
<p>무수천엔 고기가 지천으로 많았다. 꺾지, 메기, 동자개(빠가사리라고도 함), 쪽병이, 피라미, 불리지, 미꾸라지, 모래무지, 뱀장어 등등. <강준희, 이카로스의 날개는 녹지 않았다(상), 1996, 298></p>

<해설> ‘빠가사리’는 통가릿과의 민물고기이고 ‘동자개’는 동자갯과의 민물고기이며 크기와 색깔이 다르다. ‘빠가사리’는 표준어 ‘자가사리’에 해당하는 민물고기다. ‘빠가사리(자가사리)’는 몸의 길이 5~13cm이며, 등은 짙은 적갈색, 배는 누런색, 지느러미 가장자리는 황백색이고 비늘이 없다. 네 쌍의 수염이 있고 입이 아래로 향하여 있다. 이에 비해 ‘동자개’는 빠가사리와 마찬가지로 가슴지느러미와 등지느러미에 가시가 있는데 여기에 찢리면 손이 붓기도 한다. 가슴지느러미와 등지느러미에 가시가 있고, 입가에 네 쌍의 수염이 있으며 비늘이 없는 점은 빠가사리와 같으나 몸의 길이가 25cm 정도로 빠가사리보다 크며, 몸의 빛깔도 잿빛 갈색 바탕에 반점이 있는 점이 다르다.

충청도에서는 흔히 동자개와 빠가사리를 혼동하거나 두 종류의 물고기를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빠가사리’는 주로 강원, 충청 지역에서 많이 쓰이는 방언형이다. ‘빠가사리’를 충청도 방언에서 ‘통바우, 뚱바우’라고 부르기도 한다.

삐기



- 표준어: 뿔기
- 품사: 명사
- 뜻풀이: 띠의 애순
- 다른 방언형: 뿔기, 삐뿌장구, 삐삐기
- 사용 지역: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그 무렵 칠성바위 언저리와 밭 가장자리엔 새봄마다 지장풍이 잘 되었고, 특히 할아버지의 헛묘의 묘갈과 분엔 달착지근하게 배동오른 삐기가 많아, 햇밭 긴 마른 봄날이면 얼굴을 까맣게 태워가며 소꿉장난으로 긴 해를 보내곤 했었다. <이문구, 관촌수필, 1972, 126>

<해설> ‘삐기’는 표준어 ‘뿔기’에 대응하는 충청도 방언형이다. ‘삐기’는 봄에 새순이 올라올 때 밭둑이나 묘 부근에 나는 띠의 애순을 가리키는 충청도 방언이다. 이 ‘삐기’의 연한 애순을 뽑아서 먹으면 달착지근한 맛이 난다.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는 이 단맛 때문에 아이들이 삐기를 뽑아 먹기도 하였다. ‘삐기’는 지역에 따라 ‘삐뿌장구, 삐삐기, 뿔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삐기’는 벼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줄기는 약 30~80cm이고 원추형으로 똑바로 서 있고 잎은 뿌리에서 모여 나며 마디가 없어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베어 말렸다가 자리를 매거나 늦가을에 베어다가 지붕을 이기도 한다. 들이나 길가에 무더기로 자란다.

산내끼



- 표준어: 새끼
 - 품사: 명사
 - 뜻풀이: 주로 벗짚으로 꼬거나 드러서 만든 줄.
 - 다른 방언형: 사내끼, 사나끈, 산나끈, 새내끼, 새끼
 - 사용 지역: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 “울우, 울구유, 그눔으루다 밭바닥을 제기며 꽤슈. 나는 요 산내끼루 창창 묶어 대들보에 매달어 놓을 탕께…….”
〈이문구, 관촌수필, 1972, 146〉

“저이들이 석공을 몽둥이루 팬다는디…… 산내끼루 천장에다 달어맨 디야.” 나는 근심스러워 풀죽은 목소리로 증얼거리며 연방 도래질을 하였다.
〈이문구, 관촌수필, 1972, 148〉

〈해설〉 ‘산내끼’는 표준어 ‘새끼’에 대응하는 충청도 방언형이다. 표준어 ‘새끼’에 대응하는 방언형은 크게 ‘사내끼, 사나끼, 사나끈, 산나끈’ 등 ‘사나- , 산나-’ 형과, ‘새꼬래기, 새끼, 새내끼, 샌내끼, 세네끼’ 등과 같은 ‘새-’ 또는 ‘새내-’ 형이 있다. ‘사나-, 산나-’ 형은 주로 전남, 충남 등에서 사용되고, ‘새내-, 세네-, 세-’ 형은 충남, 충북, 경남, 전남, 경기 등에서 사용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나-, 산나-’ 형보다 ‘새-, 새내-, 세네-’ 형이 더 넓은 분포를 보인다.

한편, 표준어 ‘새끼’에 대응하는 방언형을 크게 ‘새끼, 새내끼, 샌내끼, 세내끼’ 등과 같은 ‘-끼’ 계열의 방언형과 ‘산나끈, 사나끈’과 같은 ‘-끈’ 계열의 방언형으로 나눌 수도 있다. ‘-끼’ 계열의 방언형은 ‘전라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등에서 많이 쓰이고 ‘-끈’ 계열의 방언형은 ‘경기도, 충청도’ 등에서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어 : 오달지다 •품사 : 형용사 •뜻풀이 : 아주 심하거나 지독한 데가 있다. •사용 지역 : 충청도
<p>옛날에 어떤 연상약한 절른 남매가 여름 소낙비 자질 때 이재를 넘어가다가 재밋 무인 지경에서 소낙비를 만나서 한줄금을 오지게 마젓드라우 여르 훗깃이 함썩 저젓스니 몸에 착 들려 부틀 것 아니요.</p> <p style="text-align: right;"><홍명희, 임거정2, 1939, 519></p> <p>“주뎡이만 아구같이 썩어진 중 알엇등마, 아새끼 말버릇두 오지게 싸가지 없네.” 장두식은 앉은 자리에서 여유있는 자세로 상대방의 위세를 잡도리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김중태, 해적 제 1권, 1993></p> <p>한번은 내가 몸살이 된통나 일주일을 오지게 앓았는데 그 때 마침 친구가 찾아와 녀석들에게 알린 모양이었으나 녀석들은 끝내 얼굴 한 번 비치질 앓았다.</p> <p style="text-align: right;"><강준희, 이카로스의 날개는 녹지 앓았다(하), 1996, 312></p>

<해설> 예문에 쓰인 ‘오지다’는 표준어 ‘오지다’나 ‘오달지다’에 대응하는 충청도 방언형으로 표준어와는 약간의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준어에서는 ‘오지다’나 ‘오달지다’가 ‘허술한 데가 없이 야무지고 알차다’의 의미로 쓰이는데 충청도 방언에서는 주로 ①어떤 일이나 상황이 아주 심하거나 지독하다는 뜻의 표준어 ‘움팡지다’나 ②실속 있고 내용이 알차다는 뜻의 표준어 ‘웅골지다’에 대응하는 말로 쓰인다. ①의 뜻으로는 ‘오지게 꾸디리 뾰다(심하게 두들겨 뾰다)’, ‘오지게 덮어썩다(심하게 당했다)’, ‘오지게 앓았다(지독하게 앓았다)’ 등에서와 같이 주로 ‘오지게’의 꼴로 쓰이고 ‘오지더라’나 ‘오진테’로도 활용하여 쓰이지만 ‘오지고, 오지니, 오져서’등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 불완전동사다. 이에 비해 ②의 뜻으로는 ‘산뿡을 한 나무에서만 뾰는데두 오지드라(오지더라)’나 ‘고기가 열매나 많은지 반두를 가주구 가서 장관(잠깐) 잡았는데두 쏘어보녕게 오지드라.’ ‘그때는 고기를 오지게 많이 잡엇어.’ 등에서와 같이 주로 ‘오지드라’나 ‘오지게’의 꼴로 쓰인다.

참고로, 충청도에서는 ‘웅골지다’가 다음의 예에서와 같이 ‘미운 사람이 잘못 되는 것을 보고 속으로 시원하고 고소하게 여기다’의 뜻으로도 쓰인다.

“아까 나를 차지러 펍 돌아다녔지.”

“매우 웅골지겟다. 속은 내가 얼뜨니까 속인 너를 나물하지 안는다.”<홍명희, 임거정, 1939, 503>

“아닌게 아니라 내말만 들엇드면 이런일이 업섯겟지.” “매우 웅골지겟소.”

“콧두령눈에는 내가 소인으로 박게 안보이는데야.”<홍명희, 임거정, 1939, 508>

위 예문에 쓰인 ‘웅골지다’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충청도 방언형으로 ‘웅골짜다’와 ‘웅골짜다’도 쓰인다.

아스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어: 대응 표준어 없음 • 품사: 동사 • 뜻풀이: 하던 일이나 할 일 또는 하려고 하던 일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하다. • 사용 지역: 충청도
<p>“만만이 가는 디만 좇어뎡기면 지년두 그이 부럽잖이 헐 수 있유.” “아서, 아스라면…….”</p> <p style="text-align: right;"><이문구, 제3세대한국문학9:李文求, 관촌수필, 1983, 192></p> <p>그 작자의 그 망상스러운 악담이야말로 적시에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 아닌가. 아서라. 임자만 나서라. 어서 처분해 버리고 마마.</p> <p style="text-align: right;"><이문구, 산 너머 남촌, 1990, 221></p> <p>아서 아서…… 구월불가(九越不可)라 해서 아홉 잔이 넘으면 못쓴다고 일러온 지가 얼만가.</p> <p style="text-align: right;"><이문구, 산 너머 남촌, 1990, 263></p> <p>그런디두 자네들은 그게 무슨 놀이개나 된다구 싹뚝싹뚝허메 마른 화에 가물태 쪽쟁이 뿡는 소리나 농헌다나. 아서. 아무리 으른 아이 따루 읍어 막 가는 동네지만 그러는게 아녀</p> <p style="text-align: right;"><이문구, 으악새 우는 사연, 1977, 151></p> <p>선생이란 게 저런 입으로 애덜 국어를 가르치나? 야야 아서라 아서. 남의 집 귀한 자손 버리겟다.</p> <p style="text-align: right;"><이문구, 장한몽, 1976, 680></p> <p>“이자식이.” 허고 내가 방에서 뛰어나가며 곳 이를 악물고 대어드니 동자치 서방이 “아서 아서.” 하고 손을 내저으며 뉘겨름질을 지는데 내가 화집에 한번 귀때기를 우려 주엇더니</p> <p style="text-align: right;"><홍명희, 임거정2, 1939, 021></p> <p>서울서 걸을 데 버스타고, 버스로 갈 데 택시 불러 왔다리갓다리하니네 네 눈에는 뉘는 사람만 뵈던 모양인데, 제발 아서라.</p> <p style="text-align: right;"><이문구, 산 너머 남촌, 1990, 17></p> <p>물간 새우젓, 골은 황시개젓 좀 농민들헌티 맥여보까 허구 시방 지켜 앓어 있는디, 아스슈. 아스라구. 나두 작년 같잖여.</p> <p style="text-align: right;"><이문구, 으악새 우는 사연, 1977, 153></p>

<해설> 충청도 방언 ‘아스다’는 주로 ‘아서’나 ‘아서라’ 또는 ‘아스라’와 같은 명령형으로 쓰인다. 이것은 ‘아스다’가 금지의 뜻으로 쓰이는 ‘그만두다’나 ‘하지마라’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아서’와 ‘아서라’를 각각 해체와 해라체의 감탄사로 처리했는데 위의 예들에서 보듯이 이렇게 처리할 경우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감탄사에 영어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아스라구, 아스라면, 아스슈’와 같은 이형태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서, 아서라, 아스라구, 아스슈’ 등을 고려할 때 감탄사가 아닌 동사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어, -어라, -라, -슈(시우)’ 등의 명령형 어미와 결합하여 불완전 활용을 보인다는 제약이 있다. ‘아스다’는 ‘하던 일이나 할 일 또는 하려고 하던 일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형으로만 쓰이는 특징이 있다.

후질르다

- 표준어: 휘지르다
- 품 사: 동사
- 뜻풀이: 어떤 일을 하느라고 옷을 보기 흉하게 구기거나 더럽히다.
- 다른 방언형: 휘질르다, 후질르다, 후지르다
- 사용 지역: 충청도

“아이구 저이가 웬일이래여……. 저 옷 꼴 좀 봐요. 어서 들어가 누워요!”

그의 처가 남편의 음성을 듣고 쫓아나온다. 그는 곤드레만드레한 남편을 집안으로 잡아끌었다.

“똥 웬일야. 술을 좀 먹었지. 똥! 똥!”

경춘이는 함부로 침을 뱉는다.

“옷을 후질렀으니까 그렇지요. 얼마나 자셨길래 이러우 아이 술내야.”

아내는 바지 가랑이에 흙이 묻은 것을 털어주며 밋상스레 경춘이를 쳐다본다.

“그까짓 거 옷 좀 후질르면 어때. 마누라 난 참 오늘 술을 많이 먹었는데…….”

<이기영, 봄봄2, 1989, 182>

<해설> 충청도 방언형 ‘후질르다’는 ‘후질르지, 후질르구, 후질르니까, 후질러서’와 같이 규칙활용 하는 동사다. ‘옷을 보기 흉하게 더럽히다’의 뜻으로 쓰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옷이 땀이나 비에 젖어 아주 보기 흉하게 처지거나 구겨진 모습을 나타낼 때도 쓰인다.

충청도 방언에서 ‘후질르다’는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하나는 ‘이리저리 어지럽게 마구 돌아다니다’의 뜻으로 쓰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표준어에서와 같이 ‘어떤 일을 하느라고 옷에 흙이 묻거나 땀이나 비에 젖거나 하여 아주 보기 흉하게 더럽히다’의 뜻으로 쓰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비가 오는데 들에 나가서 일을 하더니 옷을 저렇게 휘질러 났다’나 ‘비오는 날은 옷 좀 휘질러지 말어’ 등과 같이 쓰인다. 위 예문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쓰였다.

‘후질르다’나 ‘휘질르다’가 능동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비해 ‘후질러지나’나 ‘휘질러지다’는 ‘어떤 일을 하느라고 옷에 흙이 묻거나 땀이나 비에 젖거나 하여 아주 보기 흉하게 더럽혀지다’와 같이 피동적인 의미로 쓰인다. ‘후질르다’가 이슬이 많은 풀밭이나 들판을 다녀 바지가 이슬에 젖고 흙이 묻어 더러워졌을 때 그렇게 한 행동을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표현인데 비해 ‘후질러지다’는 조심하면서 다녔는데도 결과적으로 바지가 이슬에 젖고 흙이 묻어 더러워졌을 때 바지를 중심으로 하는 피동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후질르다’는 ‘옷 좀 후질르고 다니지 마라’와 같이 쓰이는 데 비해 ‘후질러지다’는 ‘어떻게 했길래 바지가 그렇게 후질러졌니?’와 같이 쓰인다.

장

- 표준어: 항상
- 품 사: 부사
- 뜻풀이: 언제나 변함없이.
- 다른 방언형: 노상
- 사용 지역: 충청도

“……안녕하세요. 목천 칠남이다…… 하, 하…… 일찍 나오셨네. ……재민 뭐장 그렇지유.”

<이광복, 목신의 마을, 1991, 118>

“아저씬 좀 어떠세요?”

“장 그러. 사람은 알아보는데 헛소리를 해서 탈이라니께.”

<이광복, 목신의 마을, 1991, 259>

“하나는 빠르고 거센 내요, 하나는 온순하나 장 고여 있는 낸데……. 어느 쪽으로 모릿까?”

<김성동, 풍적연꽃과 진흙, 1992, 79>

“나두 장 걱정이란 이가 보구시폰데 형님 왜 날 안 데리구 가우. 이담 갈 때는 꼭 가치 갑시다.”

<홍명희, 임거정1, 1939, 332>

“그러게 내 말이 말씀이라는 겨. 인적 드른 허허벌판에 임자 모르는 시퍼런 돈이 넘칠대며 흘러 가는데, 내 땅에서 난 게 아니라구 아닌 보살 허구 있겠남. 농사군은 장 비가 돈이여. 나는 사람이 어질다 말구, 싸가지두 떡잎 적에 벌레 먹어서 가만히 못 있는 승질이라.”

<이문구, 우리 동네 정씨, 문학과지성33, 1978>

“클났어, 짜장면은 워디 갔진, 모기약 읍이는 여름을 나두, 커피 댓 잔 값은 장 농구 나스야 얼굴을 이고 땡길 수 있으니…….”

<이문구, 우리 동네 정씨, 문학과지성33, 1978>

“우리게는 장 인물 읍어 읍어 했더니 인저 됐어. 어서 와서 연설 한마디 허여.”

<이문구, 우리 동네 정씨, 문학과지성33, 1978>

<해설> 방언에서 부사의 의미와 기능을 설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충청도 방언 ‘장’도 마찬가지다. 위의 예문들에 쓰인 충청도 방언 ‘장’은 ‘늘, 항상’ 정도의 의미와 기능을 가진다. ‘장’은 ‘늘, 항상’ 정도의 의미와 기능을 가진다. ‘장’은 ‘늘, 항상’이 쓰일 자리에 습관적으로 쓰이는 부사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근래에는 ‘장’을 충청도 방언의 노년층 화자들에게서만 들을 수 있다. 젊은층의 충청도 방언 화자들은 ‘장’ 대신 ‘늘, 항상’ 또는 ‘맨날’ 등을 쓰는 것이 보통이다. 장년층 이하 연령층의 화자들에게서는 사어화되어 가고 있는 말이다.

혼구녕

- 표준어: 혼구멍
- 품 사: 명사
- 뜻풀이: 사람의 몸 안에서 몸과 정신을 다스린다는 비물질적인 것(혼)이 드나드는 구멍이라는 뜻으로 매우 심한 꾸지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다른 방언형 : 혼구멍, 혼구녕
- 사용 지역 :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걱정이가 화가 나서 썩덕공른하는 사람의 본보기로 안해를 화령에 끌어내다가 혼구녕을 내고 시픈 생각까지 낫섯스나 꿀격 참고

<홍명의, 임거정3, 1939, 41>

“이런 오구러질 여편네, 에미버텨 혼구녕을 내놔야 쓰것구면.”

<이문구, 제3세대 한국문학9:李文求, 관촌수필, 1983, 107>

“담뱃집 것이, 그 첫바다 빠진 년이 공중 와설랑 사람 오장육부를 흘랑 뒤집어 놓구가잖여. 혼구녕을 내줄랑께 시적부적 가버리네.”

<이문구, 한국소설문학대계 55, 관촌수필, 1995, 325>

제년헌티 들기거나 허야 혼구멍을 내주지유.

<이문구, 한국소설문학대계 55, 관촌수필, 1995, 115>

<해설> ‘혼구녕’은 ‘혼’과 ‘구녕’의 합성어로 분석된다. ‘혼구녕’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또 다른 충청도 방언으로 ‘혼구멍’이 있다. ‘혼구멍’은 ‘혼’과 ‘구멍’으로 분석된다. 주로 ‘내다’나 ‘나다’와 함께 ‘혼구멍을 내다, 혼구녕을 내다, 혼구멍이 나다, 혼구녕이 나다’의 구성으로 쓰인다. ‘혼’은 한자어 ‘혼(魂)’을 뜻하는 말이고 ‘구녕’은 ‘구멍’의 충청도 방언형이다. 따라서 ‘혼구녕’은 ‘혼구멍’과 같은 말이다. ‘혼구멍’과 ‘혼구녕’은 둘다 사람의 몸 안에서 몸과 정신을 다스린다는 비물질적인 것(혼)이 드나드는 구멍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결국 ‘혼구녕 내다’나 ‘혼구멍 내다’는 혼이 드나드는 구멍을 널 만큼이라는 뜻으로 호되게 꾸짖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표준어에서 ‘몹시 꾸짖거나 벌을 주다’의 뜻으로 쓰이는 ‘혼쫄내다’가 충청도 방언형혼구멍을 내다’나 ‘혼구녕을 내다’와 비슷한 뜻으로 쓰인다.

다음의 예들을 통해서 충청도 방언형 ‘혼구멍’의 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똥배미 충충다랑이가 생계의 전부인 김으로서는 혼구멍이 난 무너리처럼 먼산바라기만 하고 앉아 있을 수만도 없었다. 걱정이가 곳 나가서 혼구멍들을 내놓으려다가 말을 좀 해볼 작정으로<홍명희, 임거정3, 1939, 170>

“빈 말이라두 큰일 날 말을 다 하네 자네가 광복산에서 혼구멍이 나구두 대장이 무서운 줄을 모르나.”<홍명희, 임거정3, 1939, 396>

“저런 자식은 혼구멍을 내줘야지, 저런 놈이 사람 여럿 잡을 놈이라구.”<이문구, 장한몽5 최중, 1976, 654>

하냥

- 표준어: 함께
- 품 사: 부사
- 뜻풀이: 둘 이상의 사람이 같이. 또는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더불어.
- 다른 방언형: 같이
- 사용 지역: 충청도, 전라도

“언니가 젤 많이 잡었지. 그지?” 혼들어 깨우고 나서 그렇게 물으니, “대복이는 더 많이 잡았을 텐데, 가서 대복이더러 와서 이 밥 하냥 먹자고 일러라.” 하며 형은 독 안에 든 게부터 내게 건져 보낼

<이문구, 관촌수필, 1972, 142>

“너는 벨걸 다 걱정허더라, 동네 그까짓것들을 다 동무라고 그러네? 니가 얌전허구 공부 잘 허기루 소문나 있으니까, 너구 하냥 놀면 걱들이 쪼리니까 피히는 것을…….”

<이문구, 관촌수필, 1972, 134>

문정은 뚜렷한 갈망도 없이 하냥 다짐을 하다가 그만 무르춤하고 말았다.

<이문구, 산 너머 남촌, 1990, 133>

“대부께서 보시기에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요?”

“초목과 하냥 늙자 한 사람더러 새쫄까지 뭘 묻구 있는겨? 지집이 갈린건 몰러두 첫가락 바뀐 건 알더라구, 수십 리 바깥 것이 산인지 구름인지 워찌 안다나? 백수모년(白首暮年)에 배차씨 장사를 해두 입을 지킬 줄 알으니까 구만두세야.” 하고 석담은 웃었다.

<이문구, 산 너머 남촌, 1990, 156>

“아따 그렇게 갑갑허걸랑 광걸업니 입던 게라두 갖다 한쌍 맹글어.”

“우리 여편네 것은 남뎨문표가 아녀. 남뎨문표허구 하냥 놓면 또 짝재기가 된단 말여.”

“그럼 무슨 표여? 왕십리표여?” <이문구, 으악새 우는 사연, 1977, 148>

“새루 한시가 거집 됐을 텐데, 안 갈류, 근수아버지 명복아버지가 와서 하냥 가자고 쫓어쫓던디. 이장두 연장 잊지 말구, 지각 말라구 땃 번씩 방송허더면…….”

<이문구, 우리 동네 金氏, 한국문학49, 1977>

<해설> ‘하냥’은 표준어 ‘함께’ 또는 ‘같이’에 대응하는 충청도 방언형이다.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충청도 방언 ‘하냥’은 ‘놀다, 먹다, 다짐하다, 가다, 늙다, 놓다’ 등과 같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뜻을 가진 동사와 호응할 때 자연스럽게 쓰이고 사물에 대하여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하냥’과 호응하는 동사의 동작이 미치는 대상은 주로 사람이지만 동물에게도 쓰인다. ‘하냥’은 ‘둘 이상의 사람이 같이 또는 둘 이상의 사람이 더불어’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모란이 지고 말면 그 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 삼백 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나 “눈이와도 하냥 푸른 소나무로 하여금 인간의 비정을 돌아다 보게 한다.”(<이병주, 고인과의 대화>)에서와 같이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에서는 ‘하냥’이 ‘늘’ 또는 ‘계속하여 줄곧’의 의미로도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에 따라 ‘하냥’의 의미와 용법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쪽새



- 표준어: 소쩍새
- 품 사: 명사
- 뜻풀이: 올빼미과의 여름새로 등은 어두운 회색이고 온몸에 갈색 줄무늬가 있으며 귀깃이 있다.
- 다른 방언형: 서쪽새
- 사용 지역: 충청도

그러노라면 웬놈의 삐꾸기는 그렇게 울어짙는지 온 산이 그대로 떠나갔다. 하지만 어디 삐꾸기 뿐이던가? 종다리 밀화부리 찌르레기 휘파람새는 또 얼마나 우는지 산 전체가 반란이라도 일으키듯 소란스러웠다. 여기다 지쪽새와 부쪽새가 청승을 떨고 장끼까지 한 몫 끼어 호들갑을 떨면 사위는 장중한 코오러스에 묻혀 등등 떠다녔다.

<강준희, 이카로스의 날개는 녹지 않았다(중), 1996, 325>

삐꾸기와 장끼소리에 밀화부리와 지쪽새, 그리고 휘파람새도 목청을 뽑았고 애 이놈들아 그것도 목소리냐는 듯 미성 중의 미성인 피꼬리가 맑고 고운 소리로 목청을 뽑았다.

<강준희, 이카로스의 날개는 녹지 않았다(상), 1996, 340>

<해설> 충청도 방언에서 쓰이는 ‘지쪽새’는 새의 울음소리를 흉내내어 붙여진 이름이다. 새가 ‘지쪽지쪽’하고 운다고 해서 ‘지쪽새’라고 한다. ‘지쪽새’는 ‘지쪽새’는 봄철에서부터 여름까지 볼 수 있으며 크기는 참새만하고 털 빛깔은 약간의 회색빛이 돈다. 봄에 산란철이 되면 논밭이나 들판 여기저기에서 이 새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다.

투가리



- 표준어: 똑배기
- 품 사: 명사
- 뜻풀이: 찌개 따위를 끓이거나 설령탕 따위를 담을 때 쓰는 오지그릇.
- 다른 방언형: 똑배기, 똑배기
- 사용 지역: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불씨가 담긴 그릇이 매혹질하는 투가리나 무슨 사금파리 조각같이 작지 않고, 급한 김에 자루가 삐죽 나오는 부삽이나, 낫선 대북이네 그릇에 담아 나를 경우엔 일쭉 들통이 나던 거였다.

<이문구, 제3세대한국문학9:李文求, 관촌수필, 1983, 92>

“서울물이 좋아 군등내 나던 투가리가 곰내 나는 대접만 된다면야 성을 갈아서라도 주민등록부터 파 읍기고 말고…….” 하며 하기 좋은 말로 빈정거렸다.

<이문구, 산 너머 남촌, 1990, 53>

“멋이라? 투가리보다 장맛이야? 아이 그럼 내가 투가리라 이 말이요? 어이? 이눔에 여편네들이 밥해 먹이노이께 간이 널브러져 그러나 몬할 소리가 없구나.”

<강준희, 그리운 보릿개(상), 1993, 280>

고문정이 혼잣말로 고시랑거리고 있으니 말귀는 바늘귀보다 더더도 군소리가 샅 좁는 데엔 수가 있어서 마누라가 금방 투가리 끓어넘는 소리로 두런거렸다.

<이문구, 산 너머 남촌, 1990, 119>

정월 보름날 투가리에 시래기 무쳐 담듯 허지마시구, 혼인때 쓸 두붓모처럼 깨끗하게 쌓주시라 이겁니다.

<이문구, 우리 동네 金氏, 한국문학49, 1977, 11>

리어카에 향아리 웅배기 소래기와 동이 단지 투가리 따위를 싣고, 산골이나 갯마을로 들어가 잡곡과 해물 따위로 갈아왔고, 한번 나가면 밀이 질겨 조금이나 무시에 떠나더라도 여덟 물 아홉 물 안에는 여간해서 돌아오는 법이 없었다.

<이문구, 우리 동네 정씨, 문학과지성33, 1978, 9>

<해설> ‘투가리’는 표준어 ‘똑배기’에 대응하는 충청도 방언형으로 충청, 경기, 강원, 전라도 지역에서 쓰이는 말이다. ‘투가리’는 흙으로 빚어 가마에 구워 만든 오지그릇으로 형태가 두 가지다. 하나는 아가리 쪽이 밑면보다 약간 벌어진 모양이고 다른 하나는 중간에 배가 볼록하게 나오고 밑면과 아가리 부분이 약간 좁게 생긴 모양이다. 아가리가 벌어진 모양의 투가리는 곰탕이나 설령탕 등을 담을 때 주로 쓰이고 아가리고 좁은 모양의 투가리는 주로 찌개를 끓이거나 장을 끓일 때 쓰인다. 충청도 방언에서 된장찌개를 끓일 때 쓰는 투가리는 흔히 ‘장투가리’라고 한다.

충청도 방언에서 표준어 ‘똑배기’에 대응하는 방언형으로 ‘투가리’ 외에 ‘똑배기’와 ‘똑배기’도 쓰인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 쓰는 ‘똑배기’는 흔히 ‘장똑배기’라고 한다. 충청도 지역에서는 ‘투가리’나 ‘똑배기’, ‘똑배기’에 곰탕이나 설령탕을 담아 먹지는 않았다.

복지개



• 표준어: 대응 표준어 없음

• 품 사: 명사

• 뜻풀이: 주발이나 사발 뚜껑.

• 다른 방언형: 복지개, 밥띠빙이, 복개, 사발뚜베이, 사발띠깡, 사발뚜께, 사발뚜에

• 사용 지역: 충청도

“사람은 어려울 때 잘 참아야 하고 또 어려운 만큼 거기 맞춰 살아야 한다. 알겠니? 하지만 예민 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서운하게 생각 말고 먹어라!” 하며 복지개를 열어주었다. 상위엔 생일 때마다 꼭꼭 오르던 수수팔떡이 올해는 보이지 않았다.

〈강준희, 이카로스의 날개는 녹지 않았다(상), 1996, 249〉

<해설> 충청도 지역에서는 ‘복지개’가 놋쇠로 만든 밥그릇인 주발이나 사기로 만든 밥그릇인 사발의 뚜껑을 가리킨다. ‘복지개, 복지개, 복개’는 ‘덮개’ 또는 ‘뚜껑’을 뜻하는 ‘복개(覆蓋)’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개(覆蓋)’의 원말이 ‘부개(覆蓋)’이므로 본래는 ‘부개’라고 해야 하는데 잘못 발음하여 ‘복개’라고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충북 지역에서는 주발이나 사발 뚜껑을 뜻하는 말로 ‘사발뚜께’, ‘복지개’, ‘복주께’ 등도 쓰인다. ‘복지개’는 전남북 지역에서도 쓰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사발뚜께’ 형은 ‘사발’과 ‘뚜께’의 합성어로 분석된다. 사발에 붙는 ‘뚜께’나 ‘뚜에’는 사발을 덮는 ‘뚜껑’을 뜻한다. ‘사발뚜베이’의 ‘뚜베이’와 ‘사발띠깡’의 ‘띠깡’도 ‘뚜껑’을 뜻하는 말이다.

풍장치다



- 표준어: 풍물치다
- 품 사: 동사
- 뜻풀이: 농악에 쓰는 팽과리, 태평소, 소고, 북, 장구, 징 따위의 악기를 풀거나 치다.
- 다른 방언형: 풍물치다
- 사용 지역: 충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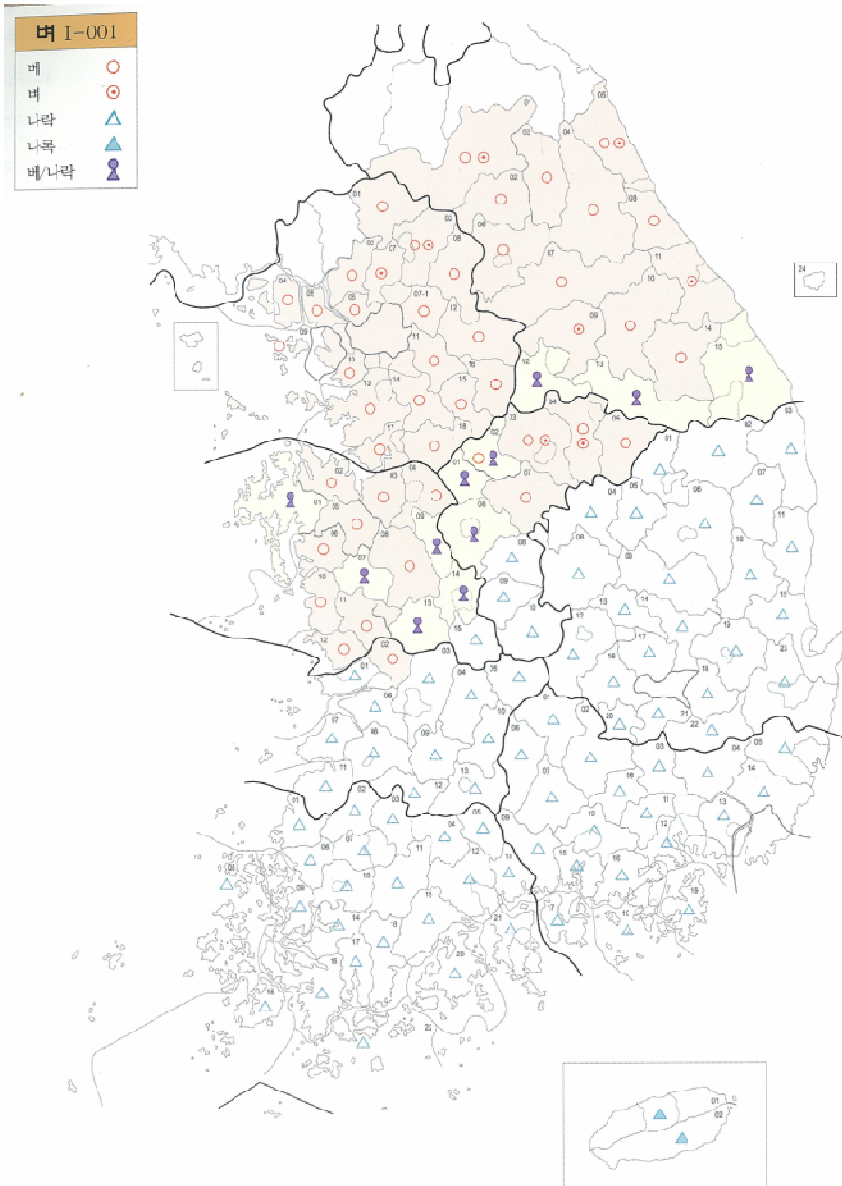
정초나 한가위 또는 동네에 무슨 경사가 있는 날은 이곳에서 풍장치고 상모 들리고 버꾸치고 날라리 불며 한 마당 신명을 풀었다.

<강준희, 이카로스의 날개는 녹지 않았다(중), 1996, 28>

<해설> ‘풍장치다’는 ‘풍장’과 ‘치다’의 합성어로 분석된다. ‘풍장’은 ‘풍물’의 충청도 방언형이다. ‘풍장’ 즉 ‘풍물’은 농악에 쓰는 팽과리, 태평소, 소고, 북, 장구, 징 따위의 악기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다. ‘풍장치다’는 ‘팽과리, 북, 장구, 징 등을 두드리고 논다’는 뜻으로 쓰이는 표준어 ‘풍물놀이 하다’에 대응하는 말이다. 이 풍물로 연주하는 것이 ‘농악’이다. ‘농악’은 농촌에서 농부들이 ‘팽과리, 태평소, 북, 장구, 징’ 등의 악기로 연주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이다. 나발, 날라리, 소고, 팽과리, 북, 장구, 징 따위를 불거나 치면서 노래하고 춤추며 때로는 곡예를 곁들이기도 한다. 주로 정초나 추석 무렵 또는 백중 무렵에 술과 안주를 곁들이며 노는데 한 해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적인 풍습 가운데 하나다. 모내기를 하거나 논을 맬 때는 ‘팽과리, 북, 장구, 징’만으로 풍장을 치기도 한다. 이때 논에서는 일꾼들이 모를 심거나 논을 매고 논두렁에서는 풍장을 치면서 선소리꾼이 일꾼들을 향하여 선소리를 매기면 일꾼들이 선소리를 받으면서 일을 한다.

충청도 방언에서 ‘풍장치다’ 외에 ‘풍물치다’도 쓰인다. ‘풍물’을 치고 노는 것은 ‘풍물놀이’라고 하고 ‘풍장놀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4) 방언 지도



1. 벼

‘벼’의 방언형은 크게 ‘베’계와 ‘나락’계로 나뉜다. ‘베’계는 간혹 표준어형인 ‘벼’로 실현되는 지역이 있고, 또는 ‘베’와 ‘벼’가 병존하는 지역도 있으나 워낙 산발적이어서 ‘벼’의 세력은 거의 예외적이라 할 수준이고 거의 모든 지역이 ‘베’를 쓰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나락’계도 제주도에서 ‘나륙’으로 나타날 뿐 한결같이 ‘나락’으로 나타난다. ‘나락’은 일찍이 이덕무의 『寒竹堂涉筆(한죽당섭필)』 <新羅方言(신라방언)>條에 ‘나락(羅洛)’으로 소개되어 있을 정도로 뿌리가 깊은, 그리고 그 분포가 넓은 방언형이다.

‘베’계와 ‘나락’계의 분포상의 특징은 두 어형이 완전히 남북으로 양분되어 분포한다는 점이다. ‘베’계가 경기, 강원, 충남북에 자리잡아 북부를 거느리고, ‘나락’이 그 나머지의 남부, 즉 경남북, 전남북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방언권을 나눌 때 중부방언권은 오래 들어가지만 전라도방언과 경상도방언을 묶어 남부방언권을 설정하는 수가 있는데 ‘벼’의 방언 분포는 그 중부방언권과 남부방언권을 가르는 대표적인 예라 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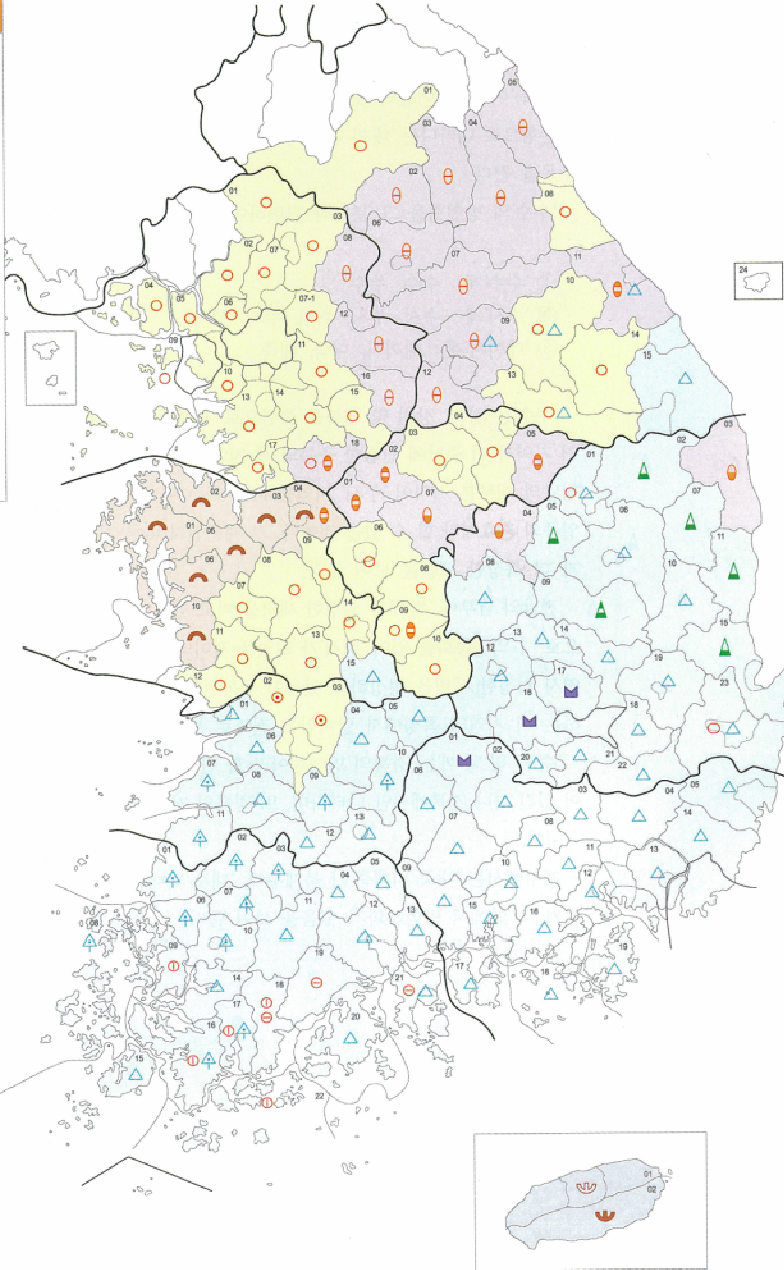
다만 도계(道界)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예외적인 곳이 있다. 전북의 <정읍>이 북부의 ‘베’를 쓰고, 남부 지역에 접해 있는 충남의 <금산>, 충북의 <보은, 옥천, 영동>이 남부계인 ‘나락’을 취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남북을 선명하게 양분하는 모습이어서 방언경계선을 긋기가 쉬운 대표적인 사례라 할 만하다.

‘벼’의 방언 분포에서 하나 유의할 것이 있다면 지역에 따라 ‘베’와 ‘나락’을 다 쓰되 그것들을 의미를 구별해 쓴다는 점이다. 즉 쌀을 찧기 전의 낱알 상태를 특별히 구별하여 ‘나락’이라 하고 ‘벼를 벤다, 벼농사, 벼단’ 등 그 나머지 상태일 때는 ‘베’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것이다.

지도에 이를 구별하여 표시하였는데, 애초 질문지에서는 눈에 있는 상태의 벼와 이삭에서 턴 후의 열매 상태의 벼를 별개 항목으로 물었던 것을 지도에서 두 질문의 결과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옥수수 I-056

- 옥수수 ○
- 옥수시 ⊙
- 옥취(시)시 ⊖
- 옥소시 ⊕
- 옥시기 ⊗
- 옥시끼 ⊕
- 옥수꾸 ⊕
- 옥수깡(깡)이 ⊕
- 강녕(녕)이 ▲
- 깡녕(녕)이 ▲
- 강녕 ▲
- 강녕구 ▲
- 강녕수끼(끼) ▼
- 강녕새끼 ▼
- 강녕대죽 ▼
- 강녕대죽 ▼



2. 옥수수

‘옥수수’의 방언형은 크게 ‘옥수수’계와 ‘강녕이’계로 갈린다. 이들에게는 각각 다시 다음 표에서와 같은 여러 방언형이 있다. 이들 중 ‘강녕수끼’류는 두 계열의 것을 혼합한 형태일 것이므로 어느 한 계열에 넣기보다는 제3의 계열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주도의 ‘강녕대죽(죽)’은 이와도 다른데 일단 이 제3의 계열에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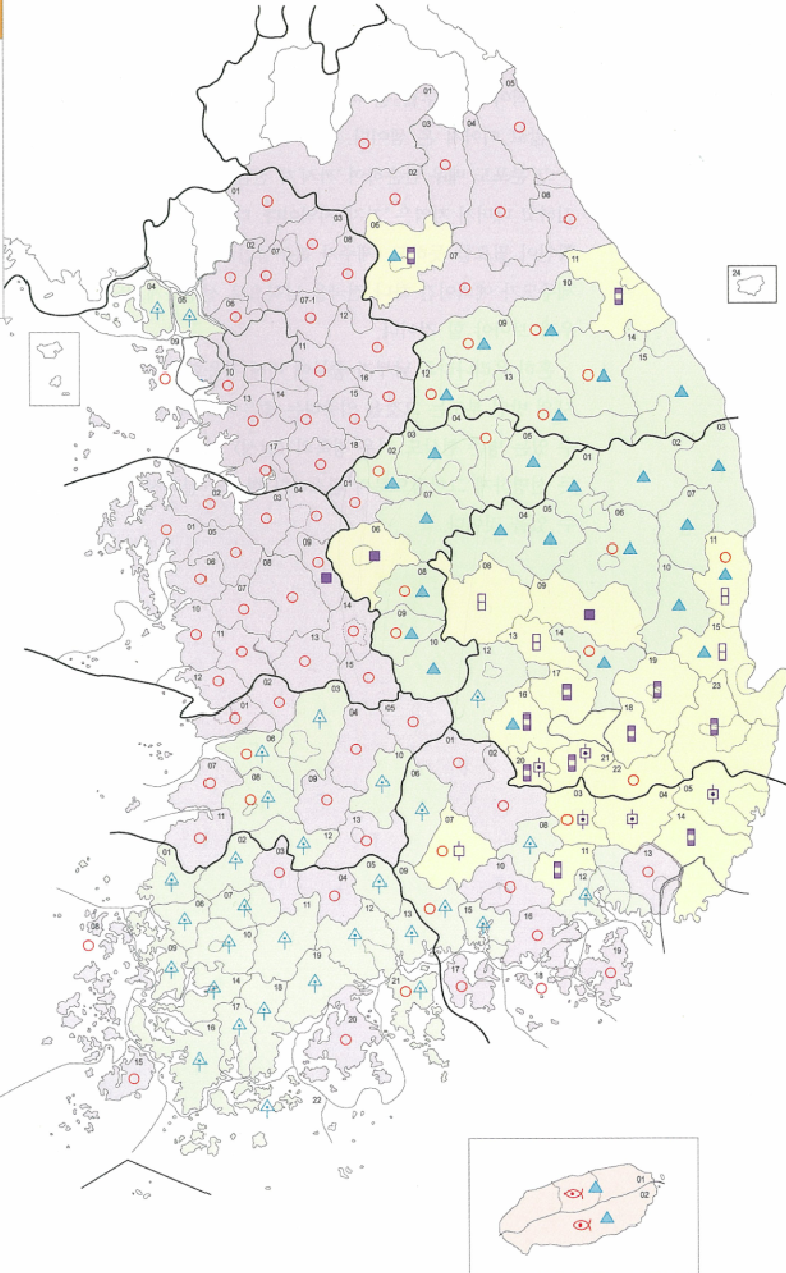
- ① ‘옥수수’계: 옥수수, 옥수시, 옥소시, 옥취시, 옥시기, 옥시끼, 옥수꾸, 옥수깡이, 옥수깡이
- ② ‘강녕이’계: 강녕이, 강녕이, 강녕이, 강녕, 강녕구, 깡녕이, 깡녕이
- ③ 기타: 강녕수끼, 강녕수끼, 강녕새끼, 강녕대죽, 강녕대죽

‘옥수수’계와 ‘강녕이’계의 분포는 대체로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양분하는 형국으로 나타난다. 즉 전자가 주로 경기, 강원, 충청북에, 후자가 경남북과 전남북에 분포하는 것이다. 다만 전남의 남부가 ‘옥소시/옥취시’라는 북부형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고, 강원과 경북의 접경지대에서 서로 상대방의 형태로 엇갈리는 현상도 주목된다. ‘옥수수’계에서는 ‘옥시기/옥시끼’의 분포가 넓은 편인데 강원을 기점으로 경기 및 충북의 일부 지역까지 넓게 퍼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옥수깡(깡)이’가 충남 북부에 알뜰한 세력을 펴고 있음이 주목을 끈다.

‘강녕이’계에서는 ‘강녕이’가 독주하다시피 하여 단조로운 편인데 다만 ‘강녕이’ 경북에 얼마간 안정된 세력을 펴고 있다. 한편 ‘깡녕(녕)이’처럼 어두의 ‘강’이 된소리로 실현되는 형태는 전남북에 걸쳐 꽤 넓은 세력을 펴고 있다.

간장 I-067

- 간장 ○
- 근장 ⊗
- 장 ▲
- 장물 ▲
- 지령 □
- 지령(랑)물 ■
- 지령장 ⊕
- 기령장 ⊕
- 지랑 □



3. 간장

‘간장’의 방언형은 넷으로 갈라 볼 수 있다. ‘간장’계, ‘장’계, ‘장물’계, ‘지령’계가 그것이다. ‘지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크게 두 계열로 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지령’계에는 ‘지령’ 외에 ‘지령물’, ‘지랑’, ‘지랑물’, ‘지령장’, ‘기령장’ 등 여러 변종이 있으나 ‘지령장’과 ‘기령장’은 각각 ‘지령’과 ‘기령’에 ‘장’을 결합하여 만든 복합어일 것이다. 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① ‘간장’계: ㉠ 간장, 근장
 ㉡ 장
 ㉢ 장물
- ② ‘지령’계: ㉣ 지령, 지랑, 지령물, 지랑물
 ㉤ 지령장, 기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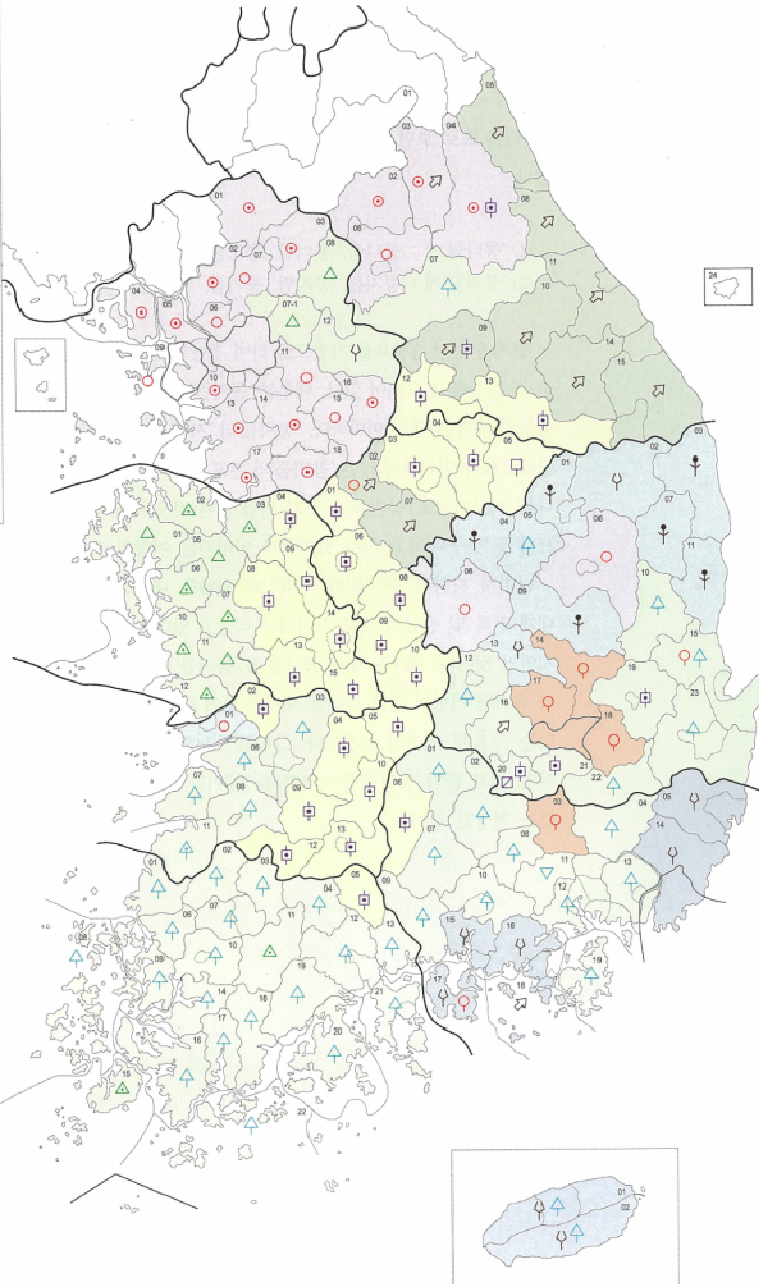
‘간장’은 경기, 충청남을 중심으로 하여 여기저기 퍼져 있다. 그러나 ‘간장’ 한 형태만 쓰는 지역은 경기, 강원 일부 지역뿐이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령’계 또는 ‘장’이나 ‘장물’과 병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장’은 전남을 거점으로 하여 전북, 경남 등으로 번져 있고, ‘장물’은 강원, 충북, 경북에 걸쳐 꽤 넓은 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나 어느 한 도를 다 장악하는 형국은 아니다. 그리고 제주가 인접 지역인 전남이나 경남의 형태가 아닌 이 ‘장물’을 취하고 있음도 특이하다.

‘지령’계는 경북과 경남에 걸쳐 있는데 역시 한 도의 전역을 장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콩나물)기르다
I-069-보충 5

- 기르다 ○
- 길르다 ⊙
- 기루다 ⊚
- 지르다 △
- 질르다 ▲
- 지루다 ▴
- 질루다 ▸
- 제라다 ▾
- 질구다 ⊞
- 질쿠다 ⊠
- 길구다 ⊡
- 키우다 ⊕
- 내다 ⊖
- 농다 ⊛



4. (콩나물) 기르다

‘콩나물을 기르다’의 ‘기르다’에 해당하는 방언형은 거의가 ‘기르다’ 언저리이지만 꽤 잡다하게 분화되어 있다. ‘기르다’, ‘길르다’, ‘기루다’, ‘지르다’, ‘질르다’, ‘지루다’, ‘질구다’, ‘키우다’, ‘내다’, ‘농다’ 등.

이들 중 ‘기르다’와 ‘지르다’는 물론 구개음화에 의한 분화이며, ‘기루다’와 ‘지루다’는 형용사 어간 ‘길-/질-’에 ‘키우다’의 사역형성접미사 ‘-우-’가 결합된 형태일 것이다. 그리고 ‘질구다’는 ‘-우-’ 자리에 ‘농구다(나누다)’, ‘쟁구다’ 등에 보이는 ‘-구-’가 첨가된 형태일 것이다.

이들을 ‘기르다’계로 묶는다면 ‘기르다’의 방언형은 ‘기르다’계, ‘키우다’계, ‘농다’계 및 ‘내다’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① ‘기르다’계: ㉠ 기르다, 길르다, 지르다, 질르다
 ㉡ 기루다, 지루다, 질루다
 ㉢ 지라다
 ㉣ 길구다, 질구다, 질쿠다
- ② ‘키우다’계: 키우다
- ③ ‘내다’계: 내다
- ④ ‘농다’계: 농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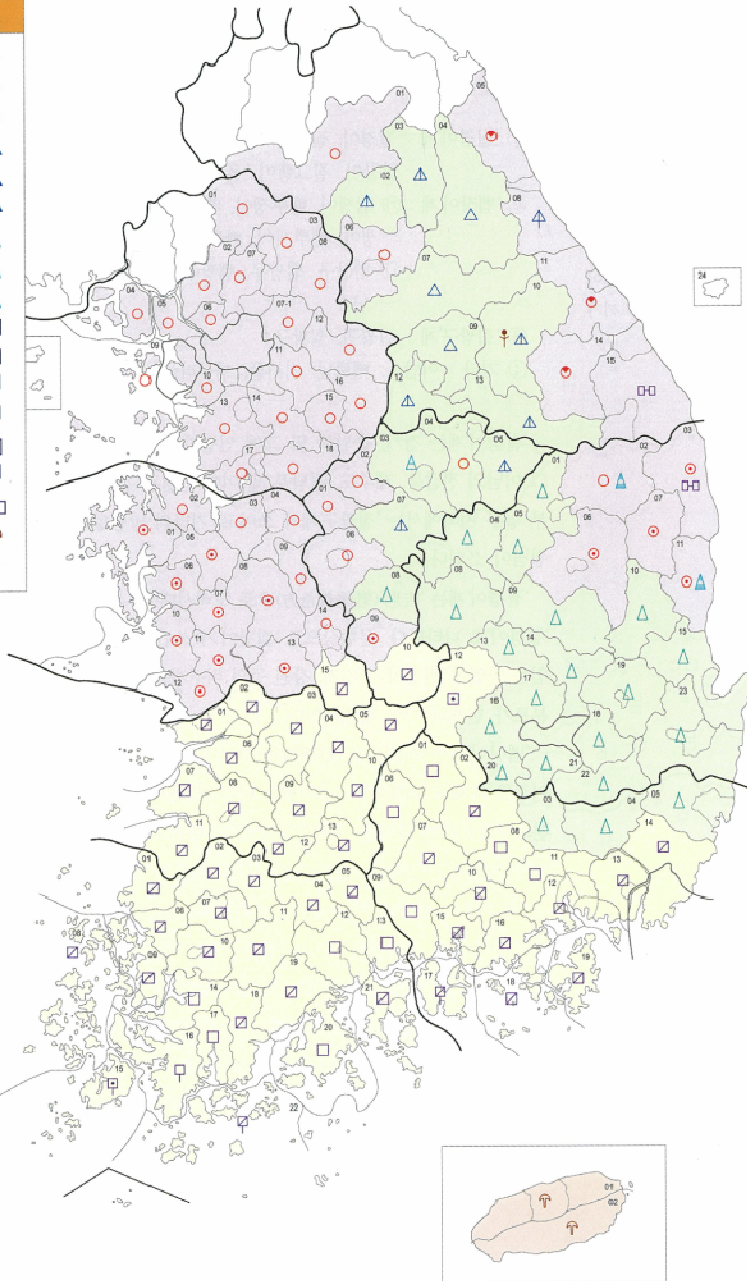
‘기르다’와 ‘길르다’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기르다’보다는 ‘길르다’가 더 널리 쓰이고 있다. 구개음화형인 ‘지르다’, ‘질르다’, ‘지루다’, ‘질구다’ 등이 가장 광범위한 분포를 보이는데, ‘질르다’는 충청의 서부, ‘질구다’는 충청을 중심으로 충남 동부와 전북의 동부에 걸쳐 있고, ‘지루다’는 전남과 경남을 거점으로 전북, 경북에까지 퍼져 ‘기르다’의 방언형 중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기르다’계는 앞에서와 달리 사역형성접미사에 초점을 맞추어 ‘-으-’계, ‘-우-’계, ‘-구-’계 등으로 나누어 그 분포를 살펴보아도 흥미롭다. 지도에 이를 부호의 변형으로써 얼마간 반영하였는데 그 분포가 상당히 정연함을 볼 수 있다.

‘내다’가 경북 북부에 좀 분산된 모습이지만 일정한 세력을 펴고 있고, ‘농다’는 넓은 지역은 아니지만 강원 영동지방 및 그 주변 지역을 통일된 모습으로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키우다’는 경남의 몇 지역과 제주에 나타나는데 좀 산만한 모습이다. 나머지 방언형은 다 미미한 상태를 보인다.

달래 I-502

달래	○
달리	⊙
달루	⊙
달롱	△
달롱	△
달롱(달뤼기)	△
달랭이	△
달롱이	△
달갱이	△
달롱(룽)개	□
달롱(룽)개	□
델롱개	□
델(델)룽개	□
다룽개	□
대룽개	□
다룽(달룽)갱이	□
들(드른)마농	↑
세파	↑



5. 달래

‘달래’의 방언형으로는 어휘형태론적으로 보면 ① ‘달래’계 ② ‘달롱’계 ③ ‘달랭이, 달갱이’계 ④ ‘달롱개, 달롱갱이’계 ⑤ ‘마농’계가 있다.

① ‘달래’계: 달래, 달리, 달루

② ‘달롱’계: 달롱, 달롱, 달록, 달뤼기

③ ‘달랭이’계: 달랭이, 달롱이, 달갱이

④ ‘달롱개’계: 달롱(룽)개, 달롱(룽)개, 델롱개, 겔(벨)룽개, 다룽개, 대룽개, 다룽갱이, 달롱갱이

⑤ ‘마농’계: 드른, 들마농

⑥ 기타: 세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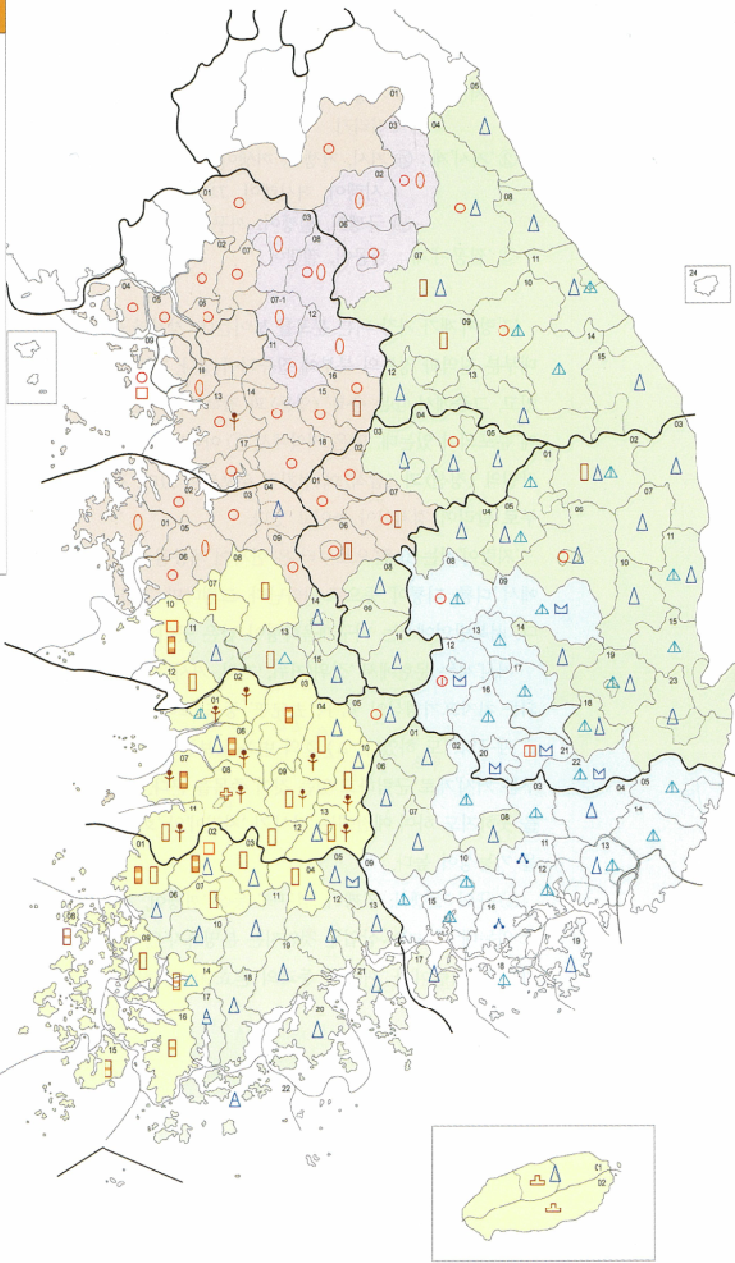
① ‘달래’계는 경기 전역, 강원 의 <철원, 고성, 춘성, 명주, 정선>, 충북 의 <진천, 음성, 제천, 청원, 옥천>, 충남 의 <금산>을 제외한 전역, 그리고 경북 <안동, 영양, 영덕> 등에서 쓰이고, ② ‘달롱’계는 강원 의 <창녕, 밀양, 울주> 지역에서 쓰인다. ‘달롱’계는 강원 의 영서 지역 대부분과 충북 <단양>에서 쓰이며 ③ ‘달랭이, 달갱이’계는 강원 <삼척>과 충북 <중원> 지역, 경북 의 <안동, 영양>과 <금릉>을 제외한 전역, 그리고 경남 의 <창녕, 밀양, 울주> 지역에서 쓰인다. 그리고 ④ ‘달롱개’계는 충남 <금산>과 경북 <금릉>, 전남북 전역, 경남 의 대부분 지역에서 쓰이되, ‘다(달)롱갱이’는 오직 강원 <삼척>과 경북 <울진>에서만 쓰인다. ⑤ ‘마농’계통인 ‘마농’계는 제주도에서 쓰인다.

‘달래’는 문헌에 ‘月乙賴伊’(郷藥集成方 85:17) 및 ‘들외’(樂學軌範 5:8), ‘들외’(訓蒙字會 上 7), ‘들외’(物譜), ‘들외’(譯語類解 上 52), ‘들외’(物名攷 3草) 등으로 나타나고 그 외에 ‘들랑귀’(東醫寶鑑 湯藥篇 2:32), ‘들랑귀’(譯語類解 補 42, 同文類解 下:3, 漢清文鑑 12:38) 등으로도 나타나 ‘달래, 달리, 달루’ 등과 ‘달롱개, 달롱개’ 등에 연결될 수 있다. ‘月乙老’(郷藥救急方)가 있어 ‘-외’ 접미사를 분석해 낼 수 있을 듯도 한데, 만일 이 분석이 가능하다면 ‘달루’가 가장 옛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방언형이 된다.

많은 지역에서 ‘-앙이, -웅/-웅, -웅개/-웅개, -웅갱이/-웅갱이’ 등 접미사의 결합에 의한 파생형들이 쓰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달랭이’에 ‘달갱이’를 비교하여 보면 어중자음 ‘ㄱ’을 가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벌레 I-434

벌레(레)	○
벌리	⊙
벌리지	◊
버레	□
버리	⊠
버리지	⊡
버라지	⊢
버럭지	⊣
버(베)랭이	⊤
버레기	⊥
벌게	△
벌(빨)기	▲
벌거지	▴
벌가지	▵
벌갱(갱)이	⊞
벌거니(어)	⊟
물꺫(꺫)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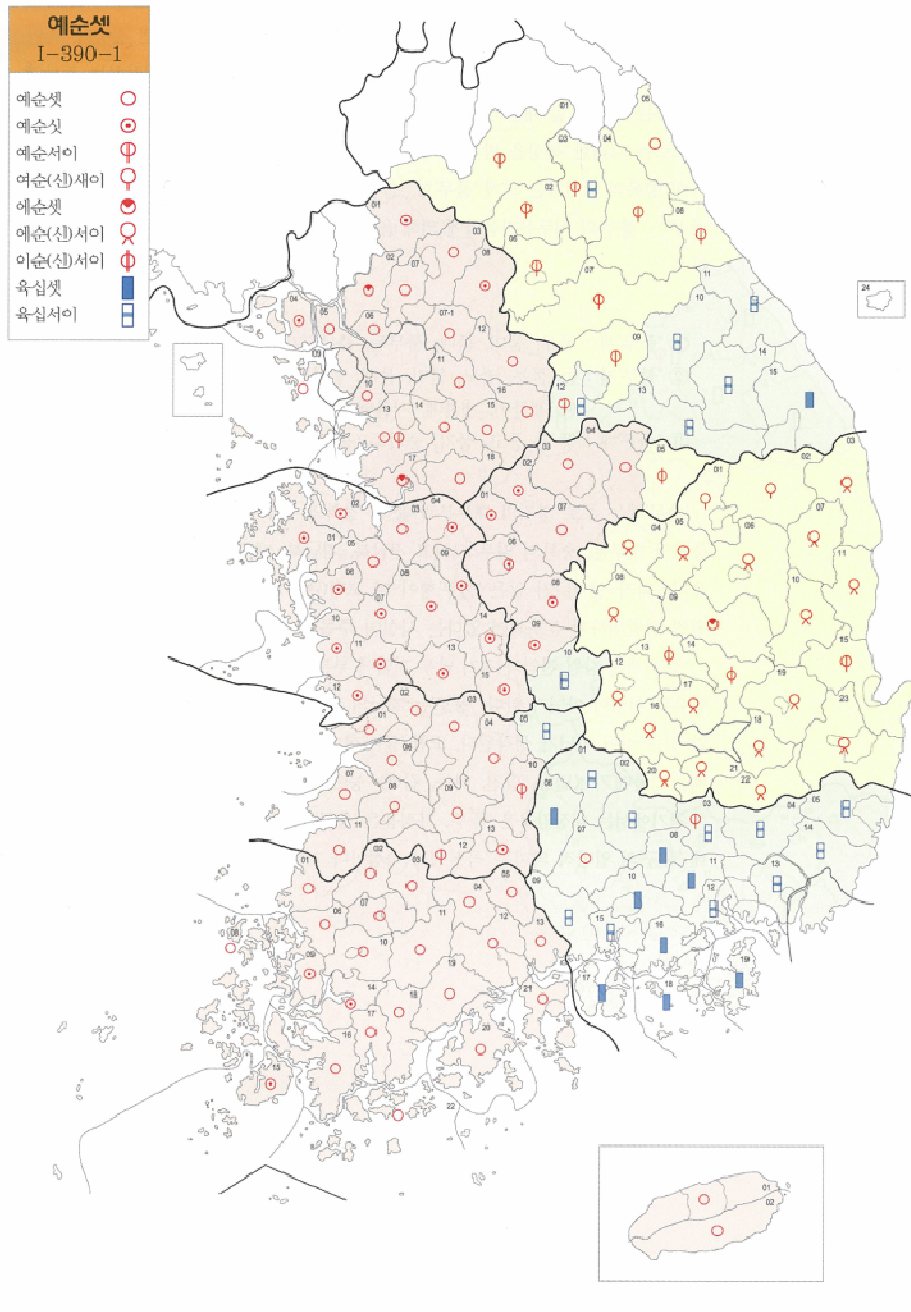
6. 벌레

‘벌레’의 방언형은 주로 음운사와 파생형태사에 따라 ‘벌레’계, ‘벌게’계, ‘버레’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벌레’계: 벌레, 벌래, 벌리, 벌리지
- ② ‘버레’계: 버레, 버리, 버리지, 버라지, 버럭지, 버랭이, 버랭이, 버레기
- ③ ‘벌게’계: 벌게, 벌개, 벌기, 빨기, 벌거지, 벌가지, 벌갱이, 벌갱이, 벌거니, 벌거이
- ④ 기타: 물꺫, 물꺫

‘벌레’계는 경기의 모든 지역과 강원도의 서북부지역 및 충청북도의 여러 지역 그리고 제주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그밖에 강원·경북의 일부 지역에서 단 방언형들과 함께 쓰이고 있다. ‘버레’계는 강원도의 중서부 지역, 충청북도의 일부 지역, 전북의 많은 지역과 전남의 서부, 북부의 일부 지역 그리고 경북의 일부 지역에서 쓰이는데, 대체로 단 방언형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 ‘벌게’계는 강원도의 동부지역, 충북·충남의 일부 지역 및 충남의 남부지역, 전남의 중·동부와 경남 북부의 모든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면서, 그 인접 지역에서 단 방언형과 함께 쓰이고 있다. 크게 보면 중앙어 중심의 ①과 ③과 동서로 갈리면서 ②가 서부지역에서 섞여 쓰인다고 할 수 있다.

‘벌레’의 방언형들은 대부분 중세어의 ‘벌에, 벌어지’ 등과 남부방언에 반영된 ‘벌게’ 등에 이어진 것이다. 즉 “*벌게>벌에>벌레~버레”의 과정에서 차이있게 반사된 것들이다. 그리고 다시 ‘-어지, -영이, -어니, -억지’ 등의 파생접미사들이 결합되어 새로운 방언형들에 이르러진 것들이다. 전북 지역에서 ‘버레’계와 함께 쓰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실은 이 단어는 ‘벌레’와 의미가 다른 벌개의 단어로, 아마도 전북 지역 담당 조사자가 참고 관련 어휘로 채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북의 대표적인 방언형은 ‘ㄱ’ 탈락형인 ‘버레’계이다.



7. 예순셋

우리말의 수사 체계는 고유어계와 한자어계가 있는데 십단위의 경우 ‘스물다섯’, ‘마흔일곱’과 ‘이십오’, ‘사십칠’에서 보듯이 고유어계는 고유어끼리, 한자어계는 한자어끼리 결합하는 규칙을 보인다. 그런데 방언에 따라서는 그 단위가 높은 쪽으로 갈수록 이 규칙을 깨는 경우가 있다. 이 항목은 그것을 보려 한 것이다.

이 조사항목에서는 ‘예순셋’의 ‘예순’이 고유어계인 ‘예순’으로 실현되느냐 ‘육십’으로 실현되느냐를 보고자 한 것인데 다음과 같은 두 계열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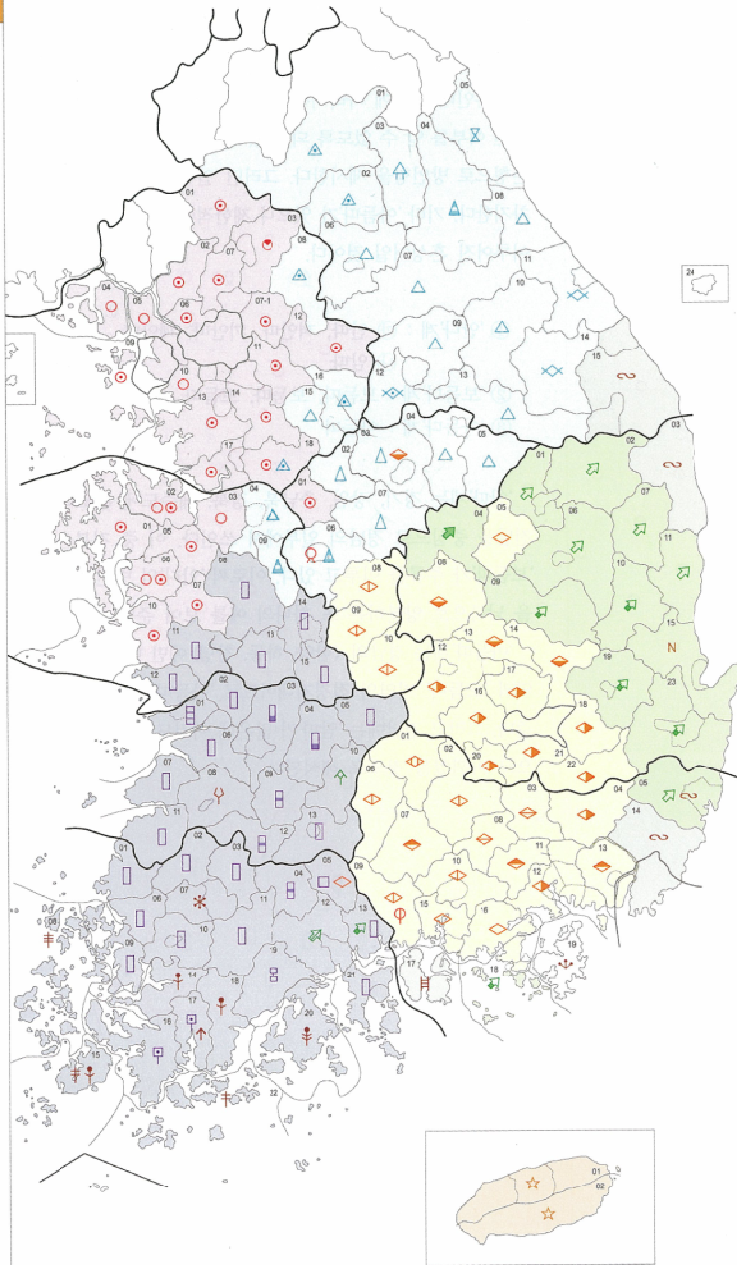
- ① ‘예순셋’계: 예순셋, 예순셋, 예순셋, 예순서이, 예순새이, 예신새이, 예순서이, 예신서이
- ② ‘육십셋’계: 육십셋, 육십서이

‘예순셋’계는 경기, 충남북, 전남북, 제주도, 경북, 강원도의 분부에 분포되어 있고, ‘육십셋’계는 경남 전체, 강원도의 <평창, 영월, 정선, 삼척>에 나타나고 <양양, 명주, 원성>에는 공존한다. 그리고 전북의 <무주>가 ‘육십셋’에 속하고 충북의 <영동, 옥천>에는 공존의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육십셋’계라고 예상하는 경북은 모두 ‘예순셋’으로 나타나 매우 특징적이다.

소꿉질 I-301

- 소꿉(꿉)질 ○
- 소꿉(꿉/꿉)장난 ○
- 소꿉장냥 ○
- 손꿉놀이 ○
- 소꿉쟁이 ○
- 통꿉(통꿉/통감/통꿉/통감/도꿉)질 △
- 통꿉(통꿉/통감)장난 △
- 도꿉놀이 △
- 통구바리 △
- 도꿉(도구/동고)파리 △
- 종꿉(감)질 ×
- 종꿉장난 ×
- 조곤놀이 ×
- 바(빠)꿉(꿉/꿉)살이 □
- 바꿉(바꿉/빠꿉)새기 □
- 바꾸(꼬)매기 □
- 바깁질 □
- 바까마리 □
- 바꿈 □
- 바깁질 □
- 방드깨비 ◇
- 방(뺑)두(드)깨미 ◇
- 반두(주/조)깨미 ◇
- 반두(주)깨 ◇
- 반두깨놀이 ◇
- 방두(드/또/주/지) ◇
- 쟁이 ◇
- 반주까리 ◇
- 동두(도/드/디)깨비 ⚡
- 동드(디/지)깨미 ⚡
- 도러깨미질 ⚡
- 동드까래 ⚡
- 동니깨 ⚡
- 새금박(팥)질 ⚡
- 새꺾질 ⚡
- 새꺾쟁이 ⚡
- 삼바꺾질(삼바꺾) ⚡
- 삼꺾질 ⚡
- 고꺾질 ⚡
- 항가꺾지 ⚡
- 노래깨미 ⚡
- 가꺾살이 ⚡
- 살림(세간)살이 ⚡
- 흑꺾 ⚡



8. 소꿉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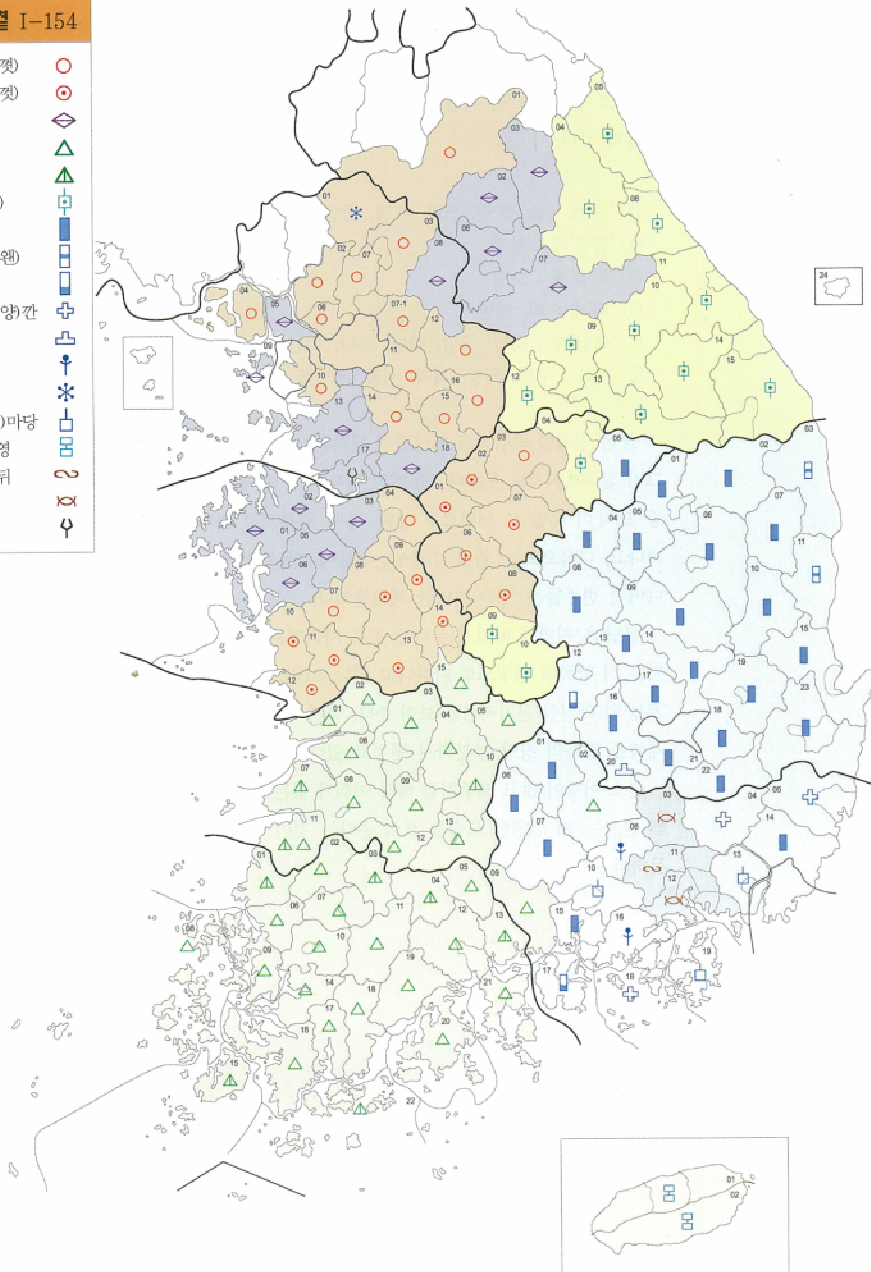
‘소꿉질’의 방언형은 갈피를 잡지 못할 정도로 어지럽게 세분되어 있다. 아마 방언 분화가 가장 복잡하게 된 예에 속할 것이다. 그만큼 그 계열을 나누기도 쉽지 않은데 대개 다음과 같이 크게 일곱 계열로 나누고, 그 아래 다시 복잡하게 하위 계열을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 ① ‘소꿉질’계: ㉠ 소꿉질, 수꿉질
 ㉡ 소꿉장난, 소꺾장난, 소꺾장냥
 ㉢ 손꿉놀이
 ㉣ 소꿉쟁이
- ② ‘통꿉질’계: ㉤ 통꿉질, 통꿉질, 동꺾질, 동꺾질, 도꺾질
 ㉥ 통꺾장난, 통꺾장난, 토꺾장난, 도꺾장난, 도꺾장난, 또꺾장난, 또꺾
 ㉦ 도꺾놀이,
 ㉧ 통구바리, 동고파리, 도구파리, 도꺾파리
- ③ ‘종꺾질’계: ㉨ 종꺾질, 종꺾질
 ㉩ 종꺾장난
 ㉪ 조곤놀이
- ④ ‘동두깨비’계: ㉫ 동드깨미, 동디깨미, 동지깨미
 ㉬ 동두깨비, 동도깨비, 동지깨비
 ㉭ 동구까래
 ㉮ 동니깨
- ⑤ ‘반두깨미’계: ㉯ 반두깨미, 반주깨미, 반조깨미, 방두깨미, 방드깨미
 ㉺ 방두깨비
 ㉻ 반두꺾이, 반드꺾이, 방두꺾이, 방주꺾이, 방지꺾이,
 뺑뜨꺾이, 뺑주꺾이, 뺑꺾이
 ㉼ 반주까리 ㉽ 반두꺾놀이 ㉾ 반두꺾, 반주꺾, 방주꺾
- ⑥ ‘바꺾살이’계: ㉿ 바꺾살이, 바꺾살이, 빠꺾살이 ㊱ 바꺾새기, 바꺾새기
 ㊲ 바꺾매기, 바꺾매기 ㊳ 바꺾마리
 ㊴ 바꺾질 ㊵ 바꺾 ㊶ 가꺾살이
- ⑦ ‘새꺾박질’계: ㊷ 새꺾박질, 새꺾꺾질, 새꺾꺾질 ㊸ 새꺾꺾이
 ㊹ 삼바꺾꺾질, 삼꺾꺾꺾, 삼꺾꺾꺾 ㊺ 삼꺾꺾꺾
- ⑧ 기타: 흑꺾, 항가꺾치, 살림살이, 세간, 노래깨미, 고꺾꺾

이렇게 나누어 놓고 보면 방언 구획은 제법 선명하게 드러난다. ‘소꿉질’계는 주로 경기를 중심으로 충남 서북부에 분포되어 있고, ‘통꺾꺾’계는 강원을 중심으로 충북 중북부에 걸쳐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종꺾꺾’계가 섞여 있다. 그리고 경남북 쪽은 ‘반두꺾꺾’계가 널리 분포하는데 동쪽으로는 길게 ‘동두꺾꺾’계가 분할하고 있다. 한편 전남북은 ‘바꺾꺾살이’계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다만 전남 남부로는 ‘새꺾꺾꺾꺾’계가 좀 산만한 모습으로 파고들고 있다.

뒤결 I-154

- 뒤결(갓) ○
- 뒤결(갓) ⊙
- 뒤란 ◇
- 뒤안 △
- 되안 ▲
- 똥(똥) □
- 디안 ▣
- 디앤(앤) □
- 대안 □
- 디안(양)간 ⊕
- 디앤 □
- 디터 †
- 뒤돌 *
- 똥(똥)마당 □
- 뒤뚜엥 □
- 글똥뒤 ?
- 후앤 ○
- 올안 ⊕



10. 뒤결

‘뒤결’은 집 뒤쪽의 조그만 공간(마당)으로서 방언형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갈려 있다. 그러나 거의가 ‘뒤결, 뒤란, 뒤안’처럼 ‘뒤’를 선행 명사로 취하는 형태이며, 나머지 ‘디안’이나 ‘똥’도 결국 그 ‘뒤’에서 변형된 형태들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제주도의 ‘뒤뚜엥’도 마찬가지이며, 경남 두 지역에 나타나는 ‘후앤’도 역시 ‘뒤’의 다른 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분포를 보면 이러한 차이가 큰 방언차 구실을 하므로 이를 근거로 ‘뒤결’의 방언형을 분류하면 대개 다음과 같다.

- ① ‘뒤결’계: 뒤결, 뒤겻, 뒤겘, 뒤겘
- ② ‘뒤란’계: 뒤란
- ③ ‘뒤안’계: 뒤안, 되안, 똥, 똥
- ④ ‘디안’계: 디안, 디앤, 디앤, 대안, 디안간, 디터

‘뒤결’계는 경기와 충청북의 대부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데 경기는 ‘뒤결(갓)’에 인 반면 충청북은 ‘뒤결(갓)’에 실현되는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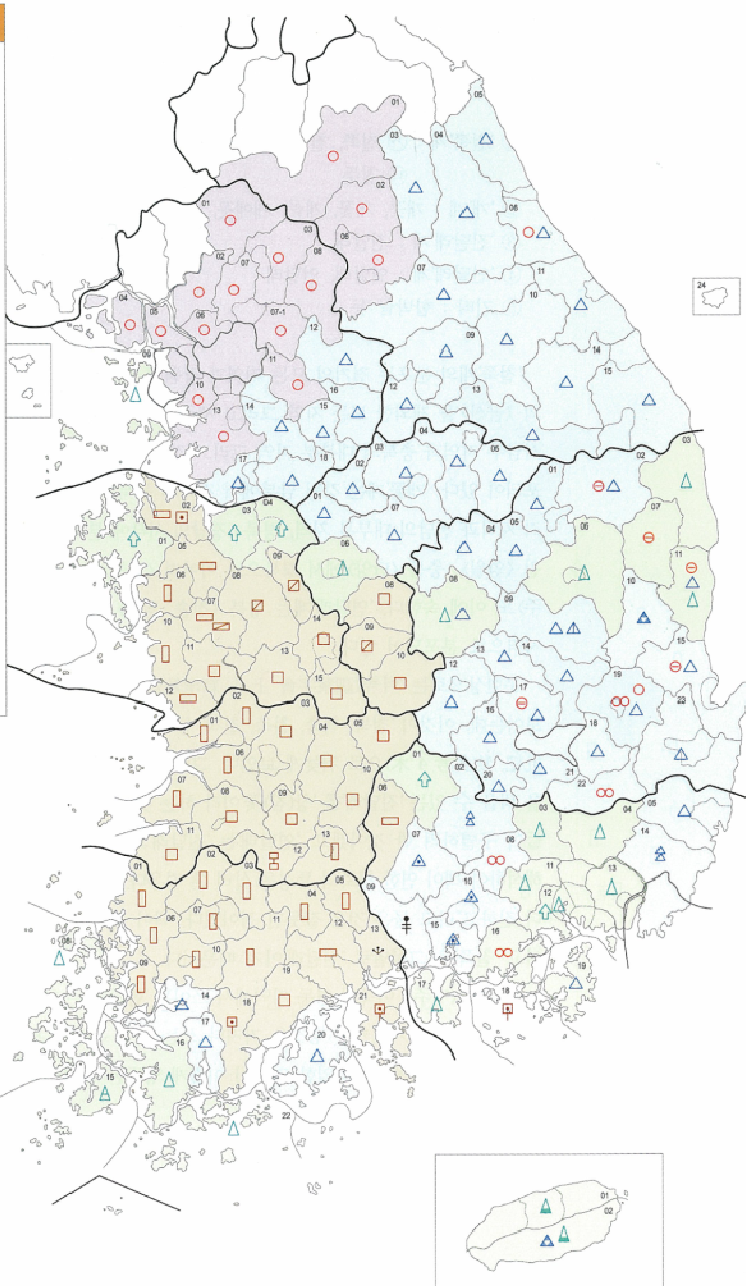
‘뒤란’은 경기, 강원, 충청남에 분포되어 있으나 ‘뒤결’에 의해 절단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뒤란’과 ‘뒤결’ 지역에 이어지는 강원, 충북에 ‘똥(똥)’이 자리잡고 있다.

전남북은 거의 ‘뒤안’ 하나로 통일된 상태인데 ‘되안’도 섞여 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뒤안’에 뿌리를 둔 ‘뒤안길’은 표준어 대접을 받게 되었으면서도 ‘뒤안’은 여전히 방언으로 처리되는 일은 하나의 흥밋거리라 할 만하다.

한편 경북은 거의 ‘디안’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 이 지역이 ‘위’와 같은 원순모음을 거기서 원순성을 뺀 평순모음 ‘이’로 발음하는 경향이 큰 지역임을 읽게 해 준다. 경남은 이 경우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여 준다.

냉이 I-500

냉(냉)이	○
냉(나)이	⊖
신(썸)냉이	⊗
나생(새)이	△
나싱이	▲
나상이	▴
난생(쟁)이	▵
나시	△
나새	▲
난시	▴
나시랭(랭)이	⊕
나싱(승/시)갱이	⊡
나싱개(계)	□
나쌍개	▣
나상개	▤
나상구	㉑
나승개	▥
나승개(계)	▦
아승개	㉒
좁쌀갱이	⊙
항가꾸	≡



11. 냉이

‘냉이’의 방언형은 주로 음운사와 관련시켜 ‘△’의 역사에 관심을 두었던 단어가
다. 이 단어 내부에는 형태사의 차이를 보이는 방언형들이 많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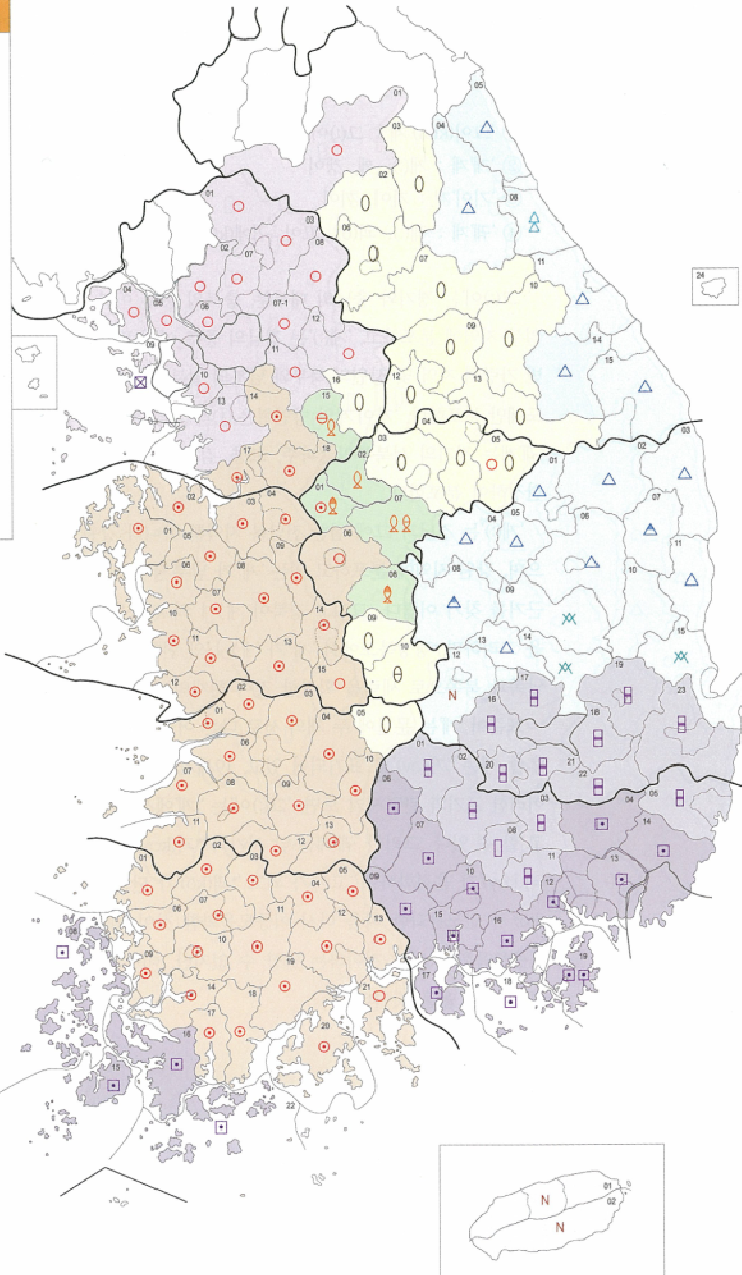
- ① ‘냉이’계: 냉(냉)이, 냉(내)이, 신(썸)냉이
- ② ‘나시’계: ㉑ 나생(새)이, 나싱(시)이, 나상이, 난생(쟁)이
 - ㉒ 나시, 나새, 난시
 - ㉓ 나시랭이, 나시갱이
 - ㉔ 나싱개(계), 나쌍개, 나승개, 나승구, 아승개, 나승개(계), 아승개, 나승개, 나상개, 나싱갱이
- ③ 기타: 좁쌀갱이, 항가꾸

① ‘냉이’계의 분포는 의외로 좁다. 경기의 서남부를 제외한 지역과 그에 인접한 강원 서북부 지역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나머지는 ② ‘나시’계인 것이다. ①과 ②는 중세국어의 ‘나시’에서 ‘△>∅’와 ‘△>ㅅ’의 어느 변화를 겪었나에 따른 차이이다. ‘나시’계 속에는 ‘-앙이, -랑이, -강이, -ㅇ개, -ㅇ구, -ㅇ갱이’ 등에 의한 파생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나시>나이’와 같은 변화를 보여 주는 방언형은 현재 거의 없다. 오직 경북 봉화에서 ‘나새이’와 함께 쓰인다. ① ‘냉이’는 ‘나시>나이+앙이>냉이>냉이’의 과정을 거친 파생어이며 ‘내이’는 ‘ㅇ’의 약화·탈락을 입은 방언형이다. 마찬가지로 ‘나시+앙이>나상이>나생이>나새이’와 같은 과정을 겪은 것이 ② ㉑이다. ② ㉒는 ‘나시+을+앙이’의 구성으로부터 반사된 방언형이고 ② ㉓는 ‘-옹개(옹개)’ 또는 ‘-앙귀’ 등에 의한 파생어일 것이다. 방언형 ‘나시’는 충북의 <청원>, 경북의 <울진, 안동, 상주, 영덕>과 경남의 <창녕, 함안, 김해, 남해>에서 보이고 특히 전남의 서남해안(신안, 진도, 해남, 완도)에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가장 보수적인 방언형이라 하겠다. 경북의 ‘나시’는 성조로 보아 ‘나싱이>나시이~나시’의 그것은 아니다. 이들의 분포로 보아서는 파동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경남의 일부 지역에서 보이는 ‘썸냉이’계통은 ‘썸나물’과 함께 원래는 ‘썸바귀’를 나타내는 방언형이고 제주도방언의 ‘난시’는 치찰음 아래에서 ‘ㄴ’이 첨가된 형태이다.

우렁이 I-422

- 우렁(레/렁)이 ○
- 우렁(리)이 ⊖
- 우렁 ⊕
- 울뽕(배)이 ○
- 울뽕(비)이 ⊖
- 울갱이 ⊕
- 울깡이 ⊕
- 울갱이 ⊕
- 골뽕(배)이 △
- 골비 ⊕
- 골부리 ⊕
- 동뽕뽕이 ⊕
- 고동이 ⊕
- 고딩이 ⊕
- 고동 ⊕
- 구동(동) ⊕
- 박꼬동 ⊕



12. 우렁이

‘우렁이’의 방언형으로는 어원상 차이가 있어 몇 갈래로 나뉜다. 크게는 ‘우렁이’계, ‘골뽕이’계, ‘고동이’계 세 개가 있다.

- ① ‘우렁이’계: ㉠ 우렁이, 우렁이, 우렁이, 우렁
 ㉡ 울뽕이, 울뽕이
 ㉢ 울갱이, 울깡이, (논)울갱이
- ② ‘골뽕이’계: ㉣ 골뽕이, 논골뽕이, 논골비
 ㉤ 논골부리, 못골부리, 왕골부리, 동뽕뽕이
- ㉥ 고동이(논꼬동이), 고딩이, 할미고딩이,
 소라꼬딩이, 황새고딩이
 ㉦ 고동, 논꼬동, 논꾸동, 박꼬동

‘우렁이’계는 경기, 충남, 전북, 전남으로 이어지는 서부 지역에 대표적인 방언형으로 분포되어 있고, ‘골뽕이’계는 강원 영동으로부터 경북으로 이어져 분포되어 있으며, ‘고동이’계는 경북의 남부에서부터 경남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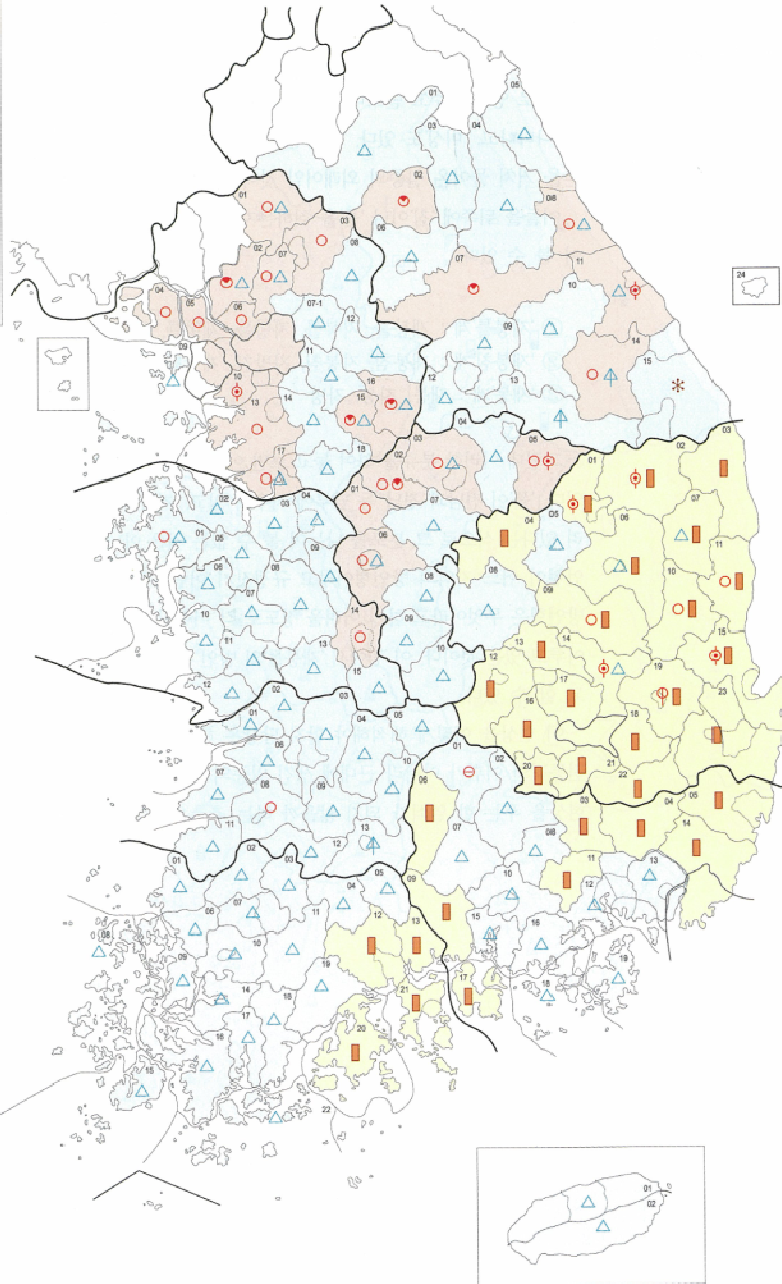
‘우렁이’는 논에서 자라고, ‘고동’은 바다에서 자라기에 ㉢을 ㉠로 대체하여 쓰기 위해서 흔히 ‘논#고동’처럼 한정시키는데, ‘골뽕이’의 경우에도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역시 ‘논#골뽕이’ 형식을 많이 취한다.

우렁이는 문헌상에서는 ‘우렁이’ 등과 같이 주로 근대어 문헌에 보이고, ‘고동이’계는 ‘고동’으로 나타나며, ‘골뽕이’계는 ‘골왕이’를 이은 듯한데 이로부터 ‘*골왕이’ 등을 가정하게 된다.

①과 ②, ③ 사이의 내륙에 분포하는 ‘울뽕이’와 ‘울갱이’는 그 지리적 분포를 고려하면 ‘우렁’과 ‘골뽕이’의 혼효형이라 할 수 있다. ‘울뽕이’와 ‘울갱이, 울깡이’는 자음체계상에서 ‘ㄹ’과 ‘ㄱ’이 대립하면서도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응시킨 것일 듯하다.

가위 1-187

- 가위 ○
- 까위 ⊕
- 가우 ⊙
- 가이 ⊖
- 가왜(왜) ⊕
- 가새 △
- 까새 ⊕
- 가시개 □
- 깍개 *



13. 가위

‘가위’의 방언형은 크게 ‘가위’계, ‘가새’계, ‘가시개’계로 나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중세국어형 ‘조애’나 ‘조새’의 ‘△’이 ‘ㅅ’으로 실현되느냐 탈락한 형태로 실현되느냐로 나눈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가 보존되어 있느냐의 여부로 나눈 것이다. ‘-개’는 『계림유사』에서 확인되는 접미사 ‘-개’인 것이다.

이들 계열의 변종으로 ‘가우’, ‘가이’, ‘가왜’, ‘가왜’, ‘까위’, ‘가이개’, ‘카이개’ 등이 있고, 이들 어느 계열과도 다른 ‘깍개’도 강원 <삼척>에서 병존 형태로 쓰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가위’의 어원을 ‘깍다’를 나타내는 동사 ‘조-’에 ‘지우개’, ‘덮개’에서와 같은 접미사 ‘-개’가 결합된 것으로 풀이하거나 이들 방언형 여기저기에 그 ‘-개’가 살아 있고, 더욱이 <삼척>의 ‘깍개’는 똑같은 조어법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신기한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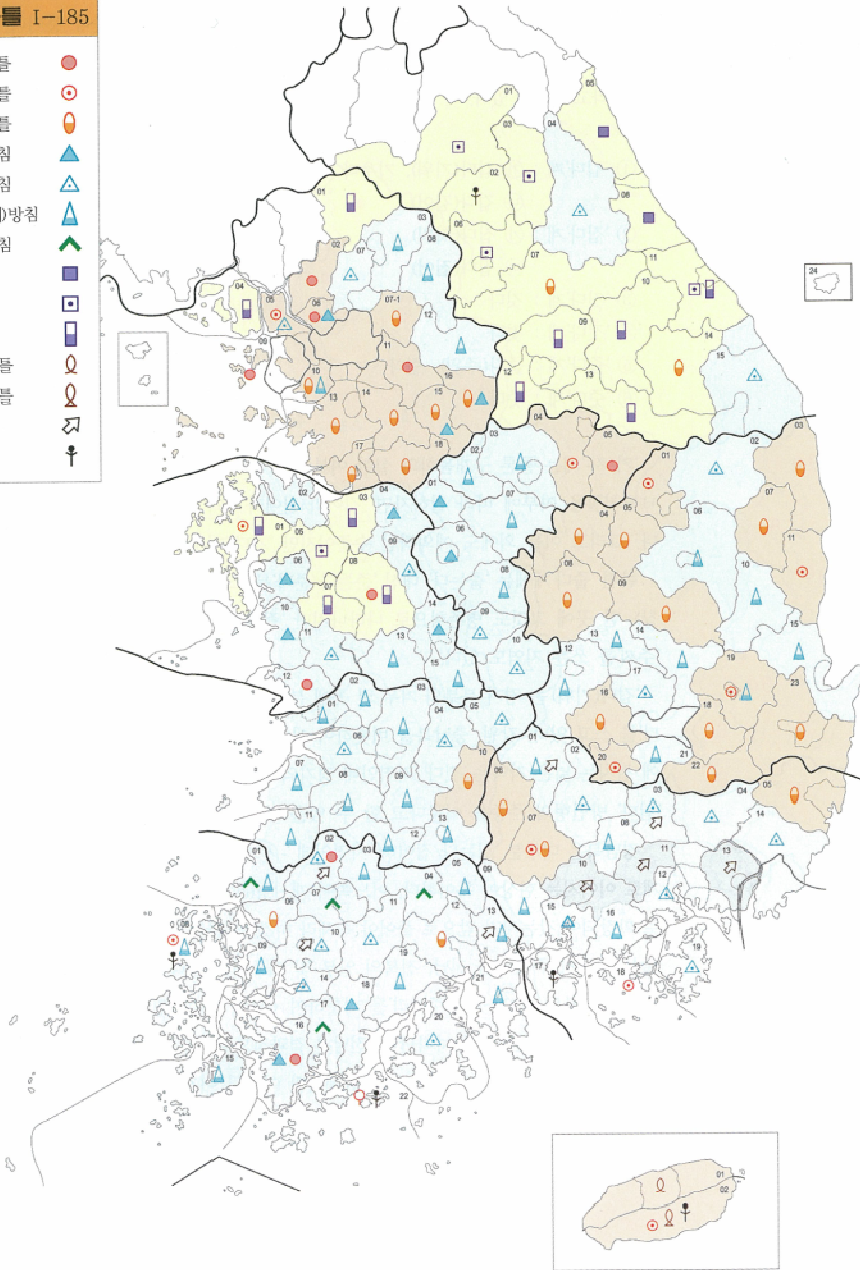
‘가위’의 방언형은 그 분포가 꽤 산만한 편이다. 무엇보다 ‘가위’계가 여기저기 병존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가위’만 쓰는 지역은 경기의 반도 안 되는 일부 지역뿐이다. 표준어형이 이처럼 좁은 분포밖에 못 가지고 있는 예도 드물 것이어서 ‘가위’의 분포는 그 점에서 특이하다 할 만하다.

반면 ‘가새’는 아주 넓은 분포를 보인다. 경기, 강원, 충청북, 전남북을 비롯하여 경남의 반 정도와 제주도에까지 넓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가새표’, ‘가새모춤’, ‘가새쭈부쟁이’ 등 방언형인 ‘가새’가 복합된 어형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 많은 것은 앞에서 지적한 ‘가위’의 위축된 분포와 이 ‘가새’의 활발한 분포에서 연유되었을 것이다.

‘가시개’는 경북을 중심으로 경남, 전남의 일부에 분포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이 ‘ㅅ’으로 실현되는 지역이 그것을 탈락시킨 지역보다 훨씬 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의 다른 경우와 다른 현상이어서 ‘가위’의 방언 분포는 이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재봉틀 I-185

- 재봉틀 ○●
- 자봉틀 ○●
- 자방틀 ○●
- 재봉침 ▲
- 자봉침 ▲
- 자(재)방침 ▲
- 자광침 ▲
- 재봉 ■
- 자봉 □
- 자방 □
- 제봉틀 ○
- 즈봉틀 ○
- 틀 ⚡
- 미싱 †



14. 재봉틀

‘재봉틀’의 대표적 방언형은 ‘재봉틀’, ‘재봉침’, ‘자봉’, ‘틀’ 등이다. 이들 외에 ‘자봉틀’, ‘자방틀’, ‘자봉침’, ‘자방침’, ‘재방침’, ‘자방’, ‘재방’, ‘재봉’ 등 많은 것들이 더 있는데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만들어진 형태들인 것이다. 특이하게 ‘자광침’이란 어형도 나타나고, ‘미싱’도 있다. ‘미싱’은 말할 것도 없이 ‘머신’이 변용되어 일본을 거쳐 들어온 일종의 외래어일 것이다.

이들을 뒤쪽에 ‘침’이나 ‘틀’을 취하는지 어떤지에 따라 크게 다음 세 계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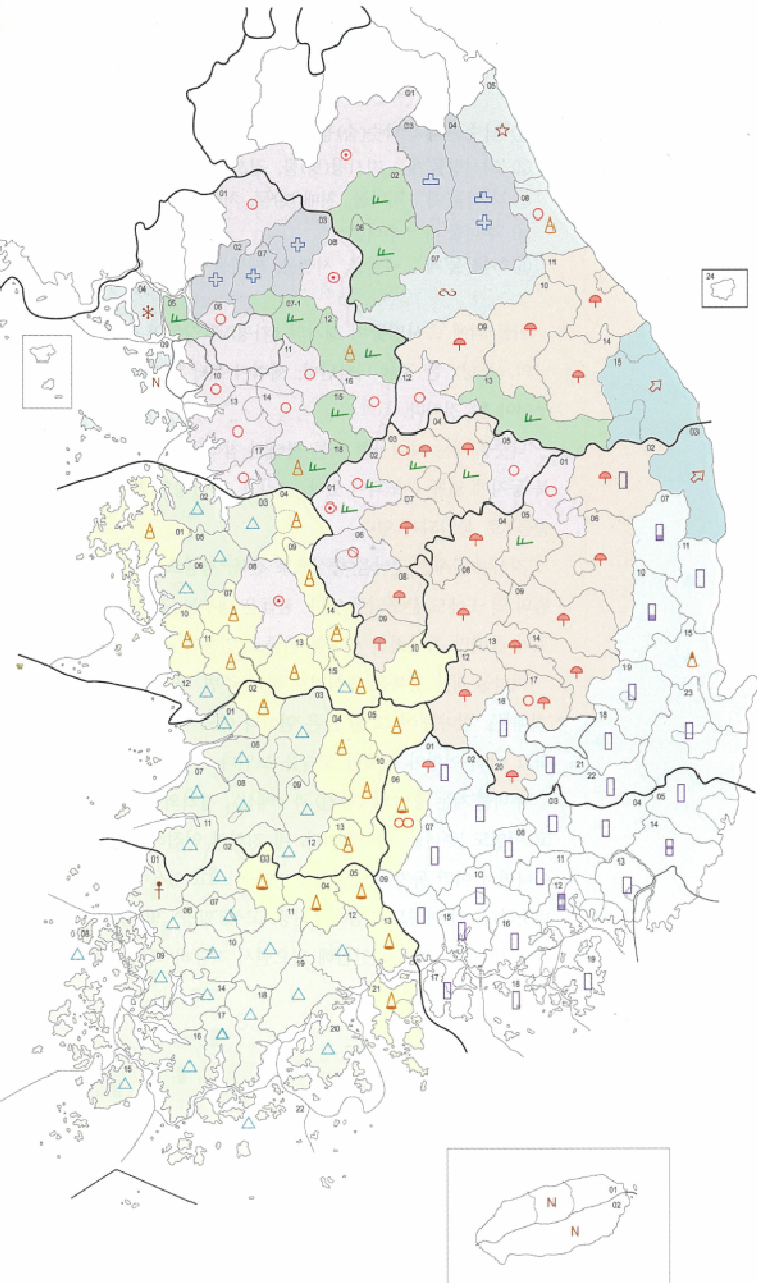
- ① ‘재봉틀’계: 재봉틀, 자봉틀, 자방틀, 제봉틀, 즈봉틀, 틀
- ② ‘재봉침’계: 재봉침, 자봉침, 자방침, 재방침, 자광침
- ③ ‘재봉’계: 재봉, 자봉, 자방

그런데 이러한 분류를 하여 놓고 보면 이들 방언형의 분포는 좀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틀’이 전남과 경남 등 남부에 치우쳐 있고, ‘자봉/자방’이 주로 강원, 충청에 몰려 있다는 식으로 그 분포를 나누어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전체적으로 어느 한 방언형이 어느 지역의 방언형이라고 규정짓기 어렵도록, 바꾸어 말하면 어느 지역의 방언형은 무엇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각 어형이 서로 뛰어넘으며 분산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재봉틀’의 방언 분포는 어느 항목의 것보다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당장은 해답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재봉틀’은 전통적인 어휘가 아니라 근대에 생긴 일종의 신생어다. 그것이 이러한 특이한 분포 현상을 푸는 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은 해 볼 수 있을 듯하다.

I-153

뜰	○
뜨락	⬆
뜰(뜰)방	△
뜰(뜰)방	▲
뜰밭	⬆
뜰안(양/얕)	⊙
섬뜰	⊖
토방	△
붕당	⬆
축당	□
죽당	□
쪽당	□
숙당	□
퇴	+
퇴방	⬆
처마(당)	☆
구팡	☆
신방독	†
대뜰	*
마당	∞



15. 뜰

‘뜰’은 ‘집안에 있는 마당’을 가리키기도 하고 ‘섬뜰 위의 평평한 곳’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후자를 물은 것이다. 지역마다 가옥구조가 달라 명칭이 서로 얽히면서 그 방언형도 좀 복잡하게 갈리는 편이다. 몇 계열로 나누어 그 어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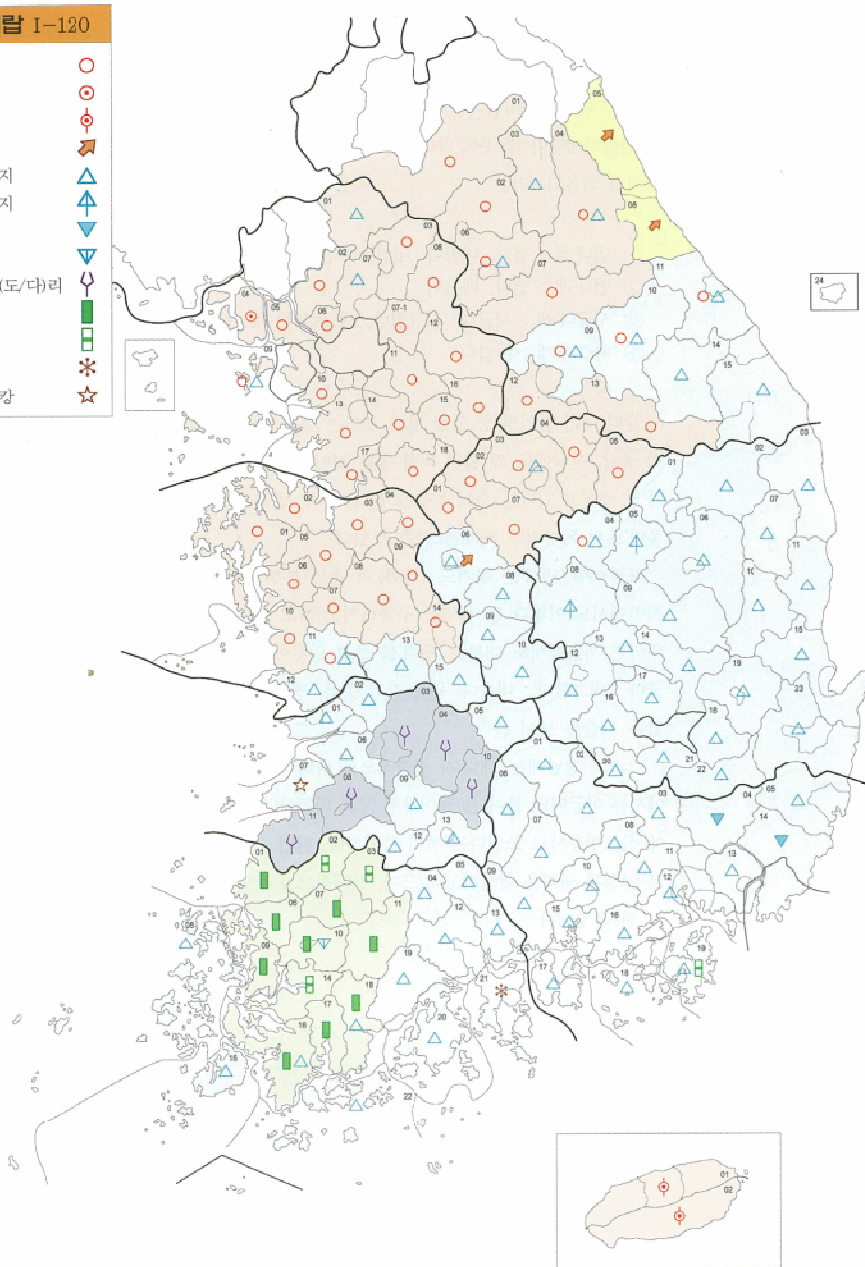
- ① ‘뜰’계: 뜰, 뜨락, 뜨랑, 트랄, 뜰안, 뜰(뜰)팡, 뜰(뜰)방, 뜰밭
- ② ‘붕당’계: 붕당
- ③ ‘토방’계: 토방
- ④ ‘퇴’계: 퇴, 퇴방
- ⑤ ‘축당’계: 축당, 죽당, 쪽당, 똑당, 숙당
- ⑥ 기타: 구팡, 처팡, 처막, 섬뜰, 신방독

‘뜰’은 경기를 중심으로 얼마간의 세력은 있으나 그 세력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 집중적이지도 못하다. ‘뜰’계의 대부분은 ‘뜰’에 접미사류를 첨가한 형태인데 그중 ‘뜨락’이 제법 큰 세력으로 강원, 경북, 충북으로 이어지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다음으로는 ‘뜰팡’이 충남, 전북에, ‘뜰(뜰)방’이 전남 동부에 몰려 나타난다. 나머지 변종들은 아주 미미한 세력들이다.

‘붕당’은 지역에 따라서는 다른 곳을 가리키는 명칭인데 경기, 강원, 충북 일부 지역은 이 항목의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토방’도 비슷한 사정인데 전남북이 ‘토방’의 확실한 근거지임을 보여 준다. 한편 경남의 ‘축당’은 통일되어 있으면서 그 세력을 경북의 상당 부분까지 뻗치고 있다.

군소 어형이 많고 제주처럼 해당 어휘가 없는 지역도 있음에 비해 몇몇 주류 어형의 분포는 꽤 선명한 모습을 보여 준다는 것이 이 지도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을 듯하다.

서랍 1-120	
서랍	○
사람	⊙
설랍	⊕
빼랍	⊕
빼다지	△
빼다지	△
빼담	▽
빼담	▽
빼두(도/다)리	⊕
빼간	■
빼간	■
빼비	✱
빼담강	☆



16. 서랍

‘서랍’의 방언형은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두가 ‘빼-’로 시작하느냐 ‘서-’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일단 ‘서랍’계와 ‘빼다지’계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의 구체적 방언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들 중 ‘빼랍’은 그 형태의 한쪽씩을 떼어 만든 일종의 혼효어일 것이므로 제3의 계열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① ‘서랍’계: 서랍, 설랍, 사람
- ② ‘빼다지’계: ㉠ 빼다지, 빼다지, 빼다리, 빼도리, 빼두리
⊕ 빼랍, 빼담, 빼담
- ③ ‘빼간’계: 빼간, 빼간

‘서랍’계는 거의 ‘서랍’으로 통일되어 있다. 그러나 그 분포는 그리 큰 편은 아니다. 경기, 강원, 충청북에 걸쳐 있으나 변두리 지역은 다른 형태의 침식을 받고 있어 그리 큰 영역을 확보한 모습은 아닌 것이다. 오히려 더 큰 세력은 경남북을 거점으로 하여 그에 인접한 전남북, 충청북, 강원 의 여러 지역과 멀리 경기도까지 세력을 펴고 있는 ‘빼다지’계이다. ‘빼다지’계도 ‘빼다지’, ‘빼담’, ‘빼랍’ 등이 두 지역씩에 몰려 나타나긴 하나 거의 ‘빼다지’ 하나로 통일된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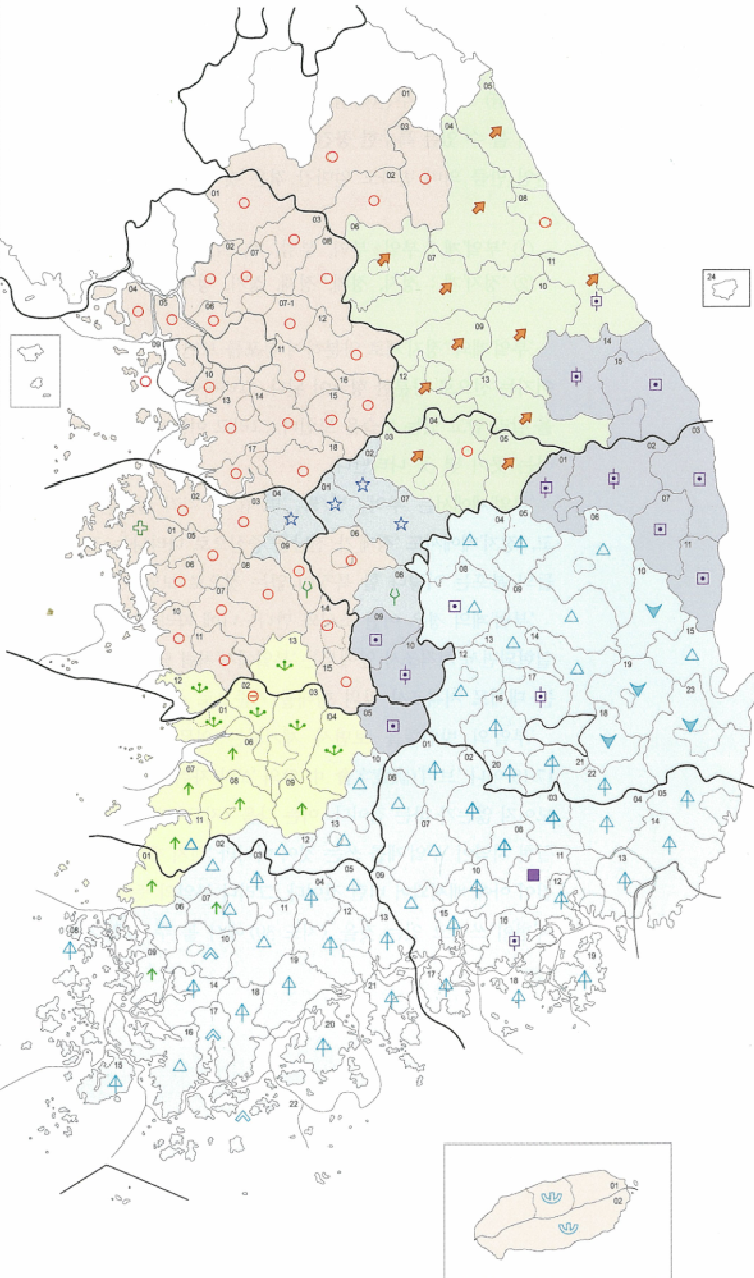
앞의 대표적인 두 형태 외에는 전남 서부에 분포된 ‘빼간/빼간’과 전북의 약 반을 차지하고 있는 ‘빼두리’가 군소 세력으로서 주목될 만하다. 그리고 제주도의 ‘설랍’도 비록 크게 별난 형태는 아니나 어느 다른 지역에서도 안 나타나는 형태인 만큼 주목할 만하다.

‘서랍’은 일부에서는 한자어 ‘舌畵’에서 왔다고 하는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그러한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문헌상으로는 ‘설합’(譯語類解, 漢淸文鑑)이 보인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든 ‘서랍’은 ‘설합’의 ‘ㅎ’이 약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빼간’은 ‘탈것’이나 ‘불일’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말일 것이며, ‘빼다지’는 ‘빼고 닫는 무엇’, 즉 ‘빼-닫-이’일 것이다.

아궁이 I-101

아궁이	○
아구리	⊖
부엌(뿔/뿔)	⊕
부엌(뿔/뿔)	⊖
부엌	■
부석(삭)	▲
부석(삭)	△
부삽(삽)	▲
부삽(삽)	△
부삽(삽)짜	▲
벽짜	▼
부(보/비)강지	⚡
고래구멍	♀
구락쟁이	+
코쿠락	☆
송갈알	☼



17. 아궁이

‘아궁이’의 방언형은 매우 많은 편인데 그 대표적인 방언형은 ‘아궁이’계와 ‘부엌’계로 양분된다.

‘아궁이’계는 거의 ‘아궁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이에 비해 ‘부엌’계는 사뭇 복잡한 모습을 띤다. ‘부엌’계는 일단 ‘부엌’계와 ‘부석’계로 재분된다. 중세국어형인 ‘브엌’의 ‘△’이 ‘스’로 실현되느냐의 여부에 의해 나뉘는 것이다. 이들 외에도 군소 계열의 것들이 더 있는데 이들 각 계열의 구체적 방언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① ‘아궁이’계: 아궁이, 아궁지, 아구리
- ② ‘부엌’계: ㉠ 부엌, 부엌, 뿔, 뿔, 뿔, 뿔, 버강지, 벽짜
 ㉡ 부석, 부삽, 부석, 부삽, 부삽, 부삽, 부삽, 부삽, 부삽, 부삽
- ③ ‘코쿠락’계: 코쿠락
- ④ 기타: 고래구멍, 구락쟁이, 송갈알

‘아궁이’계는 앞에서 말한 대로 그 형태도 ‘아궁이’ 하나로 통일된 모습인데 그 분포도 경기를 중심으로 하여 충남을 비롯한 주변 지역에 안정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② ㉡의 ‘부석’계는 경남북과 전남북에 걸쳐 있다. 이들의 변종들은 그 어느것도 압도적인 세력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경남북에 걸쳐 꽤 넓게 분포되어 있는 ‘부석’이 그나마 주도적 세력이라 할 만하고, ‘부석’도 산만하나마 여기저기 꽤 여러 곳에 나타난다. 그리고 ‘부삽’이 전남북의 서부에 꽤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② ㉠ ‘부엌’계는 대개 ‘아궁이’계 지역과 ‘부석’ 지역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부엌’계 중 ‘뿔’에 접미사 ‘-강지’가 결합되었을, 좀 특수한 종류인 ‘버강지’는 강원 일원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전북과 충남의 접경지대에 ‘벽짜’가 따로 한 영역을 형성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코쿠락’은 일부 지역에서 일종의 벽난로라 할 장치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쓰는 ‘코쿨’에 이어지는 형태로 의미변화를 거친 것이겠는데 충북의 <음성, 진천, 괴산>과 충남의 <천원>을 잇는 좁으나 물려 있는 지역에 일정한 영토를 구축하고 있음이 흥미를 끈다. 그리고 ‘고래구멍’이나 ‘구락쟁이’ 같은 특수한 어형도 충남, 충북에 각각 두 곳씩 나타나 ‘아궁이’에 관한 한 충청권이 별칭이 유독히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에 전혀 다른 계열의 ‘송갈알’이 쓰임도 주목할 만하다.

7. 팸플릿 및 포스터

1) 팸플릿



<앞면>



<뒷면>

8. 제주어 연극 ‘가쁜장아기’ 대본

등장인물 : 아방(강이영성이서불)
어멍(홍은소친구부인)
은장아기(큰딸)
늦장아기(셋딸)
가쁜장아기(죽은딸)
마통이1 큰성
마통이2 셋성
마통이3 죽은놈 (가쁜장의 남편)
거지들
부부거지(가쁜장의 어멍,아방)
동네아주망1
동네아주망2

제 1 장

(밝고 즐거운 음악이 흐르고 방안에 식사 후 은장아방 담배를 피워 물고 앉아 생각에 잠겨 있다. 은장어멍을 부른다.)

아방 : 은장어멍! 은장어멍! 어디이서.

어멍 : 양~ 이디 이수다.

아방 : 이 저끄뜨레 와봐게. ㄱ를말 이시메.

어멍 : 아 딱 저르진디 무신 소리 허젠 경 외울림수과.

아방 : 아이고~ 거 춤 말 하영 하게 허지말앙 혼저 이래왕 앓아봐 게.

어멍 : 와시메. ㄱ름써 보게.

아방 : 이번이 ㄱ슬농서 지션 돈 번거로 뒷 펜이 큰집도 사곡, ㄱ쉬도 몇마리 썩 더 사젠 햄신디, 이녁은 어멍 생각햄서.

어멍 : 아이고, 경협주게. 경허곡양 일허는 사름덜도 하영 들여놓게 마썸. 나도 이젠 늙엄신구라 원 흐꿈만 움직끄려도 하간디가 다쑤곡, 몸둥이가 버천 일을 못허쿠다게. 이제부터랑 서방 덕분에 펜안허게 흐꿈 살아사쿠다.

아방 : 경허여게, 이녁은 서방 잘 만난 호강허멍 살킨게.

어명 : 게메마썸양. 부재되난 좋수다만은 딸덜 셋을나곡 재물은 하영 벌언 좋수다만은
영 혈 때 식게라도 해줄 아덜 하나만 이서시민 오죽 좋쿠과마는...

아방 : 그런 소리 허덜덜덜 말아게. 우리 딸덜이 얼마나 착허곡 요망진줄 알안 골암서.
그만씩 헌 아덜 이시나 마나여. 딸덜이 요망지곡 어명 아방 위허는 믯음이 크난
되어서.

어명 : 게메마썸. 나가 늘그막이 복이 이신거 다행은 게 마썸

아방 : (곰방대를 피워 물고 잠시 생각하다) ㄱ만이서 보라보게. 이추룩 앓장만 이실게
아니라 먹은 오몽은 해 살 거 아니라, 딸덜 어디시니 불러봐.

어명 : 무사마십. 지네만씩 잘덜 노는 아이덜은 불렁 미시거엔 굴젠 험이우파?

아방 : 어허 ~존단이 그만허곡 들어볼 말 이시난 혼저 불러봐게.

어명 : 아이고~알아수다. 은장아기야. 이 구들드래 들어오라 아방이 초잠져.

은장아기 : 양 ~ 불릅디광 ? 이디 와수다.

아방 : 는 누게 덕에 잘 살암시니?

은장아기 : 들엉 미시거 허젠험이우파? 다 부모 덕에 잘 사는 거 아니우파?

아방 : 올커니 됐저. 또로 불러보라.

어명 : 늦장아기야. 느도 이래 들어 오라 보게

늦장아기 : 양. 무사 불럼수과

아방 : 험 험.. 게난 는 누게 덕분에 잘 살암시니?

늦장아기 : 것사 굴을 말이우과. 아바님, 어마님 덕분에 잘 살암수다.

아방 : 하나 남은 것도 오랜허라 보게.

어명 : 가쁜장아기야.

가쁜장아기 : (무대 하수쪽에서 쪼르르 달려 나오며) 예. 이디 벌써 오라수다.

아방 : 죽은년아는 누게 덕에 잘 살암시니?

가쁜장아기 : 나마썸. 하늘님, 지하님, 아바님, 어마님 덕도 있주마는 양! 나 배또롱 아래
선그릇 덕분에 잘 살암수다.

어명 : 아이고 야이 굴는거 보라. 이제 꼬장 입지곡, 맥이곡, 키와주당보난,

아방 : (버럭) 미.. 미시거라. 권탁산이 벗어지게 야게기 과썸세왕 이녁 배또롱 아래 선그릇
덕분으로 살암서. 이년, 아방신디 굴을 말이냐? 너 굴은 년은 우리 집이 들앙 살당
미신 일을 내웁직허다, 불효 막심헌 년 굴은이라고 니년은 필요 어시난 혼저 기어
나가라

어명 : 아이고, 은장아방, 춤읍써게. 야이가 두려부난 분시 몰랑 영허는 거 아니우과?

아방 : (씩씩 거리며) 츠마도가라 그게 아방신디 헐 말이나? 아멩 지 잘난 맛에 살주마
는 아방안티 헐 말 안 헐 말이 있는 거여, 지금 혼저 나눈 앞서서 꺼져볼라. 꿀
도 보구정 허지 안허난

어멍 : 가문장아기야. 잘못했젠 허라게. 야이 무사, 질그랭이 이시니?

가문장아기 :

아방 : (가문장아기 말이 없자) 아주 요망헌 년이로구나... 꿀보구 정도 안허난 혼저 기
어나라.

어멍 : 아이고 야야 ! 요 설운애기야! 느 무사 영 아방, 어멍 부애 데싸동 속슴해영 고
만 니 이시니~ 혼저 잘못해수텐 허라게!

가문장아기 : (가문장아기 말없이 뛰어 나간다.)

어멍 : 가문장아기야. 어디레 감시니. (쫓아 나가며) 이래오라. 가문장아기야, 가문장아
기야게,... (방안으로 들어오며) 은장아기야, 늦장아기야, 느네들은 무시거 햄시
니, 아시가 집을 나가신디. 뭇덜 햄시냐. 해 저물기 전이 혼저 나강 좇아덜 보라
게

은장 : (일어서 밖으로 나가며 늦장아기에게) 혼저 나강 좇아 보게.

늦장 : 알아수다. 걸음써보게.

아방 : 불효막심헌 년을 좇앙 무시거 허젠 햄시니, 드리쌍 내볼라.

어멍 : 아 두린아기가 철어성 허는 말인디.. 무사 경햄수과게.

아방 : 내부러. 딸흐나 어신생 허민 되여.

어멍 : 아이고 ... 그놈에 성질머리 허구는, 아 어멍 성질대로만 살젠 햄수과.

아방 : ...

(잠시 후 은장아기 늦장아기 들어온다.)

어멍 : 좇아시냐.

은장아기 : 어멍헌 일산디 동넙집이영, 서넙집이영 하간드래 아멩 좇아 봐도 노시 좇길
못허쿠다게.

늦장아기 : 옷가름드레 영 알가름드레 영 갈만헌 디 이디 저디 다 좇아댕겨 봐도 아
무디도 어십디다.

어멍 : (방바닥을 치며 통곡 한다.) 아이구 요 노릇을 어멍헐꺼파.. 하늘드레 솟아 시냐, 땅드레
꺼저시냐 요 노릇을 어멍헐꺼파.

은장아기 : 영 앙작만 허지 말앙 혼저 좇으레 나사사 헐거 아니우과?

늦장아기 : 맞수다게. ㄱ만이 앓았지만 말양 흐끔이라도 덜 어둑을 때 제기 제기 훑아 나사게마썸.

어멍 : (아방을 일으켜 세우며) 확 일어상 츠지레 나삽써게.

(어멍, 아방 후다닥 일어나 나가다 기둥에 부딪힌다. 비명소리)

어멍 : 아이고 기여. 아이고 기여. 눈앞이 왁왁해영 아무 것도 못뵈리키여 나 눈, 나 눈.

아방 : 아가기여. 아가기여. 이거 어땡헌 일이니. 아이고, 아이고, 나 눈, 나눈 무사 세상이 이추룩 왁꽁햐시니. 은장아, 늦장아.

은장아기 : (달려들며) 아바님 아이고 어땡헌 일이우파!

늦장아기 : (달려들며) 어마님 이거 무슨 날베락이우파!

제 2 장

(서서히 조명 밝아지면 집을 나온 가쁜장아기, 어두운 산속에서 헤맨다. 동물 울음, 천둥 번개 요란하게 친다. 가쁜장아기 기진맥진하여 하소연 조로)

가쁜장아기 : 하늘님아 지하님아 나 어땡 살랜 햐수과, 나 갈길을 곶아줍써! (슬픔에 겨워 흐느끼며 울다가, 일어서며, 결연하게) 곶아줍써. 하늘님아, 지하님아, 천지신명이여.

(천둥번개 멈추고 날이 밝아지면 마통이집, 3형제가 마당에서 일하고 있다.)

가쁜장아기 : (걸어 헤매다 지쳐서) 아이고기여, 배고푸곡 지천죽어지키여, (다시 길을 찾아 돌아다니다 집을 발견하고)아즈버님들, 염치 없주만은 물 혼 직만 얻어떡게마썸.

큰성 : 하영 지친 거 닳은 디 이래왕 흐끔 검불립써. 죽은놈아 느랑 강 물 혼 박세기만 곶영 오라

셋성 : 꼴성어린 상아리가 아땡 봐도 안 봐난 사름인디. 어디서 옹디가?

가쁜장아기 : 집도 절도 어시 이디저디 둥그러댕기당 보난 천지신명이 날 이디꼬장 꼬성 와신게마썸.

죽은놈 : (그릇을 내밀며) 물 이디수다. 물에 고끼민 약도 어땡해시난 쉬멍 쉬멍 고끼지 말양 드리쌈서양.

가쁜장아기 : (물끄러미 바라보다) 고맙수다양. (물박아지에 나뭇잎을 후후 불면서 마

신다.)

가문장아기 : (빙새기 웃으며) 잘먹어수다.

큰성 : 계민 이젠 어디래 가젠 햄수과.

가문장아기 : (조심스럽고 불쌍한 모습으로) 계메마썸, 세상천지에 어드레 가민 이 혼
몸 드러놀디 어시쿠과마는(한숨을 쉬며) 경해도 어땡 헤사할지 모르쿠
다.....

작은놈 : (반가움 들떠서, 짹짜게) 성님덜. 갈디 어시민 이디서라도 우리영 곶이 살랜허
민 안돼쿠과

셋성 : (시큰둥 해서) 남여가 유별헌디 건 안뿔 말이여

셋째 : (큰성에게) 성님~ 너미 불쌍허지 안허우과? 제발 큰성님~

큰성 : (둘째에게) 험 험 아시야. 작은놈이 저추룩 양작허는디 곶이 살랜 허게 .

둘째 : 상아리가 그자락 나빠 보이진 안햐시난 (마지못해 돌아앉으며) 계민 알앙덜 험
썸.

큰성 : 죽주만은 박끄레 빈 구들도 있곡 허난 이디서 우리영 슬 비비명 혼디 살아 보
게마썸

가문장 : (기쁨에 넘쳐) 아이고 고맙수다. 정말 고맙수다. 경허민 염치 없주 만은 이디
서 흐꼼만 곶이 이서 보쿠다.

큰성 : 거미신 말이과. 도외가명 살아사 허는게 사름 사는 드리 아니우과?

셋성 : 이왕 곶이 살기로 헌거 오누이 추룩 사이 좋게 살게마썸

작은놈 :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맞수다! 경살아사 험주게. 성님덜 정말 고맙수다. 이
제사 우리집도 사름 사는 집 닭암직 허쿠다양.

(열심히 사는 모습. 가문장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때 곡식을 타작하던 셋째 불
을 지펴준다.)

큰성 : 작은놈아! 미시거 토다 먹을 거 이성 가문장 조름에 졸졸 딱라 땡겘시니?

작은놈 : 아이고 성님도~ 거 미신 말이우과? 나가 경 야겘달이 추룩 보염수과?

(가문장 밥하는 동안 빨래를 걷는다. 셋째 같이 거들다가 쓰러지며 서로 껴안는다.)

가문장 : (마당 한쪽에 가문장과 셋째 두 손을 마주잡고 서 있다. 큰성과 셋성 밖에서
들어오다 깜짝 놀라 바라본다.) 아즈방덜마썸. 요펜드레 안집썸 보게, 험 말
이수다. 나 작은 아주방허곡 결혼해영 곶이 살쿠다.

셋성 : (놀라서) 미시거라. 미시거엔 폴암시니 또시 잘 도시려보라.

죽은놈 : 성님덜, 섭섭허게랑 생각허지 맙서. 성님덜안턴 안되었주마는 나 아멩해도 가
문장이영 결혼해영 살아사 허쿠다

큰성 : 그추룩 가문장 조름에 줄줄 딸아 땡점성계만은 별세 눈맞아 부렀구나계. 경허기
로 해 부러시민. 혈수 어시 곶이 살아사주 어땡혈거라~ 하하하

셋성 : 게민 돌리 나강 살라. 우린 느네영 곶이 살진 못헌다.

가문장 : 아이고 아즈버님덜. 영 혈 줄 알아수다. 허락해 주영 고맙수다. 우리랑 저 오
름 뒤편이 넘작지왓덜에 나강 살쿠다.

(무대 암전되고 장면이 바뀌고)

가문장 : (죽은놈에게) 우리 집도 갈랑 나오곡 해시난 열심히 일해영 큰 부재되게마썸

마통이 : 경해사주계. 부지런헌 공은 하늘도 막지 못헌덴 해시난 부지런히 일해영 큰집
도 짓곡, 애기덜도 하영 낭 잘키우곡 허젠 허민 부재되사주.

(열심히 일을 한다. 밭 갈고 보리타작 마를 판다.)

가문장 : (괘이질을 하다 무언가에 걸린다.) 양! 혼저 이래와 봄써, 미시거 산디 큰 거
걸런 안 일어 남수다. 이래 왕 곶이 파 봄써.

마통이 : 아이 거 기신내영 확 잡아댕겨 봐계, 간새허지 말앙.

가문장 : 간새 아니우다계. 미시거 큰 거 걸려수다. 혼저 왕 봄써.

마통이: 아이고 구신은 미시거 먹영 살암신고~ 저래 곧사라보계 나가 파보크메(힘을
합해 파낸다).

마통이 : 아이고. 이거 무시거니. (금덩이 나온다.)

가문장 : 아이고, 이게 무시거니, 이거 금이여계, 금덩어린계.

마통이 : 은덩어리도 있져. 이거 무신 복이니. 하늘님, 지하님, 조상님, 아이고 고맙수
다.

가문장 : 이거 문딱 나 배또롱 아래 선그릇 덕분인거 알암수계? 게나제나 우리 이젠
부재되수다.

마통이 : (기쁨에 넘쳐 소리치며) 기여계 다 느 배또롱 아래 선그릇 덕분이여계. 와~ 우리
이제 큰 부재 되어썸. 느 배또롱 아래 선그릇 만세! 가문장 만세!

가문장 : 우리 서방님 만세! (서로 손을 마주잡으며) 입지도 먹지도 안허명 즘냥허곡
허리도 동그랭이 줄라묵영 부런히 쉬지도 안 허명 일허당 보난 하늘이 도외

연 영헌 일도 이신거우다.

마통이 : 기여계, 우린 하늘이 도외연 큰 부재 되시난, 우리랑 어신 사름덜 도외가명,
착허게 살게.

가문장 : 경해삼주게. 경해사곡 말곡.

제 3 장

(마을 앞 아주망들이 수다를 떨고 있다. 성한 거지가 장님거지 부부를 인도하여 들어온
다.)

거지 : 밥 흐썰만 줍써. 배고팡 죽어질 거 담수다. 밥 흐썰만 줍써.

아주망1 : 맺 년 동안 송년 들언 먹을 것이 어서부난 밥 얻어먹으래 땡기는 사름덜이
하영 늘어 남신게.

아주망2 : 게메메메, 큰일이우다.

아주망1 : 요래 왕 앓앙 흐끔만 기달림심서.

(밥과 물을 갖다 준다. 거지들 맛있게 먹는다.)

거지부부 : 아이고, 고맙수다. 잘 먹쿠다.

아주망1 : 소문 들어서?

아주망2 : 미신 소문 말이 우짜?

아주망1 : 산속오베 마통이 믱을에 가문장이엔 허는 사름이 좃아 들어신디이.. 그집이
죽은놈허곡 눈맞안 결혼해연 큰 부재 되었젠 해라.

아주망2 : 아이고~ 경헌 일도 이서 나수과?

아주망1 : 말도 말라. 그 가문장네 아방이 딸덜을 불러다 노앙는 누게 덕으로 살아점시
니 들어보난 가문장이 이녁 배또롱 아래 선그릇 덕분으로 살암젠 해었던 불
효재랜 해연 쪼겨나신디, 경 요망지곡 부지런허곡, 착허난 하늘님이 큰 부재
로 맨들어주엇젠 햄시네.

아주망2 : 아이고 거 무신 복력이라게. 우리 닳은 것덜안틴 그런 복력 어실 거라양 ?

아주망1 : 허곡 말곡 ! 큰 부재되난 동네방네 어신집이 쫄이영 옷꺾슴이영 갈라 주곡
햄젠 칭송이 자자 햄시네게.

아주망2 : 막 좋은 일 하영 허명 살암 구나게. 게나 제나 그 가문장네 어떻 아방은 그
루 후제 어떻 살암신고양?

아주망1 : 어떻 사름신지 그걸 누게가 알아지크니게.

(얘기를 듣던 거지 부부 부둥켜안고 운다. 아주망들 의아해한다.)

(가문장 집에 거지가 동냥하러 찾아온다.)

거지 : 이수광, 이수광, 밥 흐끔 줘써. 이디 굶어 죽어가는 동냥바치 와수다. 밥 흐끔
줍써.

가문장 : 이펜드레 들어 왕 요래 안집써.

(거지 앉아서 집안을 둘러보고 있고 가문장 밥과 먹을 것을 들고 나와 주며 조심스레
말을 건넨다.)

가문장 : 어느 펜이서 오는 중이우파?

거지 : 천지스방 안돌아댕긴디 어시 다 돌아댕기당 .(은 쪽을 가리키며) 저~디. 저~펜이
서 왓수다

가문장 : 저 혹시 산 넘어 뒷뱅디 강이영성 댁은 어떻 살암신지 알아지쿠과

거지 : 아, 강이영성댁 그디마썸...

가문장 : 아 알아지쿠과

거지 : 잘 알주마썸.. 그디 죽은년이 집나가 부난 좃이래 나사당 지동에 임댕이 박안 두
부채가 장님이 되곡 폭삭 망해연 동녕바치 되연 우리추룩 빌어먹으래 댕겍수께.

가문장 : (울먹이며) 아이고. 이 노릇을 어떻허리... 아이고 아바님! 어마님!... 경헌중도
모르곡... 이제까지 나만 잘 먹고 펜허게 살았구나...

(통곡을 한다. 울음소리를 듣고 남편 나온다)

마통이 : 미시거가 그추룩 칭혼허곡 을큰헌 일이랑 그 자락 양작햐서?

가문장 : 아바지 어마니가 동녕질허멍 살암젠 허는 소리 들으난 므슴이 펜안허질 안해
영마썸. 아이고 이 노릇을 어떻허민 즐건고.

마통이 : 울지 말앙 이서 보라. 좃아보민 미신 수가 이실 거여.

(잠시 생각하다)

마통이 : 울커니. 세이레 스므흐루 동안 큰 잔치 열앙, 삼스방에 소문내영 이래 좃아
들게 허민 어떻 허크니?

가문장 : 아이고 조은 생각이우다. 고맙수다. 우리 서방님.

거지 : ~아이고 잘 되어수다 나도 잘 얻어 떡곡 해시난 이디 저디 돌아댕기멍 이집이
아방 어떻도 좃아보곡 이집이서 세이레 스므흐루 동안 큰 잔치 열암젠 소문내
멍 댕키쿠다양.

제 4 장

(거지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있다. 거지들 한 명, 두 명 잔치상 앞에 앉아 잔치판을 벌이고 있다. 가문장 자꾸 먼 산쪽을 초조하게 바라본다. 거지 부부 들어오는 것을 본 가문장 뛰어나가며)

가문장 : 아이고.. 아바님, 아이고 어마님~.

거지어멍 : 누게우과?

거지아방 : 누젠디 누젠디 경 칭혼허게 울멍 우리안티 아바님 어마님 햄수과?

가문장 : 나우다. 죽은년 가문장아기마썸.

(놀라 껴안으며)

거지어멍 : 미시거 느가 가문장이라. 아이고 나 딸 죽지 안허영 이추룩 살앙 이서시냐?
아이고 ~ 설운애기야~

거지아방 : 아이고~ 우리 죽은년... 어디 보게.

가문장 : 이디수다. 잘 봄써

(감정에 북바쳐 울며 가문장을 쓰다듬다가 거지 부부 눈을 부르르 뜨며, 놀라)

거지아방 : 아이고 우리 죽은년이로구나. 이게 꿈이냐 생시냐, 느 내좃아동 얼마나 좃아맹긴줄 알암시냐. 아이고 나 딸년아 나 딸년아 나 느 볼 늦이 었다.

가문장 : 아니우다게. 아바님 어마님 거 미신 말씀이우과. 집 나온 나가 잘못이우다. 이래 드러 왕 앓읍서, (자리하고 앉으며 마통이에게) 서방님! 아바님 어마님이 우다.

마통이 : 이 어른덜이 지녁이 경애 좃아가멍 좃인 부모님덜 이구나게(가문장아기와 함께 큰절을 한다.) 나 사우 마통이우다. 이제사 인사드림 수다 고생덜 하영 해수다, (술을 따르며) 제 술 혼 잔 받읍써.

거지아방 : 아이고 고맙다. 우리 사우! 느도 혼 잔 허라.

가문장 : (어머니에게 맛있는 음식을 권하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경헌디. 은장아기, 늦장아기 우리 성님덜은 어떻 살암수과?

거지어멍 : (갑자기 설움에 북바쳐서 울면서) 아이고 말도 말라. 나가 전생에 미신 죽을 죄를 경하영 저신고라. 큰년은 산 넘당 산 알덜에 털어정 죽곡, 셋년은 냇창 넘당 물에 빠정 죽어불었져. 아이고 내 팔자야~~흑흑... 불쌍헌 년덜,

아방, 어멍 잘못 만남....

가문장 : 어마님 울지 맙서. 불쌍한 우리 성님덜... (끌어안고 한바탕 운다.) 게나제나 아바님, 어마님. 나 양 이제부터랑 아바님, 어마님 모시크메 우리 곁이 오래오래 살게마썸.

마통이 : 경허게마썸. 혼디 모다들엉 살아사 협주게~

거지아방 : 아이고 야야. 나 당최 느베리기가 구체스러왕 늦으지 못허키여.

가문장 : 아이고 아바님도 즈식 앞이 앓어노양 구체스럽텐 허는게 말이 되수과? 이추룩 곱닥허게 낱아 주곡 키와 주어시민 맙주게.

거지어멍 : 가문장아. 느 신디 집 나가랜 내쫓아져마는 경해여도 느랑 느 걱정 허멍 살 앓져. 경해신디 이추룩 잘 사는 거 보난 소뭇 지꺼징 죽어지키여.

거지아방 : 가문장아 이제사 잘 튼내영 보난 아멩해도 느 말이 맞는 쟁이여. 느 내조차 부난 어멍 아방은 또로 거지되영 빌어 먹으래 땡기곡, 는 느 말따나 베또 룡아래 선그뭇덕으로 큰부제되곡.

가문장 : 아이고 아니우다게. 아바님 어마님 덕이 얼마나큰지 이제사 알아 지쿠다게. 하영 늦어수다마는 어마님 아바님신디 효도허멍 살쿠다.

거지아방 : 아이고 착헌 우리 딸년. 가문장어멍~ 우리 딸년 덕분에 죽을 때까지 호강허멍 살아지큰게.

거지어멍 : (즐거움에 들떠서) 맞수다게. 가문장이영 사우 덕분에 늘그막에 호강허멍 살게 돼쿠다게.

가문장 : 오늘곁이 지꺼진 날, 문딱 덜 모다들엉 춤도 추곡 노래도 불르곡 혼판 신명나게 놀아보게 마썸!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잔치판을 벌인다.)

9. 강릉 명주가 대본

구 성	등 장 인 물
#1 : 연못	무월랑 : 원래 태어난 곳은 명주고 사는 곳은 서라벌로 명주로 유학온 사람
#2 : 만남 연화와 무월랑의 만남	연 화 : 맘씨착하고 고운 처녀 삼 월 : 연화의 몸종으로 주책스럽고 수다스러운 여자아이
#3 : 갈등 연화의 그리움과 부모와의 갈등	연화아버지 : 명주귀족 연화어머니 : 자애로운 성품을 가진 어머니 무월랑어머니 : 나이가 많아 몸이 쇠약함 동 이 : 책임감 강하고 정의로운 물고기
#4 : 재회 연화와 무월랑의 극적인 재회	달 이 : 조금은 부족하지만 정이 많고 착한물고기 별 이 : 똑똑하지만 너무 잘난 체를 많이 하는 물고기로 항상 자신의 지식을 뽐낸다.
#5 :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승화	

#1: 연못

음악으로 시작을 알림

동이= 아침이 얼~픈 와야 하는데

달이= 왜~ 널 뵈 좋은 일이 있나?

별이= 이러이 진생 봐라 아침이 와야 이쁜 연화 아가씨르 보지

달이= 맞다야 그렇지

별이= 니는 맨날 내가 알코줘야 아나

달이= 헤헤 미안해 남 남 남

별이= 야야라 니 지금 뭘~ 생각으 하고 있나 혹시 연화 아가씨가 맨날 자주 오는 먹을 거를 생각하는 기 아이나

달이= 어머 야라 그거르 우터 알았재 니가 컷구녕이 참 밝다야

별이= 야 니 뭘 소리를 하나 내 컷구녕이 밝은 기 아니라 니 목소리가 본새 큰 기야

동이= 야들아 니들은 우터 만나기만 하문 그러 툃탁거리미 썸박질이나 인제 그만하고
고만 자자 아~~함 하품이 지절로 나온다야

별이= 내가~~ 자 때문에 맨~날 속이 뒤집어진다니까

달이= 내가 뭐르 우쨌따고 그래나

동이= 야야야 고만 하라니까 얼픈 자야 아침이 온다고 내가 말으 하잖아

별이= 알았싸 내가 참는다 참아 히히히 그나저나 온지낙 꿈속에 우리 연화 아가씨나
만나보까 호호호

달이= 호호호 난두 난두

별이= 야 니느 뭐 그만 거까지 따라하고 그래나, 그리고 니는 저짜로 가서 자~니 잠버
릇이 하도 고약시루워서 내가 맨날 잠패롱으 하자나

달이= 호호호 알았싸

음악 (아침이 오는 소리)

동이=야들아 마커 잘 잤나 연화 아가씨 오기 전에 얼픈 소지르하고 채레야지

달이= 오늘은 내가 아까참에 일어나서 다 했싸

별이= 어이구야 느레 터진 니가 뭘 일이나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나 아침마더 잠이 늘
어지더니

동이= 왜 또 그래나 일찍부텀 수고한 아한테

달이= 그래 동이 말이 맞아

별이= 알았싸 뭐 우쨌든 고생했고 어테보자 깨끗하게 했나 본래~~ 이 청소라는 기 말
이야 구석 구석 짝 달라붙은 문데비도 털고 바닥도 깨끗이 밀고 그리고 젤루 중
요한 거는 우리덜이 살고 있는 연못 속 물은 잘~~ 관리를 해야 한단 말이지 그
기 왜 그렇나~~ 하문

물은 수소 2원자와 산소 1원자의 결합물로써 지구 면적의 삼분의 2는 해수, 삼
분의 일은 육수로 구분이 되고 생물체 중량의 70%를 차지하는데 우편 경우는
95% 정도를 차지하는 아~주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이야 헉헉헉 그러니까네 소
지를 깨~끗이 해야 하는 거라고

동이= 야~가 또 시작으 한다야

별이= 물이 디리워져 봐라 대번에 삭신이 쭈시고 잔맹이가 꾸부러지미 지느러미(날개
쭈지)가 간질간질해지는 기 사는 기 아주 고상스러워 진다니 우쨌니 저쨌니 해

두 이곳 명주 땅서 유일하게 서라벌 유학갔다 온 내가 있으니 그나마 우리 연못
이 그럭저럭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르 모르나

동이= 그래 내가 그거르 우터 모르겠나 단지 꼴머리가 좀 아파서 그렇지

달이= 별이 자가 도대차 뭘 소리를 하는 기나 입으 열고 말으 하니 말이지 뭘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음싸

별이= 달이야 니는~~ 백날 들어도 모를꺼야 그러니 그냥 그렇커니 하고 들어뒤

달이= 아참(놀라면서) 야들아 나를 좀 봐봐 오늘 내 꼬리가 좀 똥뺨나지 않나

동이= 그래 내 아깨부터 봤는데 달부 어엽다야. 그런데 나도 심으 좀 줘는데 우편나

달이= 호호호 니는 본새 쫘 멋있게 생겼짜나

동이= 그렇나 고맙다야

별이= 아이구 둘이서 아주 발광으 하네, 야 그딴 데다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식으
쌓아야지 지식으

동이, 달이= 야~~ 귀때구와

음악(간주) - 하수에서 연화 등장

연화- 동이야, 별이야, 달이야 아침밥 먹자

달이- 어 연화 아가씨다야 얼른 나가자

동이- 그래 가보자 어제 보고 오늘 또 보는데도 우터이러 방긱나야

별이- 이히 내가 먼저 가이지

달이- 내가 먼저 봤잖아

별이- 그딴 게 어디 있나 쟁싸게 나서는 기 임자지

동이- 고만들 하고 쫘 줄라래비르 서라야

별, 달이 - 응 그래 알았싸

연화- 동이야 달이야 별이야 얼른 나와봐

음악- 음악에 따라 물고기들이 하나씩 연화 앞에 다가갔다 뒤로 가고를 반복

상수에서 무월랑 등장, 무월랑이 말하면 음악 그친다.

무월- (독백) 오늘도 그 여인을 볼 수 있을까? 어디 어디 아아~~ 저기 있구나 도대체
저 여인은 누구길래 매일 아침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지? 아무리 봐도 마
음이 끌리는 여인이야. 저 여인과 말이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아하 그렇
지 나뭇잎에 내 마음을 적어 바람에 띄워 봐야겠다

음악- (바람 소리)벽에 붙은 나뭇잎을 떼어 물에 띄운다. 연화 손에 나뭇잎이 오면 잔
잔한 음악 계속 연화 편지 읽기 시작하면 무월랑 퇴장

벽에 붙은 나뭇잎을 떼어 바람에 띄운다. 연화 손에 나뭇잎이 오면 잔잔한 음악
계속 연화 편지 읽기 시작하면 무월랑 퇴장

연화- (나뭇잎을 들고 읽는다) 이기 뭐이재

(편지내용: 며칠 전부터 향기 진동하여 그 향 따라 당도하니 여기에 이르렀오 고개 들
어 다시 보니 고운 자태는 내 마음까지 흔들여 뛰는 가슴 주체할 길이 보이질
않는구료 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건데 인연 중에 제일이 사람의 인연이라 그
대와 씩녕쿨 엉키듯 깊은 인연 맺어 그대가 꽃이 되면 나는 나비가 되고 그대가
계집녀자되면 나는 아들자자 되어 좋을 호자를 만들고 싶소. 내일 오시 뒷동산
언덕에서 그대 올 때까지 비가 오면 들판에 널린 풀을 삼아 우비를 만들고, 눈
이 오면 그 눈에 덮여 설인이 될 것이고, 바람이 불면 땅에 박힌 소나무가 될
것이오)

무월랑 상수 퇴장

연화- 어머야라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내거 올 때까지 정 지들린다고 하재? 일으 우타
아문 좋나야 만나서 살살 달개서 들여보내야겠다야

음악(꽃노래)-연화 서서히 하수 퇴장한다.

삼월- 아가씨요 아가씨요 어데 계시우야 아이구 또 저쪽으로 가시네 아이구 다리야 아
이구 고뱅이야 우리 아가씨 때때 내가 아주 못살겟싸 맨날 천날 아가씨 뒷꽁뎡
이만 쫓아댕기느라고 여적지 시집도 못가고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아가씨도 참
이상도 하재 뉘놈의 물괴기한테 이름으 재주지를 앓나 조석으로 밥으 맥주지르
않아 참내~~ 이놈들아 동인지 별인지 니들 팔자가 내 팔자보다 석자나 낡다 아
가씨가 주는 밥이나 떡떡 받아먹고 뭐이 그런다고 저 옹뎡이서 금뎡이가 나오나
쌀이 나오나 운제나 철이 들라는지 원 내 속으 버선목 뒤집듯이 흘랑 뒤집어 보
며는 아메도 굴뚝 속맨치 새까매졌을끼야 아참 내가 이려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아가씨요 같이 가요 야

삼월이 하수로 퇴장. 물고기들 대화

별이- 아이구 저 삼월인지 사월인지는 맨날 뭐이라고 궁시렁거리는지 씨끄러버서 당췌
살 수가 음싸 그런데 왜 맨날 우리덜한테더거 성화르 대나 그재?

달이- 맞아 난도 연화 아가씨만 오면 좋겟싸

별이- 니하고 내하고 요때는 맘이 딱~ 들어 맞는다니까

동이- 그런데 아까참에 그 공자님 진짜루 잘생겼드라야 며칠째 드나드는데 도대체 누구나?

별이- 그딴 거는 내한테더거 물어보면 알코주지

달이- 별이 니는 모르는 기 음따야

별이- 성은 김이고 이름은 무월랑인데 저 멀리 서라벌에서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여기 명주로 공부르 할라구 왔잔나 어렸을 때부텀 울매나 똑똑하던지 신동이라고 소문이 자자했대 이제 장성으 해서 입신양명에 꿈으 안고 공부를 할라고 왔다잔나

달/동 - 우와 대단하다야

별이- 히히 내가 뭐이 모르는 기 있나 그까짓 것 알구하믄 금방이지 뭐 하하

동이- 아니 니 말고 저 공자님 말이야 생긴 것도 잘생긴 기 똑똑하기까지 하나

별이- 뭐이라고

동이- 서라벌에서 왔단 말이지 야~~(감탄사) 보면 볼수록 잘 됐다야 그런데 연화 아가씨 맘에도 들라나 모르겠다

별이- 서라벌이 뭐이 똥별나다고 그래나

동이- 별이야 씨꾸롭다... 우쨌든 둘이 참 잘 어울리는데 잘 되면 좋겠다야

#2: 만남

음악(꽃노래)이 흐른다. 잉어 퇴장

배경전환 - 들판

상수에서 무월랑 먼저 등장

이어서 하수에서 연화 등장

무월- 나오셨구료... 혹시 안 나오면 어쩔까 걱정했오

연화- 펜지를 보고 마냥 지달리 것 같아서 나왔잖소

무월- 고맙소 내가 태어난 곳은 여기지만 지금은 아버님이 관직에 계서 저 멀리 서라벌에 살고 있소 얼마 전 이곳 명주로 공부하러 왔는데 그대 모습을 처음 본 후 가슴이 설레고 두근두근 뛰는 것이 도대체 책을 읽어도 들어오질 않고 글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통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 어젠 용기를 내어 그대에게 무

례를 범했소이다 나를 용서하시오

연화- 그러셨어요

무월- 나의 성은 김가이고 이름은 무월이라 하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요

연화- 이 이름은 ~~~~

삼월- 아가씨요 아가씨요 어데 지서요

연화- 어머니야 자가 여까정 쪼체왔네

무월- 저 아인 누구니까

연화- 삼월이라는 안데 제 몸중이래요

삼월- 헉헉헉 아이고 숨차라 아가씨요 혼자 땡기지 말라고 지가 몇 번으 말으 했싸요
제 속이 시커멓게 탄다니까요

연화- 삼월아 앞에 손님도 계신데 그만해

삼월- 어이 손님이요 혁(놀람) 어머니야라 공자님은 뉘댁 자재분이시래요

무월- 음~~ 난 말이다 삼월아 너의 아가씨한테 그만 마음을 뺏앗긴 사람이라고나 할까
허허허

삼월- 공자님 지금 농으하시는 기래요 우리 아가씨로 말씀드릴 것 같으므는 명주에서
그래도 내노라하는 박씨댁 무남독녀로 맘씨 착한 건 둘째가라면 서럽고 생기기
는 또 울매나 이뿌우 그리고 부모님께 효심 지극하시지 뭐이 어데 모자라는 데
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업는 아가씨잖소 그런 아가씨를 어데를 넘봐요

연화- 삼월아~~

삼월- 아 왜 그래요 내가 뭐 틀린 말으 한 것도 아닌데

무월- 그래 너희 아가씨가 그렇게 대단하더냐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느냐

삼월- 그기요 그림은 또 울매나 잘 그리는지 한번은 꽃으 그래서는 뜨럭에더거 떡 내
났는데 그 그림으 보고 온 동네 나비들이니 벌들이 날라와서는 거 한번 앓어불
라고 난리가 났잖소 사람들이 그거르 보고 칭찬이 말도 못잖했소 그란데 딱~ 한
가지 제 맘에 안드는 기 있싸요

연화- 삼월아 그만해

삼월- 아가씨는 가마이 있어 봐요

무월- 어허 삼월이가 맘에 안드는 것이라 그게 무엇이냐

삼월- 있잖소 우리 아가씨가 아침마더 동인지 별인지 그 물괴기들한테 밥으 주거든요
지는 그기 참 맘에 안들잖소

무월- 아니 왜

삼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허구헌 날 가들 챙기느라고 고삐 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저래 혼자서 땡기니 내가 도무지 걱정이 돼서 살수가 있어야지요

무월- 음~~그래 네 마음이 안좋겠구나

삼월- 어머야 공자님은 우터 그래 제 맘으 잘 이해해 주시우

무월- 네 말을 듣고 보니 너의 고충이 참으로 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삼월- 아~ 그래믄 우리 아가씨한테 제 맘으 좀 심도(아러 듣게) 있게 말으 해 주믄 안 되겠소 내 말은 당채 못 알아들어요

무월- 그래 그리해 주마 그런데 말이다 내가 삼월이한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삼월- 지한테 뭐이가 궁금해요

무월- 네 말하는 중에 당채, 우터, 그닷하우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명주말은 참으로 어렵구나

삼월- 아하하 그런 거라믄 지가 딱이래요. 잘 들어 봐요 뭘 일이 생계서 당채 그닷하우 할 때 당채라 하고 뭐 우터 그닷하우 할 때 우터라는 말으 쓰고 공자님이 우리 아가씨를 넘볼 때 뭐이 그닷하우 이럴 때 그닷하우 이런 말으 쓰잖소 잘 알아들었지요 내가요 그런 설명 하나는 참 한다는 말으 들어요 우리 아가씨만 못 알아듣지

연화- 어머야라 야가 오늘 왜 이러나야

무월- 아~~하하하 그래 설명을 절적하게 참 잘 하는구나

삼월 - 아이구 그래도 글 공부를 많이 한 공자님이라 다르긴 다르다야 금새 알아들으시네

무월- 그래 내 너의 적절한 설명도 잘 들었고 그 감사의 뜻도 하나 더 생겼으니 네 마음을 아가씨께 잘 설명해 드리마

삼월- 아무리 생각으 해도 공자님하고 지하고는 뭐이가 좀 통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어젯밤 꿈이 참~좋았는데 아매도 공자님 만날라고 그런나 봐요 호호호

무월- 그런데 말이다 너희 아가씨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하려면 좀 조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삼월- 아문요 그래야지요

무월- 그러니 너는 저 멀찍이 떨어져 있거라 그러면 삼월이 네 속이 풀리도록 내 한번 노력 해 보마

삼월- 어머야라 고마와요 이 은혜는 지가 낭중에 꼭 갚으께요

무월- 아니다 은혜는 무슨 그럼 어서 가서 네 볼일 보거라 내 너희 아가씨에게 너의

마음을 잘 설명하고 무사히 돌려보내드릴 테니 걱정 말거라

삼월- 야 알았싸요..... 아가씨요

연화- 응

삼월- 지금부터 공자님 말씀으 한 개도 놓치지 말고 똑떼기 들으셔야 해요 지는 저쪽에 가서 지달리고 있으께요

연화- 어 알았싸

삼월- 그런데 참 알긔하다야 내가 뒷에 흘린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뒷가 영~ 찻찻하네

연화- 삼월아 니 왜 그래나

삼월- 아니 아니 아니래요 지는 가께요

무월- 삼월야 나중에 또 보자꾸나

삼월- 야~ 공자님

음악(꽃노래) - 간주 삼월 퇴장하고 무월이 말하면 음악 마친다.

무월- 허허허 아주 착한 아이를 옆에 두셨구려

연화- 자가 착하기는 한데 가끔 저레 체신머리 없이 주책으 좀 떨어요

무월- 삼월에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내 마음이 더 그대에게 끌리는구료 그런데 아직 그대 이름을~

연화- 성은 박가고 연꽃 연자에 꽃 화자를 써서 연화라고 해요

무월- 연꽃이라 아하 내가 맡은 향기가 아마도 연꽃향이었나보구료 허허허

연화- 어머야 몰라요

무월- 내 오늘에서야 평생의 정인을 만난 것 같소이다

연화- 우터 그런 말으~

무월- 내 오늘 그대와 나눈 정을 천일홍에 담아 그것으로 베개를 만들어 곁에 두고 창해같이 깊은 사랑 나누고 싶소

연화- 남새스러워요

무월- 연화낭자 가까이 오시오 이제 그 손을 좀 잡아봅시다

연화- 몰라요

사랑가(노래로)

음악 - 장구 반주로 시작

사 사랑을 할려면 요~요렇게 한단다.

우리 사랑 변치 말자 굳게굳게 맺은 사랑

어화 등당기 내 사랑

등당가 등당가 등기 등당기 내 사랑

음악 - 굿거리 (1장단)

꽃과 나비 너울너울 춤을 추고

우리네 사 사랑은 아이가이가 두둥실 좋을씨고

음악 - 굿거리(1장단)

무월- 찰나와 같이 지나가는 시간이 참으로 야속하구료 남자는 이 시간을 잡아둘 방법을 알고 있소

연화- 호호호 지가 그거를 우터 알겠싸요 그런데 걱정이 하나 생겼잖소

무월- 아니 걱정이라니 무슨

연화- 사람 맘이 참 알똥시럽네요 춤에 펜지를 받을 적에는 공자님의 살살 달개서 보낼라고 했는데 직접 대면으 하고 보니 지도 맘이 끌리잖소 허나 공자님께서서는 전다지 공부에 힘으 쏟아야 하는 처진데 이러 행복해만 하든 우터해요

무월- 내 마음 같아선 오늘 당장 그대와 혼인이라도 하고 싶소

연화- 지 맘도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이 땅에 사나로 태어나 입신양명의 뜻이 있는 법인데 지하고 약조 하나를 해 주실라우

무월- 무슨 약조요 어서 말해 보시오

연화- 뜻으 이루신 후 부모님께 승낙으 받아서는 공자님의 아내가 되겠으니 지금부터는 글공부에만 신경으 바짝 쓰며는 좋겠어요

무월- 음~~ 알겠소 내 그대 말을 따르겠소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내 쪽 다시 돌아 올테니 반드시 나를 기다려 주시오

연화- 당췌 제 걱정일랑은 말구요 공자님께서서는 지하고 약조를 잊지 말아요

#3: 갈등(연화 집)

음악

(암전)-무월과 연화 상수로 퇴장

배경 전환(연화집)

연화 부모 하수에서 등장

엄마- 대감 최대감택에는 잘 땡계오셋소

아비- 허허허 최대감도 우리 연화를 아주 맘에 들어하데야 인제는 그택과도 얘기를 마
쳇으니 얼른 연화를 불러 봐요

엄마- 삼월아

삼월- 예 마님(상수에서 몸만 살짝 보이게)

엄마- 아가씨를 모시고 오너라

삼월- 예 마님(삼월 상수에서 몸만 보이고 대답 후 연화와 삼월 함께 들어온다)

엄마- 그런데 요즘 연화가 통 힘도 엄꼬 말수도 줄어들은 기 좀 이상해요

아비- 연화도 혼인으 한다고 하르는 좀 덜 하겠지뭐

엄마- 그러면 울매나 좋겠소

연화- 아버님 어머님 불르셨세요

엄마- 그래 연화야 오늘 아버님께서 네 혼처를 정하고 오셨잔나

연화- 야 제 혼처를요

아비- 저 아랫모텡이 최대감택 자젠데 오늘 신랑짜리 생긴 모양새르 자세히 보니 연화
니하고 아주 잘 어울리겠드라 담달 열이레날이다

엄마- 연화야 니 나이도 나이지만 요즘 통 심이 음써보여서 좀 서들렀잖나

연화- 하지만 아버님요 지는 안직까정 시집갈 생각이 음써요

아비- 야가 지금 뭘 소리르 하나 말만한 딸으 혼인도 안 시키고 그냥 놔둔다면 아매도
이 애비를 손가락질할 텐데

엄마- 그래 아버님 말씀 맞아 인제부텀은 니도 맘에 준비를 하고 있거라이

음악(야월삼경)-엄마 아버지 하수 퇴장

삼월- 아이구 그 공간지 땡잔지 하는 양반은 우리 아가씨 혼자 내버레 두고 도대체 운
제 올라고 그래나야

연화- 삼월아 우타믄 좋나

삼월- 저기 아버님께 맘으 준 공자님이 있다고 말씀으 드레보믄 우떨까요

연화- 안되 뭇 소리르 들을라고 그리고 공자님이 우터 댘는지도 모르는데

삼월- 아이구 답답해라 아주 그냥 입이 근지러와 살 수가 음네

연화- 삼월아

삼월- 알아다구요 말 안해요 아가씨가 맨날 한숨만 폭~폭~세고 씨무룩해 있으니 나도
기운이 한 개도 업는 기 뭇 사는 기 재미가 음사요

연화- 서라벌에 계신 공자님께 내 소식으 전할 수만 있다만 올때나 좋겠나 뭇 구구를
내 봐야겠는데

음악(야월삼경)- 연화 하수로 퇴장

삼월- 아이구 우리 아가씨 우타믄 좋나야 아주 애가 말라서 살 수가 음네 내가 한달음
에 서라벌로 달래가서 소식으 전하면 좋겠지만 길이 멀어 갈 수도 음꼬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답답해

배경 전화 (연못)

물고기 하수 등장

연화 삼월 상수로 등장

연화- 동이야 달이야 별이야 내 맘으 좀 들어봐라 서라벌에선 여적지 소식이 업는데
아버님께서는 최대감택과 혼인을 하라는구나 이런 급한 사정의 내 보해더거 적
었으니 누구든 이거를 물고 저 멀리 무월랑 계신 곳으로 가주면 안되겠나 무월
랑과의 인연이 참 인연이라면 내 맘이 전해질 꺼고 만약 전해지지 않는다 해도
니들을 원망하지는 않을란다

삼월- 아가씨요 뭇 말도 몬알아듣는 아들한테 펜지를 부탁한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우
리 아가씨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기야 우터하믄 좋나야

달이- 흑흑흑 아가씨가 불쌍해

동이- 내가 아가씨 소원으 들어 줘야 겿싸

별이- 야 거가 올때나 멀다구 그러나 거르 갈라믄 육로는 열흘 밤낮으 가야 하고 바닷
길로는 물살이 어지러워 길 잃기 엄청 쉬와 사실 내가 서라벌서 유학 못 했사
가더거 당취 힘이 들어 갈 수가 있나 그래서 되루 돌아왔잔나 그리고 그 넓은

서라벌서 우터 공자님으 찾나

달이- 어머야라 그럼 니 맨날 서라벌서 공부르 하고 왔다는 말이 다 거짓부렁이나 야
우터 여적지 우리르 석였제

동이- 연화 아가씨 맘이 저레 간절한데 하늘도 무심하지는 않을끼야 그리고 우리 중에
혜염은 내가 쯤루 빠르자나

별이- 그렇키는 하지만 서도 걱정이 돼서

동이- 걱정 마 여적지 우릴 돌봐준 아가씨한테 이렇게라도 은혜르 갚는다면 뭐이 바랄
게 있나

달이- 난도 같이 갈래

동이- 앓되 니는 별이하고 연못도 지키고 아가씨도 지켜야지

달이- 흑흑 알았싸 꼭 돌아와야 해 지들리고 있으께

동이가 연화 앞에 나가 편지 받는다 (편지는 동이 왼쪽에 자석을 이용하여 붙인다)

연화- 어머야 니 동이가 아니나 고맙다야 이 편지를 우리 공자님한테더거 꼭 좀 전해
줘

삼월- 어머야라 자가 아가씨 말이 뭘 말인지 알아듣고 가는기나 아니른 지 먹인 줄 알
고 물고 가나 그것 참 알긋하네야 어어(둘러보며) 발써 지냇 때가 다 뻘네 아가
씨요 얼른 가요 야

효과음-다다다당(삼월 퇴장할 때까지)

연화, 삼월 상수로 퇴장

달이- 동이야 잘 땡게 와

별이- 몸조심 해

동이- 응 알았싸 걱정마

암전(바람 소리) - 달이, 별이 퇴장, 천 떨어뜨린다

조명- 블랙 조명과 일반 조명 모두 켜다.

동이가 움직이며 빠른 음악으로 상황 전개

바람소리 -- 휘모리

효과음(휘모리에서 야월삼경으로 넘김음)

야월삼경로 바로 연결

연화 등불을 들고 하수서 나오며

연화(시)

달은 야단시럽게 밝은데

우리님은 온다한 기 운제 적이나

밤은 알뜰시럽게 지들리지도 않고 새는데 님 소식은 당채 엄네

있과구를 흔드는 바람결에 님 생각이 지절로 나고

숯김땀이같이 타는 가슴 내 혼자 눈물짓고

내 낭군 지달리다 토깽이마냥 뜯눈으로 지세우네

(등불 들고 거닐며 시를 읊는다.)

연화 상수로 등장하여 하수로 퇴장하면 무월 모 상, 무월 하수로 등장

무월모 - 아들이 이제 오느냐 내 너를 기다렸다

무월- 아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월모- 아침나절에 사 온 잉어말이다 참~곶게도 생긴 물고기다 하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무월- 그 잉어가 뭐 잘못 댔습니까 요즘 어머님께서 통 식사도 못하시고 기운도 없으신 것 같아 사온 건데요

무월모- 그래 그런데 그 잉어 배속에서 이상한 것이 나왔는데 네 이름도 보이고 말이다. 이것좀 보거라

무월- 이상한 것이뇨?

효과음 (라솔미)

무월- 아니 이 편지가 제가 사온 잉어 배속에서 나왔단 말씀입니까?

무월모- 그래 그렇단다

무월- 아니 세상에

무월모-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나

무월- 어머님 사실 명주땅에 공부하러 갔을 때 연화라는 아가씨를 만나 공부를 마친 후 혼인을 약조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남자의 부모님들께서 혼처를 정하고 날짜까지 정했다 합니다

무월모- 그런 일이 있었더냐

무월- 남아일언 중천금이라 어찌 백년간약의 약조를 가벼이 여기겠습니까 여기 일은 잠시 접고 명주에 다녀와야겠습시다

무월모- 그래 그러거라 그런데 저 물고기가 어찌 편지를 물고 왔을꼬 참으로 신기하구나

무월- 그것은 다녀와서 말씀드리겠습시다

무월모- 조심히 다녀오너라.

음악 - 휘모리

#4: 재회

연화- 삼월아 서라벌선 뭘 소식이 엄드나 아무래두 편지가 전해지지 안언 기다야

삼월- 아이구 우리 아가씨 애간장이 다 녹네

연화모- (하수에서 등장) 연화야 지금 뭐르 하고 있나 오늘이 혼인날인데 서둘르지 않고

연화- 어명이요

연화모- 안색이 왜 이땃하나 삼월아 뭘 일이나

삼월 - 지는요 유구무언이래요 입만 있지 절대로 열 수는 음네요 지도요 속이 답답해 죽을 지경이래요

연화모- 뭐이라구 할 수 엄찌 바쁘니 그거는 낭중에 하고 일단은 얼른 준비르 해야지

음악 - 바람 소리+말 발소리

무월- 멈추시오 멈추시오

삼월- 어머야라 이기 누구 목소리재 공간지 땡잔지 하는 그 낭반 목소리가 아니나

삼월의 말소리 중간 부분에 무월랑 하수에서 등장

연화- 어데 어데

무월- 헉 헉 헉 연화 내가 돌아왔소 이리 늦게 돌아와 미안하오

연화- 공자님

삼월- 아이구 공자님이요 우터 이레 늦게 왔소야 우리 아가씨 목이 아무래도 열댓자는 늘어졌을 끼래요

무월 - 연화 미안하오

엄마 - 아니 연화야 이게 뭐 일이나 아버님을 불러야 겠다 대감요 대감요 (길게 부른다)

아비- 아니 이 바쁜 날에 왜 이러 소란시롭나

무월- 죄송합니다 저는 서라벌서 온 김가로 그 옛날 낭자에게 입신양명 후 혼인을 약조하고 다시 돌아오마 하였는데 나랏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 오늘에야 이르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님께 드릴 잉어를 한 마리 샀는데 그 배속에서 연화낭자의 급한 소식이 들어있어 만사를 재쳐 두고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부디 저희들의 인연이 가뻐다 마시고 오늘의 혼인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비- 허허 잉어 배속에서... 펜지가... 참말로 요상한 일이네야 연화야 자초지정의 한번 말해 보라

연화- 아버님은 혼인날으 받았다고 하시지 공자님은 연락이 엄찌 지 맘이 하도 급박해서 보해더거 펜지를 써서 제가 먹이를 주던 잉어한테 공자님께 전해달라고 부탁으 한 일이 있쎄요

삼월- 아가씨가 그동안 속앓이를 엄청나게 했쎄요

무월- 저의 모친께서도 많이 놀라고 계십니다

엄마- 대감 아무래도 이 아들의 맘이 하늘에 닿은 게 분명하네요

아비- 음 그래

엄마- 연화야 니는 속이 터지도록 우터 그러 입으 꼭 다물고 있었나 내 한테더거는 말으 했어야지

연화- 죄송해요 공자님 사정이 우터 됐는지도 모르고 해서

무월- 낭자를 탓하지 말아 주십시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아비- 알겠네 그 동안에 사정의 들어보니 이것은 하늘의 인연이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하네야...그리고 후대에 전해질만한 일이야.....내 곰곰 생각하여 결정으 했다. 죽은 잉어도 기리고 하늘의 뜻을 받들어 잉어들이 사는 못가에 정자를 짓고 무월랑의 이름에서 월자를, 우리 연화의 이름에서 화자를 붙여 월화정이라 이름을 지어 길이 길이 후대에 알리겠느니라

연화, 무월- 감사합니다 아버님.

삼월- 하하하 우리 아가씨 그러 신근하게 잉어들한테 밥으 먹이더니 가들이 은혜를 갚았나 봐요 그런데 우리 아가씨 인제서야 얼굴에 화색이 돈다야 아가씨요 그래 좋아요 야

연화- 삼월아

삼월- 동네 사람들 우리 아가씨 진짜루 시집가요 명주 땅에 경사가 났잖소 경사가 났어

가야금 - 맺음 음악 (효과음)

#5: 영원한 사랑

가야금 맺음음악에 이어 굿거리 시작

가시버시 사랑

햇덩이 같이만 살아라 환하게 환하게
달덩이 같이만 살아라 둥글게 둥글게
화촉동방 밝은 불에 깨가 쏟아지도록
연지곤지에 별이 앉아 꽃냄새가 나도록

굿거리

영원한 사랑